

국
역

저자 김조준
김사형
권중화
한상경
국역 노성완 · 황재운
해제 이연희

新編集成
馬醫方

新編牛醫方



비매품

95510



9 788959 703111
978-89-5970-311-1 (EPUB3)
978-89-5970-312-8 (PDF)
978-89-5970-313-5 (MOBI)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신편집성 마의방 新編集成馬醫方	1.1
신편집성 마의방 서 新編集成馬醫方序	1.1.1
점통론 點痛論	1.1.2
강아에 대하여 薑芽論	1.1.3
혼정충에 대하여 混睛蟲論	1.1.4
호골파과에 대하여 胡骨把膀論	1.1.5
입 속을 색을 관찰함을 논함 察口色論	1.1.6
18가지 큰 병 十八大病	1.1.7
가마를 살피는 노래 相毛旋歌	1.1.8
오래 사는 말과 일찍 죽는 말 壽夭	1.1.9
말의 피를 뿜는 방법 放血法	1.1.10
민첩한 말을 살펴 보는 방법 相馬捷法	1.1.11
말을 기르는 방법 養馬法	1.1.12
숫말들이 싸우지 않게 기르는 방법 飼父馬令不鬪之法	1.1.13
전투용 말을 강하고 튼튼하게 기르는 방법 飼征馬令硬實之法	1.1.14
우리나라에서 말을 기르는 경험방 又東人經驗牧養法	1.1.15
오로 五勞	1.1.16
칠상 七傷	1.1.17

34가지 말의 병증에 관한 그림과 약 三十四馬病狀圖并藥	1.1.18
전결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一前結起臥病源歌	1.1.18.1
후결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二後結起臥病源歌	1.1.18.2
열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三熱痛起臥病源歌	1.1.18.3
냉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四冷痛起臥病源歌	1.1.18.4
소장결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五小腸結起臥病源歌	
수곡병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六水穀并起臥病源歌	1.1.18.5
	1.1.18.6
나격손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七羅隔損起臥病源歌	
마장황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八馬腸黃起臥病源歌	1.1.18.7
	1.1.18.8
흑한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九黑汗起臥病源歌	1.1.18.9
비기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十脾氣起臥病源歌	1.1.18.10
심황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十一心黃起臥病源歌	1.1.18.11
신황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十二腎黃起臥病源歌	
기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十三氣痛起臥病源歌	1.1.18.12
	1.1.18.13
뇌황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十四腦黃起臥病源歌	
포전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十五胞轉起臥病源歌	1.1.18.14
	1.1.18.15
초열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十六草噎起臥病源歌	
내신손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十七內腎損起臥病源歌	1.1.18.16
	1.1.18.17
장단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十八腸斷起臥病源歌	

장입음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十九腸入陰起臥病 源歌	1.1.18.18 1.1.18.19
대두결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二十大肚結起臥病源歌	
육단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二十一肉斷起臥病源 歌	1.1.18.20 1.1.18.21
수략간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二十二水掠肝起臥病源歌	
나격상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二十三羅膈傷起臥 病源歌	1.1.18.22 1.1.18.23
판장분부전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二十四板腸糞不轉病源歌	
수열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二十五水噎起臥病源 歌	1.1.18.24 1.1.18.25
육별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二十六肉鼈起臥病源歌	
비충교심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二十七蜱蟲咬起 臥病源歌	1.1.18.26 1.1.18.27
축저오찬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二十八蹙著五攢痛起臥 病源歌	1.1.18.28
폐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二十九肺痛起臥病源歌	
대두상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三十大肚傷起臥病 源歌	1.1.18.29 1.1.18.30
심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三十一心痛起臥病源歌	
신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三十二腎痛起臥病源 歌	1.1.18.31 1.1.18.32
꺽수상장위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三十三喫水傷腸胃起臥 病源歌	1.1.18.33
증결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三十四中結起臥病源歌	

말이 병을 앓고 있는 병의 맥을 진단함 診候馬病脈	1.1.19 1.1.18.34
말의 뼈 이름을 나타낸 그림 骨名之圖	1.1.20
말의 혈자리 명칭을 나타낸 그림 穴名之圖	1.1.21
혈기일 血忌日	1.1.22
말의 침을 놓아서는 안 되는 본명일 馬本命月	1.1.23
육양도(六陽圖)와 육음도(六陰圖) 六陽六陰圖	1.1.24
오장[각각 병증과 치료법을 부기] 五臟[各附病證治]	1.1.25
폐에 관하여 肺論	1.1.25.1
심에 관하여 心論	1.1.25.2
간에 관하여 肝論	1.1.25.3
비에 관하여 脾論	1.1.25.4
신에 관하여 腎論	1.1.25.5
풍문 風門	1.1.26
오장의 병증으로 땀이나는 것을 노래함 五臟汗歌	1.1.27
오장황 五臟黃	1.1.28
제황문 諸黃門	1.1.29
제창문 諸賰門	1.1.30
골안문 骨眼門	1.1.31
제열문 諸熱門	1.1.32
온역문 溫疫門	1.1.33
비상문 鼻門	1.1.34
제창문 諸瘡門	1.1.35
제창문 - 부록 : 구설창 喉腫門 付口舌瘡	1.1.36

타파창 打破瘡	1.1.37
소제문 瘰蹄門	1.1.38
개창문 济瘡門	1.1.39
잡병문 雜病門	1.1.40
신편 우의방 新編牛醫方	1.2
신편 우의방 서 新編牛醫方序	1.2.1
소를 살피는 법 相牛法	1.2.2
헛간을 만들 때 길한 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選擇造牛廠吉地論	
소를 키울 때 꺼려야 하는 여러가지 사항에 관하여 養牛雜忌論	1.2.3
헛간을 개조할 때 이롭고 편한 시간에 대하여 蓋造牛廠利便年月日論	1.2.4
소의 형상 및 털색을 보는 법에 대하여 相牛形狀及毛色論	1.2.5
온역문 溫疫門	1.2.6
안병문 眼病門	1.2.7
비병문 鼻病門	1.2.8
구설병문 口舌病門	1.2.9
인후병문 咽喉病門	1.2.10
심병문 心病門	1.2.11
폐병문 肺病門	1.2.12
해수문 咳嗽門	1.2.13
창병문 脹病門	1.2.14
분혈문 - 부록 : 설사 粪血門 附瀉痢	1.2.15
요혈문 尿血門	1.2.16
증악문 - 부록 : 중서 中惡門 附中暑	1.2.17
	1.2.18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1.1. 新編集成馬醫方 | 신편집성 마의방

1.1.1. 新編集成馬醫方序 | 신편집성 마의방서

馬之於天地間, 其用大矣. 周禮不掌於獸人目, 夏官大司馬以總焉, 重其用也. 蓋國之大事戎政也. 戎非馬無以制敵·挫變·奮武威而安邦國也. 豈徒曰任重致遠, 置郵傳命而已哉! 是以甲天下曰萬乘; 貳天下曰千乘, 乘乘馬也. 天下國家之大小強弱, 皆以是第之, 其重也, 為何如. 駿服廢矣, 自上達下, 直便於鞍馬之歸, 其有功於天下也, 尤為重. 夫良駿之蹄, 世所同欲, 戎武之備, 國不可弛, 人之求之也, 飢渴不足喻也. 噎! 亦血氣耳, 或勞逸之, 不中其體, 或水草之, 不適其宜, 一有病萌, 遂委於無知賤隸之手, 其愈也, 幸耳非其巧也. 便稱之曰獸醫, 彼不知經孫絡, 敢望其明齧穴, 審藥性, 以適其病也耶. 嘴呼! 誣針妄藥, 幾喪奇毛, 非徒害命, 抑亦傷財. 古人譏其不智, 有曰如庸醫之治良馬, 信乎其不智且不仁也. 左政丞平壤伯趙公浚, 右政丞上洛伯金公士衡, 體上至仁, 當醫國壽民之餘, 推廣是心, 以及於物, 乃與醴泉伯權公仲和, 西原君韓公尙敬等撰集馬方¹. 於是經以伯樂之經, 緯以元朝之訣, 摄諸書可效之方, 探東人已試之術, 以成是編, 鏤梓周流, 樂與三韓, 廣開耳目. 執幾隨病得方, 因方下手, 使有性無言之類, 獲免札瘥, 以保其生, 費錢豢養之家, 不失其利, 以期其用. 始于一時, 終之百世, 豈不萬萬有利於大東家國也哉. 子孟氏云: “仁民而愛物.” 於我公幸親見之.

말은 천지(天地)간에 그 쓰임이 크다. 《주례》에는 수인(獸人)²이 관장하는 항목이 아니라, 하관(夏官)³ 대사마(大司馬)가 총괄한다 했으니 그 쓰임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국가의 대사(大事)⁴는 전쟁 군사(軍事)이다. 전쟁은 말이 없으면 적들을 제압하고, 변란을 진압하고, 무위(武威)를 떨쳐 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 없으니, 어찌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며, 역마로 명을 전하는 용도일 뿐이겠는가? 이 때문에 천하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만승(萬乘)을 지닌 나라이고, 두 번째가 천승(千乘)을 지닌 나라이니, 승(乘)은 전차를 끄는 말이다. 천하의 크거나 작거나, 강하거나 약한 나라들은 모두 이것으로 서열을 세우니 그 중요함이란 어떻겠는가. 참복(驥服)⁵이 폐지되어 위로부터 아래까지 바로 타

기 편한 안마(鞍馬)⁶로 돌아갔으니, 천하에 공이 있음은 더욱 중하게 되었다. 잘 달리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바이고, 전투용 말을 갖추는 일은 국가 차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니,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는 것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음식과 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도 더 심함이 있다. 아아!! 말 또한 혈(血)과 기(氣)를 지닌 것들이라 지나치게 혹사하거나 지나치게 놀리거나, 물과 풀이 알맞지 않아 병이 생겨나게 되면 급기야 무지하고 천한 하급 관리의 손에 맡겨지게 되니, 병이 낫는 것은 행운일 뿐 치료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문득 수의(獸醫)라고 칭하니, 저들이 경락(經絡)과 손락(孫絡)도 알지 못하는데 감히 수혈(齧穴, 혈도(血道))을 밝히고, 약성을 살펴 적절하게 병을 치료하기를 바라겠는가.? 아아!! 멋대로 침을 쓰고 함부로 약을 써서 뛰어난 짐승을 잃게 되니 한갓 생명만 해치는게 아니라 재산도 없어지게 될 것이리라. 옛 사람들은 그 부지(不智)함을 놀리며 말하기를 ‘만약 솜씨없는 의원이 좋은 말을 치료하면 참으로 부지(不智)하고 불인(不仁)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좌정승 평양백(左政丞平壤伯) 조준(趙浚, 1346~1405)과 우정승 상락백(右政丞上洛伯) 김사형(金士衡, 1341~1407)은 주상의 지극한 인함을 본받아, 나라의 병폐를 치료하고 백성의 삶을 풍족케 하려는 나머지 이 마음을 미루고 확충하여 사물에까지 미쳤으니, 이에 예천백(醴泉伯) 권중화(權仲和, 1322~1408), 서원군(西原君) 한상경(韓尙敬, 1360~1423) 등과 함께 말의 처방¹을 모아 편찬하였다. 이에 백락(伯樂)⁷의 경서(經書)를 날줄로 삼고, 원나라{元朝}의 비결(秘訣)을 씨줄로 삼아 여러 책의 효과가 있을만한 처방을 모으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험된 치료법을 찾아 이 책을 만들어 인쇄하여 두루 퍼뜨리니 온 나라와 더불어 즐겨서 이목(耳目)을 넓히고자 함이다. 병을 따라 처방을 얻고, 이 처방으로 손을 써서 감정은 지니되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들로 하여금 재앙을 면하게 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돈을 들여 짐승을 기르는 집안에서는 이익을 잃지 않아 그 쓰임을 기약할 것이리라. 시작은 한 때이지만 결국 백세에 미칠 것이니 어찌 우리나라{大東家國}에 영원도록 이롭지 않겠는가! 맹자가 말하기 “백성을 어질게 하고 사물을 사랑하라”고 하였으니 우리 공에게서 이것을 직접 보았노라.

建文元年, 蒼龍己⁸卯, 仲呂既望, 奉列大夫典醫少監知濟生院事南陽房士良, 序.

건문원년 창룡 기묘(1399) 음력 4월 16일{仲呂既望} 봉렬대부(奉列大夫典醫少監) 전의 소감(典醫少監) 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 남양(南陽) 방사량(房士良) 서.

1. 馬方 :《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校釋》에서는 문의(文意)에 따라 ‘醫’를 보충하여 ‘馬醫方’으로 되어 있다. ↵

2. 수인(獸人) : 수인(수獸人)은 짐승을 포획하는 일을 총관하는 관직으로,《주례(周禮)》「천관총재(天官冢宰)」에 수인의 직책이 들어 있다. 목(目)은 대항(大項)을 다시 나눈 것을 말한다. ↵

3. 하관(夏官) :《주례(周禮)》에서 전국의 관직을 크게 6부분으로 나눈 것의 하나이다. 그 여섯 개는 각각 천관(天官).지관(地管).춘관(春官).하관(夏官).추관(秋官).동관(冬官)으로, 이 중에서 천관과 지관은 국가의 대정(大政) 및 전국의 토지와 백성을 총관하고, 나머지 네 개는 각각 춘생(春生).하장(夏長).추수(秋收).동장(冬臧)을 담당한다. ↵

4. 대사(大事) : 통상 국가의 두 가지 대사는 ‘전쟁’과 ‘제사’를 말한다. ↵

5. 참복(驂服) : 고대의 병거(兵車)는 네 마리의 말이 끌었는데, 이 중에 가운데 2마리의 말을 복(服)이라 하고, 양 바깥의 두 마리의 말을 참(驂)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참복(驂服)은 이 당시의 말 네마리가 끄는 전차(戰車)를 가리킨다.
↵

6. 안마(鞍馬) : 안장을 얹은 말. ↵

7. 백락(伯樂) : 춘추시대(春秋時代) 때의 사람으로, 이름은 손양(孫陽)이다. 말을 잘 보고 짐승의 병을 잘 치료하였으며, 진(秦) 목공(穆公)때에는 백락장군(伯樂將軍)에 봉해졌다. ↵

8. 己 : 원본(元本)에는 ‘己’로 되어 있으나,《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校釋》이
문의(文意)에 근거하여 ‘己’로 고친 것을 따랐다. ↵

1.1.2. 點痛論¹ | 점통론

仰頭點膊尖痛. 平頭點下攔²痛. 偏頭點乘重痛. 低頭點天臼痛. 難移前脚搶風痛. 蹄尖着地掌骨痛. 翻地點腳攢筋痛. 虛行不地漏蹄痛. 垂蹄點蹄尖痛. 懸蹄點蹄心痛. 直腿行膝上痛. 曲腿行節上痛. 胃頭點腳搶風頭痛. 仰頭不動蹄頭痛. 下坡斜走胸膈痛. 平道竊道蹄薄痛. 向裏蹉外跟痛. 向外蹉裏跟痛. 點頭行腳上痛. 擺頭行膊上痛. 拖腳行雁翅掠草痛. 沦腳行燕子瓦骨痛. 簡腳行鵝鼻曲尺痛. 束腳行肺把五攢痛. 幷腳行胯骨痛. 直腳行濕氣痛. 蹲腰行雁翅痛. 弔腰行脊筋痛. 收腰不起內腎痛. 難移後腳腎經痛. 咬齒低頭心經痛. 喘息不調肺經痛. 急起急臥脾經痛. 口吐清涎膽經痛. 跑胸咬臆腸結痛. 蹲腰踏地跑³轉痛. 把前把後傳經痛. 腸鳴泄瀉冷氣痛. 直尾行大腸痛. 捲尾行小腸痛. 小便淋瀝胞經痛. 一臥不起筋骨痛.

머리를 쳐드는 것(點)은 박첨(膊尖)⁴이 아픈 것이다. 머리를 평평하게 하는 것은 하난(下攔)이 아픈 것이다. 머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있는 것은 승중(乘重)⁵이 아픈 것이다. 머리를 숙인 것은 천구(天臼)가 아픈 것이다. 앞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창풍(搶風)이 아픈 것이다. 발굽끝을 땅에 붙이고 있는 것은 장골(掌骨)이 아픈 것이다. 느닷없이 뛰어 오르는 것은 각찬근(脚攢筋)이 아픈 것이다. 헛발질을 하며 땅을 딛지 못하는 것은 누제(漏蹄)가 아픈 것이다. 발굽을 늘어뜨리고 있는 점은 제첨(蹄尖)이 아픈 것이다. 발굽을 위로 들고 있는 것은 제심(蹄心)이 아픈 것이다. 뒷다리를 곧게하여 걷는 것은 슬상(膝上)이 아픈 것이다. 뒷다리를 구부리고 걷는 것은 절상(節上)이 아픈 것이다. 위두(胃頭)는 각창풍(脚搶風)으로 머리가 아픈 것이다. 머리를 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제두(蹄頭)가 아픈 것이다. 내리막에서 비둘게 가는 것은 흉격이 아픈 것이다. 평지에서 살금살금 걷는 것은 굽이 얇아 아픈 것이다. 안쪽으로 넘어지는 것은 바깥축이 아픈 것이다. 바깥쪽으로 넘어지는 것은 안축이 아픈 것이다. 머리를 찍으며 걷는 것은 다리가 아픈 것이다. 머리를 흔들며 걷는 것은 어깨가 아픈 것이다. 다리가 아픈 것은 암시(雁翅)와 약초(掠草)가 아픈 것이다.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은 연자와골(燕子瓦骨)이 아픈 것이다. 다리를 오그리고 걷는 것은 아비(鵝鼻)의 곡척(曲尺)이 아픈 것이다. 다리를 좁게 하여 걷는 것은 폐파(肺把)와 오찬(五攢)으로 아픈 것이다. 다리를 나란히하여 걷는 것은 과골(胯骨)이 아픈 것이다. 다리를 뻣뻣하게 펴서 걷는 것은 습사(濕邪)가 침입하여 아픈 것이다. 허리를 웅크리고 걷는 것은 안시(雁翅)가 아픈 것이다. 허리를 늘어뜨리며 걷는 것은 척추의 힘줄(脊筋)이 아픈 것이다. 허리를 움츠리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신(內腎)이 아픈 것이다. 뒷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신경(腎經)이 아픈 것이다. 이를 갈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심경(心經)이 아픈 것이다. 숨을 헐떡이고 고르지 못한 것은 폐경(肺經)이 아픈 것이다. 급히 일어나고 급히 눕는 것은 비경(脾經)이 아픈 것이다. 퍼런 거품을 토하는 것은 담경(膽經)이 아픈 것이다. 가슴을 허비적거리며 가슴팍을 깨물려 하는 것은 장의 기운이 몰려서 아픈 것이다. 허리를 움츠리고 땅에 앓아 있는 것은 전포(轉胞)로 아픈 것이다. 앞뒤로 부비는 것은 경락으로 전해져 아픈 것이다. 배가 꾸륵꾸륵거리며 설사하는 것은 냉기(冷氣)가 침입하여 아픈 것이다. 꼬리를 뻣뻣하게 하여 다니는 것은 대장(大腸)이 아픈 것이다. 꼬리를 말고 다니는 것은 소장(小腸)이 아픈 것이다. 오줌을 찔끔찔끔 나오는 것은 포경(胞經)이 아픈 것이다. 일단 눕고 나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근골(筋骨)이 아픈 것이다.

四十五點有如斯標本, 心·肝·脾·肺·腎, 五行相克與相生. 飢飽·風寒·勞役甚·驅馳·飲喂失調, 犢損·閃傷·寒熱併. 嘴呼, 瘡瘍不能言, 醫者留心仔細認.

45가지의 아픈 유형은 이와 같은 표본이 있으며, 심(心)·간(肝)·비(脾)·폐(肺)·신(腎)은 오행(五行)의 상생상극(上生相克)에 따른다. 굶주림과 배부름, 바람과 추위, 심한 노역, 질주하는 것, 먹고 마심 등이 고르지 못하면 여위거나, 다리를 절거나, 한열이 아울러 들게 된다. 아아!! 말은 벙어리라 말을 못하나니 의원은 세심히 살펴서 알아두어야 한다.

1. 점통론(點痛論) : 어느 특정한 부위가 아픈 것에 대하여 논함. 곧 어떤 특징적인 병증에 수반되는 증상에 대한 논의를 말한다. 이 점통론(點痛論)을 위시하여, 강아론(薑芽論), 혼정충론(混睛蟲論), 호골파과론(胡骨把胯論), 찰구색론(察口色論), 18대병(十八大病) 등의 여섯 항목은 전주개간본(全州開刊本)인 이 책에만 들어 있고, 《신편집성방(新編集成方)》에는 들어 있지 않다.-《韓國馬醫學史》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신동원. ↵
2. 欄 : 문맥상으로 보아 ‘欄’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
3. 跑 : 《조선우마의방》에는 ‘胞’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4. 박첨(脇尖) : 박첨골(脇尖骨)을 말한다. 이 책의 골명지도(骨名之圖)에 나온다. ↵
5. 승중(乘重) : 승중혈(乘重穴)을 말한다. 이 책의 혈명지도(穴名之圖)에 나온다. ↵

1.1.3. 薑芽論 | 강아에 대하여

薑芽者燔氣攻心也, 皆因料後飲水太過. 水穀相併傷於脾胃, 胃火微弱, 陰氣生而傳入心經, 心傳於肺, 肺氣燔盛, 攻之於鼻. 鼻者肺之竅也, 氣血相凝, 積於準頭, 發生病骨, 有似生薑芽萌而發也. 令馬連連臥地鼻頭拱地. 治法, 割雙薑, 穴鍼三江穴, 徹蹄頭穴, 順氣散, 灌之¹. 調理不住騎走, 或溺或瀉通利矣.

강아(薑芽)는 번기(燔氣, 불로 지지는 듯 뜨거운 기운)가 심(心)을 공격하는 것인데, 모두 사료를 먹은 뒤 물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 수곡이 서로 뒤섞여 비위를 상하게 하여 위화(胃火)가 미약해져 음기가 발생하여 심경(心經)으로 들어갔다가 심에서 폐로 전해져 폐기가 심하게 달구어지면 코를 공격한다. 코는 폐의 구멍으로, 기혈이 서로 엉겨 콧마루에 쌓이면 뼈에 병이 발생하는데, 생강의 짙과 유사한 것이 생겨난다. 이 때문에 말이 계속해서 누워서 코를 땅에 대고 있게 된다. 치료법은 쌍강(雙薑)을 잘라서 삼강혈(三江穴)에 침을 놓아 제두혈(蹄頭穴)을 통하게 한 다음 순기산(順氣散)을 먹인다. 조리할 때는 멈추지 말고 계속 타고 달려 오줌이나 설사가 잘 나오게 한다.

1.1.3.1 順氣散 | 순기산

陳橘皮·青橘皮·檳榔·厚朴·桂心·細辛·當歸·茴香·白芷·木通·砂仁·甘草.

진귤피·청귤피·빈랑·후박·계심·세신·당귀·회향·백지·목통·사인·감초.

右件爲末, 每服二兩, 飛鹽三錢, 細切葱三枝, 苦酒一升, 同煎三沸, 溫灌.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어 매번 2돈씩 먹이고, 고운소금 3돈, 파(잘게 썬 것) 3줄기, 식초 1되를 함께 달여 세 번 정도 끓어오르면 따뜻하게 하여 먹인다.

¹. 灌之 : 말의 입을 벌리고 흘려 넣어주는 것이나 편의상 ‘먹인다’고 하였다.



1.1.4. 混睛蟲論 | 흔정충에 대하여

混睛蟲者，疫氣化生也，皆因三秋月，令瘴疫遍發之之期，新駒幼馬，五更放於郊。其郊中棘刺，刺中蛛網，網中露水，誤入其目，感天地之霧氣，受蜘蛛之精水，陰陽交混，變化而成蟲矣。在於五輪之內，往來不住遊走，令馬睛生翳膜黑白不分。凡治，白睛近下，黑睛近上，兩兼中心是開天穴，醫家用線纏定白，鍼尖一分。左手睜開馬眼，右手持鍼於開天穴上，輕手急鍼一分，蟲隨水出，便見其工。

흔정충(混睛蟲, 눈을 흐리게 하는 벌레)은 전염병의 나쁜 기운이 변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모두 가을의 석달에 장역(瘴疫)이 두루 발생하였을 시기에 새로 태어난 어린 망아지를 이른새벽에 교외에 풀어놓았기 때문이다. 교외에 있는 가시나무의 가시에 서린 거미줄에 맷힌 이슬이 잘못하여 망아지의 눈으로 들어가 천지의 안개기운에 감모되고 거미의 정수(精水)를 받아 음양이 뒤섞이고 변화하여 충(蟲)이 된 것이다. 오륜(五輪)¹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왕래하여 말의 눈동자에 예막이 생기고 흑백이 불분명해지게 한다. 치료법은 흰자 근처 아랫부분과 검은자 근처 윗부분의 양쪽 중심에 개천혈(開天穴)이 있는데, 의원은 실로 흰자를 고정한 다음 침을 1푼 정도 놓는다. 왼손으로는 말의 눈을 크게 열고, 오른손으로는 개천혈 부근에서 침을 잡은 다음 손에 힘을 빼고 빠르게 1푼 깊이 침을 놓으면 충이 진물을 따라 빠져나오고 곧 효과를 보게 된다.

¹. 오륜(五輪) : 눈을 5개 부위로 나눈 것을 말한다. 5륜은 육륜(肉輪). 혈륜(血輪). 기륜(氣輪). 풍륜(風輪). 수륜(水輪)을 말한다. 육륜은 아래위 눈꺼풀을 말하는데 비(脾)와 연결되어 있다. 혈륜은 눈구석과 눈초리의 혈관이 있는 부위를 말하는데 심(心)과 연결되어 있다. 기륜은 백정을 말하는데 폐(肺)와 연결되어 있다. 풍륜을 흑정을 말하는데 간(肝)과 연결되어 있다. 수륜은 눈동자를 말하는데 신(腎)과 연결되어 있다. ←

1.1.5. 胡骨把膀論 | 호골파과에 대하여

胡骨把膀者, 一名脹腿風也, 皆因傷肥肉重. 多餵小騎, 穀料熱毒聚於臟內, 瘰痰壅血, 積滿胸中, 三焦壅, 極熱盛而生風也. 令馬左癱右瘓, 四足拳攀, 臥地不起, 氣促喘麤, 此謂風癱之證也. 其疾勢大者, 無方治之, 疾勢小者, 麒麟竭散, 灌之.

호골파과(胡骨把膀)는 외퇴풍(脹腿風)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지나치게 살이 쪄서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사료를 많이 먹이고 타는 것은 적게하여 사료의 열독이 장부 내부에 모이고, 담이 막히고 혈이 맷혀서 가슴 속에 가득 쌓여 삼초(三焦)가 막히고 극심한 열이 왕성하여 풍이 생긴 것이다. 말이 좌탄(左癱)¹과 우탄(右瘓)에 걸려 네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땅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며, 숨이 차고 거칠어지는데, 이것을 풍탄(風癱)의 증상이라 한다. 병세가 심하면 치료할 방도가 없고, 병세가 심하지 않으면 기린갈산(麒麟竭散)을 먹인다.

1.1.5.1. 麒麟竭散 | 기린갈산

沒藥·當歸·白朮·木通·茴香·巴戟·麒麟竭·蒿本·牽牛·胡蘆巴·破故紙·川練子.

몰약·당귀·백출·목통·회향·파극·기린갈·고본·견우자·호로파·파고지·천련자

已上各等分, 爲末, 每服一兩, 苦酒一盞, 同煎三沸, 溫灌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매번 1냥씩 식초 1잔에 넣고 함께 달여 세 번정도 끓어오르면 따뜻하게 하여 먹인다.

¹. 좌탄(左癱) : 풍사(風邪)가 침입하여 몸의 일부분, 곧 왼쪽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

1.1.6. 察口色論 | 입 속을 색을 관찰함을 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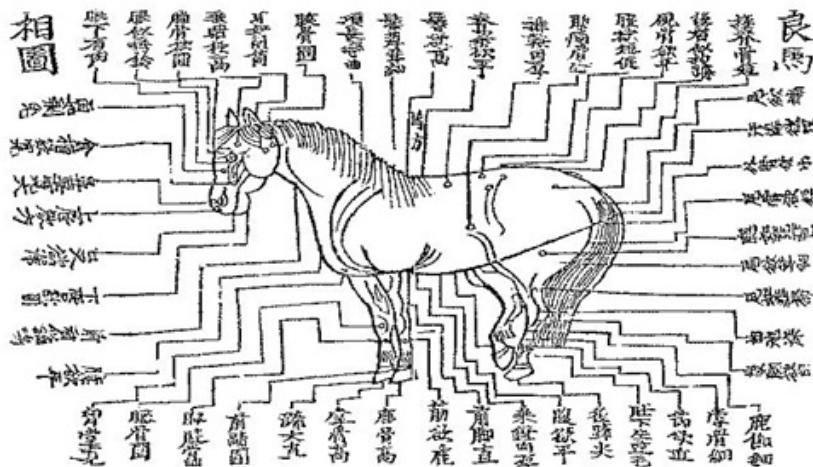
春者肝旺也, 甲乙當令, 凡口中之色, 鮮明光潤. 如桃者平, 白者病, 紅者和, 黃者生, 黑者色, 青者死(桃者桃花之色). 夏者心旺也, 丙丁當令, 凡口中之色, 鮮明光潤. 如蓮者平, 黑者病, 黃者和, 白者生, 赤者危, 紫者死(蓮者蓮花之色). 秋者肺旺也, 庚辛當令, 凡口中之色, 鮮明光潤. 如桃者平, 青者病, 黃者和, 紅者生, 白者危, 黑者死. 冬者腎旺也, 壬癸當令, 凡口中之色, 鮮明光潤. 如桃者平, 白者病, 紅者和, 黃者生, 青者危, 黑者死.

봄은 간목(肝木)이 왕성하며, 갑을(甲乙)에 해당하면 말은 입 속의 색이 선명하고 광택이 난다. 복승아꽃과 같은 색이면 평상시의 상태며, 흰색이면 병이 있고, 붉은 색이면 조화롭고, 누런색이면 살고, 검은 색이면 위태롭고, 푸른색이면 죽는다.(도(桃)는 복승아꽃 색이다.) 여름은 심화(心火)가 왕성해지고, 병정(丙丁)에 해당하면 말은 입 속의 색이 선명하고 광택이 난다. 연꽃과 같은 색이면 평하고, 검은 색이면 병이 있고, 누런색이면 조화롭고, 흰색이면 살고, 붉은 색이면 위태롭고, 자주색이면 죽는다.(연(蓮)은 연꽃 색이다.) 가을은 폐금(肺金)이 왕성해지고, 경신(庚辛)에 해당하면, 말은 입 속의 색이 선명하고 광택이 난다. 복승아꽃 같은 색이면 평하고, 푸른색이면 병이 있고, 누런색이면 조화롭고, 붉은색이면 살고, 흰색이면 위태롭고, 검은색이면 죽는다. 겨울은 신수(腎水)가 왕성해지고, 임계(壬癸)에 해당하면 말은 입 속의 색이 선명하고 광택이 난다. 복승아꽃 같은 색이면 평하고, 흰색이면 병이 있고, 붉은 색이면 조화롭고, 누런색이면 살고, 푸른색이면 위태롭고, 검은 색이면 죽는다.

1.1.7. 十八大病 | 18가지 큰 병

心肺壅極, 攻成抽腎；百脈閉塞, 欲作心黃；血瘀不通, 多成黑汗；風捉四肢, 入脊爲痼；胞轉不正, 腸必八陰；咳 喘急, 變成痞瘡；傷料過度, 變作腸黃；盛飢餓急, 多作後結；飽後失水, 遂成前結；曾吃沙石, 多患木腎；頻頻錯喉, 水穀自併；跑地覲腹, 腸中必痛；熱盛喘麤, 肝肺氣塞；傷肥肉重, 變作膿腿；胸膈熱毒, 顙中發瘡；久濕飲濁, 膀胱積水；臟冷氣虛, 腸鳴如雷；伏久積熱, 腦黃病起.

심폐(心肺)가 심하게 막히면 신(腎)이 튀어 오른다. 모든 맥이 막히면 심황(心黃, 황달)이 나타난다. 혈이 막혀 통하지 않으면 대부분 검은 땀이 난다. 풍사(風邪)가 사지에 침입해 척추로 들어가면 곱사등이{痼}가 된다. 방광이 뒤틀려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장은 반드시 팔음(八陰)이 된다. 딸꾹질을 하거나 혈떡거리면 자궁의 병으로 변한다. 상한 사료를 많이 먹으면 장황(腸黃)이 된다. 한창 굽주렸다가 갑자기 먹으면 대부분 변이 막힌다. 배불리 먹인 다음 물을 먹이지 않으면 결국 소변이 막하게 된다. 모래나 돌이 섞인 사료를 먹이면 대부분 목신(木腎)¹을 앓는다. 자주 토하면 설사가 난다. 땅을 허비고 배를 엿보면 장 속이 반드시 아픈 것이다. 열이 왕성하고 숨소리가 거칠면 간과 폐의 기운이 막힌 것이다. 비만으로 몸이 육중해지면 외퇴(膿腿)²로 변한다. 흉격에 열독(熱毒)이 있으면 이마 가운데에 헌데가 생긴다. 오랫동안 습한 곳에 있으면서 탁한 기운을 쏘이면 방광에 수기(水氣)가 쌓인다. 장이 차갑고 기가 허하면 장에서 천둥소리와 같이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열이 오랫동안 잠복하여 쌓이면 뇌황병(腦黃病)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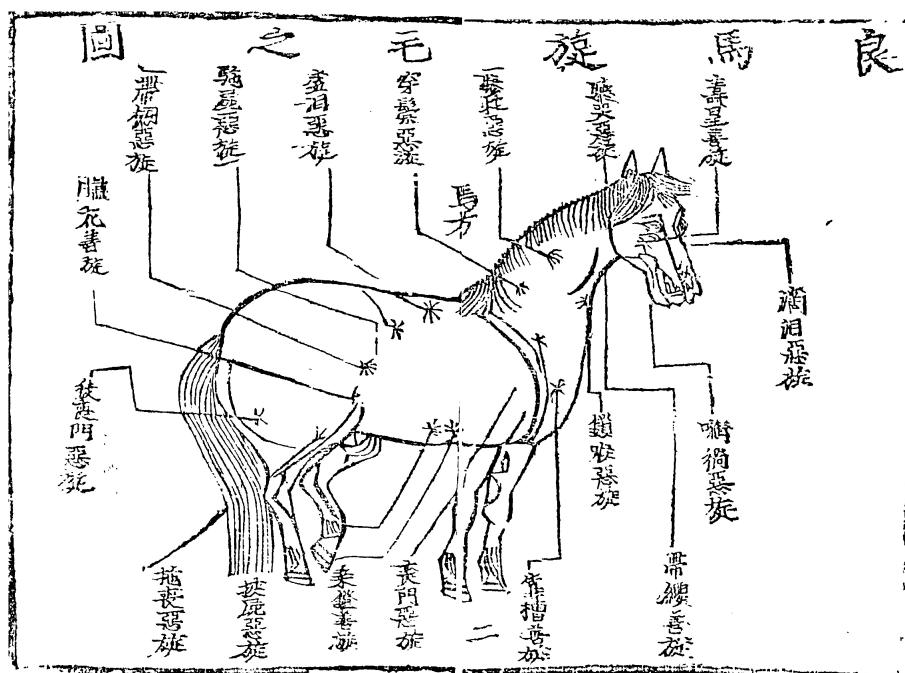


良馬相圖 좋은 말을 형상을 나타낸 그림

良馬相圖 眼下有肉 眼似垂鈴 腦骨欲圓 垂睛欲高 耳如削筒 胚骨圓 項長彎曲 鬚薄
 茸細 鬚欲高 脊梁欲平 排鞍肉厚 肋扇骨密 腰欲短促 硯骨欲平 後看似狗蹲 接脊骨
 短 尾欲端 汗溝欲深 外腎欲小 尾骨欲短 腿如琵琶 尾欲茸細 尾如垂掃 曲池深 後腳
 欲曲 鹿節細 掌骨細 節欲近 肚下生逆毛 後蹄尖 腹欲平 乘鎧肉厚 前腳直 筋欲麤
 鹿骨高 掌骨高 蹄大直 前蹄圓 腺脛骨細 膝骨圓 胸堂寬 臘欲平 前看似鶴鳴 下唇欲
 圓 口叉欲深 上唇欲方 鼻要寬大 食槽欲寬 面如剝兔.

좋은 말을 살피는 법: 눈 아래가 도톰하니 살이 있고, 눈은 방울이 드리운 듯 커야 하고, 미리뼈는 둥글어야 하고, 수정(垂睛)은 높아야 하며, 귀는 대통을 비스듬히 잘라낸 것 같아야 하고, 협골(頰骨)은 둥글어야 하며, 목은 길고 구부려져야 하며, 갈기는 옅고 가늘어야 하며, 기(鬚)은 높아야 하며, 척량(脊梁)은 평평해야 하고, 배안(排鞍)은 살이 두툼해야 하고, 늑선골은 빽빽해야 하며, 허리는 짧아야 하며, 연골(硯骨)은 평평해야 하고, 뒤를 보면 개가 쭈그려 앉은 모습이어야 하고, 접척골(接脊骨)은 짧아야 하며, 꼬리는 단정해야 하고, 땀구멍은 깊어야 하며, 생식기는 작아야 하고, 꼬리뼈는 짧아야 하며, 뒷다리는 비파

모양이어야 하고, 꼬리는 가늘어야 하며, 꼬리는 빗자루를 걸어 놓은 듯 해야 하고, 곡지(曲池)는 깊어야 하고, 뒷다리는 굽어야 하고, 녹절(鹿節)은 가늘어야 하고, 장골(掌骨)은 가늘어야 하며, 절(節)은 가까워야 하고, 배 아래에 역모(逆毛)가 나 있어야 하고, 뒷발굽은 뾰족하고, 배는 평평하고, 승등(乘鐙)은 살이 두툼해야 하며, 앞다리는 곧고, 힘줄은 두꺼워야 하고, 녹골(鹿骨)은 높아야 하고, 장골은 높고, 발굽은 크고 곧아야 하며, 앞발굽은 둥글고, 정강이뼈는 가늘고, 무릎뼈는 둥글고, 흉당(胸堂)은 넓고, 가슴은 평평하고, 앞에서 보면 닦이 우는 모양 같이 보이고, 아랫입술은 둥글어야 하고, 입아귀는 깊어야 하고, 윗입술은 네모져야 하고, 코는 넓고 크야 하며 식조(食槽)는 넓어야 하고, 얼굴은 가죽을 벗긴 토끼모양이어야 한다.



良馬旋毛之圖 好马旋毛之图 좋은 말의 가마를 나타낸 그림

良馬旋毛之圖 壽星善旋 聽哭惡旋 騰蛇³惡旋 穿鬚惡旋 盛淚惡旋 駝屍惡旋 帶劍惡
旋 嫌花善旋 喪門惡旋 拖喪惡旋 挾屍惡旋 乘燈善旋 喪門惡旋 靠槽善旋 鎖喉惡旋
帶纓善旋 啼禍惡旋 滴淚惡旋.

좋은 말의 가마 살피는 그림: 수성(壽星)은 좋은 가마이며, 청곡(聽哭)은 나쁜 가마이고, 등사(騰蛇)는 나쁜 가마이고, 천종(穿鬚)은 나쁜 가마이며, 성루(盛淚)는 나쁜 가마이고, 타시(駝屍)는 나쁜 가마이며, 대검(帶劍)은 나쁜 가마이고, 겹화(嫌花)는 좋은 가마이고, 상문(喪門)은 나쁜 가마고, 타상(拖喪)은 나쁜 가마고, 협시(挟屍)는 나쁜 가마이고, 승등(乘燈)은 좋은 가마이고, 상문(喪門)은 나쁜 가마이고, 고조(靠槽)는 좋은 가마이고, 쇄후(鎖喉)는 나쁜 가마이고, 대연(帶纓)은 좋은 가마이고, 함화(啼禍)는 나쁜 가마이고, 적루(滴淚)는 나쁜 가마이다.

1. 목신(木腎) : 고환이 단단해지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몹시 부으면서 아픈 병 증을 말한다. ↵

2. 외퇴(脹腿) : 사람의 중풍 증상과 같이 갑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다 가 깨어나면 입이 틀어지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며 관절과 허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해지는 병증을 말한다. ↵

3. 謐蛇 : 《조선우마의방(朝鮮牛馬醫方)》에는 ‘膳蛇’로 되어 있다. ↵

1.1.8. 相毛旋歌 | 가마{毛旋}를 살피는 노래

項上如生旋¹, 有之不用誇, 還緣不利長, 所以號騰蛇.

목덜미에 가마처럼 생긴 텁이 나는 것은 자랑거리가 못되고, 도리어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등사(騰蛇)²라 불리우는구나!

後有喪門旋, 前兼有挾尸, 勸君不用畜, 無事也須疑.

둔부쪽에 상문선(喪門旋)³이 있고, 앞에 협시선(挾尸旋)⁴까지 있으면 그대는 부디 기르지 말며,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역시 의심해봐야 할지라!

牛額兼銜禍, 非常害處⁵多, 古人如是說, 此事不虛歌.

소 같이 생긴 이마에 함화선(銜禍旋)⁶까지 있으면 비상한 해로움이 많이 생기니, 옛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이 일은 헛된 노래가 아니로다!

帶劍渾閑事, 喪門不可當, 的顱如入口, 有禍也須防.

대검선(帶劍旋)이 있으면 모두 좋은 일이 아니며, 상문선(喪門旋)이 있으면 화를 감당치 못하고, 적로(的顱)⁷가 입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은 화를 입을 것이니 예방할지로다!

黑色耳全白, 從來號虎頭, 假饒千里足, 奉勸不須留.

말이 검은 색에 귀가 온통 희면 종래로 호두(虎頭, 호랑이 대가리)라 불렸으니, 만약 천리를 가는 준마라도 머무르게 하지 말 것을 권하노라!

背上毛生旋, 驢驃亦有之, 只惟鞍⁸下, 此者是駝尸.

등 위에 가마가 있는 것은 노새나 나귀도 있지만 안장을 놓는 자리의 아래에 있으면 이것은 타시선(駝尸旋)⁹이로다!

銜禍口邊衝, 時間禍必逢, 古人稱是病, 焉敢不言凶.

합화선이 입 가에 솟아 올라 있으면 반드시 틈틈이 화를 만날 것이며, 옛 사람
이 병이라 칭하였으니 어찌 감히 흉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眼下毛生旋, 遙看似淚痕, 假饒福也病, 無禍亦防侵.

눈 아래 가마와 같은 꼬불꼬불한 털이 났는데 멀리서 보면 눈물자국과 같은 것
은 일단 복이 되기에 충분해도 병이 되니, 재앙이 없더라도 역시 접근하는 것
을 막아야 할지니라!

毛病心知害, 妨人不在占, 大都知此類, 無禍也宜嫌.

털에 병이 있는 것은 해가 됨을 잘 알아야 하니,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점괘에
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종류들은 화가 없더라도 피해야 함을 알아야 할지니
라!

檐耳鴟鬚項, 雖然毛病殊, 若然兼鼈尾, 有實不如無.

처마 모양의 귀와 낙타 갈기와 목을 한 것은 비록 털의 병과 다르지만 만약 자
라꼬리를 겸하였으면 실상은 없는 것이 낫구나!

¹. 旋 : 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校釋》에는 ‘毛’로 되어 있다. ↪

². 등사(騰蛇) : 전설상의 날 수 있는 뱀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말의 목덜미에
난 꼬불꼬불한 털을 지칭한다. ↪

³. 상문선(喪門旋) : 꼬불꼬불한 털의 이름으로, 후상문선(後喪門旋)은 곧 둔
부 쪽에 난 털을 말한다. 양마선모지도(良馬旋毛之圖)에 보인다. ↪

⁴. 협시선(挾尸旋) : 흉복(胸腹) 간, 곧 몸의 측면에 난 꼬불꼬불한 털을 말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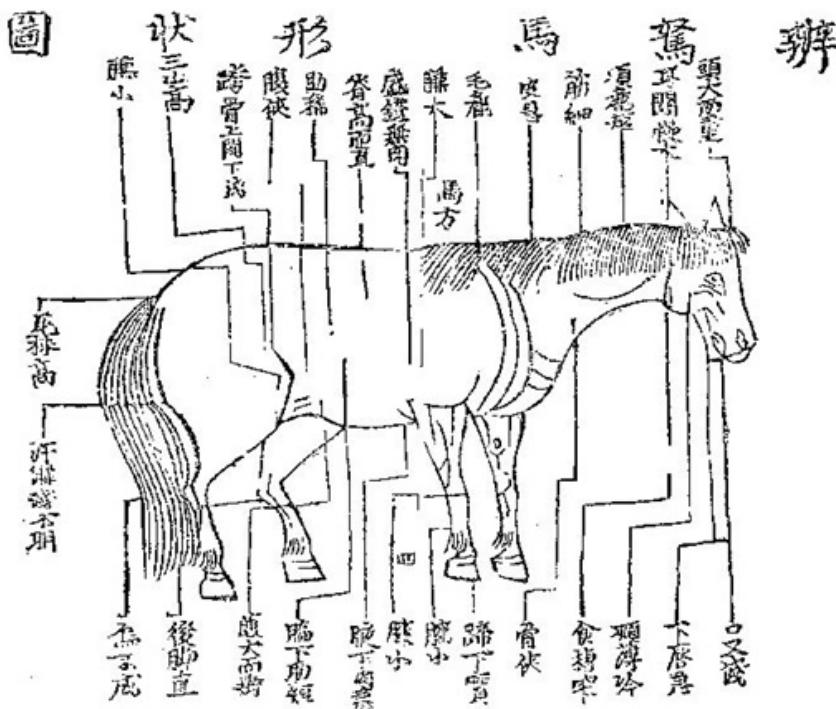
⁵. 處 : 원본(元本)에는 ‘長’으로 되어 있는데,《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校釋》에
서 문의(文意)에 근거하여 ‘處’로 고친 것을 따랐다. ↪

6. 함화선(銜禍旋) : 주둥이의 모서리 부분에 생긴 꼬불꼬불한 털을 말한다. ↵
7. 적로(的顱) : 《수시통고 상마경(授時通考.相馬經)》에 ‘말의 색이 희고 이마 가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유응(兪膺)이라고 하며, 일명 적로(的顱)라고도 하는데, 하인이 타면 객사(客死)하고 주인이 타면 주인을 시장에 버려두고 오니, 아주 흉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
8. 屨 : 원본(元本)에는 ‘貼’으로 되어 있는데, 《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校釋》에서 문의(文意)에 근거하여 ‘屨’로 고친 것을 따랐다. ↵
9. 타시선(駝尸旋) : 등에 난 꼬불꼬불한 가마와 같은 털을 말한다. 시체를 실었다는 뜻으로 좋지 않은 가마를 말한다. ↵

1.1.9. 壽夭 | 오래 사는 말과 일찍 죽는 말

馬目中五采具, 及眼箱下有字形者, 壽九十. 鼻上紋如王公, 壽五十, 如火四十, 如天三十, 如山¹如水二十, 如介十八, 如四八, 如宅七. 旋毛在眼箱上四十, 在值箱骨中三十, 在值中箱下十八. 口中見紅白光, 如穴中看火, 老壽. 若黑不鮮明, 盤不通明, 不壽.

말의 눈 속에 5가지 광채가 모두 있는데다 안상(眼箱)² 아래에 글자와 같은 형상이 있는 것은 수명이 90세이다. 코 위에 王(王)이나 公(公)자 같은 문양이 있으면 수명이 50세이고, 火(火)와 같은 것은 40세, 天(天)과 같은 것은 30세, 山(山)이나 水(水) 자와 같은 것은 20세, 介(介)와 같은 것은 18세, 四(四) 자와 같은 것은 8세, 宅(宅) 자와 같은 것은 7세를 산다. 가마가 안상골(眼箱骨)위에 있으면 40 세이고, 치상골(值箱骨)³ 있으면 30세이고, 치중상(值中箱) 아래에 있으면 18 세를 산다. 입 속에 붉고 흰 빛이 마치구멍 속에서 불빛을 보는 것과 같으면 오래산다. 검고 선명하지 못하며 반듯하나 밝게 비치지 않으면 오래살지 못한다.



辨駑馬形狀之圖 둔한 말의 생김새를 나타낸 그림

辨駑馬形狀圖 頭大而重 耳闊慢大 頸麤短 筋細 皮急 毛麤 廉大 盛鑚無肉 脊高而直
 肋稀 腹俠跨骨上闊下淺 三山高 廉小 尾株高 汗腺淺不明 烏不成 後脚直 腹大而垂
 脊下肋短 腋下肉急 膝小 腕小 蹄下實 骨俠 食槽窄⁴ 頰薄冷 下唇急 口又淺.

모양새로 둔한 말을 판별하는 그림: 머리가 크고 무겁고, 귀가 넓고 크며, 목이 두껍고 짧으며, 근육이 가늘고, 가죽이 팽팽하고, 털이 굵고 거칠고, 허구리가 크고, 성등(盛鑚)에 살이 없고, 등뼈가 높고 곧으며, 늑골이 성기고, 배가 좁고, 과골(跨骨)이 위는 넓적하고 아래는 얕고, 삼산(三山)이 높고, 허구리가 작고, 미주(尾株)가 높고, 땀샘이 얕고 선명하지 않으며, 오(烏)가 이루어지지 않고, 뒷다리가 곧고, 배가 크고 늘어져 있고, 옆구리가 낮고 늑골이 짧으며, 겨드랑이 아래 살이 팽팽하고, 무릎이 작고, 앞다리가 작고, 굽아래가 실하고, 뼈가 좁으며, 식조(食槽)가 좁고, 뺨이 약간 차고, 아랫입술이 당기고, 입아귀가 얕다.



相齒圖 이빨을 살피는 방법에 대한 그림

齒相之圖 一歲駒齒二 二歲駒齒四 三歲駒齒六 四歲成齒二 五歲成齒四 六歲肉牙生 七歲角區缺八歲盡區如一 九歲咬下中區二齒臼 十歲咬下中區四齒臼 十一歲咬下中區六齒臼 十二歲咬下中區二齒平 十三歲咬下中區四齒平 十四歲咬下中區六齒平 十五歲咬上中區二齒臼 十六歲咬上中區四齒臼 十七歲咬上中區六齒臼 十八歲咬上中區二齒平 十九歲咬上中區四齒平 二十歲咬上下盡平 二十一歲咬下中區二齒黃 二十二歲咬下中區四齒黃 二十三歲咬下中區六齒黃 二十四歲咬上中區六齒黃 二十五歲咬上中區四齒黃 二十六歲咬上下盡黃 二十七歲咬下中區二齒白 二十八歲咬下中區四齒白 二十九歲咬下中區六齒白 三十歲咬上中區二齒白 三十一歲咬上中區四齒白 三十二歲咬上下齒白.

말의 이빨을 살피는 그림: 1살은 위아래로 구치(駒齒)가 2개, 2살은 위아래로 구치가 4개, 3살은 위아래로 구치가 6개 나고, 4살은 위아래로 성치(成齒)가 2개, 5살은 위아래로 성치가 4개, 6살은 육아(肉牙)가 생기고, 7살은 각구(角區, 이빨 양쪽 가장자리 구역)가 없고, 8살은 모든 구역이 한결같이 똑 같아지고, 9세는 교합면 아랫면의 가운데 구역에 2개의 구치(臼齒)가 생기고, 10세에는 교합면 아래면의 가운데 구역에 4개의 구치, 11세에는 교합면 아랫면의 가운데 구역에 6개의 구치, 12세에는 교합면 아랫면의 가운데 구역에 2개의 평치(平

齒), 13세에는 교합면 아래면의 가운데 구역에 4개의 평치, 14세에는 6개의 평치, 15세에는 교합면 윗부분의 가운데에 2개의 구치, 16세에는 교합면 윗면 가운데 구역에 4개의 구치, 17세에는 6개의 구치, 18세에는 교합면 윗면 가운데 구역에 2개의 평치, 19세에는 4개의 평치, 20세에는 교합면 윗면 아래쪽이 모두 평치, 21세에는 교합면 아래쪽 중간 구역이 2개의 황치(黃齒), 22세에는 4개의 황치, 23세에는 6개의 황치, 24세에는 교합면 윗쪽 가운데 구역에 6개의 황치, 25세에는 교합면 윗쪽 가운데 구역에 4개의 황치, 26세에는 교합면 윗쪽 아래가 모두 황치, 27세에는 교합면 아래쪽 중간 구역이 2개의 백치(白齒), 28세에는 교합면 아래쪽 중간구역에 4개의 백치, 29세에는 6개의 백치, 30세에는 교합면 윗쪽 중간구역에 2개의 백치, 31세에는 4개의 백치, 32세에는 교합면 상하쪽이 백치가 된다.

齒左右蹉, 不相當, 難御, 齒不周密, 不久疾, 不滿不厚, 不能久走.

이빨의 좌우가 어긋나 맞지 않으면 말을 물기 어렵고, 이빨이 빠빠하지 못하면 오래지 않아 병이 생기고, 다 차지 않거나 두껍지 않으면 오래 달리지 못한다.

1. 山 : 원본에는 ‘本’으로 되어 있으나,《신편집성우마의방교석》과《조선우마의방》에 의거하여 ‘山’으로 고쳤다. [←](#)

2. 안상(眼箱) : 안상골(眼箱骨)로 눈 아래 접골(蝶骨) 상부에 위치한다. 이 책의 골명지도(骨名之圖)에 나온다. [←](#)

3. 치상골(值箱骨) : 비골(鼻骨)을 말한다. [←](#)

4. 窄 : 《朝鮮牛馬醫方》에는 ‘容’으로 되어 있다. [←](#)

1.1.10. 放血法 | 말의 피를 뽑는 방법

秦穆公問伯樂曰：“馬於春首鍼刺出血，何謂也。”伯樂對曰：“人受氣於癸，癸陰水也，水主腎，腎主精，故精氣多而氣血少。馬受氣於丙，丙陽火也，火主心，心主血，故血氣多而精氣少。故馬必鍼刺出血者，不使血氣太盛而爲疾病也。”“然出血必於春首者，何也。”“蓋春木也，夏火也，木生火者也。馬既爲火畜，火又受氣於亥，生於寅，旺於午，伏於戌¹。必於春首鍼刺者，春火生時，於是鍼刺分其血氣，不至大盛，故雖火畜，至夏火旺時，血氣調均，不至淫過而生諸病。”秦穆公曰：“善。”

진나라 목공이 백락(伯樂)에게 물었다. “말은 봄이 시작되면 침으로 찔러 피를 빼내는 것은 어째서인가?” 백락이 대답하였다. “사람은 계(癸)에서 기를 받는 데, 계는 음수(陰水)입니다. 수는 신(腎)을 주관하고 신은 정(精)을 주관하기 때문에 정기가 많고 기혈이 적습니다. 말은 병(丙)에서 기를 받는데, 병은 양화(陽火)입니다. 화는 심(心)을 주관하고 심은 혈(血)을 주관하기 때문에 혈기가 많고 정기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반드시 침으로 찔러 피를 빼내야 하는 것은 혈기가 크게 왕성해져 병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공이 물었다. “그러하면 반드시 봄이 시작되면 피를 빼는 것은 어째서인가?” 백락이 대답하였다. “봄은 목(木)이고 여름은 화(火)이며, 목에서 화가 생깁니다. 말은 이미 화를 기르고 있고, 화 또한 해(亥)에서 기를 받아 인(寅)에서 생겨나고 오(午)에서 왕성하며, 술(戌)에서 잠복합니다. 반드시 봄이 시작되면 침으로 찌르는 것은 봄에 화가 생겨날 때 이 때에 침으로 찔러 혈기를 나누면 크게 왕성해지지 않기 때문에 화를 기르고 있더라도 여름철 화가 왕성해질 시기에 혈기가 고르게 균형이 잡혀 (화가) 지나쳐 여러 가지 병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진 목공이 말하였다. “좋구나.”

1. 戌 : *戌 ※문맥상 ↵

1.1.11. 相馬捷法 | 민첩한 말을 살펴 보는 방법

頭欲高峻, 面欲瘦而少肉. 耳欲小, 耳小則肝小而識人意, 繫短¹者, 性最快. 鼻欲大, 鼻大則肺大而能奔. 眼欲大, 眼大則心大而猛利不驚. 眼下無肉, 多咬人. 腎欲小, 腸欲厚, 厚則腹下廣方而平. 蕰欲小, 小則脾小而易養. 胸堂欲闊, 肋骨²過十二條者, 良. 三山骨欲平, 平則易肥. 四蹄欲柱³實則能負重. 腹下兩邊生逆毛到謙者, 良. 望之大就之小, 筋馬也, 望之小就之大, 肉馬也, 至瘦欲見其肉, 至肥欲見其骨.

머리는 높아야 하고, 얼굴은 약위어서 살이 적어야 한다. 귀는 작아야 하니, 귀가 작으면 간이 작아서 사람의 뜻을 잘 알아들으며, 귀가 팽팽하고 짧은 것은 성질이 가장 쾌활하다. 코는 커야 하니, 코가 크면 폐가 커서 잘 달린다. 눈은 커야 하니, 눈이 크면 심이 크면서 맹렬하고 민첩하며 잘 놀라지 않는다. 눈 아래에 살이 없으면 사람을 잘 묻다. 신은 작아야 하고, 장은 두꺼워야 하니, 장이 두꺼우면 배 아랫부분이 넓고 네모지면서 평평하다. 허구리{謙}는 작아야 하니, 작으면 비(脾)가 작아서 기르기 쉽다. 가슴팍은 넓어야 하고, 늑골이 12대 이상이어야 좋은 말이다. 삼산골(三山骨)은 평평해야 하니, 평평하면 쉽게 살진다. 네 발굽은 기둥처럼 튼실해야 무거운 것을 질 수 있다. 배 아랫부분의 양쪽 가에 역모(逆毛)가 생겨 허구리에 이른 것이 좋은 말이다. 멀리서 보았을 때 크고 가까이서 보았을 때 작은 것은 늑마이고, 멀리서 보았을 때 작고 가까이서 보았을 때 큰 것은 육마이며, 몹시 마른 듯하면서도 살이 드러나고, 몹시 살진 것 같으면서도 뼈가 드러나야 한다.

今之買馬, 且看眼鼻大, 筋骨麤, 行立好, 便是好馬. 水火欲得分(水火在鼻兩孔間也), 口中欲得紅而有光, 此千里馬也. 上齒欲鉤, 鉤則壽. 下齒欲鉅, 鉅則怒. 頷下欲深, 牙欲去齒一寸, 則四百里. 牙劍鋒, 則千里. 翳骨欲廉如織杼而闊又欲長(頰下側小骨是). 目欲滿而澤, 眚欲小, 上欲弓曲, 下欲直. 素中欲廉而長(素鼻孔上). 陰中

欲得平(股平), 主人欲小(股裏上近前也), 陽裏欲高則怒(股中近主人). 額欲方而平, 入肉欲大而明(耳下), 玄中欲深(耳下近). 易骨欲直(眼下直下骨也), 腰欲開尺長, 膚下欲廣一尺, 已上名曰扶(一作挾)尺, 能久走.

요즘에 말을 살 때는 또한 눈과 코가 크고 늑골이 굵으며 걷고 서 있는 것이 좋은 것을 살피는데, 이것이 좋은 말이다. 수화(水火)가 제대로 나누어져 있어야 하고(수화는 양쪽 콧구멍 사이에 있다.), 입 속은 붉으면서 광택이 나야 천리 미이다. 윗니는 굽어야 하니 굽어있으면 오래산다. 아랫니는 넓어야 하니 넓으면 힘이 세다. 턱 아래는 깊어야 하고, 어금니는 간격이 1촌 정도 되어야 400리 를 간다. 어금니는 칼끝과 같아야 천리를 간다. 사골(嗣骨)이 북(織杼)과 같이 곧으면서 넓고 또 길어야 한다.(턱 아래의 측면에 있는 작은 뼈가 사골이다.) 눈은 크면서 윤택해야 하고, 눈자위는 작아야 하며, 윗부분은 활처럼 굽어야 하고, 아랫부분은 곧아야 한다. 소(素)는 곧으면서 넓어야 한다.(소는 콧구멍 윗부분이다.) 음중은 평평해야 하고(다리가 평평한 것이다.), 주인(主人)은 작아야 하며(주인은 안다리 위쪽 근처의 앞부분이다.), 양리(陽裏)는 높아야 힘이 세다.(다리 중간 주인(主人, 고환) 근처이다.) 이마는 네모지면서 평평해야 하고, 입육(入肉)은 크면서 밝아야 하고(귀 아랫부분이다.), 현중(玄中)은 깊어야 한다.(현중은 귀 아랫부분 근처에 있다.) 역골(易骨)은 곧아야 하고(역골은 눈 아랫부분에 세로로 있는 뼈이다.), 뺨은 1척 정도 열려 있어야 하고, 가슴 아래의 너비는 1척 정도 되어야 한다. 이상의 명칭을 부척(扶尺)(협척(挾尺)이라고도 한다.)이라 하는데 오랫동안 달릴 수 있다.

鞅欲方(頰前), 喉欲曲而深, 胸欲直而出(脾間前向一). 鳥間欲開, 望之如雙鳥. 頸骨欲大, 肉次之. 髮欲絆而厚, 耳折季毛欲長多覆, 肝無病. 脢筋欲大(夾脊筋也), 飛鳥見者, 怒(脅後筋也). 三府欲齊(兩額及中骨也), 尾欲頹而方, 尾欲減, 本欲大. 脊欲大而溼, 名曰上渠, 能久走. 龍趨欲廣而長, 升肉欲大而明(脾外肉也), 脯肉欲大而明(前脚下肉). 腹欲充, 腔欲小(腔腹). 季肋欲張(短肋), 懸薄欲厚而緩(脚胫), 虎口欲開(股內). 腹下欲平滿善走, 名曰下渠, 月⁴三百里.

양(鞅)은 네모져야 하고(양은 뺨 앞부분이다.), 목구멍은 굽고 깊어야 하며, 가슴은 곧으면서 돌출되어야 한다.(비(脾) 사이의 앞부분이 한쪽으로 향하여 있다.) 부간(鳬間)은 열려있어 멀리서 보면 두 마리의 오리와 같아야 한다. 목뼈는 커야 하는데, 살진 것은 좋지 않다. 갈기{鬚}는 단단하고 두꺼워야 하며, 귀가 접히는 부분의 계모(季毛)는 길어서 많이 덮여있어야 간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 매근(晦筋)은 커야 하고(등심이다.), 비부(飛鳬)가 보이는 것이 강력한 말이다.(비부는 등 뒤의 힘줄이다.) 삼부(三府)는 가지런해야 하고(삼부는 양쪽 이마와 중골(中骨)이다.), 엉덩이는 기울면서 네모져야 하고, 꼬리는 줄어들되 미본(尾本)은 커야 한다. 옆구리는 크면서 우묵해야 하니 이것을 상거래하는데 오랫동안 달릴 수 있다. 용시(龍趨)는 넓으면서 길어야 하고, 승육(升肉)은 크면서 깨끗해야 하고(승육은 비(脾) 바깥쪽의 살이다.), 포육(脯肉)은 크면서 깨끗해야 한다.(포육은 앞다리 아랫부분의 살이다.) 배는 충만해야 하고, 복강(腹腔)은 작아야 한다.(복강은 뱃속의 빈 공간이다.) 계륵(季肋)은 펼쳐져야 하고(짧은 늑골이다.), 현박(懸薄)은 두꺼우면서 느슨해야 하고(현박은 정강이이다.), 호구는 열려있어야 한다.(호구는 다리 안쪽이다.) 배 아랫부분은 평평하면서 가득 차야 잘 달리니, 이것을 하거라 하는데 하루에 300리를 간다.

陽肉欲上而高起(脾外近), 附蟬欲大(夜眼). 前後股欲薄而博, 善能走(從髀前骨). 擎頭如鷹龍, 高舉而遠望, 深視遠聽. 前看如鷄鳴, 後看蹲跼, 立師, 于辟兵萬里. 白從額上入口, 名曰兪膺, 一名的顱, 奴乘客死, 主乘棄市, 大凶馬也. 目不四滿, 下唇急, 不愛人, 又淺不健, 食健亂者, 傷人. 左脅有白毛直上, 名曰帶刀, 不利人. 白馬四足黑者, 黃馬白喙者, 亦然. 後左右足白, 殺婦. 膝骨欲圓而張, 大如盃孟. 汗溝上通尾本者, 踰殺人.

양육(陽肉)은 위로 높이 솟아올라야 하고(양육은 비(脾) 바깥부근이다.), 부선(附蟬)은 커야 한다.(부선은 야안(夜眼)이다.) 앞다리와 뒷다리는 얕으면서 넓어야 잘 달릴 수 있다.(넓적다리 앞부분의 뼈이다.) 머리를 들어올리면 응룡(鷹龍)과 같이 높이 들어 멀리 볼 수 있어야 하며, 깊이 보고 멀리 들어야 한다.

앞쪽을 살펴보면 닦이 우는 모습과 같고, 뒷쪽을 살펴보면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야 군사를 일으켜 적병을 만리 밖까지 물리칠 수 있다. 흰 빛이 이마에서 입으로 들어간 것을 유응(愈膺)이라 하는데, 적로(的顱)라고도 하여, 노비가 타면 객사하고 주인이 타면 시장에 내다버리므로 매우 흉한 말이다. 눈이 사방에 가득 차지 않고 아랫입술이 팽팽하면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또한 얇고 건강하지 못하며,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이는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 왼쪽 옆구리에 흰 털이 수직으로 올라온 것을 대도(帶刀)라 하는데 사람에게 좋지 않다. 흰 말의 네 다리가 검은 것과, 누런 말의 주둥이가 흰 것도 역시 그러하다. 뒤쪽 양 발이 흰색이면 부인을 죽인다. 무릎뼈는 둥글면서 펼쳐져야 하는데 사발만해야 한다. 한구(汗溝)가 위로 미본까지 통하면 사람을 밟아죽인다.

又曰, 馬頭爲王欲得方, 目爲丞相欲得光, 脊爲將軍欲得強, 腹脅爲城郭欲得張, 四下爲令欲得長. 又云, 相馬之法, 先除三羸五駑, 乃相其餘, 大頭小頸一羸, 弱脊大腹二羸, 小脰大蹄三羸. 大頭緩耳一駑, 長頸不折二駑, 短上長下三駑, 大髂(枯價切)短脅四駑, 淺髓薄髀五駑. 驯馬·驪肩·鹿毛·馬驥·駱馬, 皆善馬也.

또 말하길, 말의 머리가 왕노릇 하려면 네모져야 하고, 눈이 승상이 되려면 빛이 나야 하고, 등이 장군이 되려면 강해야 하고, 배와 옆구리가 성곽이 되려면 펼쳐져야 하고, 네 다리가 사령(使令)이 되려면 길어야 한다. 또 말하길, 말을 관찰하는 방법에 우선 3리(羸)와 5노(駑)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머리가 크고 목이 작은 것이 첫째 이마(羸馬)이고, 등이 약하고 배가 큰 것이 둘째 이마이고, 정강이가 작고 발굽이 큰 것이 셋째 이마이다. 머리가 크고 귀가 늘어진 것이 첫째 노마(駑馬)이고, 목이 길고 굽어지지 않는 것이 둘째 이마이고,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긴 것이 셋째 이마이고, 허리뼈가 크고 (가(髂)의 음(音)은 고가절(枯價切)이다.) 옆구리가 짧은 것이 넷째 이마이고, 사타구니가 얕고 궁둥이가 얕은 것이 다섯째 노마이다. 유마(驯馬)·여견(驪肩)·녹모(鹿毛)·마단(馬驥)·낙마(駱馬)는 모두 좋은 말이다.

馬生墮地無毛, 行千里, 溺舉一脚, 行五百里. 目皮欲得厚, 目上臼中, 有橫筋, 五百里, 上下徹者, 千里. 目中白縷者, 老馬子, 目赤反睫者, 善走傷人, 目下有橫毛者, 不利人.

말이 처음 태어나 털이 없으면 천리를 가고, 오줌을 놀 때 한쪽 다리를 들면 500리를 간다. 눈꺼풀이 두꺼워야 하고, 눈 위의 구중(臼中)에 횡근(橫筋)이 있으면 500리를 가고, 위아래로 통한 것은 천리를 간다. 눈 속에 흰 실 같은 것이 있으면 늙은 말의 새끼이고, 눈이 붉고 속눈썹이 뒤집어진 것은 잘 달려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눈 아래에 가로로 난 털이 있으면 사람에게 이롭지 않다.

歌曰,

노래하길,

三十二相眼爲先, 次觀頭面要方圓.

말을 살필 때 보는 32가지 상(相)중에 눈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은 머리를 보는데 네모지면서 등글어야 한다.

訣法不看先代本, 便是盲人信步行.

선대(先代)에 뿌리를 둔 비결법(秘訣法)을 보지 않으면 곧 맹인(盲人)이 짐작으로 길을 걸는 것과 다를 바 없다네.

眼似垂鈴紫色鮮, 滿筐凸出不驚然.

눈은 방울처럼 드리워지고 자주색에 선명하여야 하며, 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 록 볼록 튀어 나와도 놀랄 것이 없다.

白縷貫瞳行五百, 班如撒豆不同看.

흰 실이 눈동자를 꿰뚫으면 500리를 가고, 반점이 콩처럼 뿐려져 있으면 보통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느니라.

面顱側擊如鎌背, 鼻如金盞可藏拳.

얼굴과 머리의 측면은 낫등으로 친 것과 같아야 하고, 코는 금잔 같아서 주먹을 감출만 해야 하느니라.

口又須深牙齒遠, 舌如垂劍色如蓮.

입 또한 어금니가 깊이 들어가 (서로) 멀어져야 하고, 혀는 칼이 드리워진 듯 하며 색은 연꽃과 같아야 하느니라.

口無黑壓須長命, 唇似垂箱蓋一般.

입에 검은 사마귀가 없어야 오래 살고, 입술은 상자를 드리운 듯 전체를 덮어야 하느니라.

食槽寬淨頤無肉, 咽要平方筋有欄.

볼따구는 넓고 깨끗하며 뺨에는 살이 없어야 하고, 목구멍은 평평하면서 네모나고 힘줄은 난간이 있어야 하느니라.

耳如楊葉寸批竹, 硯骨高兮髀不堅.

귀는 벼들잎이나 촌비죽(寸批竹) 같아야 하고, 연골(硯骨)은 높고 넓적다리는 굳지 않아야 하느니라.

入肉分兮彎左右, 龍會高兮上古傳.

입육(入肉)은 나누어져 좌우로 굽이쳐야 하고, 용회는 높아야 하는 것이 옛부터 전해지는 것이라.

項長如鳳須彎曲, 鬚毛葺細要如綿.

목은 봉황과 같이 길면서 굽어져야 하고, 종모(鬚毛)는 비단처럼 부드럽고 가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鬚長膊闊搶風小, 脣高胸闊脚前寬.

갈기는 길고 어깨는 넓고 창풍(搶風)은 작아야 하고, 앞가슴은 높고 가슴팍은 넓으며 앞다리는 관대해야 하느니라.

膝要高今圓似掬, 骨細筋粗節要攢.

무릎은 높으면서 둥글어 움켜쥔 듯하고, 뼈는 가늘고 힘줄은 거칠며 마디는 모여있어야 하느니라.

蹄要圓實須卓立, 身平充闊要平寬.

발굽은 둉고 튼실하여 우뚝 서야 하고, 몸체는 평평하고 가득 차되 널리 평평해야 하느니라.

肋骨彎兮須緊密, 排鞍肉厚穩金鞍.

늑골은 굽으면서 긴밀해야 하고, 배안(排鞍)은 살이 두꺼워 금으로 된 안장을 평온하게 해야 하느니라.

三峯壓壓須藏骨, 臥如猿落重如山.

삼봉(三峯)은 누르고 눌러 뼈를 감추어야 하고, 누웠을 때는 원숭이가 떨어진 듯, 무거운 산이 있는 듯 해야 하느니라.

鵝鼻曲直須停穩, 尾似流星散不連.

아비(鵝鼻)는 굽으면서 곧되 안정되고 평온해야 하며, 꼬리는 유성이 흘어지 듯 이어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膏筋大小須勻壯, 下節攢肋緊一錢.

고근(膏筋)은 크기가 균등하고 튼튼해야 하며, 하절과 찬륵은 한 가래와 같이 팽팽해야 한다.

羊鬚有距如鷄距, 能奔急走日行千.

양과 닭과 같은 뒷발톱이 있으면 빨리 달려 하루에 천리를 갈수 있느니라.

已前貴相三十二, 萬中難選一俱全.

이미 앞에서 말한 중요한 32가지는 말 만 마리 가운데서 모두 갖춘 것 한 마리를 찾기도 어려우니라.

1. 短 : 원본(元本)에는 ‘端’으로 되어 있는데,《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校釋》에서 문의(文意)에 근거하여 ‘短’으로 고친 것을 따랐다. ↵
2. 肋骨 :《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校釋》에는 ‘脅肋’으로 되어 있다. ↵
3. 柱 : 원본에는 ‘注’로 되어 있으나,《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校釋》에 의거하여 ‘柱’로 고쳤다. ↵
4. 月 :《조선우마의방》(朝鮮牛馬醫方)에는 ‘日’로 되어 있다. 번역은《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1.12. 養馬法 | 말을 기르는 방법

凡牧養, 冬煖廄夏涼棚, 頭平繫, 行相離稀, 闊槽, 打掃¹潔淨, 捣擇新草, 篩簸粟豆.
若熟料用新水浸²淘, 放冷方可餵之. 其飲馬水切忌宿水³.凍料·陳草·沙磧·灰土·蛛絲·諸雜毛髮, 食之卽瘓瘁生病. 或以鹽水飲者, 勿多, 多則損其腰腹, 以成腎冷, 惟宜
新水以時飲之, 過夜不飲. 冬月飲訖, 便須牽行⁴, 卽無傷後失⁶. 仍日看其糞溺, 若溺
清糞漫⁵, 則無病矣. 又曰, 欲食之節, 食有三芻, 飲有三時, 何謂也. 一曰惡芻, 二曰
中芻, 三曰善芻(善謂飢時與惡芻, 飽時與善芻, 引之令食常飽, 則無不肥. 剑草麤,
雖足豆穀, 亦不肥, 細剉無節, 箍去節而食之者, 令馬肥不喞). 何謂三時, 一曰朝飲
少之, 二曰晝飲, 則胸壓水, 三曰暮極.

말을 기를 때는 겨울철에는 마굿간을 따뜻하게 하고, 여름철에는 시렁을 시원하게 하며, 머리를 평평하게 고삐를 매고, 걸을 때는 서로 드문드문 떨어져야 하고, 구유는 넓어야 하며,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새 풀을 가리어 택하고, 조와 콩은 채치고 까불러야 한다. 익힌 사료는 새로 길어온 물에 담가서 일어낸 다음 식혀야지 먹일 수 있다. 말에게 물을 먹일 때는 절대 하루 묵힌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된다. 얼은 사료·묵은 풀·모래·재흙·거미줄·기타 털이 섞인 것을 먹이면 야위고 병이 생긴다. 혹 소금물을 먹인 때는 많이 먹이면 안되는데, 많이 먹이면 허리와 배가 손상되어 신랭(腎冷)이 된다. 오직 새로 길어온 물을 때에 맞춰 먹여야 밤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다. 겨울철에는 물을 먹이는 것을 마쳤으면 곧 끌고가야 속이 손상되지 않아 설사하지 않는다. 이에 날마다 똥과 오줌의 색을 살펴 오줌이 맑고 뜯이 질편하면 병이 없는 것이다. 또 말하길, 먹이려 하는 절도로서, 먹는 것은 삼추(三芻)가 있고, 마시는 것은 삼시(三時)가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나쁘게 꼴을 먹이는 것(惡芻), 둘째 보통으로 꼴을 먹이는 것(中芻), 셋째 좋게 꼴을 먹이는 것(善芻)이 있다.(선(善)은 굽주릴 때는 나쁜 꼴을 먹이고, 배부를 때는 좋은 꼴을 먹여 늘 배부르게 하면 살지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다. 풀을 흡족하게 썰고 콩과 곡식이 충분하더라도

살지지 않으니, 풀을 잘게 썰고 마디를 없게 한 다음 체를 쳐서 마디를 제거하고 먹인다면 말이 살지고 기침을 하지 않는다.) 삼시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아침에는 물을 적게 주고, 둘째 낮에는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주고, 셋째 저녁에는 무한정 물을 주는 것이다.

1. 打掃 : 원본에는 ‘撻’로 되어 있으나,《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교석》에 의거하여 ‘打掃’로 고쳤다. ↵

2. 浸 : 원본에는 ‘侵’으로 되어 있으나,《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교석》에 의거하여 ‘浸’으로 고쳤다. ↵

3. 其飲馬水切忌宿水 : 원본에는 ‘惟宜新水, 以時飲之, 過夜不飲. 冬月飲訖, 便須牽行, 卽無傷水. 切忌宿水’로 되어 있으나,《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교석》에 의거하여 ‘其飲馬水切忌宿水’로 고쳤다. ↵

4. 惟宜新水以時飲之, 過夜不飲. 冬月飲訖, 便須牽行 : 원본에는 이 부분이 앞에 있으나,《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교석》에 의거하여 이곳에 삽입하였다. ↵

6. 卽無傷後失 : 원본에는 ‘腎冷則無失’로 되어 있으나,《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교석》에 의거하여 ‘即無傷後失’로 고쳤다. ↵

5. 漫 : 원본에는 ‘慢’으로 되어 있으나,《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교석》에 의거하여 ‘漫’으로 고쳤다. ↵

1.1.13. 飼父馬令不鬪之法 | 숯말들이 싸우지 않게 기르는 방법

多有父馬者, 別作一坊, 多置槽廄, 削芻及穀豆各自別安. 唯着韁頭浪放不繫, 非直飲食, 遂性舒適自在, 至於糞溺, 自然一處, 不須掃除. 乾地驟¹臥, 不濕不汚², 百疋群行, 亦不鬧也.

숯말{父馬}을 많이 가진 자는 별도로 장소{坊}를 만들되 구유를 많이 놓고, 썰은 꼴과 곡식과 콩을 따로따로 둔다. 머리에 굴레만을 씌워 돌아다니게 하고 고삐를 매지 않으며, 음식을 직접 갖다주지 않으며, 식성에 따라 느긋하고 제멋대로 웠다갔다하게 하면 뚱오줌도 자연히 한 곳에 누게 되어 청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마른 땅에서 뛰고 눕게 하며, 습하지 않고 더럽게 하지 않으면 100필의 말이 떼지어 다녀도 또한 싸우지 않는다.

¹. 駟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교석》에는 으로 되어 있다. ↪

². 汚 : 원작에는 ‘汙’으로 되어 있으나,《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교석》에 의거하여 ‘汚’로 고쳤다. ↪

1.1.14. 飼征馬令硬實之法 | 전투용 말을 강하고 튼튼하게 기르는 방법

細剗芻, 於擲揚去葉, 全取莖, 和穀豆¹之, 置槽於²地. 雖復雪寒, 勿令安³下,
一日一走, 令其內熱, 馬卽硬實而耐寒苦也.

꼴을 잘게 썰어 잎은 버리고 줄기만을 취하여 곡식과 콩과 섞어 먹이는데, 구
유는 밝은 곳에 둔다. 엄동설한이 반복되어도 마굿간에 있도록 두지 말고, 하
루 한 차례씩 달려 몸에 열이 나게 하면 말은 곧 강하고 튼튼해져 추위와 고통
을 이겨낸다.

¹. 莖 : 원본에는 ‘秣’로 되어 있으나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교석》에 근거하여
‘秣’로 고쳤다. ↪

². 焰 : 원본에는 ‘通’으로 되어 있으나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교석》에 근거하
여 ‘焰’으로 고쳤다. ↪

³. 廐 : 원본에는 ‘廠’으로 되어 있으나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교석》에 근거하
여 ‘廐’으로 고쳤다. ↪

1.1.15. 又東人經驗牧養法 | 우리나라에서 말을 기르는 경험방

冬春騎勞出汗, 則勿解鞍韁, 徐徐刷毛, 去鞍韁, 則中血汗風. 無汗則去鞍, 着馬衣(鄉名於之), 後去革勒. 馬大勞則平繫, 待息氣平, 飼長草一束, 後與折草, 良久, 又料一二升, 和折草啖之. 又淨水一大斗, 折草與料三四升, 和啖. 常飲淨水, 馬歇時多息, 汗未易收, 則有病, 更騎微出汗, 如前法養. 又法, 良馬五月後勿放, 至秋放牧. 八月望時, 一日騎出汗, 勿過勞, 着草馬衣, 過夜收汗, 平明刷之. 無穗長草一二束啖之, 與淨水一二鉢, 飲一息, 乃止還放. 隔十日如前法, 小加勞養還放. 至九月十日, 如前法騎勞養. 良馬五度, 常馬三度. 若馬八九月不肥, 草枯前給料, 豐肥飼稷宜.

겨울과 봄에 사람이 말을 타서 말이 피로하여 땀이 날 때는 안장을 풀지 말고 천천히 솔질을 해야지, 안장을 풀면 말이 혈한풍(血汗風)에 걸린다. 땀이 나지 않으면 안장을 제거하고 마의(馬衣)(우리말로 어지(於之)라 한다.)를 입히고 그 뒤에 가죽재갈을 제거한다. 말이 매우 피곤하면 머리가 평평해지도록 고삐를 매고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긴 풀 1묶음을 먹인 뒤에 자른 풀을 먹인다. 오래 있다가 또 사료 1~2되에 자른 풀을 섞어 먹인다. 또한 맑은 물 1큰술, 자른 풀과 사료 3~4되를 섞어 먹인다. 늘 맑은 물을 먹이고, 말이 쉴 때 숨이 빠르고 땀이 잘 거두어지지 않으면 병이 있는 것으로, 다시 말을 조금만 타도 땀이 나면 앞의 방법과 같이 한다. 다른 방법은, 좋은 말은 5월 이후에 풀어두지 않고, 가을이 되면 풀어놓는다. 8월 보름 쯤에 하루 한 번씩 말을 타서 땀을 내되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고, 풀로 만든 마의를 입혀 밤에 땀을 거두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솔질한다. 이삭이 없는 긴 풀 1~2묶음을 먹이고, 깨끗한 물 1~2사발{鉢}을 주어 한 번에 마시게 하는데, 그치게 되면 도로 풀어놓는다. 열흘 간격으로 앞과 같은 방법을 쓰되 조금 더 피곤하게 하여 먹인 다음 풀어놓는다. 9

월 10일이 되면 앞과 같은 방법으로 말을 타고 피로하게 하여 기른다. 좋은 말은 다섯 번, 보통 말은 세 번정도 한다. 만약 말이 8~9월이 되어도 살이 지지 않으면 풀이 마르기 전에 먹이를 주는데, 잘 살찌게 하는 기장을 먹여야 한다.

又方, 行路時不飲水, 尤忌近歇處. 戰馬勿例論. 又方, 馬雖食草料, 腹不能充.

다른 방법으로는 길을 갈 때 물을 먹이지 말며, 쉬는 곳 근처에서는 더욱 금해야 한다. 전투용 말은 예를 들어줄 것도 없다. 또 다른 방법으론느 말이 풀과 사료를 먹더라도 배가 부르지 않을 때는

甘草·人參·白朮·當歸(各二錢), 大黃(六錢), 貫衆(五分).

감초·인삼·백朮·당귀(각 2돈), 대황(6돈), 관중(5돈).

右爲末, 無水酒一大鍾, 眞油一盞, 鷄卵一介, 和早朝灌口, 高繫不啗水草, 午後啗水草. 未愈再報.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고 물을 섞지 않은 술 1큰잔, 참기름 1잔, 계란 1개와 섞어 이른아침에 먹인 다음 고삐를 높게 매어 물과 풀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가 오후에 물과 풀을 먹인다. 낫지 않으면 다시 먹인다.

1.1.16. 五勞 | 오로

五勞謂筋勞·骨勞·皮勞·氣勞·血勞也. 筋勞者, 因久步得之, 其狀終日驅馳放, 而不者, 是也. 其爲病則發發蹄, 痛凌氣(發蹄謂毒曾發於蹄間, 其痛凌氣也). 骨勞者, 因久立得之, 其狀雖而不時起者, 是也. 其爲病則發癰腫. 皮勞者, 因久汗不乾得之, 其狀雖起而不振毛者, 是也. 其爲病, 胱(面傍)脊摩之熱也. 氣勞者, 因汗未息乘, 燥而飼飲得之, 其狀雖振毛而不卽噴氣者, 是也. 其爲病, 苦氣不宣通, 故須緩繫之, 檻上遠餽草, 乃噴也. 血勞者, 因驅馳無節得之, 其狀雖噴氣而不卽溺者, 是也. 其爲病則發強行, 高繫之, 不飲餽餵, 少時乃大溺也.

오로(五勞)는 근로(筋勞)·골로(骨勞)·피로(皮勞)·기로(氣勞)·혈로(血勞)를 말한다. 근로는 오랫동안 다녀 생긴 것으로 말의 상태가 타고 달리다가 풀어놓아도 흙에서 뒹굴지¹ 않는다. 이 병에 걸리면 발제(發蹄)가 발생하여 통증이 기를 범하게 된다.(발제는 독이 발굽 사이에 발생하여 통증이 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골로는 오랫동안 서 있다가 생긴 것으로 말의 상태가 흙에서 뒹굴거리더라도 불시에 일어난다. 이 병에 걸리면 옹종(癰腫)이 발생한다. 피로는 오랫동안 땀을 흘리고 말리지 않아 생긴 것으로 말의 상태가 흙에서 뒹굴거리다가 일어나더라도 털을 털지 않는다. 병에 걸리면 뺨(얼굴 옆쪽이다.)과 등을 비벼 뜨겁게 한다. 기로는 땀이 그치지도 않았는데 다시 타서 조(燥)한 상태에서 먹이를 먹어서 생긴 것으로 말의 상태가 털을 털더라도 투레질을 하지 않는다. 병에 걸리면 고기(苦氣)를 잘 소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고삐를 느슨하게 하고 높은 곳에 구유를 두어 멀리서 풀을 먹게 하면 곧 투레질 한다. 혈로는 절제없이 말을 달려 생긴 것으로 말의 상태가 투레질은 하지만 오줌이 나오지 않는다. 병에 걸리면 몸이 뻣뻣한 상태로 움직이는데, 고삐를 높게 하여 물과 먹이를 먹이지 않다가 먹게 하면 조금있다가 오줌을 많이 누게 된다.

¹. : 말이 흙에서 뒹구는 것을 말함. 토욕(土浴). ←

1.1.17. 七傷 | 칠상

七傷謂寒傷·熱傷·水傷·飢傷·飽傷·肥傷·走傷. 寒傷者, 因冬月飲宿水, 繫寒處得之, 其病令馬毛燋受塵, 是也. 热傷者, 因暑月乘騎過多, 不時飲餵得之, 其病令馬煩躁悶亂, 是也. 水傷者, 因騎廻便飲停滯不散得之, 其病令馬結腸胃, 積聚成病, 是也. 飢傷者, 因馬盛飢, 更令大走, 喘息未定, 卒然飲餵得之, 其病令馬心脾氣結, 草料不消, 是也. 鮑傷者, 因鮑乘騎, 再便飲餵, 馬喫草太猛得之, 其病令馬腸胃積聚, 糞行遲滯, 是也. 肥傷者, 因馬臚(悲驕切, 肥貌)大力行得之. 走傷者, 因馬極走大過得之, 二者皆令馬肉斷脂消, 氣不續也.

칠상(七傷)은 한상(寒傷)·열상(熱傷)·수상(水傷)·기상(飢傷)·포상(飽傷)·비상(肥傷)·주상(走傷)을 말한다. 한상은 겨울철에 전날 길어온 물{宿水} 먹이고 차가운 곳에 매어두어 생긴 것으로 병증은 말의 털이 타고 때가 낀다. 열상은 여름철에 말을 지나치게 많이 타고 아무때나 물과 먹이를 먹게 하여 생긴 것으로 병증은 말이 번조(煩躁)하고 답답해 한다. 수상은 말을 타고 곧 물을 마신 것이 정체되고 흘어지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병증은 말의 장과 위가 굳어 적취(積聚)가 된다. 기상은 말이 너무 굶주렸다가 다시 마구 달려 숨을 헐떡이며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물과 먹이를 먹여 생긴 것으로 병증은 말의 심(心)과 비(脾)의 기가 뭉쳐 풀과 사료를 소화시키지 못한다. 포상은 말이 배부른 상태에서 말을 탔다가 다시 물과 먹이를 먹여 말이 먹은 풀이 매우 맹렬해져 생긴 것으로 병증은 말의 장과 위에 적취가 생겨 뜰이 느리고 걸끄럽게 나온다. 비상은 살진{臚}(丑(臚)는 음(音)이 비교절(悲驕切)이고 살진 모습이다.) 말이 힘들게 움직여 생긴 것이다. 주상은 말이 매우 지나치게 달려 생긴 것으로, 두 가지 병증은 모두 말의 살이 끊어지고 지방을 소모하여 기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1.18.1. 第一前結起臥病源歌 | 전결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病中前結莫言無, 起臥時時喘氣麤.

병 중에 전결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기와는 때때로 숨을 헐떡거리고 기가 거칠어지니라.

- 〔黃帝問師黃曰：“凡馬前結者何？”答曰“前結者，冷熱相擊，因飲失時結，在大腸四尺前結也。是陽明經受其病。”又云：“大腸二¹丈二尺，前四尺，中四尺，後四尺，各二般結也。”又云：“大腸與肺，爲表裏，主其氣海，緣馬糞塞，定氣下不通，到入肺，令喘息也。”〕

(황제(黃帝)가 사황(師黃)에게 물었다. “말의 전결이란 것이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전결이란 찬 것과 뜨거운 것이 서로 치고받는 것으로, 물을 제 때에 마시지 못하여 결(結)이 된 것인데, 대장(大腸) 4척에 까지 있는 것을 전결이라 합니다. 양명경(陽明經)이 이 병을 받습니다.” 또 말하였다. “대장은 1장(丈) 2척(尺)으로 앞부분이 4척, 중간이 4척, 뒷부분이

4척으로 각각 두 가지로 결이 됩니다.” 또 말하였다.“대장은 폐와 표리(表裏)를 이루어 기해(氣海)를 주관하는데, 말이 뜯어 막히면 정기(定氣)가 아래로 소통되지 못하고 도리어 폐로 들어가 숨을 헐떡이게 합니다.”)

咬臆頻頻人不識, 切須用藥免教殂.

가슴을 자주 물어뜯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니, 꼭 약을 써서 죽는 것을 면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 〔訣曰, 咬臆者, 痘在前四尺, 屬心肺, 悶絕而咬臆. 爲人不曉其馬仰大著, 齒咬其胸中, 痛之甚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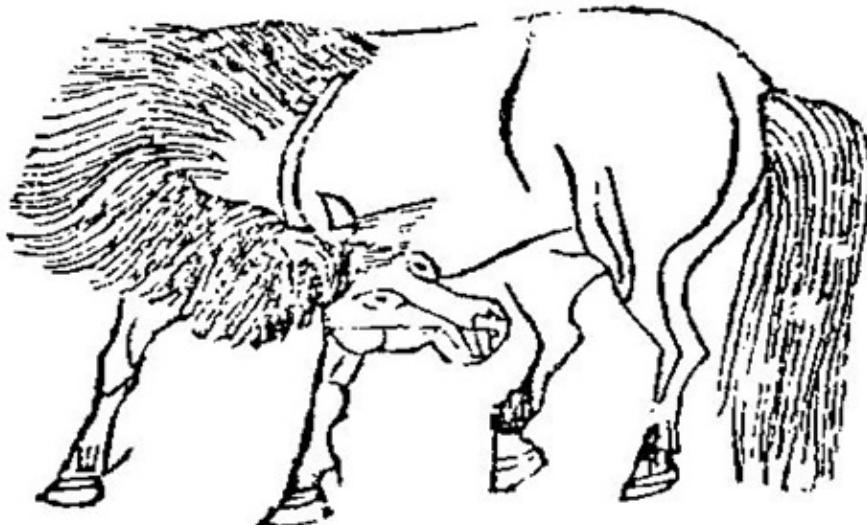
(가결에서 말하길, 가슴을 물어 뜯는 것은 병증이 대장 앞부분 4척까지에 있는 것으로, 대장은 심(心)과 폐(肺)에 속하여 있어 괴롭고 답답하여 가슴을 물어뜯는 것이다. 사람은 말이 벌러덩 누워 가슴팍을 입으로 물어뜯어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滑石膩粉拜通草, 灰汁生油一合酥, 苦酒都將和合了, 灌下之時病自甦.

활석·이분·통초와 석회즙·기름 1홉과 연유를 식초에 섞은 다음 먹으면 병이 절로 낫게 된다.

¹. 二 : 《조선우마의방》에는 ‘一’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1.18.2. 第二後結起臥病源歌 | 후결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後結起臥切須知, 回頭覲腹糞又遲.

후결기와는 꼭 알아두어야 하나니, 머리를 돌려 배를 엿보고 또 똥이 잘 나오지 않느니라.

- 〔黃帝問師黃曰：“後結病者何?”答曰：“後結者，乘困而喫草大急而成結。又在大腸四尺後，名爲後結也，皆爲冷熱不和而脹結也。”又云：“陽明主其病。”又云：“令馬回頭覲腹中也，因熱不飲水，故大腸結也。”又云：“飢困而喫草，結大腸四尺後也。”〕

(황자게 사황에게 물었다. “후결병(後結病)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후결이란 말이 피곤할 정도로 탓다가 풀을 매우 급하게 먹어 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장 뒤쪽에서부터 4척 정도에 있어서 후결이라 하는 것인데, 모두 냉열이 조화롭지 못하여 불러오르고 뭉치는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양명경에 주로 병이 생깁니다.” 또 말하였다. “말이 머리를

돌려 배를 엿보는 것은 열이 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여 대장에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였다. “굶주리고 피곤하였다가 풀을 먹어 대장 뒤쪽에서부터 4척 정도에 뭉치는 것입니다.”)

蠶汁生油於穀道, 手取急須用藥醫, 噴¹了奉行三二里, 恰似從前不患時.

제즙과 기름을 항문에 넣되 손으로 재빨리 약을 써서 치료해야 하느니라. 약을 먹이고서는 2~3리 정도 끌고다니면 전에 앓지 않던 때와 같아진다.

牽牛·滑石·朴硝各等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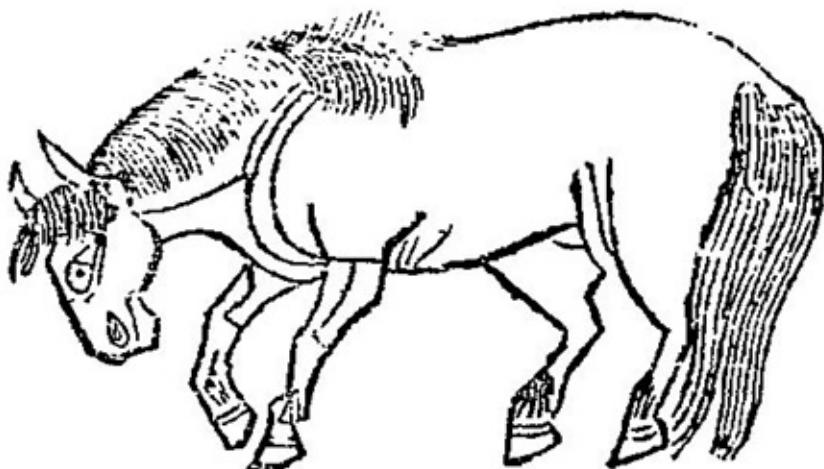
견우자·활석·박초 각각 같은 양.

右爲末, 用猪脂油一處, 灌.

이상의 약미들을 돼지기름과 섞어 먹인다.

1. 噴 : ‘灌’의 오기인 듯하다. ↵

1.1.18.3. 第三熱痛起臥病源歌 | 열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良馬雖然千里程, 忽榮熱病不惺惺.

좋은 말은 비록 천리를 달리나 갑자기 열병에 얹혀 불성성(不惺惺)해지니라.

- 〔黃帝問師黃曰：“熱病者何？”答曰：“熱病痛者，因良馬千里路程次，熱注其骨髓，兼春秋不放六脈之血，不依四時嚙啞，積熱傷於臟腑并魂魄也。所以精神不遂，名不惺惺也，爲是少陰主其病，起臥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열병(熱病)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열병통은 좋은 말이 천리를 갔다가 열이 골수(骨髓)로 흘러들고, 겸하여 봄과 가을에 6맥의 혈을 빼내지 않고, 계절에 맞게 약을 먹이지 않아 쌓인 열이 장부(臟腑)와 아울러 혼백까지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까닭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불성성(不惺惺)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음경(少陰經)에 병이 생긴 기와(起臥)입니다.)

口中似火多頻臥, 眼內如砂不轉睛.

입 속에 불이 있는 듯하고 자주 누우며, 눈 속에 모래가 있는 듯 눈동자를 돌리지 못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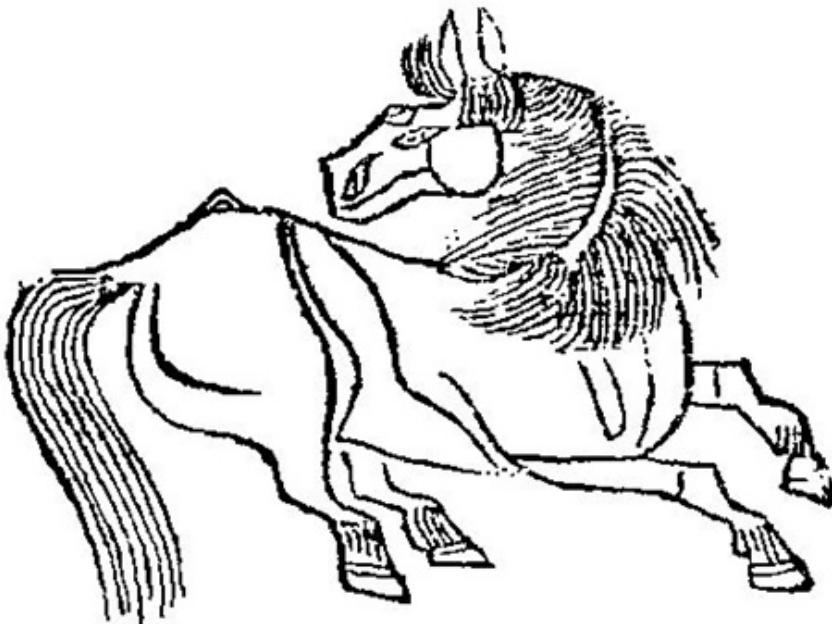
- 〔不轉睛者, 肝受其熱, 眼中澁也. 口中似火者, 心火上傳舌也. 又云, 心急悶而熱, 多臥之也.〕

(부전정(不轉睛)은 간에 열이 들어가 눈 속이 깔끄러운 것이다. 입 속에 불이 있는 듯하다는 것은 심화(心火)가 위로 혀에 전달된 것이다. 또 말하기 길, 가슴이 당기고 답답하면서 열이 나므로 자주 눕게 된다고 하였다.)

朴硝甘草各一兩, 漿水相和要半升, 鷄子共同灌下口, 更須鍼鼻四蹄輕.

박초·감초 각 1냥을 장수(漿水)에 섞어 반 되를 만든 다음 계란과 함께 입에 부어준 다음 침으로 코에 침을 놓으면 네 다리가 가벼워지느니라.

1.1.18.4. 第四冷痛起臥病源歌 | 냉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冷痛頻頻顫臥憂, 四蹄長展或難收.

| 냉통으로 자주 떨고 누워 앓고, 네 다리 길게 뻗어 거두기 어려우니라.

- 〔黃帝問曰：“冷痛者何？”師黃答曰：“冷痛者，因久渴而飲，又冷水大多，冷傷於胃，四蹄重發起臥也。陽明經受其病。”又云：“四蹄蹠者，冷氣傷腎，冷下攻之，四蹄重也。”又曰：“胃連脾，又生肉，肉寒而發，故起臥顫也。”〕

| (황제가 물었다. “냉통(冷痛)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냉통이란 오랫동안 갈증이 나다가 물을 마시고, 또 찬물을 많이 마셔 냉기(冷氣)가 위를 상하게 하고 네 발이 무거워 기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명경에서 이 병이 생깁니다.” 또 말하였다. “네 발이 굽는 것은 냉기가 신(腎)을 상

하게 한 다음 냉기가 하체를 공격하여 네 발이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위는 비에 연결되어 있고 또 육(肉)을 생성하는데, 육이 차가워 발병하기 때문에 기와하면서 떠는 것입니다.”)

往往雷鳴聲在腹, 時時蹠脚更回頭.

왕왕 뱃속에서 우렛소리가 나고 때때로 다리를 굽으며 머리를 돌리느니라.

- 〔脾者土也. 痘先傳肺, 肺傳胃, 又中冷熱不和而作聲也. 腹中痛甚而回頭起臥也.〕

(비는 토(土)이다. 병이 우선 폐로 전달되고, 폐에서 위로 전달되며, 또 그 와중에 냉열이 조화롭지 못하여 소리가 난다. 뱃속이 매우 아프면서 머리를 돌리고 기와한다.)

藥用細辛并陳橘, 用水三升煎沸休.

약은 세신과 진귤피를 물 3되에 넣고 끓여 먹여야 하느니라.

(又方) 皂角艾葱鹽水灌, 火熨湯淋病自瘳.

(다른 처방)조각·쑥·파를 소금물에 넣고 달인 탕약을 먹이면 병이 저절로 낫느니라.

1.1.18.5. 第五小腸結起臥病源歌 | 소장결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馬病須看向小腸, 不通水臟越尋常.

말의 병은 소장(小腸)을 잘 보아야 하니, 물이 장(臟)에서 소통되지 않으면 심상치 못한 것이니라.

- 〔黃帝問師黃曰：“小腸結者何？”答曰：“小腸結者，乘困而喫水太多，兼冷熱不和，傳於小腸中，水盛卽成逆氣，相交結也。乃大陽注其病。”又云：“小腸屬火，大腸屬金，二藏不和，大痛而雷鳴不尋常。”〕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소장결(小腸結)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소장결이란 말이 피곤할 때까지 타고서 물을 너무 많이 먹인데다 냉열이 조화롭지 못한 상태에서 소장속으로 전해져 물이 그득해지면 역기(逆氣)가 되어 서로 엉기는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소장은 화(火)에 속하고, 대장은 금(金)에 속하는데, 두 장부가 조화롭지 못하여 매우 아프면서 우렛소리가 나고 심상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每度顫來多仰臥, 不收四足鎮舒張.

매번 떨고 자주 발라당 누워있고, 네 다리를 수습하지 못하고 펴지도 못하느니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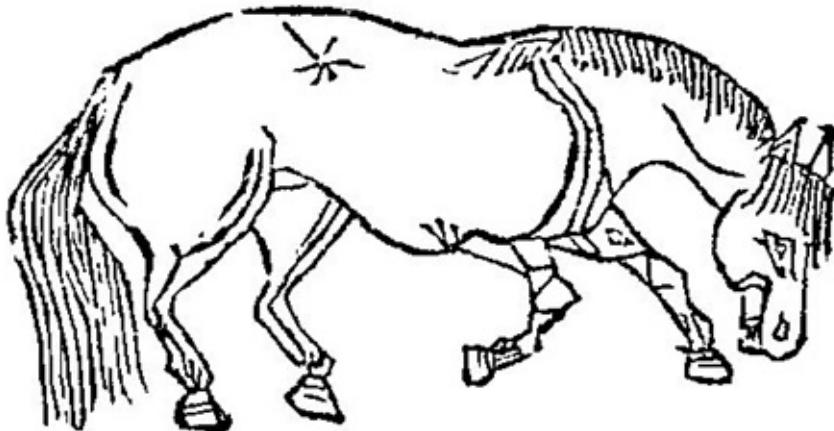
- 〔訣曰, 肉顫者小腹痛, 四蹄直上者, 腎胞痛. 又曰, 急氣痛而氣入四肢, 不能收也.)〕

(가결에서 말하길, 살을 떠는 것은 아랫배가 아픈 것이고, 네 다리가 뻣뻣한 것은 신포(腎胞)가 아픈 것이다. 또 말하길, 갑작스러운 기통(氣痛)으로 기가 사지로 들어가면 수습할 수 없다.)

續隨臟粉并通草, 媚女(水銀也)生油滑石方, 灌了奉行三二里, 自然痛可得安康.

속수와 이분과 통초에, 차녀(媚女)(수은(水銀)이다.)와 기름과 활석을 섞은 것을 먹인 다음 2~3리를 끌고다니면 자연스럽게 통증이 낫고 편안해지느니라.

1.1.18.6. 第六水穀并起臥病源歌 | 수곡병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六須看水穀并, 汗出頭低起臥輕.

여섯 번째는 물과 곡식이 엉기는 것을 살펴야 하나니, 땀이 나오고 머리를 아래로 처박되 기와가 가벼우니라.

- 〔黃帝問師黃曰：“水穀并者何？”答曰：“水穀并者，因飢渴飲飼失時，喫水大急，又飽走大過水穀并也。大陽主其病。”又云：“汗出心傷也，氣不通下而氣入腦中頭低也。起臥輕者，二藏不和，痛急難臥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수곡병(水穀并)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수곡병이란 배고프고 갈증난 상태에서 마시고 먹는 때를 놓쳐 물을 매우 갑작스럽게 마시고, 또 배부른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달려 물과 곡식이 엉기는 것입니다. 태양경(太陽經)에서 이 병이 생깁니다.” 또 말하였다. “땀이 나면 심(心)이 상한 것이고, 기가 아래로 통하지 않고 기가 뇌 속으로 들어가 머리를 아래로 처박는 것입니다. 기와가 가벼운 것은 두 장부가 조화롭지 못하여 통증이 갑작스럽고 눕기 어려운 것입니다.”)

左右頻頻看腹肋, 用藥如前灌一行.

좌우로 배와 옆구리를 자주 살펴보면, 앞과 같은 방법으로 약을 먹이고 걷게 해야 하느니라.

- 〔左右觀其腹, 爲腹中痛也. 大腸屬金, 小腸屬火, 冷熱相搏, 故令水穀并結.〕

(배를 좌우로 보는 것은 뱃속이 아프기 때문이다. 대장은 금(金)에 속하고 소장은 화(火)에 속하는데, 냉열이 서로 다투기 때문에 물과 곡식이 서로 엉킨다.)

又方. 還將麻子湯爲藥, 疾遂消除似虎瘳.

다른 처방. 다시 마자탕(麻子湯)을 약으로 쓰면 병이 사라지고 범과 같이 용맹해지느니라.

1.1.18.7. 第七羅隔損起臥病源歌 | 나격손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損着羅隔切須知, 出氣頻多起臥遲.

손착과 나격은 잘 알아두어야 하나니, 숨을 내쉬는 것이 잦고 기와는 더디니 라.

- 〔黃帝問¹〕師黃曰：“損着羅隔者何？”“答曰：損着羅隔者，飽上走急，鼻氣壅而傷羅隔也。大陰主其病。”又云：“氣屬陽，藏屬陰，羅隔屬心，心爲火，肺爲火。”又曰：“氣壅而氣傷，二藏不和，乃傷於氣，故胸中痛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손착(損着)과 나격(羅隔)은 무엇인가?” 사황이 대답하였다. “손착과 나격은 배부른 상태에서 빨리 달려 비기(鼻氣)가 막혀 나격(羅隔)에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태음경(太陰經)에서 이 병이 생깁니다.” 또 말하였다. “기는 양(陽)에 속하고, 장은 음(陰)에 속하며, 나격

은 심(心)에 속하고, 심은 화(火)에 속하며, 폐는 금(火)에 속합니다.” 또 말하였다. “기가 막히고 상하는 것은 두 장(藏)이 조화롭지 못하여 기를 상하게 하므로 가슴 속이 아픈 것입니다.”)

酥蜜半升并白芷, 更添沒藥用當歸, 甘草麒麟骨碎補, 三服必定却乘騎.

연유와 꿀 반 되와 백지에, 다시 몰약을 더하고 당귀를 쓰며, 감초·기린갈·골쇄보까지, 세 번만 복용하면 반드시 제대로 타고 다닐 수 있느니라.

香白芷·沒藥·麒麟竭·骨碎補·當歸

향백지·몰약·기린갈·골쇄보·당귀

- [各等分爲末, 用酥蜜半升, 灌之, 差]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연유와 꿀 반 되와 함께 먹으면 낫는다.)

1. 間 : 《조선우마의방》에는 ‘問’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1.18.8. 第八馬腸黃起臥病源歌 | 마장황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八腸黃喘氣麤, 回頭看腹脈徐徐.

여덟 번째는 장황으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거치나나, 머리를 돌려 배를 보고 맥이 느려지느니라.

- 〔黃帝問師黃曰：“腸黃者何？”答曰：“腸黃者，積熱傷肺，肺受熱，傳入大腸，乃變爲黃。陽明注其病。”又曰：“上氣不通，下氣到肺經，乃出氣麤出。”又云：“其脈徐徐者，形證衰也。陽盛陰衰，傷氣也。”又曰：“回頭者，腸中痛而起臥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장황(腸黃)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장황이란 열이 쌓여 폐를 상하고, 폐가 열을 받아 대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황병(黃病)이 됩니다. 양명경(陽明經)에 이 병이 생깁니다.” 또 말하였다. “상기(上氣)가 소통되지 않고 하기(下氣)가 도리어 폐경(肺經)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곧 날숨이 거칠어집니다.” 또 말하였다. “맥이 느린 것은

형증이 식한 것입니다. 양이 그득하고 음이 약해져 기를 상한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머리를 돌리는 것은 장 속이 아파서 일어나고 눕기 때문입니다.”)

欲得病膠帶血脉, 大黃梔子朴消居.

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대혈맥(帶血脉)을 치료하고, 대황·치자·박초를 써야 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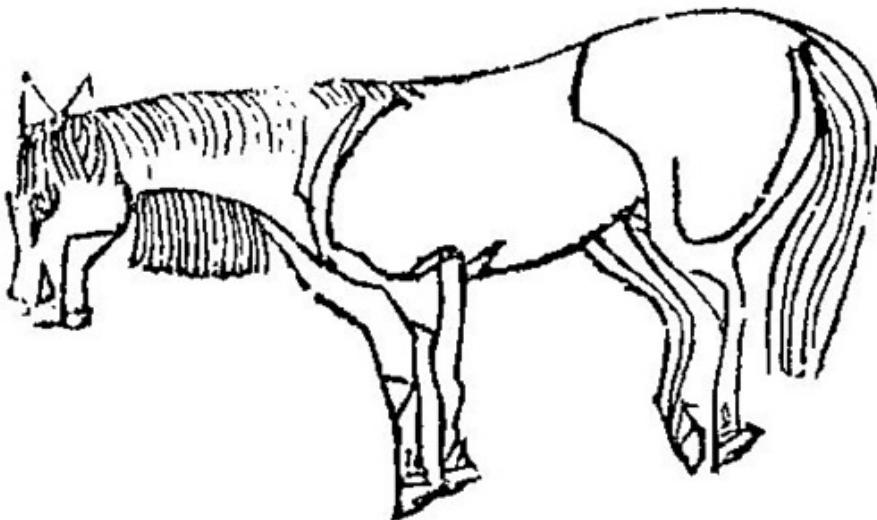
- (又云 : “腸連胃, 胃連脾, 帶脈屬脾, 乃是大陰之經絡也.”)

(또 말하였다. “장은 위와 연결되고, 위는 비와 연결되며, 대맥(帶脈)은 비(脾)에 속하니 이것이 태음의 경락입니다.”)

又方, 黃連·黃檗, 同爲散, 蜜共猪脂, 灌卽除.

다른 처방. 황련·황벽을 함께 가루내어 꿀과 돼지기름에 섞어 먹이면 병증이 제거된다.

1.1.18.9. 第九黑汗起臥病源歌 | 흑한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九醫家用妙方, 淚身肉顫汗如漿.

아홉 번재는 의가에서의 신묘한 처방을 써야 하니 온 몸이 살이 떨리고 마음 같은 땀이 흐르니라.

- 〔黃帝問師黃曰：“黑汗者何？”答曰：“黑汗者，因久熱傷心肺，又兼春秋不抽六脈，又不依四時嚙啗，血脈壅滯也。”又云：“因乘千里，熱困傷心了。少陰君火注病。顫者，熱極上心，心痛而汗出，乃心爲神王生火，火生血，又傷血。〕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흑한(黑汗)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흑한이란 오래된 열이 심과 폐를 상하고, 또 봄과 가을에 육맥의 혈을 빼지 않았고, 계절에 맞게 먹이를 주지 않아 혈맥이 막힌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말이 천리를 달려 열과 피곤함이 심을 상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음경(少陰經)의 군화(君火)에 이 병이 생깁니다. 몸을 떠는 것은 열이

극렬하여 심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면서 땀이 나는 것이고, 이에 심은 신왕(神王)이 되어 화(火)를 생성하고, 화는 혈을 생성하여 또한 혈을 상하게 됩니다.”)

先去尾尖十字劈, 後須汗出用三方.

우선 미첨(尾尖)을 십자로 째고, 후에 땀이 날 때는 세 가지 처방을 써야 하느니라.

- 〔又云：“出血者，瀉心經熱。尾連腸，腸連心，心連腎。”〕

(또 말하였다. “피를 내는 것은 심경을 열을 쓸어내리는 것입니다. 꼬리는 장과 연결되고, 장은 심과 연결되어 있고, 심은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都依蒙腦淋新水, 機汁衝喉人糞擔.

옷을 머리에 씌우고 새로 길어온 물을 뿌리며, 버선 빨은 물과 사람의 똥을 섞어 목구멍으로 흘려줘야 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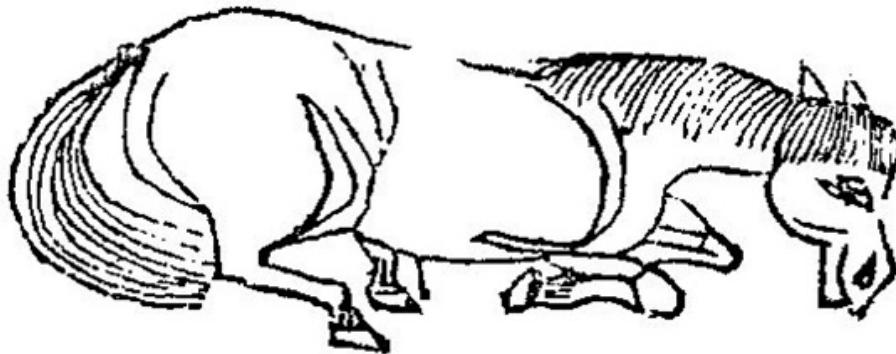
- 〔水淋腦，腦是諸陽之會聚，反傷邪氣。〕

(물을 뇌에 뿌리는 것은, 뇌는여러 양기가 모여드는 곳으로 도리어 사기를 상하게 한다.)

眼鼻三江鍼小許, 是須明記返魂香.

눈과 코 사이의 삼강혈에 침을 조금 놓는데, 이것이 반흔향(返魂香)임을 잘 기억해야 하느니라.

1.1.18.10. 第十脾氣起臥病源歌 | 비기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第十脾家起臥難, 擺頭打尾上唇蹇.

열 번째는 비병으로 기와하는 것은 어렵나니,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치며 입술을 뒤집느니라.

- 〔黃帝問師黃曰：“脾痛者何？”答曰：“脾氣痛者，乘困而飲水大過，寒氣傷脾，乃起臥也。大陰注病。”又云：“脾主其色黃，受氣於巳，生於子，病於寅，死於卯，墓在辰。”又云：“上唇蹇者，脾痛也，唇通脾。擺尾者，胃痛也。心者火也，火生土，見水相形，水火不和也。冷熱不解，故有此起臥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비통(脾痛)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비기통(脾氣痛)이란 말이 피곤할 정도로 탔다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 한 기가 비(脾)를 상하여 이에 기와하는 것입니다. 태음경(太陰經)으로 이 병이 흘러들어갑니다.” 또 말하였다. “비는 황색을 주관하고, 이(巳)에서 기를 받고, 자(子)에서 생성하며, 인(寅)에서 병이 들고, 묘(卯)에서 죽으며, 진(辰)에 묘가 있습니다.” 또 말하기 “윗입술을 뒤집는 것은 비가 아프기 때문인데, 입술은 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꼬리를 치는 것은 위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심은 화이고, 화는 토를 생성하는데, 수를 만나면 서로 형상
을 갖추어 수와 화가 조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냉열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와가 있는 것입니다.”)

顛臥有時立卽倒, 垂腰無力似風癱.

떨면서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도 있으나 곧 쓰러지고, 허리를 늘어뜨려 힘이 없
는 것이 중풍과 유사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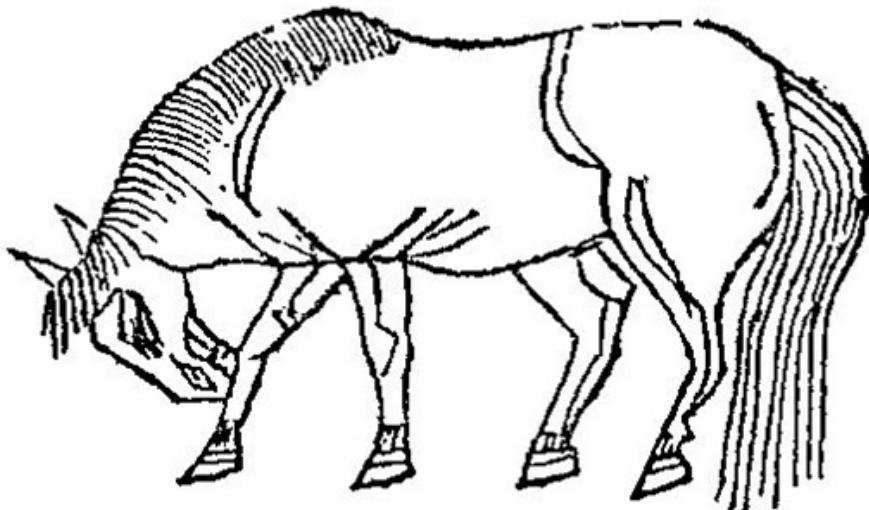
- (又云：“肉者屬脾，脾痛肉痛，肉痛而顛。到者，脾性急也。垂腰，胃痛無力也。不食水草弱者，似風癱也。）

(또 말하였다. “살은 비에 속하므로 비가 아프면 살이 아프며, 살이 아파
서 몸을 떠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은 비의 성질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늘어뜨리는 것은 위가 아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과 풀을 먹지
않아 약해진 것은 중풍과 비슷해집니다.”)

先鍼脅上兼鍼鼻, 氣藥生薑灌便安.

우선 옆구리 위에 침을 놓으면서 코에도 놓고, 기를 치료하는 약으로 생강을
먹으면 곧 편안해지느니라.

1.1.18.11. 第十一心黃起臥病源歌 | 심황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十一心黃不轉睛, 咬身用力痛無聲.

열한 번째 심황은 눈동자가 구르지 않고, 힘껏 몸을 물어뜯고 아파도 소리를
내지 못하느니라.

- 〔黃帝問師黃曰：“心黃者何？”答曰：“心黃者，五臟積熱，注於心肺，久而不治，乃變爲黃。小陰主其病。”又云：“心者火也，其色赤，受氣於亥，生於寅，旺於午，病於申，死於酉，墓在子。”又云：“心傷卽神傷，神傷心作黃也。”又云：“火返刑母，乃水上傳於目，故不轉睛也。咬身者，心痛，作聲心黃痛急甚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심황(心黃)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심황이란 오장(五臟)에 쌓인 열이 심과 폐로 흘러들어갔는데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아 누렇게 변한 것입니다. 소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심은 화이고, 적색이며, 해에서 기를 받고, 인에서 생겨나
며, 오에서 왕성해지고, 유에서 죽으며, 묘지가 자에 있습니다.” 또 말하였

다.“심이 상하면 곧 신이 상하고, 신이 상하면 심황이 됩니다.” 또 말하였
다.“화는 도리어 모(母)를 다스려 이에 수가 위로 눈으로 전하여졌기 때
문에 눈동자가 구르지 않습니다. 몸을 물어뜯는 것은 가슴이 아픈 것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심황의 통증이 갑작스럽고 심하기 때문입니다.”)

麻黃大豆并鷄子, 水煎連灌便惺惺.

마황·대두와 계란을, 물에 달여 연거푸 먹이면 정신을 차리느니라.

又方, 鬱金黃連散, 速將此藥下猪清(豬膽)

다른 처방. 울금황련산을 빨리 쓰는데, 이 약을 돼지쓸개에 넣어 먹인다.(저청
(豬清)은 돼지쓸개이다.)

1.1.18.12. 第十二腎黃起臥病源歌 | 신황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十二醫家看腎病, 搗謙時時喘更忙.

열두번째는 의가는 신병(腎病)을 살펴야 하나니, 허구리가 때때로 당기고 가쁘게 숨을 헐떡거리느니라.

- 〔黃帝問師黃曰：“腎黃者何？”答曰：“腎黃者，久熱而走大急，傷者內腎變爲黃也。小陰經主其病。”又曰：“喘者，困極而傷肺也。腎是木，心是火，火極炎也。搗謙者，腎痛也。火生黃，腎旺亦生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신황(腎黃)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신황이란 오랫동안 열이 나는데 너무 갑작스레 달려 내신(內腎)이 상하여 누렇게 변한 것입니다. 소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숨을 헐떡거리는 것은 극도로 피곤하여 폐를 상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목이고, 심은 화인데, 화가 극도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허구리가 당기는 것은 신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화가 황에서 발생하여 신이 왕상하여도 발생합니다.”]

踏地舒腰立即倒, 入尻腿上兩傍相.

땅을 밟고 허리를 펴서 일어나려 하나 곧 자빠지고, 죽으려 하면 다리 윗부분의 양 옆을 보아야 하느니라.

- (又云：“倒者，腎痛也。踏地者，胞痛也。兩傍者，鍼其穴也。”)

(또 말하였다. “자빠지는 것은 신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땅을 밟는 것은 포(胞)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양 옆은 침을 놓는 혈(穴)입니다.”)

更抽尾下微微血, 朴硝油水蜜衝腸. 又用解毒消黃散, 便是師黃伯樂強¹.

다시 꼬리 밑에서 피를 약간 빼내고, 박초·기름·물·꿀을 장으로 향하게 해야 할 지느니라. 또한 해독소황산을 써야 하니, 이는 사황과 백락이 힘쓰던 처방이니 라.

¹. 便是師黃伯樂強 : 《조선우마의방》은 이 문장 아래에 다음과 같은 주석이 있다. 尾者連腸 腸連心一臟一振之苗巴 ←

1.1.18.13. 第十三氣痛起臥病源歌 | 기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馬患氣痛不調和, 腹脹時時臥多.

말이 기통(氣痛)을 앓는 것은 고르지 못함이고, 배가 부어오르고 때때로 누워 있느니라.

- 〔黃帝問師黃曰：“氣痛者何？”答曰：“氣痛者，因大飢而乘困，喫草大急，又飽而走大過，氣傷肺也。太陰主其病。腹脹者，氣不通下也。冷熱不和，傷飽而攻之，兼走氣不出。”又云：“心悶而起臥多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기통(氣痛)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대답하였다. “기통이란 매우 급주린 상태에서 피곤하게 말을 달렸다가 갑자기 풀을 먹었기 때문이고, 또 배부른 상태에서 너무 달려 기가 폐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태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배가 부어오르는 것은 기가 하

부로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냉열이 고르지 못하여 상한 것이 가득 차서 공격한데다, 주기(走氣)가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였다. “가슴이 답답하여 일어났다 눕기를 자주 합니다.”)

口白更乾毛逆燥, 肺家壅滯不奈何.

입이 희고 마르며, 털이 거꾸로 되고 마르니 폐병으로 막힌 것을 어찌 하겠는가.

- (又云：“白者，肺之黃¹，毛者，肺之表也。）

(또 말하였다. “흰 것은 폐의 쌩{苗}이고, 털은 폐의 표(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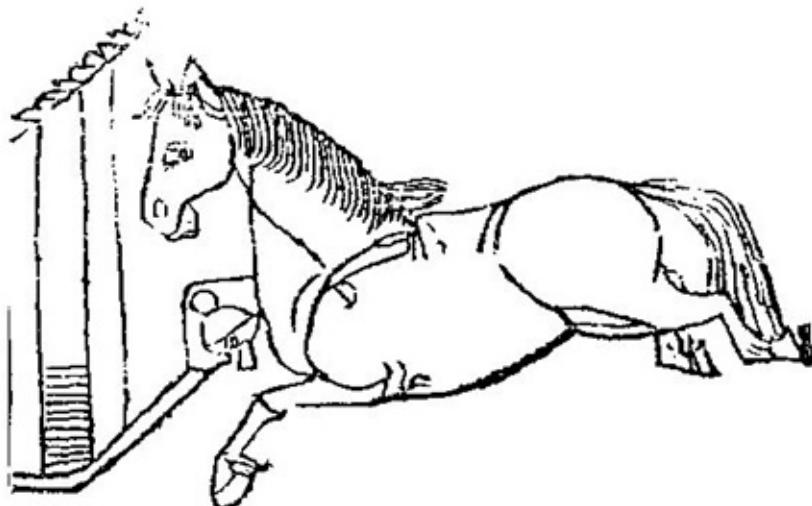
白水² 韻末當歸散, 酒煎連灌更無癆. 每上灌時生薑蜜, 三服必定却僵懶.

백출·국말·당귀를 가루내어 술에 넣고 달여 연거푸 먹으면 다시 묵은 병이 없을 것이라. 약을 먹일 때에 생강과 꿀을 넣어야 하고, 세 번만 복용하면 반드시 곱추가 되지 않을 것이라.

¹. 黃 : 《조선우마의방》에는 ‘苗’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². 水 : 《조선우마의방》에는 ‘朮’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1.18.14. 第十四腦黃起臥病源歌 | 뇌황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馬患醫家辨腦黃, 口中沫出又衝牆.

말이 병을 앓을 때는 의가에서는 뇌황을 분별해야 하니,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담장을 들이받기도 하느니라.

- 〔黃帝問師黃曰：“腦黃者何？”答曰“腦黃者，積熱傷於心肺久，注於腦中，生黃也。小陰主其病。”又云：“肺熱而口中沫出，心熱而顛狂，狂而悶衝牆。”又云：“乃熱極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뇌황(腦黃)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뇌황이란 쌓여있던 열이 심과 폐를 상한 지 오래되어 뇌 속으로 흘러들 어 누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폐열로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심열로 전광을 일으키고, 전광으로 답답 해하며 담장을 들이받는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열이 매우 심하기 때문입니다.”〕

汗出打尾啗涼藥, 腦開二孔與淋漿.

땀이 나고 꼬리를 칠 때는 시원하게 하는 약을 먹이고, 뇌의 두 구멍을 열어 미음을 뿌려야 하느니라.

- (又云：“汗出傷心熱極，打尾心悶燥也。用水淋之。”)

[또 말하였다. “땀이 나는 것은 심을 상하여 열이 매우 심한 것이고, 꼬리를 치는 것은 가슴이 답답하고 번조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每朝新水頻淋腦, 灌藥仍須性要涼. 若於六脈針流血, 便是神農真樂方.

아침마다 새로 길어온 물을 머리에 자주 뿌려주고, 약을 먹이는데 성질이 서늘한 약을 써야 함이 중요하느니라. 육맥에 침을 놓아 혈을 빼내는 것은 신농(神農)의 참된 처방이느니라.

1.1.18.15. 第十五胞轉起臥病源歌 | 포전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胞轉蹲腰踏地跑, 時時臥尾彎梢.

포전(胞轉)이 되어 허리를 쭈그리고 땅을 디디고 발로 차며, 때때로 누워있으며 꼬리가 조금씩 굽어지느니라.

- 〔黃帝問師黃曰：“胞轉者何？”答曰：“胞轉者，因久渴而不飲，飲水大過，水盛傷於小腸。因而及復，乃胞轉也。太陰主其病。”又云：“腸乾陽不和也。”又曰：“蹲腰者，小腸中痛，踏地者，胞轉痛，拳腰腹痛急甚而痛乃臥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포전(胞轉)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포전이란 오랫동안 갈증이 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물이 가득하여 소장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포전이 됩니다. 태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장이 건양(乾陽)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였다. “허리를 쭈그리는 것은 소장 속이 아프기 때문이고, 땅을 디디는 것은 포전(胞轉)으로 아프기 때문이며, 허리를 마는 것은 배가 아픈 것이 갑작스럽고 심하기 때문인데 곧 눕습니다.”)

水草不食更頻臥, 要知病狀是尿勞.

물과 풀을 먹지 않고 자주 누우니, 병의 상태가 요로(尿勞)임을 알아야 하느니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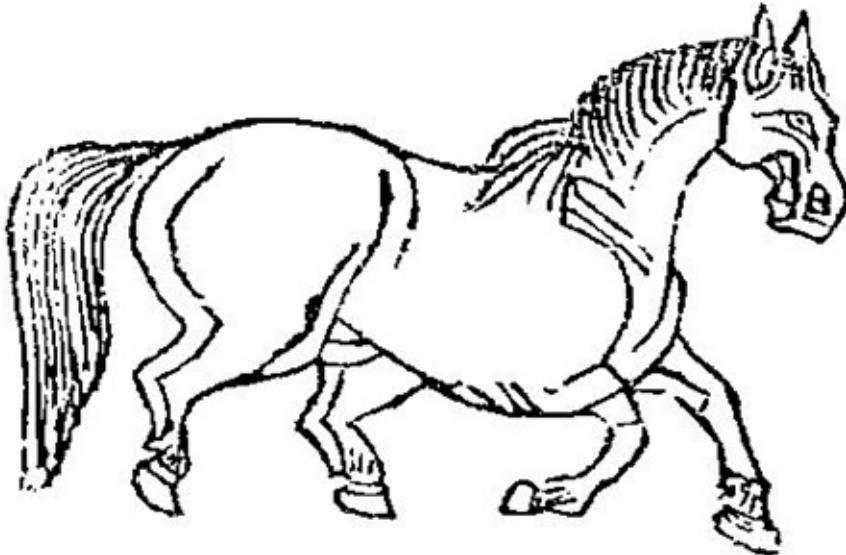
- (又云：“水草不食者，勞急痛也。有胞痛而心悶，乃臥，痛甚者，頻起臥者也。”)

(또 말하였다. “물과 풀을 먹지 않는 것은 피로하고 매우 아픈 것입니다. 포(胞)가 아프면서 가슴이 답답하면 눕게 되고, 아픔이 심하면 자주 일어 났다 앓았다 합니다.”)

塗手用油通穀道, 正後奉行三五遭. 左右入手須撥正, 小便通下見醫高.

손에 기름을 발라 곡도(穀道)를 통하게 하고, 곧바로 3~5바퀴를 끌고다녀야 하느니라. 좌우에 손을 넣어 바로 빼내면 소변이 나오니 의술의 고준(高峻)함을 볼 수 있느니라.

1.1.18.16. 第十六草噎起臥病源歌 | 초열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馬患草噎病堪醫, 口中沫出又遲遲.

말이 초열병을 앓는 것은 고칠 수 있나니,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증세가) 오래 가느니라.

- 〔黃帝問師黃曰：“草噎者何？”答曰：“草噎者，急用其表而氣溫牽胃，未定乘飢困而喫草大急，成氣而噎也。太陰主其病。”又云：“飲水相射，冷熱不和，逆氣而遲遲也。”經曰：“肺熱而口中沫出也。乃因陰陽不和而使氣噎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 “초열(草噎)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초열은 급하게 표(表)를 사용하여 기가 따뜻해져 위를 끌어당겼기 때문인데, 아직 낫지도 않았을 때 굶주리고 피곤할 때까지 말을 탄 다음 급하게 풀을 먹어 기를 생성하여 목이 메이는 것입니다. 태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마신 물이 맞지 않고, 냉열이 고르지 못하여

역기(逆氣)가 되어 오래 가는 것입니다.”《경》에서 말하였다.“폐열로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음양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되는 것이다.”)

便把遊疆繫後脚, 急行十步莫狐疑.

남아도는 고삐로 말의 뒷다리를 매고 빨리 열 걸음을 가되 의심치 말아야 하느니라.

- (又訣曰, 通氣之急, 氣隨定也.)

(가결에서는 빨리 기를 통하게 하면 기가 따라서 안정된다고 하였다.)

皂莢瓜蒂芸臺子, 切須吹鼻不宜遲.

조협·오이꼭지·운대자를 코에 불어넣되 굽뜨게 하지 말지니라.

又方, 便下順氣散, 不噎, 時時聖手奇.

다른 처방. 순기산(順氣散)을 쓰면 초열이 멈추니 때때로 성스러운 기술이 기이하구나.

1.1.18.17. 第十七內腎損起臥病源歌 | 내신손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馬患難醫是腎炎, 脊梁着地四蹄擡.

말의 병 중에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 신(腎)의 재난이니, 등을 땅에 붙이고 네 발을 들어올리느니라.

- 〔黃帝問師黃曰：“內腎損着者何？”答曰：“內腎損者，乘飽而走困急，傷着內腎，腎心二藏不和。小陰主其病。”又云：“脊梁着地者，內腎損而痛也。四蹄擡者，劬痛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내신손착(內腎損着)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내신이 상했다는 것은 배부른 말을 타고 달려 매우 피곤하여 내신을 상하는 것으로 신과 심 두 장부가 조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소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등을 땅에 붙이는 것은 내신이 상하여 아프기 때문입니다. 네 발을 들어올리는 것은 힘줄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後脚稍空如此病, 方中無一免輪回.

뒷다리를 살짝 들어올리는 이같은 병은 처방 중에 죽음{輪回}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없느니라.

- 〔又云：“內腎上有二十三¹條筋，通在遍身，兩條通腦，兩條通眼，兩條通耳，兩條通鼻，兩條通前腳，兩條通後腳。腎痛筋痛，筋痛而後腳稍空也。”又曰：“腎爲命門，絕者死也。”〕

(또 말하였다. “내신 위에 23가닥의 힘줄은 온 몸에 통하여 있는데, 2개는
뇌로 통하고, 2개는 눈으로 통하고, 2개는 귀로 통하고, 2개는 코로 통하
고, 2개는 앞다리로 통하고, 2개는 뒷다리로 통합니다. 신이 아픈 것은 힘
줄이 아픈 것이고, 힘줄이 아픈 이후에 뒷다리를 살짝 들어올립니다.” 또
말하였다. “신은 명문(命門)으로 이것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盲醫不會由自強, 良醫看了不堪才.

어리석은 의사는 알지 못한 체 스스로 잘났다고 하고, 똑똑한 의사는 보아왔던
터라 재주를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¹. 二十三 : 내용상 12개인데, 무슨 이유에서 이러한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음.



1.1.18.18. 第十八腸斷起臥病源歌 | 장단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馬患腸斷不堪醫, 渾身肉顫攢四蹄, 拋糞之時須起臥.

말의 병 중에 장단은 치료하지 못하나니, 온 몸의 살이 떨리고 네 발을 모으며,
똥을 놀 때 반드시 눕느니라.

- 〔黃帝問師黃曰：“腸斷者何？”答曰：“腸斷者，因大飽而走大急，鼻氣不及出，損其腹也。乃陽明主其病。^內¹者，脾之喉，脾痛內痛，內痛顫也。”又云：“四蹄者，氣上下通，氣攻入四蹄重也。”又云：“傷腸斷也。”經云：“大腸連肺又主氣致下，氣不通，故糞痛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장단(腸斷)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단장이란 배부른 상태에서 말을 급하게 달려 코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
하여 배를 손상시킨 것입니다. 양명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살{肉}은
비(脾)의 목구멍이고, 비가 아프면 살이 아프고, 살이 아프면 떨게 됩니다.” 또 말하였다. “네 발을 모으는 것은 기가 위아래로 통해야 하는데, 기

가 네 발을 공격하여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였다. “장이 상하여 끊어집니다.”《경》에서 말하였다. “대장은 폐와 연결되고, 또 기가 내려가는 것을 주관하는데, 기가 통하지 않으면 뚱을 눌 때 아픕니다.”)

良醫見後也心疑.〔良醫者, 善治馬之人也, 知其馬難治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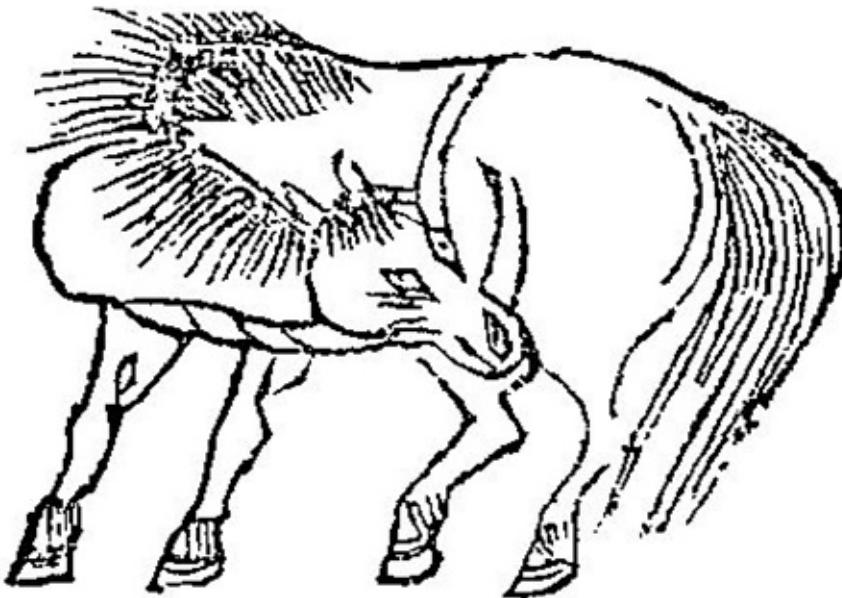
현명한 의사는 그 이후를 알기에 마음에 의심치 않느니라.〔현명한 의사란 말을 잘 치료하는 사람으로 말을 치료하기 어려움을 안다.〕

饒君妙手能治療, 任教名士亦何施.

그대에게 베풀 신묘한 기술이 있으면 치료할 수 있으나, 가르침을 책임지는 명사로서 어찌 시행하겠는가.

1. 內 : 肉의 오기인 듯하다. ↪

1.1.18.19. 第十九腸入陰起臥病源歌 | 장입음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馬患難醫腸入陰, 回頭看腹示醫人.

말의 질환중에 장입음(腸入陰)은 고치기 어려우니, 머리를 돌려 배를 보며 의 원에게 보인다.

- 〔黃帝問師黃曰：“腸入陰者何？”答曰：“腸入陰者，因飢困而走大急，更因渴而不飲，飲水大過，冷氣注於陰間，冷氣盛入腸入陰也。大腸主其病。”又曰：“回頭者，腸中痛也。急痛而牽小腸，亦痛顫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장입음(腸入陰)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대답하였다. “장입음이란 굶주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달린데다,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냉기가 음간(陰間, 생식기)으로 흘러들어가고, 냉기가 무성하여 장과 음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양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머리를 돌리는 것은 장 속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아픈데다 소장이 당기면 또한 아파서 떨게 됩니다.”)

腎囊一冷一邊硬, 如此疑其有鬼神.

음낭의 한 쪽이 차고 한 쪽 가장자리가 단단하여 이와 같을 때는 귀신이 있는지를 의심해야 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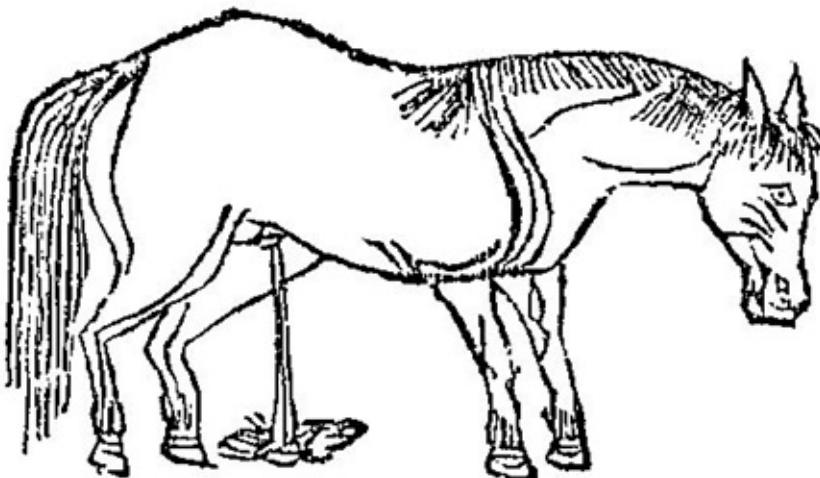
- 〔又曰：“一邊硬者，屬心火攻之，冷者，屬腎水傷也。似鬼神者，相刑衰也。”又曰：“水火木三刑相反，故發寒熱，攻其心肝不定。”〕

(또 말하였다. “한 쪽 가장자리가 단단한 것은 심화(心火)가 공격한 것에 해당하고, 차가운 것은 신수(腎水)가 상한 것에 해당합니다. 귀신과 유사함은 서로 해쳐 약해진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수·화·목 세 가지가 서로 상반되었기 때문에 한열이 발생하여 심과 간을 공격하여 안정치 못한 것입니다.”)

後代欲除根本者, 良醫妙術所當親.

후대의 근본을 제거하려면 현명한 의사의 신묘한 기술을 직접 체험해야 하느니라.

1.1.18.20. 第二十大肚結起臥病源歌 | 대두결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馬患須看大腸結, 喘急肚高時時歇.

말의 질환중에 대장결{大肚結}을 살펴야 하나니, 헐떡거리고 배를 높이 들다가 때때로 멎기도 하느니라.

- 〔黃帝問師黃曰：“大肚結者何？”答曰：“大肚結者，因久熱傷脾，傳在胃中，冷熱不和，故結也。陽明主其病。”又云：“脾不磨而草不消，更遠行不飲，盛濃而結也。”又曰：“喘者，氣上不通，下氣拊屏而脹結起臥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대두결(大肚結)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대두결이란 오랜 열이 비를 상하게 하고 비로 옮겨가 냉열이 고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뭉친 것입니다. 양명경이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비가 갈지 못하여 풀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또 먼 길을 가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여 위 속이 진해져 뭉쳐진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헐떡거리는 것은 기가 위에서 소통되지 못하고 하부의 기가 막혀 부어오르고 뭉쳐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것입니다.”〕

小便打尾且奈何.

오줌이 꼬리를 때리니 어찌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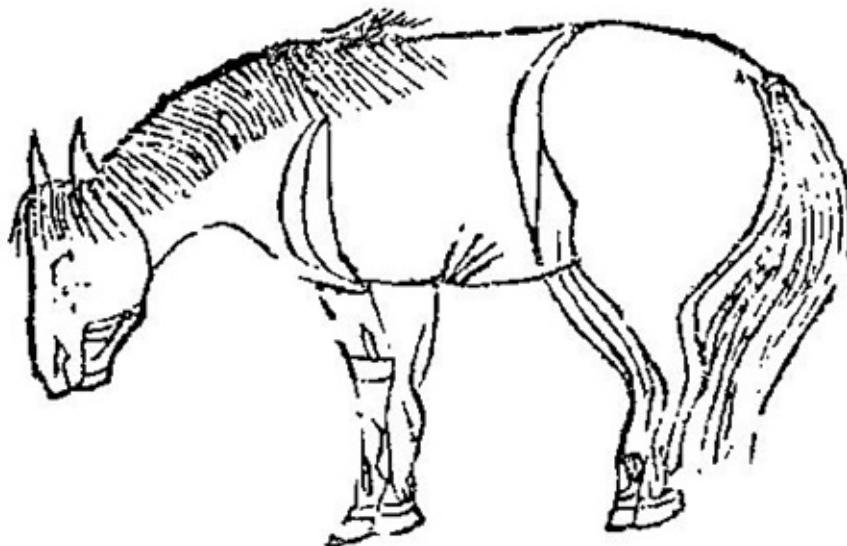
- (訣曰, 小便多虛, 一藏不行, 二藏不通, 名倍也.)

(가결에서는 오줌이 매우 허하여 한 번 숨어 나오지 않고 두 번 숨어 나오지 않는 것을 배(倍)라고 하였다.)

蜣螂通草豬油熱, 蟻蛄鼠糞共相和, 五味將來衝斷結.

강랑·통초를 돼지기름에 넣고 끓인 다음 누고·쥐똥과 섞어 오미(五味)를 넣어 먹으면 대두결이 뚫리느니라.

1.1.18.21. 第二十一肉斷起臥病源歌 | 육단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肉斷原因走不安, 四蹄不舉重如山

육단의 원인은 주행의 불안이고, 네 다리가 산처럼 무거워 들지 못하느니라.

- 〔黃帝問師黃曰：“肉斷者何？”答曰：“肉斷者，因大肥而乘飽走大急，蹙著心肺，及五損并脂肉損也。太陰主其病。”又曰：“冷氣不通上下，氣力入於蹄，故四蹄重如山。”又云：“熱上攻之心肺冷，乃下注，亦四蹄重。令馬飽上走，不惜其力，故肉斷也。”又曰：“冷熱不和，五藏不安，爲肥斷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육단(肉斷)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대답하였다. “육단이란 비대해진 상태에서 배불리 먹이고 타서 너무 빨리 달려 심과 폐가 오그라들고, 오장이 손상을 입고, 지방과 살이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태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냉기가 위아래로 통하지 않아 기가 기력이 발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다리가 산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열이 위로 올라가 공격하여 심과 폐가 차가워지

고, 이에 아래로 흘러가 네 다리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말을 배불리 먹이고 달리게 하면 힘을 아끼지 않으므로 육단이 됩니다.” 또 말하였다. “냉 열이 고르지 못하고 오장이 불안하여 비단(肥斷)이 됩니다.”)

但抽尾本胸堂血, 須至平和不再看.

다만 미본혈과 가슴팍에서 피를 내면 고르게 되어 다시 살피지 않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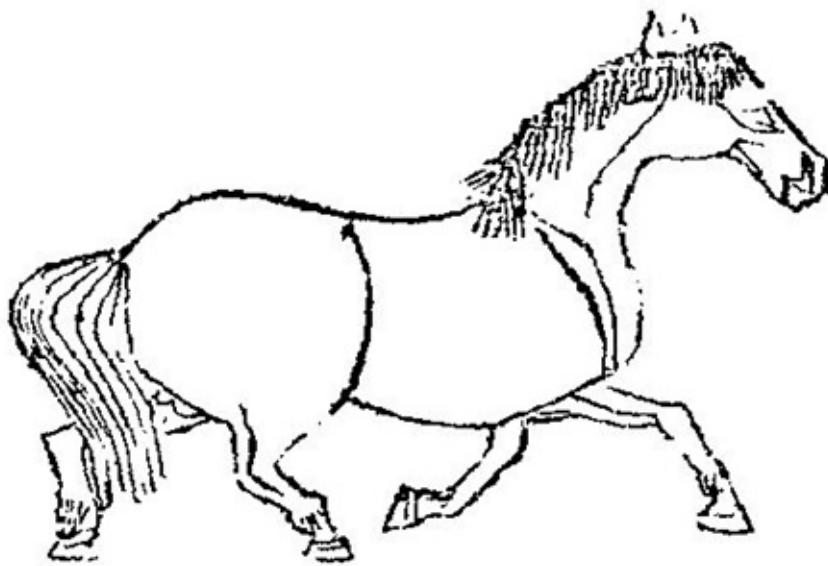
- (又曰：“尾連腸，又連心，瀉心之血，解肺之熱也。”)

(또 말하였다. “꼬리는 장과 연결되고, 또 심과도 연결되니, 가슴의 피를 빼내면 폐의 열이 풀어집니다.”)

更用消黃止痛散, 便是周時八駿.

다시 소황지통산을 쓰면 주(周)나라 때의 8마리의 준마(駿馬)가 되느니라.

1.1.18.22. 第二十二水掠肝起臥病源歌 | 수략간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馬因喫水損其肝，兩眼如癡似淚漫。

말이 물을 마시다가 간을 상했기 때문에 두 눈이 백치(白癡) 눈물만 가득한 듯 하도다.

- 〔黃帝問師黃曰：“水掠肝者何？”答曰：“水掠肝者，因久渴而不飲，飲而水復太過，水盛也。厥陰主其病。”又云：“肝者，其色青，受氣於亥，旺於卯，病於巳，死於午，墓在酉。”又曰：“水掠而傷肝，水遂傳於眼中淚出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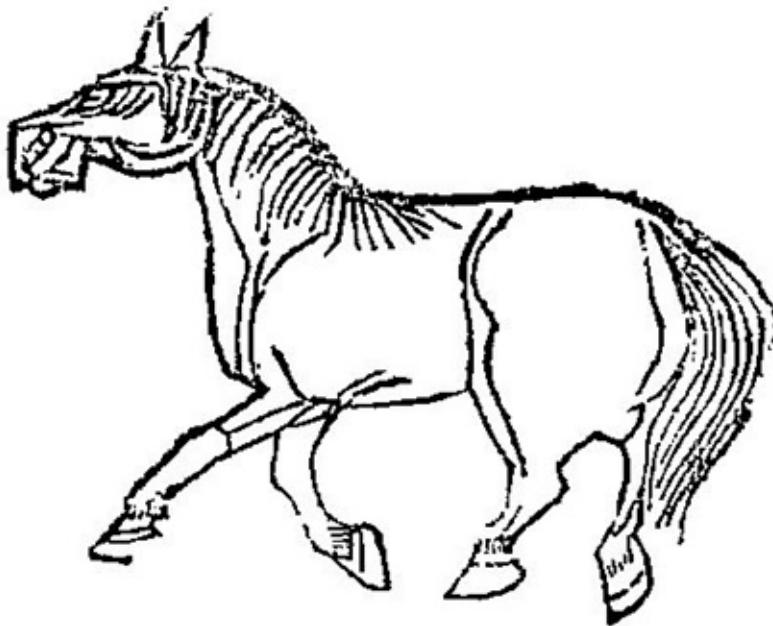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수략간(水掠肝)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수략간이란 오랫동안 갈증이 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 물이 무성해진 것입니다. 궤음경(厥陰經)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간은 색이 푸르고, 해에서 기를 받으며, 묘에서

왕성해지고, 사에서 병이 나며, 오에서 죽고, 묘가 유에 있습니다.” 또 말하였다. “수가 노략질하여 간을 상하게 하면 수는 결국 눈 속으로 들어가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行動之時如醉狗, 此時病狀救無緣. 後代之人習此理, 君還不信試醫看.

움직일 때는 술취한 개 같은데, 이러한 병의 상태는 구할 방법이 없도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익혀야 하는데, 임금은 도리어 의사의 시험을 믿지 못하느니라.

1.1.18.23. 第二十三 羅膈傷起臥病源歌 | 나격상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馬患難醫羅膈傷, 精神漸減越尋常.

말의 질환 중에 나격상은 치료하기 어려우니, 정신이 점차 없어지면 심상치 못한 것이라.

- 〔黃帝問師黃曰：“羅膈傷者何？”答曰：“羅膈傷者，因飽上走急，氣不及出，衝損羅膈也。大陰主其病。”又云：“心傷肺，肺傷魂神魂而精神短慢也。”又曰：“外主心肺，魂傷於裏。”經云：“羅膈不可犯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나격상(羅膈傷)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나격상이란 말이 배부른 상태에서 빠르게 달려 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나격(羅膈)을 치받아 상하게 한 것입니다. 태음경이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심은 폐를 상하게 하고, 폐는 혼(魂)·신(神)·백

(魄)을 상하게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외부에서 심과 폐가 주관하기에 혼은 안에서 상합니다.” 《경》에서 말하였다. “나격이 침범해서는 안된다.”)

膈損更兼肉又顛, 鼻內時流血水漿. 眼目昏昏兼腹脹, 血奔心時喘息忙.

나격이 손상을 입은데다 살 또한 떨고, 코에서 미음 같은 피가 흐르니라. 눈이 어두운데다 배도 부어오르고, 혈이 심장을 뛰게 할 때 숨을 헐떡거리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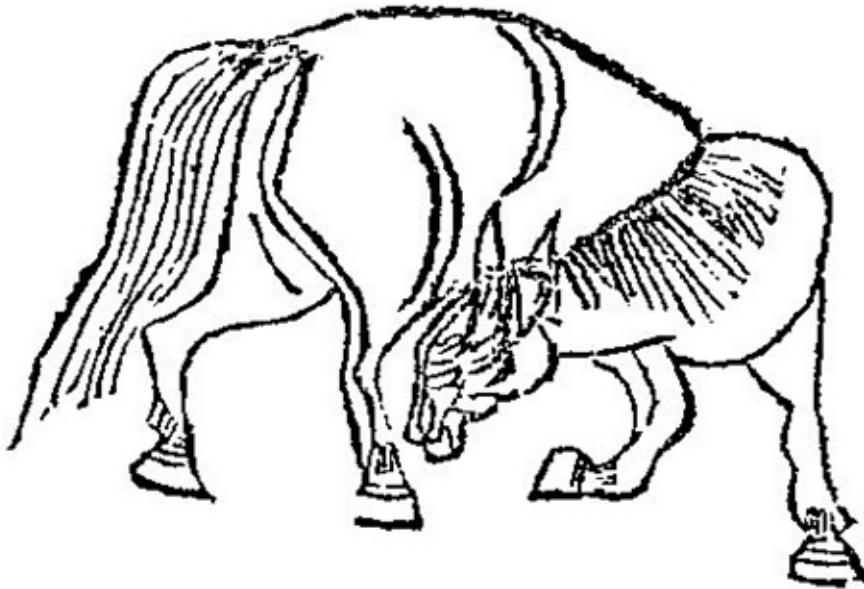
- (又云 : “眼目昏昏者, 肺傷也. 喘而傷肺, 氣不通上, 下眼也. 血奔心時, 羅膈損也.”)

(또 말하였다. “눈이 어두운 것은 폐가 상한 것입니다. 혈떡거려 폐가 상하면 기가 위로 소통되지 않고 눈으로 내려옵니다. 혈이 심을 마구 뛰게 할 때 나격이 손상됩니다.”)

爲報醫工休治療, 大都此病必難康.

의사의 기술에 보답하고자 하면 치료를 그만 두어야 하니, 도무지 이 병은 반드시 편안해지기 어려우니라.

1.1.18.24. 第二十四板腸糞不轉病源歌 | 판장분부전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板腸不轉非難治, 起臥時時謙腹高.

판장부전은 치료하기 어려운 증상은 아니니, 일어났다 자빠졌다 하면서 때때로 허구리와 배를 높이 드느니라.

- 〔黃帝問師黃曰：“板腸不轉者何？”答曰：“板腸不轉者，乘困而喫草大過多，更久渴飲而不息又走，飽上走急，冷熱不和。陽明主其病。”又云：“氣上下不通而腹脹，乘困而喫草成結也。結在腹腸中，緣冷熱不和胃中是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판장부전(板腸不轉)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판장부전이란 말을 피곤할 때까지 타고서 풀을 너무 많이 먹은데다, 다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도 쉬지도 못한 채 달려서 그런 것이고, 배부른 상태에서 빨리 달리면 냉열이 고르지 못하게 됩니다. 양명경에

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기가 위아래로 소통되지 않아 배가 부어오르고, 피곤 할 때까지 탔다가 풀을 먹여 결(結)이 된 것입니다. 뭉친 것이 뱃속에 있기 때문에 냉열이 위 속에서 고르지 못한 것입니다.”)

五朝七日未瘡瘻, 氣道從而奔後腰.

6박 7일이 되어도 낫지 않으면, 기도(氣道)에서부터 뒤쪽 허리로 내달리느니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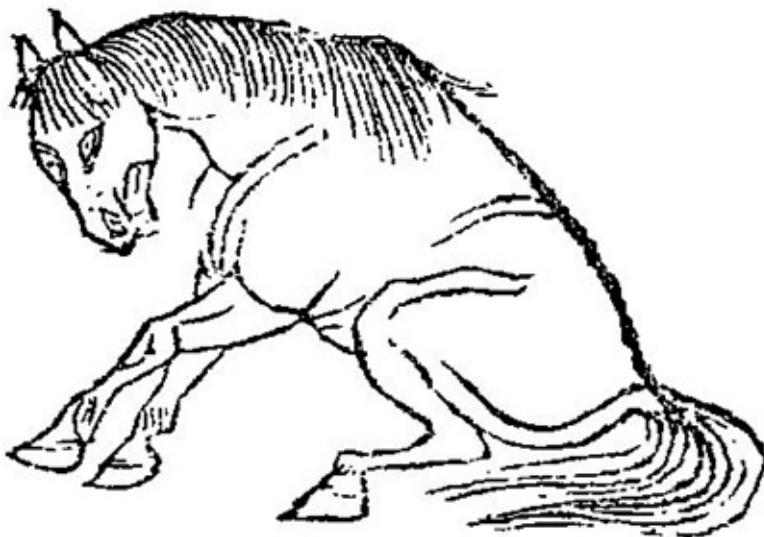
- 〔脾者, 痘先傳胃, 胃傳入腎. 腎者水, 脾者土. 氣不和, 主於腰間, 氣上下相攻也.〕

(비는 병이 우선 위로 전달되고, 위에서 신으로 전달된다. 신은 수이고 비는 토이다. 기가 고르지 못한 것이 주로 허리 사이에 있어 기가 위아래에서 서로 공격한다.)

草灰鼠糞豬油熱, 繢隨膩粉合爲膏. 五味將來同共使, 直饒鋼鐵也須消.

초회와 쥐똥을 돼지기름에 넣고 달인 다음 속수·이분과 합하여 고약을 만들어 야 하느니라. 이것을 오미(五味)와 함께 써야 하는데, 곧바로 먹이면 강철과 같아지면서 증세도 없어지느니라.

1.1.18.25. 第二十五水嘯起臥病源歌 | 수열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水嘯起臥少人知, 縮項蹲腰汗瀝啼¹.

수열기와는 사람들이 드물게 아는 것이니, 목을 움츠리고 허리를 웅크리며 땀이 발굽으로 떨어지느니라.

- 〔黃帝問師黃曰：“水嘯者何？”答曰：“水嘯者，爲騎來氣未定，乘飢困而喫水大急，冷氣相併，傷水²心肺而水嘯也。大陰主其病。水上不能肺，下不能入，水嘯也。徧項擡頭者，心胸痛也。”又曰：“汗出心傷，名水汗也，陰陽不和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수열(水嘯)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수열이란 말을 타고 나서 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거나, 말을 타서 굶주리고 피곤한데 물을 급하게 마셔 냉기가 서로 치받아 심폐를 상하게 하여 수열이 되는 것입니다. 태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수가 위로 ?? 못하고,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면 수열이 됩니다. 목이 치우치고 머리를 드는 것은 가슴팍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였다. “땀이 나와 심이 상하는 것을 수한(水汗)이라 하는데 음양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口中清水涓涓滴, 醫工見者亂猜疑.

입 속에서 맑은물이 방울져 떨어지니, 의사가 보고서 심란하여 의심하느니라.

- (口中清水者, 心水溢而不納, 水出也. 又曰：“水勝火也.”)

(입 속의 맑은 물이란 심에서 수가 넘쳐 들이지 못하여 수가 빠져나오는 것이다. 또 말하였다. “수가 화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火急房中看藥餌, 胸前捧捍不宜遲.

빨리 마굿간에 들이고 약을 먹이며 살필 것이고, 서둘러 가슴 앞쪽에 몽둥이를 가로질러 막아야 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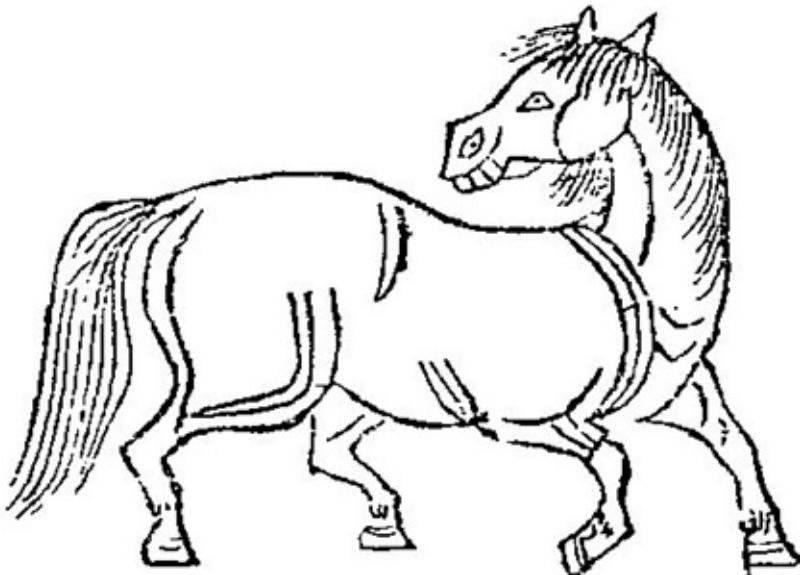
又力, 更用五香散, 三江出血病須移.

다른 처방. 오향산을 쓰고 삼강혈에서 혈을 빼내면 병을 이동시켜야 하느니라.

1. 啼 : 《조선우마의방》에는 ‘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2. 水 : 《조선우마의방》에는 ‘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1.18.26. 第二十六肉鼈起臥病源歌 | 육별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肉鼈起臥汗微微, 忽覺心狂左右窺.

육별기와로 땀이 조금 나고, 갑자기 미친듯이 좌우를 엿보느니라.

- 〔黃帝問師黃曰：“肉鼈者何？”答曰：“肉鼈者，因大肥而走大過，脂肉損而汗出也。小陰主其病。”又云：“汗出，傷心悶也。”又曰：“心生血，血生肉肥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육별(肉鼈)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육별이란 비대해진 말이 지나치게 달려 지방과 살이 손상되어 땀이 나는 것입니다. 소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땀이 나는 것은 심을 상하여 답답한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심은 혈을 생성하고, 혈은 살을 생성하여 살이 지는 것입니다.”)

肉動渾身顫颟颟, 無令醫者亂猜疑.

살이 움직이며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니 의사로 하여금 심란해져 의혹함이 없도록 하라.

- 〔脾痛, 肉亦痛顫也.〕

〔비(脾)가 아프면 살 또한 아프고 떨린다.〕

但用鍼刀向後覓, 腎堂尾本兩般治.

다면 침과 칼을 목을 향하고, 신당혈과 미본혈을 찾아 두 가지로 치료해야 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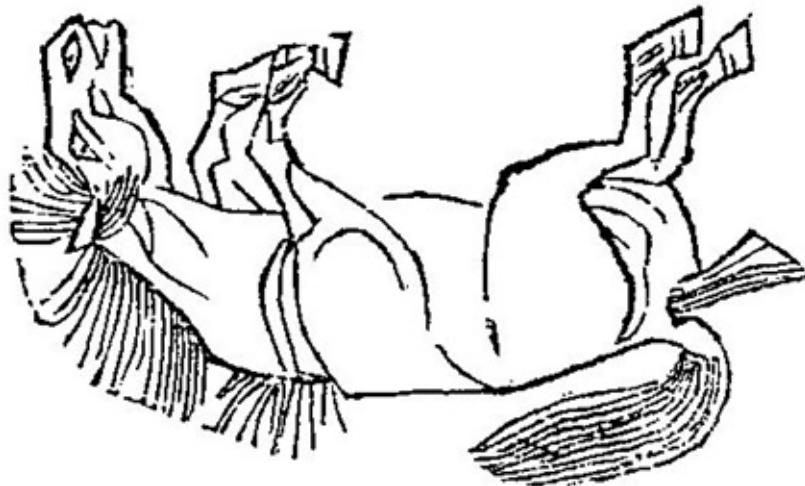
- 〔心生血, 血生肉, 肉生脂, 脂生髓, 髓生血, 是四瀉熱也.〕

〔심은 혈을 생성하고, 혈은 살을 생성하고, 살은 지방을 생성하고, 지방은 골수를 생성하고, 골수는 혈을 생성하니 이 네 가지가 열을 쓸어내린다.〕

又方鬱金并梔子, 消黃治肺共扶持

다른 처방으로는 울금과 치자로 황병을 없애고 폐를 치료하는 것을 한 가지로 의존해야 하느니라.

1.1.18.27. 第二十七 蟪蟲咬 起臥病源歌 | 비충교심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咬 起臥最幽玄, 不在五臟及章篇. 草料餵時依舊喫, 奉下棚來袞 眠.

교심기와는 가장 그윽하여 알기 어려우니, 원인이 오장에도, 책에 기록된 것도 없느니라. 풀과 사료를 먹을 때는 이전과 같은데, 마굿간에 데려다 놓으면 땅에서 뒹굴며 잠을 자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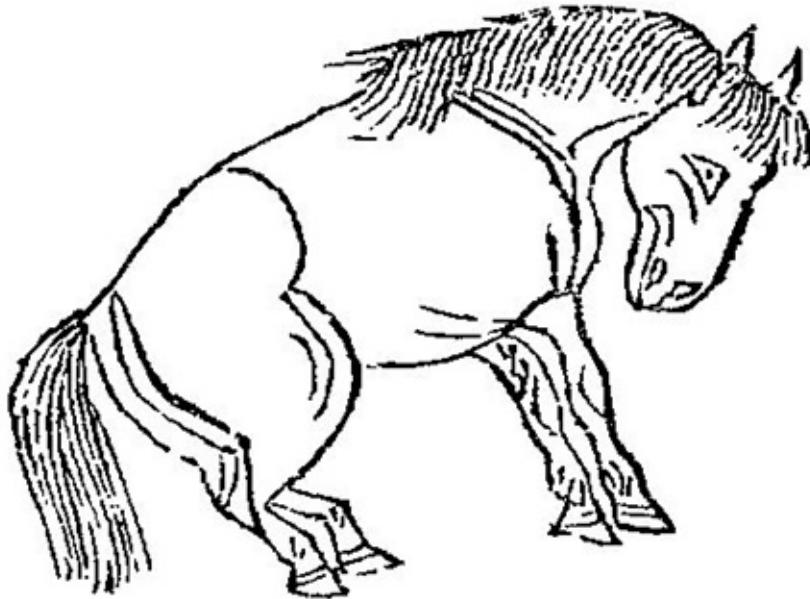
- 〔黃帝問師黃曰：“咬 者何？”答曰：“咬 者，馬身上有蟲，被主人繫馬在不淨之處其馬臥有蜱蟲，走奔脾腹或袖口上，咬其馬，悶悶而摸身，而起臥也。古時人有此，故注出之。”〕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교심(咬) 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교심이란 말의 몸 위에 총이 생긴 것인데, 주인이 말을 깨끗하지 못한 곳에 매어 놓아 그 말이 누울 때 벌레가 생겨 배나 수구(袖口) 위에서 움직이며 말을 깨물으니 말이 답답하여 몸을 더듬으며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것이 있었으므로 주석에서도 밝혔습니다.”〕

勞動醫人神上覓, 摘却之時必見安. 後代之人習此理, 免教良馬受鍼酸.

의사를 수고롭게 하여 말의 목 위를 찾아보고, 벌레를 제거하면 반드시 편안해 질 것이라. 후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익히면 좋은 말들이 침 맞는 고통을 면하게 할 것이라.

1.1.18.28. 第二十八 熊著五攢痛起臥病源歌 | 축저오찬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蹙著當時四蹄¹攢, 爲緣血脈不通連.

축저가 생겼을 때는 네 발을 모으고 있나니, 혈맥이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라.

- 〔黃帝問師黃曰：“蹙著血脈者何？”答曰：“蹙著血脈者，因久熱而傷，飽走大急，又春秋不抽六脈，更不依四時灌喚。蹙著血積聚大多，血壅滯而不和也。小陰主其病。”又云：“熱上攻之，血冷下注之氣也。熱上攻於腦，故血冷注於四蹄攢蹙也。”〕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축저혈맥(蹙著血脈)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축저혈맥이란 오랜 열로 상하고, 배부른 상태에서 급하게 달렸고, 또한 봄과 가을에 육맥(六脈)에서 혈을 빼내지 않았고, 다시 계절에 맞는 약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저(蹙著)는 혈이 너무 많이 쌓이

고 뭉쳐 혈이 막히고 고르지 못한 것입니다. 소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열이 상부를 공격하고, 혈이 차가워져 하부의 기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열이 뇌를 공격하기 때문에 혈이 차가워져 네 발로 흘러들어가 다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五日七朝不宜療, 腰曲頭低行步難.

6박7일동안 낫지 않으면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가 아래로 처져 걷기 어려우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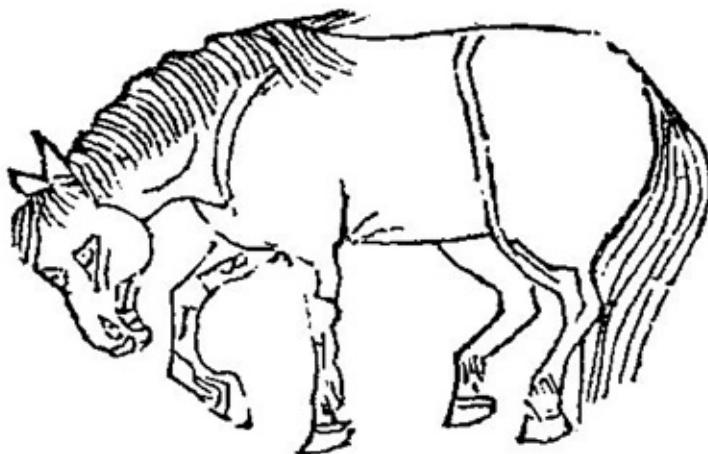
- (又云：“心血海也，血者，大傷於心，心傷於神，頭低傷氣，氣傷肺一經也。”)
(또 말하였다. “심은 혈의 바다인데 혈이 심을 상하게 하였고, 심이 신(神)을 상하게 하였고, 머리가 아래로 처져 기를 상하게 하였으며, 기가 폐경(肺經)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火急方中看藥餌, 抽其六脈自然安.

빨리 처방에 있는 약을 살펴보아 먹이고, 육맥에서 혈을 빼내면 저절로 편안해지리라.

1. 啼 : 《조선우마의방》에는 ‘啼’로 되어 있다. 앞으로 《신편집성우마의방》에서 ‘啼’자가 내용상 밭굽(혹은 밭)을 의미할 경우에는 글자는 그대로 두고 ‘啼’로 번역하며, 별다른 주석은 추가하지 않는다. ↪

1.1.18.29. 第二十九肺痛起臥病源歌 | 폐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肺痛起臥喘微微, 口內如綿要辨之.

폐통기와로 숨을 헐떡거리며 미약하고, 입 속이 솜처럼 하얗게 되는 것으로 판별해야 하느니라.

- (“肺痛者何?” 答曰：“肺痛者, 因大飽上走大急也, 傷於五攢肺氣也. 大¹陰主其病.” 又云：“氣屬陽, 藏屬陰. 其肺白, 受氣於寅, 生於未, 旺於酉, 痘於巳, 死於午, 葬在卯. 肺傷者也, 赤者心也. 五色使變如花色.”)

((황제가 물었다) “폐통(肺痛)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폐통이란 배부른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달려서 오장을 상하게 하고 폐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태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기는 양에 속하고, 장은 음에 속합니다. 폐는 흰색이고, 인(寅)에서 기를 받고, 미(未)에서 생성되고, 유(酉)에서 왕성하고, 사(巳)에서 병들고, 오(午)에서 죽고, 묘(卯)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폐를 상함은 붉은 색으로 심입니다. 오색으로 하여금 꽃과 같은 색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或卽胸前多有汗, 此是用藥不宜遲.

혹 가슴팍에서 땀이 많이 나오면 지체말고 약을 써서 치료해야 하느니라.

- (又曰：“肺是五藏華蓋，下連心，肺病於陽，以陰而克陽也，有此三般。又白²：汗出傷心故也）

(또 말하였다. “폐는 오장의 화려한 덮개이고, 아래로는 심과 연결되니, 폐가 양에서 병들었음은 음이 양을 이긴 것으로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말하였다. “땀이 나는 것은 심을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沙糖乳汁并鷄子, 消黃治肺并扶持. 咽之三土³無瘡差, 必定拋正豈復疑.

사탕과 젖과 계란을 써서 황병을 없애고 폐를 치료함을 한 가지로 해야 하느니라. 세 번 먹여 낫지 않으면 반드시 그만 두어야 할지니 어찌 다시 의심하겠는가.

¹. 大 : 경락이 나올 때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태(太)로 번역함. ↵

². 白 : 《조선우마의방》에는 ‘曰’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내용상 白을 ‘아뢰다’로 번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 ↵

³. 土 : 《조선우바의방》에는 ‘상’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1.18.30. 第三十大肚傷起臥病源歌 | 대두상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馬患須看大肚傷, 臥時不起汗淋浪.

말의 질환 중에 대두상을 살펴야 할지니, 누워있다가 때로 일어나지 못하고 땀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느니라.

- (“大肚傷者何?” 答曰：“大肚傷者, 因大飽而走大過, 傷其大肚, 又馬水穀不能回轉, 痛而不起臥也. 陽明主其病.” 又曰：“汗出心傷痛急也.”)

(“대두상(大肚傷)이란 무엇인가?” 답하였다. “대두상이란 몹시 배부른 상태에서 너무 달려 밥통{大肚}을 상하고, 또 말의 물과 곡식이 순환하지 못하여 아프고 일어나지 못하여 누워있는 것입니다. 양명경이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땀이 나는 것은 심이 상하여 갑작스럽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喘麤鼻乍兼肉顫, 鼻內時流糞氣漿.

거칠게 헐떡거리고 코에서 큰소리가 나면서 살이 떨리며, 콧속에서 때로 뚉물이 흐르느니라.

- 〔鼻氣喘而傷肺, 鼻吐而氣損也. 又云：“血奔心而子奔心, 母上¹大也, 痛顫也.〕

〔코로 숨을 헐떡거려 폐를 상하고, 코에서 토해내어 기가 손상되었다. 또 말하였다. “혈이 심장으로 내달리고 자(子)가 심으로 내달려 모토(母土) 가 커져 아프고 떨리는 것입니다.”〕

嘔氣之時胃必損, 便有靈方病也亡. (胃屬土, 土生金, 氣傳於子, 故肺氣痛更氣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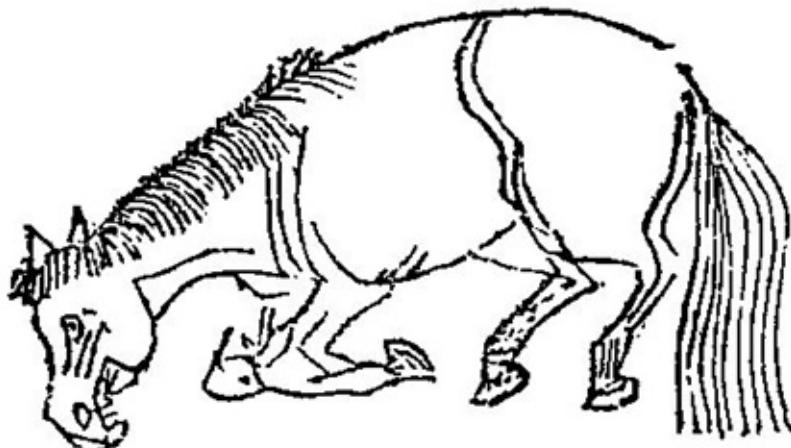
기가 막히는 것은 위가 반드시 손상된 것이니, 신령스런 처방이 있다면 병은 없을 것이련만,

爲報醫人休治療, 此時大命見無常.

의사에게 보답하기 위해 치료를 멈출지니, 이 때야 대명(大命)의 무상함을 보게되리라.

¹. 上 : 《조선우마의방》에는 ‘土’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1.18.31. 第三十一心痛起臥病源歌 | 심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心痛起臥有殊功, 口內如花脈帶洪.

심통기와에는 다른 효과가 있나니, 입 속이 꽃과 같고 맥이 흥(洪)하느니라.

- 〔黃帝問師黃曰：“心痛者何？”答曰：“心痛者，乘飢而走大急，因而喫水大急，傷心冷熱不利，水剋火，心病也。小陰主其病。”又云：“心者火也，心痛而汗出也。口中赤者心，白者肺，黃者脾，五藏相傳口如花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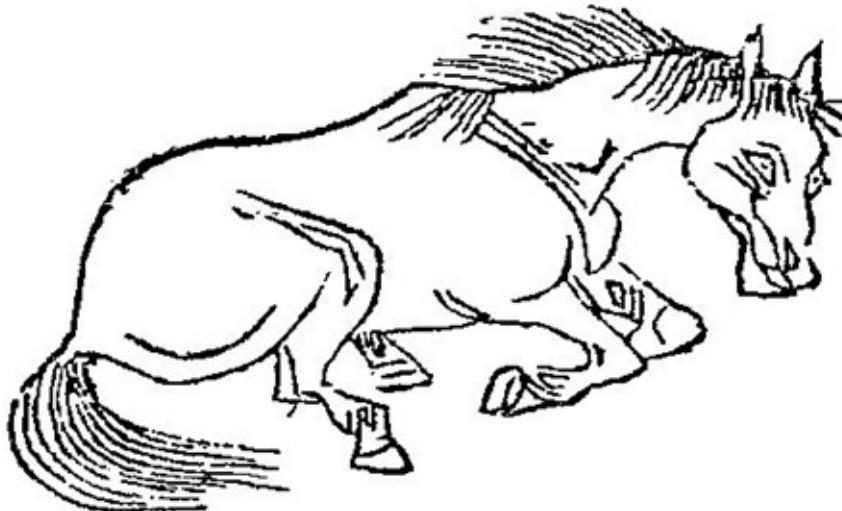
(황제가 사황에게 물었다. “심통(心痛)이란 무엇인가?” 사황이 답하였다. “심통이란 말을 타고 굶주린 상태에서 갑자기 달린데다, 피곤한데 물을 갑자기 마셔 심이 상하고 냉열이 이롭지 못한 것으로, 수가 화를 이겨 심에 병이 든 것입니다. 소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심은 화(火)요, 심이 아파서 땀이 나는 것입니다. 입 속에 붉은 것은 심이고, 흰 것은 폐고, 누런 것은 비(脾)이니, 오장이 서로 전달되어 입 속이 꽃과 같이 된 것입니다.”)

或卽胸前多有汗, 大黃紫花¹ 麥門冬. 生薑甘草并鷄子, 羌活茯苓肉蓯蓉. 九味將來同共使, 便是王良妙藥功.

혹 가슴팍에서 땀이 많이 나면, 대황·자완·맥문동, 생강·감초·계란, 강활·복령·
육종용, 이 아홉가지 약미를 모두 사용하라, 바로 이것이 왕량(王良)의 신묘한
약발이니라.

¹. 花 : 《조선우마의방》에는 ‘苑’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
랐다. ↵

1.1.18.32. 第三十二腎痛起臥病源歌 | 신통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腎痛起臥慢微微, 簇簇攢攢起臥遲.

신통기와는 느리고 미미하며, 발을 주춤주춤 모으며 일어나고 눕는 것이 굼뜨니라.

- 〔“腎痛者何?”答曰：“腎痛者，因飢困而走大急，又飲水大過，傷着內腎，冷氣注其陰間，起臥也。少陰主其病。”又曰：“腎水其色黑，受氣於巳，生於酉，王¹於申，病於午，死於丑，墓在辰。”又云：“腎是水，心屬火，冷熱不和，攻之腎痛也。”又曰：“冷氣痛而冷下四蹄攢也。”〕

(“신통(腎痛)이란 무엇인가?” 답하였다. “신통이란 굼주리고 피곤한데 갑자기 달리고,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셔 내신(內腎)이 상하고 냉기가 음부 사이로 들어가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것입니다. 소음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신수(腎水)는 색이 검고, 사(巳)에서 기를 받고, 유(酉)에서 생성되고, 신(申)에서 왕성하고, 오(午)에서 병들고, 축(丑)에서 죽고, 묘지가 진(辰)에 있습니다.” 또 말하였다. “신은 수(水)이고, 심은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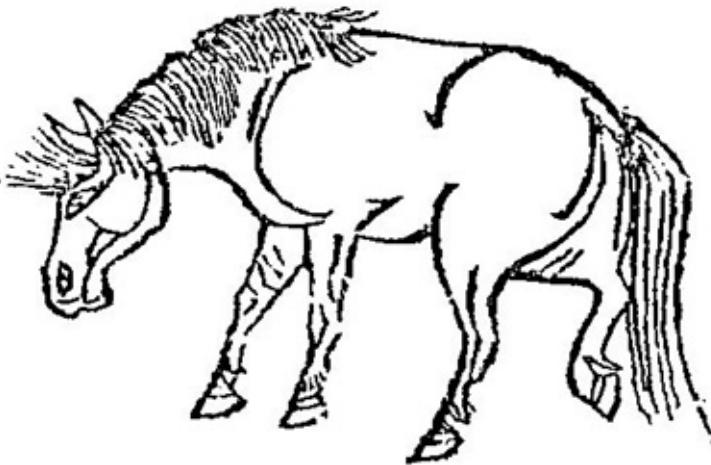
(火)인데, 냉열이 고르지 못하면 신을 공격하여 신통이 일어납니다.” 또 말하였다. “냉기로 아프면서 냉기가 하부로 내려가 발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口鼻尾尖須出血, 腎棚鍼燙更何疑. 茱萸厚朴當歸藥, 溫酒相和要灌之. 損着腎棚難治療, 應須不損壽堪期.

입·코·꼬리의 끝부분에서 피를 내야 하고, 신봉(腎棚)에 침을 놓고 불로 지지는 것을 어찌 의심하리오. 수유·후박·당귀를 따뜻한 술과 섞어 먹이는 것이 중요하나니. 신봉을 상하면 치료하기 어려우니 다치지 말아야 장수를 기약할 수 있느니라.

1. 王 : ‘旺’의 오기이다. ↪

1.1.18.33. 第三十三喫水傷腸胃起臥病源歌 | 낙수상장위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馬因喫水傷腸胃, 臥蠶白者別觀占.

말이 물을 마시다가 장과 위를 상하여 와잠(臥蠶)이 희면 특별하게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 〔“冷水傷者何?” 答曰：“冷水傷者, 久傷而不飲, 飲水大過, 水盛傷於大小腸冷也. 大陽主其病.” 又云：“小腸屬心, 通於舌. 舌下未¹者, 傷心. 小腸如白者, 傷肺. 肺傷令大腸乃不和, 故發起臥也.”〕

〔“냉수상(冷水傷)이란 무엇인가?” 답하였다. “냉수상이란 오랫동안 부상을 입고 있으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 물이 가득 해져 대장과 소장을 상하게 하는 냉입니다. 태양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소장은 심에 속하고 혀로 통합니다. 혀 아래가 붉은 것은 심을 상한 것입니다. 소장이 흰 것은 폐를 상한 것입니다. 폐가 상하여 대장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와가 일어난 것입니다.”〕

芎芻白芷當歸藥, 細辛陳橘共相兼, 好酒同調灌入口, 便是神醫用手拈。(乃兼切, 指取也.)

궁궁·백지·당귀, 세신·진귤피를 함께하여, 좋은 술에 섞어 입에 넣어주면 바로 이것이 신의(神醫)의 선택이니라.(념(拈)은 음(音)이 내렴절(乃兼切)이고, 취(取)함을 가리킨다.)

又方荳蔻并肉桂, 生姜酒下聖經言.

다른 처방으로 육두구와 육계, 생강술로 먹이는 것이니 성스러운 경전에서 말한 것이라.

¹. 未 : 《조선우마의방》에는 ‘赤’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1.18.34. 第三十四¹ 中結起臥病源歌 | 중결기와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病中中結要言論, 衣 時時起臥頻.

병 중에 중결기와는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매우 퉁굴면서 자주 일어났다
누웠다 하느니라.

- 〔“中結者何?” 答曰：“中結者，冷熱相交，因飢失時，冷熱不和而中結也。結在大腸四尺中，名中結也。陽明主其病。”又云：“飢飽後朱²水，多成中結也，又餵不依時，陽盛敗，故結之也。”又曰：“冷熱不和故也。”〕

(“중결(中結)이란 무엇인가?” 답하였다. “중결이란 냉열이 서로 엇갈린
데다 굽주리고 먹는 시간을 잃어 냉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중결이 되
는 것입니다. 대장 중반부 4척 범위에서 뭉치기 때문에 중결(中結)이라 합
니다. 양명경에서 이 병을 주관합니다.” 또 말하였다. “굽주리고 배부른
뒤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 대부분 중결이 되고, 또 때에 맞게 먹지 못하여
양이 왕성하여 어그러지기 때문에 뭉치는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냉열
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要將雙腳跑胸臆，看腹廻頭意欲伸。

두 다리로 가슴을 허비적거리고, 머리를 돌려 배를 보며 몸을 펴고자 하느니
라.

- 〔訣曰，今馬氣下不通，其氣到入胸前，中氣痛而抱胸也。〕

(가결에서 말하길, 지금 말의 기가 하부로 소통되지 않고 도리어 가슴팍
으로 들어가서 중기(中氣)가 아파서 가슴을 감싸는 것이라고 하였다.)

續隨膩粉并通草，郁李瞿麥共調勻，以酒相和藥一處，學取從前妙手人。

속수·이분·통조, 육리인·구맥을 모두 섞어 술에 타서 한 번 먹여야 하나니 이것
을 예전의 고수에게서 배워야 하느니라.

1. 第三十四 : 《조선우마의방》은 이 단원 뒤에 두 개의 단원이 더 있다. 《마경언해》(馬經諺解) 역시 기와병(起臥病)을 36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

2. 朱 : 《조선우마의방》에는 ‘失’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바의방》을 따랐다. ↵

1.1.19. 診候馬病脈 | 말이 병을 앓고 있는 병의 맥을 진단 함

凡候馬脈, 先撫左腋下, 其脈從前來者, 肺·心·肝脈也. 若從後來者, 脾·腎脈也. 動如春者, 死. 次撫右脈也, 脈如雀啄·屋漏, 十死一生. 脈緩大者, 心脈也. 如箭肝脈也. 細而硬腎脈也. 滴滴如彈丸, 復似連珠, 脾脈也. 前來爲陽脈, 後來爲陰脈. 脈來過如流水者, 痘雖重不死, 可治. 如有風病者, 先看外五候. 若眼有異, 痘在心; 若鼻有異, 痘在肺; 若耳有異, 痘在肝; 若四脚直, 痘在腎; 若口合噤, 痘在脾. 又曰, 心脈細而緩, 肺脈緩而大, 肝脉實而大, 腎脉如流水.

말의 맥을 진단할 때는 우선 왼쪽 겨드랑이 아래를 짚는데, 맥이 앞에서부터 오는 것은 폐·심·간맥이다. 뒤에서부터 온 것이면 비·신맥이다. 맥이 절구와 같아 뛰면 죽는다. 그 다음은 오른쪽 맥을 짚는데, 맥이 **작탁(雀啄)**¹이나 **옥루(屋漏)**² 같으면 열 마리중 한 마리만 살아남는다. 맥이 완대(緩大)한 것은 심맥(心脈)이다. 화살같은 것은 간맥(肝脈)이다. 세(細)하면서 단단한 것은 신맥(腎脈)이다. 탄환이 떨어지듯하다가 다시 구슬이 이어진 듯한 것은 비맥(脾脈)이다. 앞에서부터 온 것은 양맥(陽脈)이고, 뒤에서부터 온 것은 음맥(陰脈)이다. 맥이 오고가는 것이 물이 흐르는 듯하면 병이 위증하더라도 죽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 풍병(風病)이 있을 때는 우선 외부의 다섯 가지 징후를 살펴야 한다. 눈에 이상이 있으면 병이 심에 있고, 코에 이상이 있으면 병이 폐에 있고, 귀에 이상이 있으면 병이 간에 있고, 네 다리가 뻣뻣해지면 병이 신에 있고, 주둥이를 악물고 있으면 병이 비에 있다. 또한 심맥은 세(細)하면서 완(緩)하고, 폐맥은 완(緩)하면서 대(大)하고, 간맥은 실(實)하면서 대(大)하고, 신맥은 물이 흐르는 듯하다고 하였다.

¹. 작탁(雀啄) : 참새가 부리로 쪼는 듯한 모양. ↵

2. 옥루(屋漏) : 집에서 물이 새어 떨어지는 모양. ↵

1.1.20. 骨名之圖 | 말의 뼈 이름을 나타낸 그림



骨名之圖 말의 뼈 이름을 나타낸 그림

閃骨 眼箱骨 額骨 眉稜骨 天頂骨 腦骨 額角骨 耳筍骨 伏兔骨 垂睛骨 頰頸骨 喉骨
 面鎖骨六十二節 弓子骨 鬚甲骨 桤子骨 脱尖骨 外乘重骨 肘骨 脊梁骨三十二條 肋
 扇骨十二條 邊骨三條 明子骨八條 穩子骨 三山骨 接脊骨 小胯骨 大胯骨 盛胯骨 尾
 巴骨二十二節 腿胫骨 尾股骨二十四節 鷹翅骨 掠草骨 烏筋骨 合子骨 揭骨 痢藜骨
 鵝鼻骨 天定骨 鹿節骨 越骨 子骨 夾膝骨 蹄胎骨 膝蓋骨 膝角骨 柱膝骨 肘骨 攢筋
 骨 堂骨 罂蹄骨 柱蹄骨 脂蹄骨 髓骨 同筋骨 裏乘骨 搶風骨 睽子骨 罂頸骨〇〇節 下
 排齒骨 上排齒骨 下頷骨 舌連骨 齒骨四十个 上頷骨 鼻筒骨 睽車骨 鼻隔骨鼻素骨
 鼻梁骨 松子骨

섬골(閃骨) 안상골(眼箱骨) 액골(額骨) 미릉골(眉稜骨) 천정골(天頂骨) 뇌골
 (腦骨) 액각골(額角骨) 이사골(耳筍骨) 복토골(伏兔骨) 수정골(垂睛骨) 협시
 골(頰頸骨) 후골(喉骨) 면쇄골62마디(面鎖骨)六十二節 궁자골(弓子骨) 기갑
 골(鬚甲骨) 혐자골(梃子骨) 박첨골(脱尖骨) 외승중골(外乘重骨) 주골(肘骨)

척량골32조(脊梁骨)三十二條 늑선골12조(肋扇骨)十二條 변골3조(邊骨)三條
명자골8조(明子骨)八條 연자골(硯子骨) 삼산골(三山骨) 접척골(接脊骨) 소과
골(小膀骨) 대과골(大膀骨) 성과골(盛膀骨) 미파골22절(尾巴骨)二十二節 퇴
정골(腿艇骨) 미고골24절(尾股骨)二十四節 안시골(鷹翅骨) 약초골(掠草骨)
오근골(烏筋骨) 합자골(合子骨) 게골(揭骨) 질려골(蒺藜骨) 아비골(鵝鼻骨)
천정골(天定骨) 녹절골(鹿節骨) 월골(越骨) 자골(子骨) 협슬골(夾膝骨) 제태
골(蹄胎骨) 슬개골(膝蓋骨) 슬각골(膝角骨) 주슬골(柱膝骨) 주골(肘骨) 찬근
골(攢筋骨) 당골(堂骨) 엄제골(罨蹄骨) 주제골(柱蹄骨) 경정골(脛艇骨) 비골
(髀骨) 동근골(同筋骨) 이승골(裏乘骨) 창풍골(搶風骨) 억자골(臆子骨) 엄상
골(罨頸骨) 설연골(舌連骨) 치골40개(齒骨)四十个 상함골(上頷骨) 비통골(鼻筒骨) 억거
골(臆車骨) 비격골(鼻隔骨) 비소골(鼻素骨) 비량골(鼻梁骨) 송자골(松子骨)

1.1.21. 穴名之圖 | 말의 혈자리 명칭을 나타낸 그림



穴名之圖 말의 혈자리 명칭을 나타낸 그림

三江大脈穴 鎖口穴 骨眼穴 風門穴 垂睛穴 禁穴 眼脈穴 禁穴 大風門穴 伏兔穴 上
 上委穴 上中委穴 中中委穴 下上委穴 上下委穴 喉門穴 下中委穴 中下委穴 鶴脈穴 鬚甲穴 下下委穴 喉臍穴 弓子穴 腎棚穴 腎臍穴 百會穴 腎角穴 脾臍穴
 巴山穴 仰瓦穴 大膀穴 尾本穴 陰榆穴 路股穴 尾尻穴 牽腎穴 汗溝穴 邪氣穴 小膀
 穴 賤群穴 腎堂穴 掠草穴 曲池穴 鹿節穴 天白穴 蹄門穴 蹄頭穴 蹄頭穴 肚口穴 雲
 門穴 肝臍穴 肺臍穴 帶脈穴 天白穴 垂泉穴 蹄頭穴 蹄頭穴 板筋穴 纏跪穴 膝脈穴
 夜眼穴 外乘重穴 同筋穴 胸堂穴 心臍穴 掩肘穴 搶風穴 乘鎧穴 脖尖穴 脖攔穴 肺
 門穴 肺攀穴 衝天穴 玉堂穴 通關穴 血堂穴 開關穴

삼강대맥혈(三江大脈穴) 쇄구혈(鎖口穴) 골안혈(骨眼穴) 풍문혈(風門穴) 수정혈(垂睛穴) 금혈(禁穴) 안맥혈(眼脈穴) 금혈(禁穴) 대풍문혈(大風門穴) 복토혈(伏兔穴) 상상위혈(上上委穴) 상중위혈(上中委穴) 중상위혈(中上委穴) 중중위혈(中中委穴) 하상위혈(下上委穴) 상하위혈(上下委穴) 후문혈(喉門穴) 하중위혈(下中委穴) 중하위혈(中下委穴) 골맥혈(鶲脈穴) 기갑혈(鬚甲穴) 하하위혈(下下委穴) 후수혈(喉膾穴) 궁자혈(弓子穴) 신봉혈(腎棚穴) 신수혈(腎膾穴) 백회혈(百會穴) 신각혈(腎角穴) 비수혈(脾膾穴) 파산혈(巴山穴) 아와혈(仰瓦穴) 십과혈(大胯穴) 미본혈(尾本穴) 음유혈(陰榆穴) 노고혈(路股穴) 미고혈(尾尻穴) 견신혈(牽腎穴) 한구혈(汗溝穴) 사기혈(邪氣穴) 소과혈(小胯穴) 겸군혈(謙群穴) 신당혈(腎堂穴) 약초혈(掠草穴) 곡지혈(曲池穴) 녹절혈(鹿節穴) 천백혈(天白穴) 제문혈(蹄門穴) 제두혈(蹄頭穴) 제두혈(蹄頭穴) 두구혈(肚口穴) 설문혈(雲門穴) 간수혈(肝膾穴) 폐수혈(肺膾穴) 대맥혈(帶脈穴) 천백혈(天白穴) 수천혈(垂泉穴) 제두혈(蹄頭穴) 제두혈(蹄頭穴) 판근혈(板筋穴) 전원혈(纏踝穴) 슬맥혈(膝脈穴) 원야안혈(跪夜眼穴) 외승증혈(外乘重穴) 동근혈(同筋穴) 흉당혈(胸堂穴) 심수혈(心膾穴) 엄주혈(掩肘穴) 창풍혈(搶風穴) 승등혈(乘鐙穴) 박첨혈(膊尖穴) 박란혈(膊攔穴) 폐문혈(肺門穴) 폐반혈(肺攀穴) 충천혈(衝天穴) 옥당혈(玉堂穴) 통관혈(通關穴) 혈당혈(血堂穴) 개관혈(開關穴)

1.1.21.1. 伯樂鍼經 | 백락¹의 침경

大凡行鍼, 先知穴道去處. 次辨淺深補瀉之法, 免其失誤. 右手持鍼, 左手按穴. 未行針, 切忌大風·大雨, 緣風是禍害, 雨是絕命, 陰陽分爭, 不可行針. 用針須依穴道, 看病淺深補瀉相應. 出氣爲虛, 入氣爲實. 左轉針爲補, 右轉針爲瀉, 後按針爲中補, 次按針爲中瀉. 若偏較一絲, 不如不針, 隔一毫如隔大山. 仔細審詳, 對病行針, 何愁不痊. 具穴道如後.

침을 놓을 때는 우선 혈도가 가는 곳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깊이와 보(補)하고 사(瀉)하는 방법을 분별해야 실수가 없게 된다. 오른손으로 침을 잡고 왼손으로 혈자리를 누른다. 침을 놓지 않을 때는 심한 바람과 큰 비를 절대로 꺼려하는데, 바람은 재앙과 해악이고, 비는 명을 끊으니, 음과 양이 다투므로 침을 놓아서는 안된다. 침을 쓸 때는 혈도에 의거하고, 병을 살펴서 깊이와 보사(補瀉)가 서로 알맞아야 한다. 기를 빼서 허하게 하고, 기를 주입하여 실하게 한다. 침을 왼쪽으로 돌려 보하고, 침을 오른쪽으로 돌려 사하며, 후에 침을 눌러 중보(中補)하고, 그 다음에 침을 눌러 중사(中瀉)한다. 만약 실 한오라기만 큼이라도 치우치면 침을 놓지 않음만 못한 것이고, 텔오라기 하나라도 간격이 있는 것은 큰 산만큼 간격이 있는 것과 같다. 자세히 살펴 병을 대하고 침을 놓는다면 어찌 낫지 않을 근심을 하겠는가. 아래에 혈도에 대하여 모두 갖추어놓았다.

鶲脈穴在頰骨下四指. 是穴入針三分出血, 療五臟積熱·壅毒·揩²(音該, 摩拭)擦·疥勞之病.

골맥혈(鶲脈穴)은 광대뼈 아래 네 손가락 정도 되는 곳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3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오장의 적열(積熱)·옹독(壅毒)·해찰(揩擦)(揩의 음은 해(該)이고, 비벼 문지른다는 뜻이다.)·개로(疥勞)의 병을 치료한다.

胸堂穴在臆骨兩邊. 是穴針入三分出血, 療心經積熱, 胸膊一切痛病.

흉당혈(胸堂穴)은 가슴뼈 양쪽 가장자리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3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심경(心經)의 적열, 가슴과 어깨의 온갖 통증을 치료한다.

帶脈穴在肘後四指. 是穴針入二分出血, 療黑汗及腸黃病.

대맥혈(帶脈穴)은 앞다리 뒤쪽 네 손가락 정도 되는 곳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2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흑한(黑汗) 및 장황(腸黃)의 병증을 치료한다.

腎堂穴在腎尖兩邊相對. 是穴針入一分出血, 療腰間滯氣及腎臟風邪·把膀病.

신당혈(腎堂穴)은 신첨 양쪽 가장자리에 마주하고 있다. 이 혈에는 침을 1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허리 사이에 기가 정체된 증상 및 신장의 풍사(風邪)와 파고(把胯)의 병증을 치료한다.

尾本穴在尾根底四指. 是穴入針三分出血, 療脊間滯氣·把腰病.

미본혈(尾本穴)은 꼬리가 시작되는 곳 아랫부분의 네 손가락 정도 되는 곳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3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등 사이에 정체된 기와 파요(把腰)의 병증을 치료한다.

同筋穴在裏乘重臆骨下四指. 是穴入針二分出血, 療閃擊着乘重骨腫痛并心疽病.

동근혈(同筋穴)은 타는 곳 안쪽의 뼈와 가슴뼈 아래 네 손가락 정도 되는 곳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2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승중골(着乘重骨)이 접질러져 붓고 아픈 것과 심저병(心疽病)을 치료한다.

夜眼穴在夜眼下四指. 是穴禁止不針.

야안혈(夜眼穴)은 야안(夜眼) 아래 네 손가락 정도 되는 곳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놓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曲池穴在兩後脚雁翅骨下, 曲盤凹處. 是穴入針三分出血, 療雁翅骨腫大及鵝鼻骨腫疼病.

곡지혈(曲池穴)은 양쪽 뒷다리의 안시골(雁翅骨) 아래 굽고 오목한 곳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3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안시골이 붓고 커진 증상 및 아비골(鵝鼻骨)이 붓고 아픈 병증을 치료한다.

膝脈穴在膝下四指筋前骨後. 是穴入針二分出血, 療閃擊着夾膝骨腫·皮骨勞跛痛病.

슬맥혈(膝脈穴)은 무릎 아래 네 손가락 정도 되는 곳의 근전골(筋前骨) 뒤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2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협슬골(筋前骨)이 접질려 부은 것과 피부와 뼈가 피로하여 절뚝거리고 아픈 병증을 치료한다.

纏腕穴在前攢筋骨上, 後鹿節骨上, 筋前骨後. 是穴針入三分出血, 療骨節腫痛·板筋腫病, 封裹裹至較³.

전원혈(纏腕穴)은 앞쪽 찬근골(攢筋骨)의 위, 뒷쪽 녹절골(鹿節骨)의 위, 근전골(筋前骨)의 뒤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3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골절로 붓고 아픈 것과 판근(板筋)이 붓고 아픈 병증을 치료한 다음 싸매어 놓으면 효과가 좋다.

蹄頭穴在前脚川字上, 後腳八字上, 共四穴. 入針二分出血, 療攢筋鹿節骨腫疼及蹄胎腫毒病, 用藥裹.

제두혈(蹄頭穴)은 앞다리 천(川)자가 있는 위, 뒷다리 팔(八)자가 있는 위에 있는데 모두 4개의 혈이 있다. 침을 2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찬근골과 녹절골이 붓고 아픈 증상과 발굽과 자궁의 종독을 치료한 다음 약을 써서 싸맨다.

裏外項上共一十八穴, 療馬患項脊愞, 低頭不得病.

목 위의 안팎으로 모두 18개의 혈이 있는데, 말이 항척린(項脊愞)으로 머리를 숙일 수 없는 병증을 치료한다.

上上委 上中委 上下委 中上委 中中委 中下委 下上委 下中委 下下委

상상위 상중위 상하위 중상위 중중위 중하위 하상위 하중위 하하위

已上十八穴, 入針一寸三分, 療項脊愞低頭不得, 火鍼不較卽烙. 若是血氣壅, 卽出胃堂鶴脈大穴, 用火鍼於八竅穴. 尾前短節已後, 兩面共有六鍼并八竅穴, 是七穴各去脊梁四指. 是穴鍼入一寸五分. 若是冷風吹着及簷下雨水淋着, 或臟腑冷氣傳流并內所傷, 須囁補暖, 溫脾氣藥及溫燉. 若是損傷骨髓肉斷, 血脈不通, 須囁補血脈, 止痛藥, 并用火鍼.

이상의 18개의 혈은 침을 1촌 3푼 깊이로 놓아 항척린(項脊愞)으로 머리를 숙일 수 없어 화침을 놓았는데 효과가 없을 때는 즉시 지진다. 만약 혈기가 막혔을 때는 즉시 흉당혈과 골맥혈에서 혈을 크게 빼내고, 팔교혈에 화침을 놓는

다. 꼬리 앞부분의 짧은 마디 뒤쪽으로 양쪽 면에 있는 총 6개의 침혈과 팔교혈의 7개의 혈은 각각 등에서 네 손가락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1촌 5푼 깊이로 놓는다. 찬바람에 노출되고 처마 아래로 떨어지는 빗물에 노출되었거나, 혹은 장부에 냉기가 흘러들어 안에서 상하였다면 보하고 따뜻하게 하는 약을 먹여야 하니, 비기(脾氣)를 따뜻하게 하는 약을 쓰고 찜질을 한다. 만약 골수를 손상하거나 근육이 끊어져 혈맥이 소통되지 않으면 혈맥을 보해야 하니 통증을 멎게 하는 약을 쓰고, 아울러 화침을 쓴다.

膊上八穴, 兩面共一十六穴. 用火鍼各入一寸, 療血脉凝滯·肺氣把·膊及膊尖骨腫大腫痛病.

어깨 위의 8개의 혈은 양쪽 모두 16개의 혈이 있다. 화침(火鍼)을 1촌 깊이로 놓아 혈맥이 막히는 증상, 폐기파(肺氣把), 어깨와 박첨골(膊尖骨)이 크게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膊尖 脸欄 搶風 肺門 肺攀 掩肘 乘澄⁴ 衝天⁵

박첨혈 박란혈 창풍혈 폐문혈 폐반혈 엄주혈 승등혈 충천혈

弓子穴在弓子骨上四指. 是穴入針一寸三分, 拔拽動皮, 入溫氣, 療膊怯氣滯病.

궁자혈(弓子穴)은 궁자골(弓子骨) 위쪽 네 손가락 정도 되는 곳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1촌 3푼 깊이로 놓은 다음 뽑고나서 살갗을 잡아당겨 온기가 들어가도록 하여 박겁(膊怯)으로 기가 정체된 병증을 치료한다.

膀(口故切股也)上八穴, 兩面共一十六穴. 火鍼各入一寸, 療內腎積冷, 抽把膀病.

넓적다리(膀는 음(音)이 구고절(口故切)이고 넓적다리이다.) 위의 8개의 혈은 양쪽으로 모두 16개의 혈이 있다. 화침을 1촌 깊이로 놓아 내신(內腎)에 냉이 쌓인 증상을 치료하고 파고병(把膀病)을 제거한다.

巴山路股大跨小跨汗溝⁶ 仰瓦 邪氣牽腎

파산혈 노고혈 대과혈 소과혈 한구혈 양와혈 사기혈 견신혈

腰上三穴, 兩面共六穴.

허리 위의 3개의 혈은 양쪽으로 모두 6개의 혈이 있다.

腎棚 腎臍 腎角

신봉혈 신수혈 신각혈

并接脊骨前百會一穴, 共七穴, 去脊梁四指, 每穴相離四指. 火鍼入一寸五分, 療內
腎積冷氣把腰病.

아울러 등뼈가 접한 곳 앞쪽의 백회혈(百會穴) 하나와 함께 모두 7혈은 등에서
네 손가락 정도 되는 곳에 있고, 혈마다 서로 네 손가락 정도 떨어져 있다. 화침
을 1촌 5푼 깊이로 놓아 내신에 냉이 쌓여 허리를 쓰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
다.

肝臍穴在左裏仁畔, 從後第五肋裏, 去脊梁一尺五寸. 是穴火鍼入一寸, 療一切肝家
之病.

간수혈(肝臍穴)은 왼쪽 안쪽의 인반(仁畔), 뒤쪽에서부터 다섯 번째 늑골 안쪽
으로, 등마루에서 1척 5촌 정도 떨어져 있다. 이 혈에는 화침을 1촌 깊이로 놓
아 간(肝)에 생기는 온갖 병을 치료한다.

脾臍穴在從後第三肋裏, 自脊梁仰手却合手. 是穴火鍼入一寸, 療脾胃傷冷·脾寒打
顛·脾不磨病.

비수혈(脾臍穴)은 뒤에서부터 세 번째 늑골 안쪽, 등마루에서부터 손을 들어
합친 정도 되는 곳에 있다. 이 혈에 화침을 1촌 깊이로 놓아 비위(脾胃)가 냉에
상한 증상, 비(脾)가 차가워 떠는 증상, 비가 갈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肺臍穴在從後第九肋裏, 去脊梁一尺五寸. 是穴火鍼入一寸, 療肺氣滯及肺痛病.

폐수혈(肺腧穴)은 뒤에서부터 아홉 번째 늑골 안쪽, 등마루에서 1척 5촌 떨어진 곳에 있다. 이 혈에는 화침을 1촌 깊이로 놓아 폐기가 정체된 증상 및 폐가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兩耳中有禁穴二道, 不得鍼刺.

양쪽 귀 속에는 두 길의 금지된 혈이 있으니 침을 놓을 수 없다.

大風門穴在兩耳根後面一指. 是穴火燒烙鍼圍烙深三分, 油塗, 療卒中·破傷風或諸風病.

대풍문혈(大風門穴)은 귓뿌리 뒤쪽면의 한 손가락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 혈은 불에 달군 낙침(烙鍼)을 3푼 깊이로 둘러 지진 다음 기름을 발라 갑작스런 중풍이나 파상풍(破傷風), 혹은 여러 가지 풍병(風)을 치료한다.

風門穴三道在額上檜(尺古切, 搖動)睛⁷髮下. 是穴火燒烙鐵深入三分, 療肝昏·腦黃病, 三穴一各⁸.

풍문혈(風門穴)은 세 길이 있는데, 이마 위, 앞머리(檜은 음(音)이 척고절(尺古切)이고 요동한다는 뜻이다.) 아래에 있다. 이 혈에는 달군 낙침을 3푼 깊이로 놓아 간흔(肝昏)과 뇌황병(腦黃病)을 치료하는데, 세 혈에 각각 한 번씩 침을 놓는다.

通關⁹穴二道在舌根底下兩邊. 是穴入火針二分出血, 療六脈閉塞·舌本脹病.

통관혈(通關穴)은 두 길이 있는데, 혀뿌리 아래부분의 양쪽 가장자리에 있다. 이 혈은 화침을 2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육맥이 막힌 증상과 설본(舌本)이 부어오른 병을 치료한다.

玉堂穴在口內上齶(五各切, 齒根肉)第三. 是穴入針二分出血, 仍用鹽擦之, 療五臟伏熱腦壅束·口黃病.

옥당혈(玉堂穴)은 입속 윗 잇몸(齶은 음이 오각절(五各切)이고 이뿌리의 살이다.) 세 번째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2푼 깊이로 놓아 피를 빼낸 다음 소금을 바른다. 오장의 복열로 뇌가 막히고 뭉치는 증상과 구황병(口黃病)을 치료한다.

開關穴二道在口內兩頰上腫處. 是穴火燒頂子烙二分, 入鹽擦, 噻涼藥, 治上焦壅熱
嚥水草難病.

개관혈(開關穴)은 두 길이 있는데, 입속 양쪽 뺨 위의 볼록한 있는 곳에 있다. 이 혈에는 달군 정자락(頂子烙)을 2푼 깊이로 놓은 다음 소금을 바르고 성질이 시원한 약을 먹인다. 상초(上焦)에 열이 몰려 물과 풀을 먹기 어려운 증상을 치료한다.

喉門穴二道在頰下一指相對. 是穴病輕卽火針通開各入三分, 重則火燒烙鐵鈴圍,
療骨脹緊哽嚥水草難病.

후문혈(喉門穴)은 두 길이 있는데, 뺨 아래 한 손가락 정도 되는 곳에 마주하고 있다. 이 혈에는 병이 가벼우면 화침을 통개혈에 각 3푼 깊이로 놓고, 위중하면 낙철령(烙鐵鈴)을 달궈 돌리면서 지져 뼈가 부어오르고 목이 매어 물과 풀을 먹기 어려운 증상을 치료한다.

喉膾穴頰下四指. 是穴鍼鉤刀割開眼圓二寸透氣, 治熱壅呀呻及束頸黃倒地病.

후수혈(喉膾穴)은 뺨 아래 네 손가락 정도 되는 곳에 있다. 이 혈에는 침구도 (鍼鉤刀)로 안원(眼圓)을 2촌 길이로 째서 기를 투과시켜 열이 옹체되어 입을 벌리고 끙끙거리는 증상과 속상황(束頸黃)으로 땅에 벌렁 눕는 증상을 치료한다.

雲門穴在大馬臍前三寸, 小馬一寸半. 是穴火針入一寸, 治辟¹⁰ 脘積冷·停留宿水病.

운문혈(雲門穴)은 큰 말의 경우 배꼽 앞 3촌 정도에 있고, 작은 말의 경우 1촌 반 정도에 있다. 이 혈에는 화침을 1촌 깊이로 놓아 방광{辟胱}에 쌓인 냉과 오래된 물이 머물러 있는 병증을 치료한다.

蹄頭穴在蹄兩邊. 是穴火燒烙鐵角點烙出膿油塗, 療蹄門¹¹彈子頭腫痛·點腳病.

제두혈(蹄頭穴)은 발굽 양쪽 가장자리에 있다. 이 혈에는 달국 낙철(烙鐵)로 각점(角點)을 지져 고름을 빼낸 다음 기름을 바른다. 제문(蹄門)과 탄자두(彈子頭)가 붓고 아픈 증상과 점각병(點脚病)을 치료한다.

天白穴在蹄門上窟子¹². 是穴用鹿火針入三分, 療久患蹄病.

천백혈(天白穴)은 제문(蹄門) 위의 움푹한 곳에 있다. 이 혈에는 녹화침(鹿火針)을 3푼 깊이로 놓아 오랫동안 앓아온 발병을 치료한다.

伏兔穴在耳後二指. 是穴入火針三分, 療項緊硬病.

복토혈(伏兔穴)은 귀 뒤쪽 두 손가락 정도 되는 곳에 있다. 이 혈에는 화침을 3푼 깊이로 놓아 목이 뻣뻣하고 단단한 증상을 치료한다.

骨眼穴在眼內. 先將針線穿過骨眼邊頭, 左手穿把線, 右手用刀子割去骨眼, 不許割着水輪. 療骨眼遮瘴病, 如是不割了, 卽眼不見物.

골안혈(骨眼穴)은 눈 안에 있다. 우선 실을 묶은 침으로 골안의 가장리를 뚫고 나서 왼 손으로 뚫고나온 실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칼을 써서 골안을 가르는데, 수륜(水輪)까지 잘라서는 안된다. 골안을 가리는 병증을 치료하는데, 이와 같이 자르지 않으면 눈이 멀어진다.

心臍穴在臍骨上. 是穴如患心疽黃病, 用白鍼鏟十餘鍼, 鍼出黃水或血, 將鹽一錢擦在鍼處, 拔出黃水毒氣. 如不醫療, 成瘡透心肺.

심수혈(心臍穴)은 가슴뼈 위에 있다. 이 혈은 심저황병(心疽黃病)을 앓을 때 백침(白鍼)으로 10여차례 침을 놓아 침을 놓은 곳에서 누런 물이나 피가 나오게 한 다음, 소금 1돈을 침을 놓은 곳에 발라 누런 물과 독기가 빠져나오게 한

다. 이와 같이 치료하지 않으면 창(瘡)이 심과 폐로 들어갈 것이다.

板筋穴在膝下. 是穴如患板筋大硬, 用烙鐵點烙.

판근혈(板筋穴)은 무릎 아래에 있다. 이 혈은 판근(板筋)이 매우 단단해졌을 때 낙철(烙鐵)로 치운다.

鹿節骨穴在鹿節骨上筋前骨後. 是穴入鍼二分出血, 穴¹³失¹⁴節腫痛病.

녹절골혈(鹿節骨穴)은 녹절골 위, 근전골(筋前骨) 뒤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2 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녹절(鹿節)이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尾尖穴在尾尖上. 是穴鍼五分出血, 療馬汗病及疳尾病.

미첨혈(尾尖穴)은 꼬리 끝의 윗부분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5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말이 땀을 흘리는 증상 및 꼬리가 벌레먹는 증상을 치료한다.

肚口穴此穴通流小便, 不可行針.

두구혈(肚口穴)은 소변이 지나는 혈이므로 침을 놓아서는 안된다.

賺癖穴在軟賺上. 是穴火鍼三穴, 各入三分, 療賺垂緊硬·穴腹細病.

겸벽혈(賺癖穴)은 연겸(軟賺) 위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세 곳의 혈에 각각 3 푼 깊이로 놓아 허구리 끝이 팽팽하고 단단한 증상과 혈복세병(穴腹細病)을 치료한다.

血堂穴在兩鼻內. 是穴入鍼三分出血, 療肺熱攻注鼻腫痛.

혈당혈(血堂穴)은 양쪽 코 안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3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폐열이 코로 흘러가 공격하여 코가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三江大脈穴在鼻梁兩邊四指. 是穴入鍼二分出血, 療熱氣攻注頰骨腫痛, 或療骨勞跛痛病.

삼강대맥혈(三江大脈穴)은 콧마루 양쪽 가장자리의 네 손가락 정도 되는 곳에 있다. 이 혈에는 침을 2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열기가 협골(頰骨)을 공격하여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거나 골로(骨勞)로 다리를 절뚝거리며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垂睛穴在眼上四指. 是穴如患腫痛毒氣不散, 白鍼鏹之.

수정혈(垂睛穴)은 눈 위의 네 손가락 정도 되는 곳에 있다. 이 혈은 붓고 아프면서 독기가 흡어지지 않을 때 백침(白鍼)을 놓는다.

鬚甲穴在脊梁前高處. 是穴如患一切腫痛, 用白針鏹, 消散毒氣.

기갑혈(鬚甲穴)은 등마루 위쪽의 높은 곳에 있다. 이 혈은 온갖 붓고 아픈 증상이 생겼을 때 백침을 놓아 독기를 흡어낸다.

掠草穴在曲池上. 是穴火鍼三分三針15名, 療腿牽拽胯病.

약초혈(掠草穴)은 곡지혈(曲池穴) 위에 있다. 이 혈에는 화침을 3푼 깊이로 각각 세 번씩 놓아 넓적다리와 사타구니를 질질 끄는 증상을 치료한다.

16 鐸口穴在口角兩面. 是穴如患鎖口黃病, 用烙鐵烙, 深三分, 長一寸半.

쇄구혈(鑢口穴)은 입아귀 양쪽 면에 있다. 이 혈은 입아귀에 황병을 앓을 때 낙철로 깊이 3푼, 길이 1촌 반 정도를 지진다.

外乘重穴在膝上五寸. 是穴入火鍼三分, 療閃着腫毒或臟腹攻注腫痛病.

외승증혈(外乘重穴)은 무릎 위 5촌 정도 되는 곳에 있다. 이 혈에는 화침을 3푼 깊이로 놓아 접질러 종독(腫毒)이 생긴 것이나 장과 배가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垂泉穴在蹄底雀舌. 是穴用17米頂烙深三分, 療久患蹄漏腫痛毒氣不出病.

수천혈(垂泉穴)은 발굽 아래 작설(雀舌)에 있다. 이 혈에는 첨정락(尖頂烙)을 3푼 깊이로 놓아 오랫동안 발굽 사이가 붓고 아프면서 독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陰腧穴在外腎後中心縫上. 是穴火燒頂子烙深三分, 用油塗, 療陰腎腫大并木腎病
18

음수혈(陰腧穴)은 외신(外腎) 뒤쪽 중심의 솔기 위에 있다. 이 혈은 정자(頂子)를 달구어 3푼 깊이로 지진 다음 기름을 발라 음낭이 크게 부은 증상과 목신병(木腎病)을 치료한다.

1. 백락(伯樂) : 중국 주(周)나라 때 사람으로 말(馬)의 감정을 잘하였음. ↵
2. 指 : 원문에는 본 글자가 없이 빈 칸으로 되어 있다. 편의상 《조선우마의방》을 참고하여 삽입하였다. ↵
3. 較 : 《조선우마의방》에는 ‘效’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4. 澄 : 《조선우마의방》에는 ‘鐙’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마경언해》에는 ‘登’으로 되어 있다. ↵
5. 衝天 : 원문에는 없으나 《마경언해》(馬經諺解)와 《조선우마의방》에 의거하여 추가하였다. ↵
6. 溝 : 원문에는 없으나 《마경언해》와 《조선우마의방》에 의거하여 추가하였다. ↵
7. 晴 : 《조선우마의방》과 《마경언해》에는 ‘晴’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이 두 가지를 따랐다. ↵
8. 各 : 《조선우마의방》에는 ‘名’으로 되어 있다. ↵

9. 開 : 《조선우마의방》에는 원문과 같고, 《마경언해》에는 ‘關’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마경언해》를 따랐다. ↵
10. 辟 : 《마경언해》에는 ‘膀’으로 되어 있다. ↵
11. 靑 : 《조선우마의방》에는 ‘并’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2. 窩子 : 원문과 《조선우마의방》에는 窩와 子 사이에 한 칸이 떨어져 있다.
《마경언해》에는 ‘子’자가 없다. ↵
13. 穴 : 《조선우마의방》에는 ‘療’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4. 失 : 원문과 《조선우마의방》에는 이와 같이 되어 있으나 《마경언해》에는
‘鹿’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마경언해》가 맞기에 번역은 《마경언해》를 따랐다. ↵
15. 名 : ‘各’의 오기인 듯하다. ↵
16. 鎮 : ‘鎖’와 같은 글자이다. ↵
17. 米 : 《조선우마의방》과 《마경언해》에는 ‘尖’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이 두
가지를 따랐다. ↵
18. 療陰腎腫大并木腎病 : 《조선우마의방》에는 이 문장이 끝난 다음 다음과
같은 문장이 하나 더 있다. “眼脈穴在眼後四指, 是穴入鍼二分出血, 療肝臟熱
眼腫淚下病.”(안맥혈은 눈 뒤쪽 네 손가락 정도 되는 곳에 있다. 이 혈은 침을
2푼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간장의 열로 눈이 붓고 눈물이 나오는 증상을 치
료한다.) ↵

1.1.22. 血忌日 | 혈기일

春寅午戌. 夏巳酉丑. 秋申子辰. 冬亥卯未. 血支日(正丑, 二寅, 三卯, 四辰, 五巳, 六午, 七未, 八申, 九酉, 十戌, 十一亥, 十二子.)

봄에는 인일(寅日)·오일(午日)·술일(戌日)이다. 여름에는 사일(巳日)·유일(酉日)·축일(丑日)이다. 가을에는 신일(申日)·자일(子日)·진일(辰日)이다. 겨울에는 해일(亥日)·묘일(卯日)·미일(未日)이다. 혈지월(血支月)¹(1월의 축일, 2월의 인일, 3월의 묘일, 4월의 진일, 5월의 사일, 6월의 오일, 7월의 미일, 8월의 신일, 9월의 유일, 10월의 술일, 11월의 해일, 12월의 자일.)

¹. 혈지월(血支月) : 《조선우마의방》에는 혈지월(血支月)은 나와있지 않다. ↪

1.1.23. 馬本命 月¹ | 말의 침을 놓아서는 안 되는 본명일

九月巳日, 十月亥日, 十一月午日, 十二月子日(已上日, 不宜行針醫治.)

9월의 사일, 10월의 해일, 11월의 오일, 12월의 자일.(이상의 날에는 침을 놓거나 치료하여서는 안된다.)

欲行鍼, 如犯血忌·本命·晦·朔·弦·望·風雨·陰寒, 皆是禁忌, 不可行鍼. 又緣春首及馬有病, 蕰血如泥, 餘月及馬無病, 惜血如金. 凡鍼馬之疾, 先觀馬之肥瘦, 次看喫草多寡, 然後相度行之. 鍼皮不得傷肉, 鍼肉不得傷筋傷骨. 三補一瀉, 大馬先針左, 騃馬先鍼右, 後學者識之.

침을 놓고자 하여 혈기일·본명일·그믐·초하루·초승·보름·비·바람이나 음산하거나 추운 날은 모두 금기일로 침을 놓아서는 안된다. 또한 봄의 첫머리와 말이 병을 앓고 있을 때는 버리는 피를 진흙처럼 여기고, 나머지 달과 말이 병이 없을 때는 피를 금처럼 아껴야 한다. 말의 질병에 침을 놓을 때는 우선 말의 몸 상태{肥瘦}를 본 다음 식사량을 본 연후에 서로 가늠하여 침을 놓는다. 살갗에 침을 놓을 때는 살을 상해서는 안되고, 살에 침을 놓을 때는 힘줄과 뼈를 상해서는 안된다. 세 번 보(補)하고 한 번 사(瀉)하며, 큰 말은 왼쪽부터 침을 놓고, 암말은 오른쪽부터 침을 놓아야 하니, 뒤에 배우는 자들은 잘 알아두어야 한다.

又云, 凡用鍼切忌血支·血忌及午日, 大風·雨陰·晦竝不得鍼. 仍須早餵飽後, 小時用鍼, 鍼罷, 立繫候晚餵.

또 말하길, 침은 절대로 혈지일·혈기일 및 오일(午日)에는 매우 꺼려야 하고, 대풍·음우·그믐에도 아울러 침을 놓아서는 안된다. 일찍 먹이를 주어 배부르게 한 뒤에 조금있다가 침을 놓고, 침을 마친 다음에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먹이를 준다.

1.1.23.1. 忌針灸(刺血²割六畜) | 침과 뜸을 꺼리는 날(피를 내면 가축의 蹢을 割한다.)

	正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 —
血 支 (閉 月 同)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血 忌 (續 世 同)	丑	未	寅	申	卯	酉	辰	戌	巳	亥	午
月 害 (獨 火 同)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정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혈 지 (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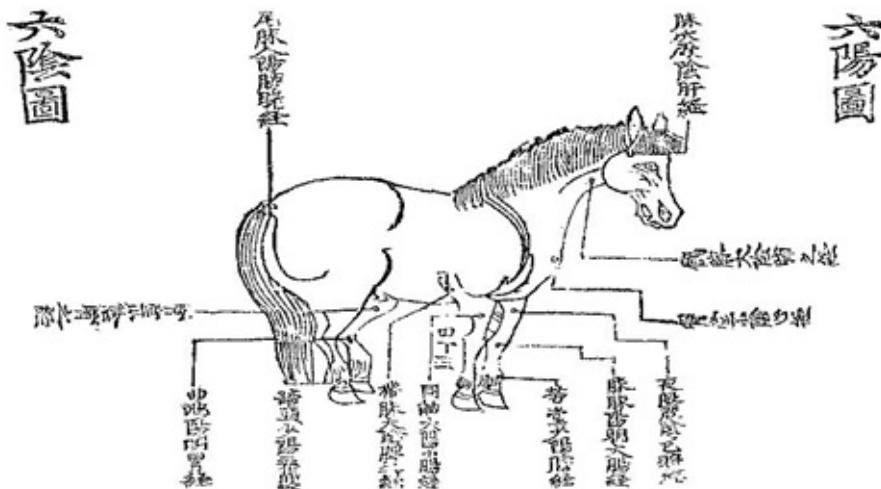
월 (閉 月) 과 같 다)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혈 기 (속 세 (續 世) 와 같 다)	축	미	인	신	묘	유	진	술	사	해	오
월 해 (독 화 (獨 火) 와 같 다)	사	진	묘	인	축	자	해	술	유	신	미

¹. 月 : 《조선우마의방》과 《마경언해》에는 ‘日’로 되어 있다. 번역은 이 두가지

| 를 따랐다. ↵

| 2. ㈰: 판독불능. ↵

1.1.24. 六陽六陰圖 | 육양도와 육음도



六陽圖 六陰圖 육양도 육음도

脈穴厥陰肝經 尾脈人陽膀胱經 腎堂少陰腎之經 曲池陽明胃經 蹄頭少陽三焦經 帶脈太陰脾之經 同劖大陽小腸經 勞堂少陽膽經 膝脈陽明大腸經 夜眼厥陰包絡經 胸堂小陰心經 騕脈太陰肺之經

맥혈궐음간경(脈穴厥陰肝經) 미맥인양방광경(尾脈人陽膀胱經) 신당소음신지경(腎堂少陰腎之經) 곡지양명위경(曲池陽明胃經) 제두소양삼초경(蹄頭少陽三焦經) 대맥태음비지경(帶脈太陰脾之經) 동근태양소장경(同劖太陽小腸經) 노당소양담경(勞堂少陽膽經) 슬맥양명대장경(膝脈陽明大腸經) 야안궐음포락경(夜眼厥陰包絡經) 흉당소음심경(胸堂小陰心經) 골맥태음폐지경(騫脈太陰肺之經)

1.1.25.1. 肺論 | 폐에 관하여

秋三箇月, 肺旺七十二日, 肺爲丞相. 肺重三斤十二兩. 肺者, 外應於鼻, 鼻則主氣, 氣則通其榮衛. 肺家納辛, 肺爲臟, 大腸爲腑. 肺者氣爲臟, 大腸爲傳送之腑. 肺是臟中之華蓋, 肺爲裏, 大腸爲表. 肺爲陰, 大腸爲陽. 肺爲虛, 大腸爲實. 肺者外應於西方·庚·辛·金.

가을 3개월은 폐가 72일동안 왕성해져 폐가 승상(丞相)이 된다. 폐는 무게가 3근 12냥이다. 폐는 외부로는 코에 반응하고, 코는 기를 주관하며, 기는 영위(榮衛)를 소통한다. 폐는 매운맛을 들이고, 폐는 장(臟)이 되고, 대장(大腸)은 부(腑)가 된다. 폐는 기이니 장이 되고, 대장은 전송하는 부(腑)가 된다. 폐는 장 속의 화려한 덮개요, 폐는 이(裏)이고, 대장은 표(表)이다. 폐는 음(陰)이 되고, 대장은 양(陽)이 된다. 폐는 허(虛)가 되고 대장은 실(實)이 된다. 폐는 밖으로 서방(西方)·경(庚)·신(辛)·금(金)과 반응한다.

歌曰 | 폐에 대한 노래

肺爲華蓋心上存, 鼻連西方庚辛金. 皮膚受病鬚尾落, 大腸連脚左邊存. 瞳前肉動脚又散, 鼻中膿出病十分. 醫工見者休辨認, 此馬必定救無門.

폐는 화려한 덮개로 심의 위에 위치하고, 코는 서방·경·신·금과 이어지네. 피부가 병을 받아 갈기와 꼬리가 떨어지고, 대장은 다리와 이어져 왼쪽에 존재하네. 허구리 앞쪽 살이 움직이고 다리 또한 후들거리고, 콧속에서 고름이 나와 병이 완전해지네. 의사는 보고 판별하지 말지니, 이 말은 반드시 구할 방도가 없다네.

治肺部 | 폐를 치료하는 처방

紫蘇散 | 자소산

治馬鼻溫¹, 喘麤, 毛焦, 前探, 胸中痛, 一切肺病.

말의 코가 습하여 숨이 거칠고, 털이 마르고, 앞을 더듬으며, 가슴 속이 아픈 온갖 폐병을 치료한다.

紫蘇葉·馬兜苓·貝母(如無用人參)·木通·漢防己·苦葶藶·白牽牛子·桔梗·當歸·甘草.

자소엽·마두령·째모(없으면 인삼을 쓴다.)·목통·한방기·고정력·백건우자·길경·당귀·감초.

右爲等分, 每用一兩, 水半升, 生薑一分細擦, 蜜一兩, 煎至三五沸, 放溫, 草後囁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1냥씩 물 반 되, 생강 1푼(잘게 비빈 것), 꿀 1냥과 함께 달여 3~5번 끓어오르면 따뜻하게 하여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半夏散 | 반하산

治馬肺風熱, 痰吐涎沫.

말 폐풍열(肺風熱)로 담을 토하고 침이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半夏·升麻·防風.

반하·승마·방풍

右爲末等分, 每用二兩, 酸漿一升, 同煎三五沸, 放冷, 囁之. 痘若未退, 再囁.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2냥씩 좁쌀죽 웃물 1되와 함께 달여 3~5번 끓어오르면 식혔다가 먹인다. 병이 낫지 않으면 다시 먹인다.

連翹散 | 연교산

治馬項脊悞, 低頭不得, 把前把後, 慢病.

말의 목과 등이 뻣뻣하여 머리를 숙이지 못하고, 앞뒤로 굽는 만성증상을 치료 한다.

連翹·知母·[具²](#)母(如無代人參)·杏仁·香白芷·紫蘇·桔梗·瓜樓根·山藥·當歸·馬兜苓·甜瓜子.

연교·지모·패모(없으면 인삼을 대신 쓴다.)·행인·향백지·자소·길경·과루뿌리·산약·당귀·마두령·첨과씨.

右等分爲細末, 每用一兩半, 生薑一分, 蜜二兩, 水一升, 煎至三兩沸, 放溫, 草後囁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내고 1냥 반씩 생강 1푼, 꿀 2냥, 물 1되와 함께 달여 2~3번 끓어오르면 따뜻하게 하여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桂香散 | 계향산

療馬肺愴, 低頭不得病.

말의 폐린(肺愴)으로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大黃·柴胡·甘草(各一兩), 木香·乾薑·細辛·肉桂(各一分).

대황·시호·감초 각 1냥, 목향·건강·세신·육계 각 1푼.

右件爲末. 先鍼出帶脈血了, 用青州棗十箇去其核, 糯米三合, 生薑一兩, 煮粥, 和藥二兩. 咯十數卽差.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낸다. 우선 대맥(帶脈)에 침을 놓아 피를 뺀 다음 청주대추{青州棗}(씨를 제거한 것) 1개, 찹쌀 3홉, 생강 1냥으로 죽을 만들어 앞의 약미 2냥과 섞는다. 열 차례 정도 먹이면 낫는다.

烏藥散 | 오약산

治馬慢肺痛, 走驟着胸脢痛, 鼻濕前探, 五七聲喫, 全不食水草病.

말의 만성적인 폐의 통증, 달리다 다쳐서 가슴과 어깨가 아픈 증상, 비습(鼻濕)으로 앞을 더듬고 5~7번 푸르륵 소리를 내는 증상, 물과 풀을 전혀 먹지 않는 증상 등을 치료한다.

桑白皮·牧丹皮·茴香·赤芍藥·秦艽·藁本·天台·烏藥(如無用芎藴).

상백피·목단피·회향·적작약·진교·고본·천태·오약(없으면 궁궁을 쓴다.)

右件爲末等分, 每藥末一兩半, 春夏漿水一升, 秋冬則薑汁, 同煎三五沸, 放溫, 草後囓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약가루 1냥 반을 봄과 여름에는 족발죽 웃물 1되, 가을과 겨울에는 김칫국물과 함께 달여 3~5번 끓어오르면 따뜻하게 하여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麥藁散 | 맥얼산

治馬把前把後, 慢病喫喘.

말이 앞뒤로 긁는 증상과 만성적으로 푸르륵거리며 숨이 거친 증상을 치료한다.

知母·貝母(如無用人參)·麥藁·紫蘇·當歸·芍藥·瓜樓根·香白芷·枇杷葉(如無用升麻)·山藥·桑白皮·桔梗·甘草·茯苓·秦艽·山茵陳·黃藥子(如無用黃蓍)·杏仁(去皮尖)·馬兜苓·白藥子³.

지모·패모(없으면 인삼을 쓴다.)·맥얼·자소·당귀·작약·과루뿌리·향백지·비파잎(없으면 승마로 대신한다.)·산약·상백피·길경·감초·복령·진교·산인진·황약자(없으면 황기로 대신한다.)·행인(껍질과 끝부분을 제거한 것)·마두령·백약자.

右件二十味, 各等分爲末, 每用藥末一兩半, 蜜一兩, 生薑一分, 薑汁一升, 煎二⁴兩沸, 放溫, 草後囁之.

이상의 20가지 약미를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이 약가루 1냥 반을 꿀 1냥, 생강 1푼, 김칫국물 1되와 함께 달여 2~3번 끓어오르면 따뜻하게 하여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葶藶散 | 정력산

治壓喘.

압천(壓喘)을 치료한다.

玄參·葶藶·牛菜子(于方)·川升麻·知母·馬兜蒼·黃耆·貝母(如無用人參).

현삼·정력·우채자(우방)·천승마·지모·마두령·황기·패모(없으면 인삼을 쓴다.)

右八味等分爲末, 每用藥一兩, 漿水兩盞, 草後囁之.

이상의 8가지 약미를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씩 좁쌀죽 웃물 두 잔에 넣어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涼肝散 | 양간산

治馬肺喘及非時熱喘.

말의 폐천과 때아닌 열로 헐떡거리는 증상을 치료한다.

甘草·葶藶·桔梗·貝母·板藍根·猪蒼.

감초·정력·길경·패모·판람근·저령.

右爲末, 每用藥一兩半, 蜜三兩, 糯米粥一鍾半, 草後啗之. 痘未退再啗. 若要嚥, 卽用熱童子小便一鍾半, 蜜水, 噫之.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고 1냥 반씩 꿀 3냥, 찹쌀죽 1잔 반과 함께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병이 물려가지 않으면 다시 먹인다. 필요에 따라 뜨거운 동변(童子小便) 1잔 반을 꿀물에 타서 먹인다.

白及散 | 백급산

治馬廾膜損肺, 呓不止, 口鼻中濃⁵血出, 可食水草.

말의 횡격막이 오그라들고 폐가 손상을 입어 푸르륵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증상과, 입과 코에서 피고름이 나오나 물과 풀은 먹을 수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

白及·山茵陳·山梔子·甘草·川黃蓮·防風(各四兩), 阿膠(二兩), 杏仁(半升).

백급·산인진·산치자·감초·천황련·방풍 각 4냥, 아교 2냥, 행인 반 돈.

右八味爲細末, 每用二兩, 漿水一升, 同煎至五分, 候冷, 餵飽嚥之.

이상의 8가 약미를 곱게 가루내어 2냥씩 찹쌀죽 웃물 1되와 함께 달여 절반이 되면 식혔다가 먹이를 배불리 먹인 다음 이 약을 먹인다.

五子散 | 오자산

治馬鼻濕, 肺毒瘡, 前後脚虛腫, 草慢.

말이 비습(鼻濕), 폐독창(肺毒瘡), 네 다리가 허하고 붓는 증상으로 풀을 잘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牛菜子(于方子)·牽牛子·大麻子(皆炒令黃色)·鬱金·甜瓜子·紅花子·葵蕓·瓜樓根.

우채자(우방자)·견우자·대마자(모두 누렇게 볶은 것)·울금·첨과자·홍화자·진교·과루근.

右八味等分爲細末, 每用藥一兩半, 沙糟一兩, 水半升, 同煎至三兩沸, 放溫, 草後囁之.

이상의 8가지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내고 1냥 반씩 술지개미 1냥, 물 반 되와 함께 달여 3~5번 끓어오르면 따뜻하게 하여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款冬花散 | 관동화산

治馬熱發鼻濕草慢, 及取草結, 末較病.

말이 열이 나고 비습으로 풀을 잘 먹지 못하는 증상과, 먹은 풀이 뭉쳐 효과를 보지 못한 병증을 치료한다.

款冬花(代用栝樓)·川鬱金·黃藥子(代黃蓍)·甘草·瓜樓根·杏仁·香白芷·甜瓜子.

관동화(과루로 대신할 수 있다.)·천울금·황약자(황기로 대신할 수 있다.)·감초·과루근·행인·향백지·첨과자.

右等分爲細末, 每用一兩半, 軟飲一鍾, 白礬半兩飛過, 瓜樓一箇剉爛, 一處同和, 草後啗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내고 1냥 반씩 연음(軟飲)⁶ 1잔, 배반 반 냥(곱게 날린 것), 과루 1개(잘게 썬 것)와 한꺼번에 섞어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草龍膽散 | 초룡담산

治馬鼻內黃白膿出肺毒注破, 并熱發多噬, 搏擦, 毛頭乾燥, 鼻濕, 竝皆嚙之, 小可二
4兩服, 立效.

말의 콧속에서 누렇고 흰 고름이 나오는 증상, 폐독주파(肺毒注破)와 아울러
발열로 자주 기침을 하는 증상, 개찰(揩擦), 털 끝이 마르는 증상, 비습 등에 모
두 먹이는데, 작은 말은 두 양만 복용하여도 곧 효과를 본다.

木通·貫衆·草龍膽(各一兩), 梧桐淚(半兩), 玄參一兩.

목통·관중·초룡담 각 1냥, 오동루 반 양, 현삼 1냥.

右件藥五味細末, 每用一匙, 頭猪膽如榛子大兩箇, 小便一鍾, 少餵後嚙之.

이상의 다섯 가지 약미를 곱게 가루내고 1술씩 돼지쓸개(개암열매 만한 것) 2
개, 소변 1잔과 함께 먹이를 조금 먹인 뒤에 이 약을 먹인다.

香白芷散 | 향백지산

治馬肺熱或身上生瘡.

말의 폐열이나 몸에 창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山梔子·香白芷·瓜樓根·甘草·紅芍藥·川大黃·黃藥子(代黃蓍).

산치자·향백지·과루뿌리·감초·홍작약·천대황·황약자(황기로 대신할 수 있
다.)

右七味等分爲細末, 每用二兩, 漿水一大椀, 同煎三五沸, 放冷, 嚙之. 夏用鷄子一箇
及黑藥子半兩, 依前草後嚙之, 效.

이상의 7가지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내고 2냥씩 좁쌀죽 웃물 1
큰사발과 함께 달여 3~5번 끓어오르면 식혔다가 먹인다. 여름철에는 계란 1개,
흑약자 반 양과 함께 앞의 방법대로 하여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木通散 | 목통산

治馬肺黃病, 精神短慢, 口眼色黃, 奉動似醉或時喘麤.

말이 폐황병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입과 눈이 누렇고, 끌어 움직이려 하면 취해있는 듯하거나, 거칠게 헐떡거리는 증상을 치료한다.

木通·乾山藥·梔子·瓜樓根·牛芳子.

목통·건산약·치자·과루근·우방자.

右件藥等分爲細末, 每用一兩半, 漿水一升, 生薑一分擦, 入藥同煎三五沸, 放溫, 入小便半盞, 噴之, 隔日再噴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내고 1냥 반씩 좁쌀죽 웃물 1되, 생강 1푼(간 것)과 함께 달여 3~5번 끓어오르면 따뜻하게 하여 소변 반 잔을 넣고 먹인 다음, 하루걸러 다시 먹인다.

消黃散 | 소황산

治馬喘麤汗出.

말이 숨을 헐떡거리며 땀을 흘리는 증상을 치료한다.

黃藥子·貝母·知母·大黃·白藥子·黃芩·甘草·鬱金.

황약자·패모·지모·대황·백약자·황금·감초·울금.

右等分爲末, 每用藥一兩, 新水半升, 蜜二兩, 調噴, 隔日再噴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씩 새로 길어온 물 반 되, 꿀 2냥과 함께 섞어서 먹인 다음, 하루걸러 다시 먹인다.

栝樓根散 | 과루근산

治馬肺氣病.

말의 폐기병을 치료한다.

桔樓根·馬兜苓·黃藥子(代用黃耆)·茵陳·白礬·黃蓮(代地黃)·杏仁(各一兩), 陳橘皮(半兩).

과루근·마두령·황약자(황기로 대신할 수 있다.)·인진·백반·황련(지황으로 대신할 수 있다.)·행인 각 1냥, 진귤피 반 냥.

右八味爲末, 每用藥一兩, 漿水煎, 放冷, 草後囁之.

이상의 8가지 약미들을 1냥씩 졸쌀죽 웃물과 함께 달여 식혔다가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夜明砂散 | 야명사산

治馬肺毒生瘡.

말의 폐독으로 창이 생긴 증상을 치료한다.

山梔子(四兩), 知母·貝母(代人參)·白藥子·桔樓根(各半兩), 夜明砂(二兩).

산치자 4냥, 지모·패모(인삼으로 대신할 수 있다.)·백약자·과루근 각 반 냥, 야명사 2냥.

右爲末, 每服二錢, 漿水一鍾半, 童子小便半鍾, 同煎, 待冷, 蜜一兩, 鷄子二箇, 白礬半兩, 同調, 草後囁之.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어 2돈씩 졸쌀죽 웃물 1잔 반, 동변 반 잔과 함께 달여 식으면 꿀 1냥, 계란 2개, 백반 반 냥과 함께 섞어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荊芥散 | 형개산

治馬肺風生瘡.

말의 폐풍으로 창이 생긴 증상을 치료한다.

荊芥穗·大黃·甘草.

형개수·대황·감초.

右等分爲末, 一兩半, 米泔水二鍾半, 同調, 噴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 반씩 쌀뜨물 2잔 반에 섞어 먹인다.

黃蓍散 | 황기산

治馬卒熱草慢, 尿血濕肺病.

말이 갑작스레 열이 나서 풀을 잘 먹지 못하고, 피오줌이 나오는 습폐를 치료 한다.

黃蓍·烏藥(代芎藭)·芍藥·山茵陳·地黃·馬兜荅·知母·枇杷葉(去毛, 代升麻).

황기·오약(궁궁으로 대신할 수 있다.)·작약·산인진·지황·마두령·지모·비파잎 (털을 제거한 것. 승마로 대신할 수 있다.).

右八味等分爲細末, 每噴半兩, 漿水或蘋汁半升, 煎三五沸, 放冷, 噴. 飢飽路行竝噴.

이상의 8가지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내고 반 냥씩 졸쌀죽 웃물을이나 김치국물 반 되와 함께 달여 3~5번 끓어오르면 식혔다가 먹인다. 굶주린 때나, 배부를 때나, 길을 갈 때도 아울러 먹인다.

¹. 溫 : 《조선우마의방》에는 ‘습’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2. 具 : 《조선우마의방》에는 ‘貝’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3. 白藥子 : 《조선우마의방》에는 白藥子에 ‘代用升麻’라는 주석이 있다. ↵

4. 二 : 《조선우마의방》에는 ‘三’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5. 濃 : ‘膿’의 오기인 듯하다. ↵

6. 연음(軟飲) : 미상. ↵

4. 二 : 《조선우마의방》에는 ‘一’로 되어 있다. ↵

1.1.25.2. 心論 | 심에 관하여

夏三箇月心旺七十二日, 心爲第一. 心重一斤十二兩, 上有七竅三毛. 心者外應於舌, 舌則主血, 血潤其皮毛. 心家納苦. 心爲臟, 小腸爲腑. 心者血爲臟, 小腸者受盛之腑. 心是臟中之君. 心爲裏, 小腸表. 心爲陰, 小腸爲陽. 心爲虛, 小腸爲實. 心者外應於南方·丙·丁·火.

여름 3개월은 심이 72일간 왕성해지는데, 심은 오장의 첫째이다. 심의 무게는 1근 12냥이고, 위로 7개의 구멍과 3개의 털이 있다. 심은 밖으로 혀에 응하고, 혀는 혈을 주관하고, 혈은 피부와 털을 윤택하게 한다. 심은 쓴 맛을 받아들인다. 심은 장(臟)이 되고, 소장은 부(腑)가 된다. 심은 혈이요 장이 되고, 소장은 무성하게 받아들이는 부가 된다. 심은 이에 장 중에서 임금이 된다. 심은 이(裏)가 되고, 소장은 표(表)가 된다. 심은 음이 되고 소장은 양이 된다. 심은 허(虛)가 되고 소장은 실(實)이 된다. 심은 밖으로 남방(南方)·병(丙)·정(丁)·화(火)와 반응한다.

歌曰 | 심에 대한 노래

心家受病連膈痛, 胃口硬氣又唇蹇. 多臥少草齧搘吐, 小腸尿血傷心然. 麒麟沒藥紅芍藥, 不限依時童子便. 用藥每日兩度嚥, 此馬必定得安全.

심에 병이 들면 횡격막과 연결되어 아프고, 위구가 단단해지고, 입술이 까뒤집어진다네. 자주 누워 있고 풀을 조금만 깨작거리다가 토하며, 소장과 오줌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심이 상하여 그렇다네. 기린갈·몰약·홍작약을 아무때나 동변에 섞는다네. 이 약을 매일 두 차례 먹이면 이 말은 반드시 안전할 것이라네.

治心部 | 심을 치료하는 처방

麻黃散 | 마황산

治馬心臟虛熱, 中風.

말의 심장에 허열이 있는 것과 중풍을 치료한다.

天南星·乾蝎·白附子·白僵蠶·麻黃·乾蛇·川芎·白蒺藜·海東皮·防風·黑附子·甘草·薑本·天麻·桂心.

천남성·건갈·백부자·백강잠·마황·건사(乾蛇)¹·천궁·백질려·해동피·방풍·흑부자·감초·고본·천마·계심.

右等分爲末, 每藥一兩, 酒半升, 同調, 噴之.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어 1냥씩 술 반 되에 섞어 먹인다.

天麻散 | 천마산

治馬心風初發時, 胸隻緊弩, 自奔衝信脚自行.

말의 심에 풍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슴팍이 팽팽하게 젓혀지고 마구 날뛰며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증상을 치료한다.

天空²黃·天麻·防風·桔梗·黃藥子(代細辛)·甘草·知母·大黃·乾地黃·黃蓍·黃芩·貝母(如無代人參)·鬱金·黃蓮·牛膝.

천축황·천마·방풍·길경·황약자(세신으로 대신할 수 있다.)·감초·지모·대황·건지황·황기·황금·패모(없으면 인삼으로 대신한다.)·울금·황련·우슬.

右爲等分細末, 每用藥一兩, 蜜一兩, 酒一大鍾, 油三兩, 水一鍾, 同灌.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내고 1냥씩 꿀 1냥, 술 1큰잔, 기름 3냥과 함께 섞어 먹인다.

鎮心散 | 진심산

治馬驚悸狂, 前脚不寧, 有小痛.

말이 놀라 광분하여 앞다리가 편치 못하고 약간 아픈 것을 치료한다.

桔梗·白芷(各一兩), 白茯苓·人參(各三兩).

길경·백지 각 1냥, 백복령·인삼 각 3냥.

右爲末, 每服一兩, 已下清酒一鍾半, 小便一鍾, 同調, 草後囁之.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고 1냥씩 청주 1잔 반, 소변 1잔과 함께 섞어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人參散 | 인삼산

治馬心經伏熱, 非時驚狂饒, 倒地, 口眼色黃, 草慢病.

말의 심경(心經)에 잠복해있던 열로 아무때나 놀라고 도에 지나치게 날뛰다가 땅바닥에 쓰러지고, 입과 눈이 누렇게 되며, 풀을 잘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 한다.

人參·茯苓·遠志·防風·麥門冬·薄荷·甘草(各一兩)·龍腦(如無用苦參)·牛黃(各三錢).

인삼·복령·원지·방풍·맥문동·박하·감초 각 1냥, 용뇌(없으면 고삼을 쓴다.)·우황 각 3돈.

右爲細末, 每用藥一兩半, 漿水一鍾, 同煎三兩沸, 放冷, 入蜜一兩, 草後囁之.

이상의 약미를 곱게 가루내고 1냥 반씩 족발죽 웃물 1잔과 함께 달여 3~5번 끓 어오르면 식혔다가 꿀 1냥을 넣고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桔梗散 | 길경산

治心經不調, 陰陽不通, 百脈沈重, 遂令十步九蹶, 如睡如驚, 眼不顧物病.

심경이 고르지 못하고 음양이 소통되지 않으며, 온갖 맥이 무겁게 가라앉아 열 걸음에 아홉 걸음을 넘어지며, 조는 듯 놀란 듯 눈을 뜨고도 사물을 보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升麻·桔梗·鬱金, 牛菜子(半斤細研), 生地黃(半兩細研).

승마·길경·율금, 우방자 반 근(곱게 간 것), 생지황 반 양(곱게 간 것).

右藥三味爲末. 與羊膽·蜜鷁·地黃·牛菜子, 調拌令勻, 入藥一兩半, 草後便啗, 立效.

이상의 세 가지 약미(승마·길경·율금)를 가루낸다. 양쓸개·꿀·생지황·우방자를 고루 섞은 다음 앞의 약미 1양 반을 넣고 풀을 먹인 뒤에 먹이면 바로 효과를 본다.

大黃散 | 대황산

治馬心經伏熱, 見物或時驚倒, 眼內如砂, 前探, 草慢病.

말의 심경에 잠복해있던 열로 사물을 보면 혹 놀라 자빠지고, 눈 속에 모래같은 것이 있으며, 앞을 더듬고 풀을 잘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大黃·麻黃·黃芩·甘草·防風·山梔子.

대황·마황·황금·감초·방풍·산치자.

右件等分爲末, 藥一兩半, 蜜一兩半, 沸湯二鍾, 同調, 放冷, 草後嚥之, 隔日再嚥.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양 반씩 꿀 1양 반, 끓인 물 2잔과 함께 섞어 식히고나서 풀을 먹인 뒤에 먹인 다음 하루걸러 다시 먹인다.

四黃散 | 사황산

治馬心臟熱, 草慢, 并鼻內血出.

말의 심장에 열이 있어 풀을 잘 먹지 못하고, 아울러 코피가 나는 증상을 치료 한다.

黃藥³·黃蓮·黃芩·大黃·款冬花(如無用栝樓)·白藥子(如無用升麻)·貝母·鬱金·黃藥子(如無代黃耆)·秦艽·甘草·山梔子.

황백(黃藥)⁴·황련·황금·대황·관동화(없으면 과루를 쓴다.)·백약자(없으면 승마를 쓴다.)·패모·울금·황약자(없으면 황기로 대신한다.)·진교·감초·산치자.

右各等分爲末, 每用藥一兩半, 蜜一兩, 水半升, 調嚥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 반씩 꿀 1냥, 물 반되와 섞어 먹인다.

1. 건사(乾蛇) : 말린 뱀. ↵

2. 空 : 《조선우마의방》에는 ‘쓰’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3. 藥 : 《조선우마의방》에는 ‘藥’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4. 黃藥 :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황백(黃柏)’으로 번역하였다. ↵

1.1.25.3. 肝論 | 간에 관하여

春三箇月肝旺七十二日, 肝爲尙書. 肝重三斤十二兩. 肝者外應於目, 目卽生淚, 淚則潤其眼. 肝家納酸. 肝爲臟, 膽爲腑. 肝者風爲臟, 膽者精爲腑, 肝是臟中之佐. 肝爲裏, 膽爲表. 肝爲陰, 膽爲陽. 肝爲虛, 膽爲實. 肝者外應於東方·甲·乙·木.

봄 3개월 72일동안 간이 왕성해져 간은 상서(尙書)가 된다. 간은 무게가 3근 12냥이다. 근은 밖으로 눈에 응하고, 눈은 눈물을 생성하고, 눈물은 눈을 윤택하게 한다. 간은 쓴 맛을 받아들인다. 간은 장(臟)이 되고, 쓸개는 부(腑)가 된다. 간은 풍이라 장이 되고, 쓸개는 정이라 부가 되니 간은 이에 장 중에 좌(佐)가 된다. 간은 이(裏)가 되고 쓸개는 표(表)가 된다. 간은 음이 되고 쓸개는 양이 된다. 간은 허이고 쓸개는 실이다. 간은 밖으로 동방(東方)·갑(甲)·을(乙)·목(木)과 반응한다.

歌曰 | 간에 대한 노래

肝家受病眼精昏, 頭低耳搭少精神. 閃骨生瘡多淚下, 胡骨犯膝病無因. 飽頃之間攻左脚, 青箱石決章柳根. 早晨臨臥囁兩上, 此病應須眼再明.

간에 병이 들면 안정(眼精)이 흐려지고, 귀 덮은 머리를 숙이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네. 뼈를 접질러 창이 생기고 눈물이 많이 흐르며, 호골(胡骨)이 사타구니를 덮치는 병은 원인이 없다네. 밥먹을 동안 왼쪽 다리를 공격하게 되니 청상과 석결과 장류근을 써야한다네. 이른새벽과 잠잘 적에 두 번 먹이면 이 병에 반응하여 눈이 다시 밝아진다네.

治肝部 | 간을 치료하는 처방

涼肝散 | 양간산

治馬眼昏暗翳膜遮障.

말의 눈이 어둡고 예막(翳膜)이 눈을 가린 증상을 치료한다.

羌活·菊花·防風·白蒺藜.

강활·국화·방풍·백질려.

右爲末, 每用一兩, 漿水半升, 蜜一兩, 同調, 噴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씩 좁쌀죽 웃물 반 되, 꿀 1냥과 함께 섞어서 먹인다.

蒼朮散 | 창출산

治馬肝積眼生翳膜.

말이 간적(肝)으로 눈에 예막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黃芩·甘草·蒼朮·蟬殼·木賊.

황금·감초·창출·매미껍질·목적.

右爲末, 每用一兩, 冷水半椀, 調勻, 草飽噴之.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고 1냥씩 찬 물 반잔에 고루 섞어 풀을 배불리 먹인 뒤에 먹인다.

蟬殼散 | 선각산

治馬穀暈眼腫

말이 곡식을 너무 먹어 어지러운 증상과 눈이 부은 증상을 치료한다.

蟬殼·黃蓮·菊花·地骨皮·甜瓜子(各一兩), 白朮·蒼朮(各五錢), 草龍膽(一兩)

매미껍질·황련·국화·지골피·첨과씨 각 1냥, 백출·창출 각 5돈, 초룡담 1냥.

右八味爲末, 每藥一兩, 水半升, 煎三五沸, 放溫, 不計時候, 日灌一次.

이상의 8가지 약미들을 가루내고 1냥씩 물 반 되에 넣고 달여 3~5번 끓어오르면 따뜻하게 하여 시간과 계절에 관계 없이 하루 한 차례씩 먹인다.

黃蓮膏 | 황련고

治馬肝熱穀暈及眼熱有淚點眼.

말이 간열(肝熱)로 곡식을 많이 먹고 어지러운 증상 및 눈의 열로 눈물을 똑똑 흘리는 증상을 치료한다.

黃蓮(如無用黃檗)·青鹽(如無鄉鹽)·駥仁·楮葉·烏魚骨.

황련(없으면 황백을 쓴다.)·청염(없으면 그 지역의 것을 쓴다.)·유인·저엽·오징어뼈.

右五味等分爲末, 乳鉢內細研如粉麪, 每用簷草取藥, 點眼內日一次.

이상의 다섯 가지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사발에 넣고 밀가루 같이 곱게 갈아 대나무나 풀로 약을 떠서 하루 한 차례씩 눈에 넣어준다.

洗肝散 | 세간산

治馬眼內有青白暈并眼腫淚出肝熱.

말의 눈 속에 푸르고 흰 무리가 있고, 눈이 부어 눈물이 나오는 간열증을 치료 한다.

決明草·石決明·青箱子·井泉石(如無用木賊)·石膏·草龍膽·施覆花·防風·菊花·黃蓮
(如無用蒺藜子)·甘草·黃芩(各等分).

결명초·석결명·청상자·정천석(없으면 목적을 쓴다.)·석고·초롱담·선복화·방
풍·국화·황련(없으면 질려자를 쓴다.)·감초·황금 각각 같은 양.

右爲末, 每用藥一兩半, 猪膽取汁, 蜜四兩, 白礬半兩, 漿水一升, 同調, 草飽灌之, 隔
日再囁. 如未退, 鍼眼脈穴出血, 卽差,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고 1냥 반씩 돼지쓸개즙, 꿀 4냥, 백반 반 냥, 좁쌀죽 웃
물 1되와 함께 섞어서 풀을 배불리 먹인 뒤에 먹이고, 하루걸러 다시 먹인다.
낫지 않을 때는 안맥혈(眼脈穴)에 침을 놓아 혈을 빼내면 곧 낫는다.

補肝散 | 보간산

治馬蟲食肝病, 初得時兩目如睡, 伸頭垂耳, 頻搐項似驚.

말에 충이 생겨 간을 잠식하는 병증으로 초기에 두 눈이 졸린 듯하고, 머리와
귀를 늘어뜨리며, 놀란 듯 자주 목이 당기는 증상을 치료한다.

黃藥子·白藥子·石決明·大黃·知母·貝母·秦艽·白蕷夷·乾地黃·草龍膽·草決明.

황약자·백약자·석결명·대황·지모·패모·진교·백무이·건지황·초롱담·초결명.

右等分爲末, 每用藥一兩, 蜜四兩, 醋一合, 陳漿水一鍾, 草後囁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씩 꿀 4냥, 식초 1홉, 좁쌀죽
웃물(오래된 것) 1잔과 함께 섞어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1.1.25.4. 脾論 | 비에 관하여

四季脾旺, 每季各旺一十八日, 共旺七十二日. 脾無正位, 胃爲大夫. 脾重二斤二兩. 脾者外應於唇, 唇卽生涎, 涎卽潤其肉. 脾家納飴. 脾爲臟, 胃爲腑. 脾者土爲臟, 胃者穀草之腑, 脾是臟中之母. 脾爲裏, 胃爲表. 脾爲陰, 胃爲陽. 脾爲虛, 胃爲實. 脾者外應於中央·戊·己·土.

사계절마다 비(脾)는 왕성한데, 계절 중에 각 18일 동안 왕성하여, 모두 72일동안 왕성하다. 비는 정해진 자리가 없고, 위(胃)는 대부(大夫)가 된다. 비의 무게는 2근 2냥이다. 비는 밖으로 입술에 응하고, 입술은 곧 침을 생성하고, 침은 곧 살을 윤택하게 한다. 비는 단 맛을 받아들인다. 비는 장이 되고 위는 부가 된다. 비는 토이고 장이 되며, 위는 곡식의 부가 되니 비는 이에 장 가운데에 어미가 된다. 비는 이가 되고 위는 표가 된다. 비는 음이 되고 위는 양이 된다. 비는 허이고 위는 실이다. 비는 밖으로 중앙(中央)·무(戊)·기(己)·토(土)와 반응한다.

歌曰 | 비에 대한 노래

脾無定位號中央, 雙抽兩濂連膀胱. 多臥少草又硬氣, 瘰乾舌上口生瘡. 生薑水蜜并綠豆, 沙糖四兩用消黃. 氣藥建脾針脾穴, 此馬驗認是脾黃.

비는 정해진 자리가 없어 중앙이라 부르고, 쌍으로 양 허구리가 땅기면 방광까지 이어진다네. 대부분 눕기만 하고 풀을 먹는등마는등 하며 또한 기가 단단해지고, 여위고 마른 혀와 입에 창이 생긴다네. 생강·물·꿀과 녹두와 사탕 4냥을 써서 황(黃)을 없애야 한다네. 기약(氣藥)으로 비를 튼튼하게 하고 비혈(脾穴)에 침을 놓으면 이에 말이 병증이 비황(脾黃)임을 알게 되리라.

治脾部 | 비를 치료하는 처방

天麻散 | 천마산

治馬脾氣虛弱, 偏風病.

비기(脾氣)가 허약한 증상과 한쪽에만 생긴 풍병을 치료한다.

天麻·人參·茯苓·川芎·荊芥·何首烏(代用細辛)·防風·蟬殼·甘草·薄荷.

천마·인삼·복령·천궁·형개·하수오(세신을 대신 쓸 수 있다.)·방풍·매미껍질·감초·박하.

右等分爲末, 每用藥一兩半, 蜜一兩半, 米飲湯浸, 飽後囁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 반씩 꿀 1냥 반, 미음과 섞어 배불리 먹인 뒤에 먹인다.

厚朴散 | 후박산

治馬脾不磨草, 口色黃白.

말의 비가 풀을 갈지 못하는 증상과 입 색이 누렇고 흰 증상을 치료한다.

厚朴·青皮·陳皮·蒼蘡·五味子·官桂·牽牛子·縮沙.

후박·청피·진피·영백·오미자·관계·견우자·축사.

右等分爲末, 每藥用一兩, 酒一大鍾, 同調, 囁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씩 술 1큰잔과 함께 섞어 먹인다.

當歸散 | 당귀산

治馬脾胃冷, 傷水痛, 因成泄瀉.

말의 비위가 차고 상수통(傷水痛)으로 인하여 설사를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當歸·厚朴·陳皮·青皮·白牽牛子(微炒)·益智子(如無用白朮)·赤芍藥.

당귀·후박·진피·청피·백견우자(살짝 볶은 것)·익지자(없으면 백출을 쓴다.)·적작약.

右等分爲末, 每用藥一兩, 水半升, 生薑一分擦細, 煎三五沸, 空腹溫嚥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씩 물 반 되, 생강 1푼(곱게 찧은 것)와 함께 달여 3~5번 끓어오르면 빈속에 따뜻하게 하여 먹인다.

事林廣記 | 《사림광기》에 나오는 처방

治馬傷脾胃, 不食水草, 寒唇似笑, 鼻中氣短.

말의 비위(脾胃)가 상하여 물과 풀을 먹지 못하고, 입술이 차가워 웃는 듯하며, 코에서 가쁜 숨이 나오는 증상을 치료한다.

厚朴(去麤皮).

후박(거친 껌질을 제거한 것).

右爲末, 薑·棗同煎, 嚥之宜速.

이 약미를 가루내고 생강·대추와 함께 물에 넣고 달여 먹이면 신속한 효과를 본다.

桂心散 | 계심산

治馬飲冷過多, 傷脾作泄瀉.

말이 찬 물을 너무 많이 마셔 비를 상하여 설사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桂心·當歸·細辛·青皮·牽牛子·陳皮·桑白皮·厚朴(各等分).

계심·당귀·세신·청피·견우자·진피·상백피·후박 각각 같은 양.

右爲末, 每用一兩, 溫水半椀, 童子小便一鍾, 同調, 噴之.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고 1냥씩 온수 반 사발, 동변 1잔과 함께 섞어 먹인다.

東人經驗方麴朮散 | 우리나라의 《경험방》에 나오는 국출산

治馬脾胃不調泄瀉.

말의 비위가 고르지 못하여 설사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好麴(微炒末四兩), 蒼朮¹(末四兩).

호국(살짝 볶아서 가루낸 것) 4냥, 창출(가루낸 것) 4냥.

溫泔湯調, 灌之. 未愈再噴.

이상의 약미들을 따뜻한 미음과 섞어 먹인다. 낫지 않을 때는 다시 먹인다.

治馬不進水草毛焦方 | 말이 물과 풀을 먹지 못하고 텔이 마르는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

鷄卵則一介, 鳩卵則二介, 去殼取水, 真油三合, 清蜜三合, 熊膽一錢半, 大蒜一顆爛研, 豆淋酒一升, 和空心噴之, 愈. 朝噴則至夕, 先與草料飽, 後小與水一斗許, 徐徐飲之. 不愈再噴.

계란이면 1개, 비둘기알이면 2개(껍질을 제거하고 내용물만 쓴다.), 참기름 3홉, 청밀 3홉, 응담 1돈 반, 마늘 1개(질게 간 것), 두림주 1되를 섞어 먹이면 낫는다. 아침에 먹였을 때는 저녁이 되면 우선 풀과 사료를 배불리 먹이고 조금 있다가 물 1말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낫지 않으면 다시 먹인다.

黃不散 | 황불산

治馬勞瘦, 臟腑不調, 雖食草料, 腹不充滿, 毛焦不肥, 亦治傷水.

말이 여위고 장부가 고르지 못하여 풀과 사료를 먹더라도 배가 부르지 않으며, 털이 마르면서 살이 지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고, 물을 마시고 상한 증상도 치료한다.

大黃(二兩), 人參·當歸·甘草·白朮(各半兩).

대황 2냥, 인삼·당귀·감초·백출 각 반냥.

右爲細末, 好酒一大鍾, 眞油一中盞, 鷄子一箇, 和調, 早朝嚙口, 午後飼水. 未愈再嚙.

이상의 약미들을 곱게 가루내고 좋은 술 1큰잔, 참기름 1중간잔, 계란 1개와 섞어 이른아침에 먹인 뒤에 오후에 물을 먹인다. 낫지 않으면 다시 먹인다.

貫衆散 | 관중산

治馬瘦喂不肥者, 脾臟有蟲.

말이 마르고 먹어도 살이 지지 않는 증상과 비장(脾臟)에 총(蟲)이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

貫衆(二兩), 皂莢(一兩), 麻子(四兩炒研)

관중 2냥, 조협 1냥, 삼씨 4냥(볶아서 간 것)

右件三味, 不以多少, 麻剉, 以水濃煮, 和草料啗之, 嚙之亦可.

이상의 세 가지 약미를 양에 상관 없이 거칠게 썰어 물에 넣고 진하게 달인 다음 풀과 사료에 섞어 먹이는데, 약만 먹여도 된다.

¹. 木 : 《조선우마의방》에는 ‘朮’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다. ↪

1.1.25.5. 腎論 | 신에 관하여

冬三箇月腎旺七十二日, 腎爲烈女. 腎有兩箇, 左則爲腎, 右則命門. 腎重一斤十二兩. 腎者外應於耳, 腎卽生津液, 津液壯其骨. 腎家納鹹. 腎爲臟, 膀胱爲腑. 腎者水爲臟, 膀胱爲津液之腑, 腎是臟中之使. 腎爲裏, 膀胱爲表. 腎爲陰, 膀胱爲陽. 腎爲虛, 膀胱爲實. 腎者外應於北方·壬·癸·水.

겨울 3개월에 신(腎)은 72일동안 왕성해지니 신은 열녀(烈女)가 된다. 신은 2개로, 왼쪽은 신(腎)이고, 오른쪽은 명문(命門)이다. 신의 무게는 1근 12냥이다. 신은 밖으로 귀와 응하여 신은 곧 진액을 생성하고, 진액은 뼈를 튼튼하게 한다. 신은 짠 맛을 받아들인다. 신은 장이 되고, 방광(膀胱)은 부가 된다. 신은 수(水)로써 장이 되고, 방광은 진액의 부가 되니, 신은 이에 장 중에서 사(使)이다. 신은 이(裏)가 되고 방광은 표(表)가 된다. 신은 음이 되고 방광은 양이 된다. 신은 허이고 방광은 실이다. 신은 밖으로 북방(北方)·임(壬)·계(癸)·수(水)와 반응한다.

歌曰 | 신에 대한 노래

腎家受病切須知, 後腳難擡耳又垂. 心連小腸泉更澁, 膀胱邪氣透入脾. 限料旱辰空草囉, 苦棟茴香青橘皮. 脚重頭低陰又腫, 此馬必定可憂疑.

신이 병에 드는 것을 절대로 알아야 하니, 뒷다리를 들지 못하고 늘어뜨린다네. 심이 소장에 연결되니 오줌 또한 깔끄럽고 방광의 사기(邪氣)가 비로 침투한다네. 먹이를 제한하고 이른새벽 빈속에 풀을 먹고, 고련피·회향·청귤피를 쓴다네. 다리가 붓고 머리를 숙이며 음부까지 붓게 되면 이는 말은 분명 걱정되고 의심될만 하다네.

腎部¹ | 신을 치료하는 처방

烏藥散 | 오약산

治馬外腎搐腰背緊硬, 或肺病把前把後, 草慢病.

말의 외신(外腎)이 당기고 허리와 등이 팽팽해지면서 단단한 증상이나, 폐병으로 앞다리와 뒷다리로 굽고 풀을 잘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天台烏藥·芍藥·當歸·玄參·茵陳·馬兜蒼·升麻·貝母·白芷·山藥·秦花²·杏仁(去皮尖).

천태오약·작약·당귀·현삼·인진·마두령·승마·패모·백지·산약·진교·행인(껍질과 끝부분을 제거한 것).

右等分爲末, 每服一兩半, 鹽二錢, 熟蠶汁, 調空腹放溫, 噴之. 如狗蹲腰痛, 牽拽不動, 人小便, 噴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 반씩 소금 2돈, 김칫국물(삶은 것)과 함께 섞어 빈속에 따뜻하게 하여 먹인다. 만약 개처럼 허리를 굽히고 끌어내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사람의 소변을 먹인다.

檳榔散 | 빈랑산

治馬抽腎病, 腰背硬, 拖拽後腳, 水草慢病.

말의 신이 당기는 병으로 허리와 등이 경직되고 뒷다리를 질질 끌며 물과 풀을 잘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檳榔·肉豆蔻·山藥·貝母·秦艽·細辛·款冬花·牽牛子·芭戟·沒藥·當歸.

빈랑·육두구·산약·패모·진교·세신·관동화·견우자·파극·몰약·당귀

右等分爲末, 每用藥一兩, 葱白二條細切, 酒一鍾, 煎沸, 放溫, 噴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씩 총백(葱白)³ 2개(잘게 썬 것), 술 1잔과 함께 달여 끓으면 따뜻하게 하였다가 먹인다.

破古紙散 | 파고지산

治馬腎冷腰胯痛.

말이 신이 차가워 허리와 사타구니가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破古紙·厚朴·胡蘆芭·茴香·肉豆蔻·川練子·青皮·陳皮.

파고지·후박·호로파·회향·육두구·천련자·청피·진피.

右等分爲末, 每用藥一兩, 水一鍾, 煎沸, 候冷, 入童子小便半鍾, 草前嚙.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고 1냥씩 물 1잔과 함께 달여 식으면 동변 반 잔을 넣고 풀을 먹이기 전에 먹인다.

葱豉湯 | 총시탕

治馬腎傷氣施⁴腰胯.

말의 신기(腎氣)가 상하여 허리와 사타구니를 질질 끄는 증상을 치료한다.

葱·椒(各半兩), 豉(二兩), 朴消(五錢).

파·산초 각 반 냥, 두시 2냥, 박초 5돈.

右四味, 用水一升, 同煎沸, 去藥, 只使煎下湯, 放溫, 作一次嚙. 至晚再煎依前法, 嚙之, 慢牽行.

이상의 4가지 약미를 물 1되에 넣고 달여 끓게 되면 약재는 빼고 끓인 탕약만 따뜻하게 하여 한차례 먹인다. 저녁이 되면 다시 앞과 같은 방법으로 먹인 다음 천천히 끌고다닌다.

苦棟散 | 고련산

治馬小腸氣.

말의 소장기(小腸)를 치료한다.

苦棟·茴香·當歸·沒藥·玄胡索·蒿本·甘草.

고련·회향·당귀·몰약·현호색·고본·감초.

右等分爲末, 每服半兩, 酒一鍾, 同煎, 并葱一握, 煎三五沸, 放冷, 草前嚥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반 냥씩 술 1잔과 함께 달이고, 아울러 파 1줌을 넣고 달여 3~5번 끓어오르면 식혔다가 풀을 먹이기 전에 먹인다.

酒煎散 | 주전산

治馬抽腎.

말의 신이 당기는 증상을 치료한다.

用天南星一箇大者, 濕紙數張裹, 慢火煨令黃色爲度, 取出置地上, 出火毒, 爛擣不羅. 每嚥用酒半升, 豆豉半兩, 燈心十莖, 葱白二莖, 一處煎之, 兩三沸, 去滓. 先將豆豉·諸般葱·燈心, 咨之, 令將汁, 用藥一錢入上項汁內, 煎至一兩沸, 放溫, 嚥一服.

천남성 1개(큰 것)를 습지 몇 겹으로 싸서 뭉근 불에 누렇게 될 때까지 구웠다가 꺼내어 땅에 놓고 화독(火毒)을 빼낸 다음 비단에 걸러지지 않을 정도로 질게 찧는다. 먹일 때는 술 반 되, 두시 반 냥, 등심 10줄기, 총백 2줄기를 한 군데 넣고 달여 2~3번 끓어오르면 찌꺼기를 제거한다. 우선 두시·총백·등심을 먹이고, 남아있는 국물에 위 항목의 약재(천남성) 1돈을 국물에 넣고 달여 1~2번 끓어오르면 따뜻하게 하여 한 번에 먹인다.

牡礪⁵散 | 모려산

治馬袖口陰腫, 塗擦消腫毒.

말의 수구음종(袖口陰腫)을 치료하는데, 발라주면 종독(腫毒)이 사라진다.

天南星·縮砂·牡礪(燒過)·天仙子·木鼈子.

천남성·축사·모려(태운 것)·천선자·목별자.

右等分末, 每藥一錢, 淡醋一盞, 同煎三兩沸, 热塗上, 自消.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돈씩 묽은 식초 1잔과 함께 달여

2~3번 끓어오르면 뜨거울 때 바르면 저절로 사라진다.

1. 腎部 : 원문이나 《조선우마의방》이나 둘 다 ‘治’자가 빠져 있다. ↵

2. 花 : 《조선우마의방》에는 ‘芻’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3. 총백(葱白) : 파 흰 밑동. ↵

4. 施 : 《조선우마의방》에는 ‘拖’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5. 礦 : ‘礪’의 오기이다. ↵

1.1.26. 風門 | 풍문

各臟風已出上文

각각 장에 대한 풍병은 이미 앞의 내용에 나와 있다.

1.1.26.1. 灸法 | 뜸 뜨는 법

柳條三十箇五寸長, 地上鉋窩, 火燒柳條, 汗出, 灸百會穴二十度或三十度.

버들가지 30기를 5촌 길이로 하여 땅 위에 움을 파고 버들가지를 태워 땀이 나오면 백회혈(百會穴)에 20장이나 30장 정도 뜸을 뜯다.

1.1.26.2. 鍼法 | 침 놓는 법

見上諸穴門.

앞의 제혈문(諸穴門)에 나온다.

1.1.26.3. 煎法 | 찜질하는 법

治馬作鬻(鄉云取岱)後, 狂走發汗, 中風如麻木者, 入溫塈密房中, 以射干·鷄糞和艾·釀醋, 灑熏腹下, 厚衣裹馬全體, 汗出, 二三日愈. 卒中風前法熨之.

말이 거세(우리말로 취대(取岱)라 한다.)한 뒤에 미친듯이 날뛰어 땀이 나오고 중풍에 걸린 듯 마비된 경우에 말을 온돌방에 들여놓고 사간·닭똥과 쑥·진한 식초를 섞어 말의 배 아래에 뿌리고 훈증한 다음 두꺼운 옷으로 말 전신을 덮어 땀이 나게 하면 2~3일 뒤에 낫는다. 갑작스런 중풍에는 앞의 방법과 같이 찜질한다.

1.1.27. 五臟汗歌 | 오장의 병증으로 땀이나는 것을 노래함

1.1.27.1. 肺痛難行汗出病源歌 | 폐가 아파서 걷지 못하고 땀이 나는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拳脚汗出肺家傷, 肺痛行時審細詳, 其胸行時饒汗出, 精神知慢更爲陽.

다리를 굽히고 땀이 나는 것은 폐가 상한 것이니, 폐가 아픈 상태에서 걷을 때를 상세히 살펴야 한다네, 가슴에서 땀이 많이 흐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은 양(陽) 때문이라네.

止痛當歸白藥子, 芍藥貝母共消黃, 更用火鍼生起膊, 葱煎麻附啖爲強.

통증을 멎게 하려면 당귀·백약자, 작약·패모를 써서 황병을 없애고, 다시 화침을 쓰면 어깨가 펴지고, 파를 넣고 달인 물에 들기름을 넣어 먹으면 강하진다네.

1.1.27.2. 肺愈汗出病源歌 | 폐유로 땀이 나는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汗出渾身喘不休, 醫人切在細搜求, 肺喘氣麤并把膊, 胸堂大血急須抽.

온 몸에서 땀이 나며 혈떡거림을 그치지 못하면 의사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네. 폐 부위에서 거칠게 혈떡거리면서 어깨도 들썩이니 흉당혈에 침을 놓아 빨리 혈을 빼야 한다네.

更用入味白藥子, 炒糖白蜜配生油, 更下白礬粥裏啖, 嘴時不得忘瓜薑.

다시 백약자, 사탕·백밀과 기름을 넣어 먹이고, 또다시 백반을 넣은 죽을 먹이되, 먹일 때 함부로 과루를 쓰지 말아야 한다네.

1.1.27.3. 心熱汗出病源歌 | 심열로 땀이 나는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汗出渾身數¹黃, 心家有病熱來傷, 是汗熱時涼藥補, 蔚金鷄子共商量.

온 몸에 땀이 몇 번 나면서 누렇게 되니 심병으로 열이 나서 상한 것이라네. 땀과 열이 날 때는 성질이 시원한 약으로 보해야 하니, 울금·계란을 함께 헤아려야 한다네.

甘草只用荷車散, 大黃枚子配蒲黃, 七味將來蜜裏下, 大血抽罷放胸堂.

감초는 하차산에 쓰고, 대황·매자에 포황을 섞어야 하니, 일곱 가지 약미를 꿀에 넣어 쓰고, 흉당혈에 침을 놓아 혈을 크게 빼내야 한다네.

1.1.27.4. 心愈汗出病源歌 | 심유로 땀이 나는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心愈熱燥汗白流, 出氣如同似鋸抽, 心愈肺喘饒肺敗,

심유(心愈)로 열이 나오고 번조하며 땀이 흐르고, 숨소리가 톱질하는 소리와 같다며 심유로 숨을 혈떡거리다가 대부분 폐가 망가진다네.

胸堂大血最爲籌, 更用消黃涼藥啖, 入何²淋洗自然休.

흉당혈에서 혈을 빼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한 성질이 시원한 약을 먹여 황병을 없애고, 강물에 들어가 씻기면 병이 저절로 그친다네.

1.1.27.5. 肝爛失魂汗出病源歌 | 간이 허물어져 정신이 나가고 땀이 나는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肝爛失魂汗如漿, 行如醉狗便衝牆, 肝爛肺損難醫治, 陽斷肚破更無醫.

간이 허물어져 미음 같은 땀을 흘리고, 취한 개마냥 걸으며, 또한 벽에 박치기
를 한다네. 간이 허물고 폐가 손상된 것은 치료하기 어렵고, 양이 끓어지고 배
가 파열된 것은 치료할 방도가 없다네.

交他死人難理會, 師人說與聽行藏, 經書揜³盡中無効, 主人見道哭忙忙.

사람이 죽은 것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니 스승이 설명하여도 듣기만 하
고 행하지 않는구나. 경서(經書)에서 다 뽑아봐도 효과가 없나니, 주인이 이 도
리를 보자 엉엉 울기만 한다네.

1.1.27.6. 肝黃汗出病源歌 | 간황으로 땀이 나는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汗出渾身是肝黃, 肝黃得病目無光, 口中青色多眵淚, 肝家本旺⁴見青陽.

온 몸에 땀이 나는 것이 간황이니, 간황이 되면 눈에 광채가 없고, 입 속이 푸르
고 눈곱과 눈물이 많아니, 간은 원래 봄을 보아야 하느니라.

五藥生魂通抱服, 木家不柰火燒將, 藥用洗肝黃消散, 二消蜜下嚙三黃.

다섯 가지 약으로 혼을 생성할지니 나을 때까지 복용하라. 나무가 불에 어찌
타지 않겠는가 약으로 세간황소산을 쓰는데 이소(二消)에 꿀을 넣어 삼황(三
黃)을 먹이라.

1.1.27.7. 脾脹汗出病源歌 | 비가 부어올라 땀이 나는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汗出脾家脹不消, 五臟六腑不和調, 口黃鼻冷微謙搐, 相知此病大難逃.

땀이 나는 것은 비가 부풀어올라 빠지지 않음이고, 오장육부가 고르지 못하여
입이 누렇고 코가 차며 허구리가 약간 당길지니, 이 병을 알게 되면 벗어나기
어려우리라.

唇又郎當精神慢, 垂頭着地不能高, 主人見馬如此患, 醫家千方沒功勞.

입술 또한 낭하여 정신차리지 못하고, 머리를 땅에 박아 들지 못하는구나. 주인이 말을 보아 이와 같은 병이라면 의사가 온갖 처방을 내려도 효과가 없으리라.

1.1.27.8. 脾卽愈汗出病源歌 | 비유로 땀이 나는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汗出脾愈口色黃, 蔽鼻直上笑忙忙, 汗出脾黃多喫主, 青橘陳皮共生黃.

땀이 나는 비유로 입이 누렇고 코를 벌름거리며 들고선 자주 웃는구나 땀이 나는 비황(脾黃)으로 많이 먹기만 한다면, 청귤피·진피가 함께 황을 생성하고,

檳榔肉桂并荳蔻, 桂心二消配三黃, 都用將來白蜜下, 併嚙三服自安康.

빈랑·육계와 두구, 계심·이소·삼황을 모두 꿀에 넣어 세 번 먹이면 저절로 편안해지리라.

1.1.27.9. 陰腎汗出病歌 | 음신한출의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陰腎汗出是心黃, 心黃腎上汗如漿, 心連小腸饒顛走, 更兼謙汗眼顛狂.

음신한출은 심황이니, 심황은 신 부위에서 미음같은 땀이 나는 것이라네. 심은 소장과 연결되어 더욱 미쳐 날뛰고 더군다나 허구리에서 땀이 나며 눈을 뒤집으며 미친다네.

急嚙消黃洗肝散, 入河淋洗更無傷, 大血兩鍼須要出, 醫人不在放胃堂.

빨리 소황세간산을 먹이고 강물에 집어넣어 물을 뿌리면 더 상하지 않는다네. 두 번 침을 놓아 혈을 크게 빼내는 것이 중요하니, 의사가 없으면 흉당혈에서 방혈하리라.

1.1.27.10. 定陰汗出風吹着木腎病源歌 | 정음한출에 바람을 맞아 목신이 된 병증과 근원을 노래함

陰汗騎來備風傷, 腎家如鐵木軀將, 木腎膀軀如腫硬, 火鍼刺破是明方.

음한(陰汗)에 말을 타고 달리다가 풍을 맞아 상하여 신이 쇠와 같으면 몸이 나무토막이 되나니, 목신과 방광이 붓고 단단해지면 화침으로 찔러 터뜨리는 것 이 확실한 처방이라네.

止痛消黃鹽酢擦, 亡傷嘽啖酒爲強, 嘽用炒鹽葱一把, 酒煎冷下却如常.

통증을 멎게 하고 황을 사라지게 하려면 소금과 식초로 문지르고, 상처를 없애 고자 한다면 술을 먹여 강하게 할지니, 볶은 소금과 파 1줌을 술에 넣고 달여 식혀서 먹이면 평소처럼 회복되리라.

1. : 여기에서는 횟수를 나타내는 ‘番’과 같은 뜻이다. ↪

2. 何 : 《조선우마의방》에는 ‘河’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3. 摘 : 《조선우마의방》에는 ‘驗’으로 되어 있다. ↪

4. 肝 : 《조선우마의방》에는 ‘旺’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1.28. 五臟黃 | 오장황

木通散 | 목통산

治馬肺黃. 方見肺部.

말의 폐황(肺黃)을 치료한다. 폐부(肺部)에 나온다.

人參散 | 인삼산

治馬心黃病, 多睡饒驚神慢.

말이 심황병으로 많이 자고, 많이 놀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人參·茯苓·甘草·吳藍·大青(鄉云青黛青花)·鬱金·黃藥子(代細辛)·板藍根.

인삼·복령·감초·오람·대청(우리말로 청대의 푸른 꽃을 말한다.)·울금·황약자(세신으로 대신할 수 있다.)·판람근.

右等分爲末, 每藥一兩, 水半升, 生薑半兩擦, 油·蜜各一兩, 同煎三五沸, 放冷, 草後灌之.

이상의 약미를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씩 물 반 되, 생강 반 냥(찧은 것), 기름·꿀 각 1냥과 함께 달여 3~5번 끓어오르면 식혔다가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黃蓮散 | 황련산

治馬肝黃病初得時, 目硬四脚如柱, 奉動到坐而倒.

말의 간황병 초기에 눈이 단단해지고 네 다리가 기둥처럼 굳어 끌고 움직이면 도리어 앓았다가 자빠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黃蓮·黃耆·黃芩·知母·麥門冬·貝母(如無用人參)·鬱金·大黃·山梔子·天門冬·黃藥子(如無用細辛).

황련·황기·황금·지모·맥문동·패모(없으면 인삼을 쓴다.)·울금·대황·산치자·천문동·황약자(없으면 세신을 쓴다.).

右十一味等分爲末, 每二兩, 鷄子五箇, 生地黃三兩細擣, 合和, 灌之, 次日再灌.

이상의 11가지 약미를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2냥씩 계란 5개, 생지황 3냥(곱게 짙은 것)과 함께 섞어 먹이고, 다음날 다시 먹인다.

白藥子散 | 백약자산

治馬脾黃初得時, 精神慢頭垂, 鼻出冷氣, 或起臥慢草, 囉頭返看.

말의 비황 초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머리를 처박으며, 코에서 냉기가 나오거나, 일어났다 앓았다 하고 풀을 잘 먹지 못하며, 머리를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증상을 치료한다.

當歸·五味子·沒藥·細辛·蒿本·厚朴·陳皮·白芷·牽牛子·青皮·芍藥·白藥子(代人參).

당귀·오미자·몰약·세신·고본·후박·진피·백지·견우자·청피·작약·백약자(인삼으로 대신할 수 있다.)

右十二味等分爲末, 每藥一兩, 生薑半兩擦細, 酒一鍾, 同調, 灌之.

이상의 12가지 약미를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씩 생강 반 냥(곱게 간 것), 술 1잔과 함께 섞어 먹인다.

黃檗散 | 황벽산

治馬脾黃病, 外腎棚上兩謙浮腫.

말이 비황병으로 외신붕(外腎棚) 위쪽의 양쪽 허구리에 부종(浮腫)이 생긴 증상을 치료한다.

黃檗皮·知母·貝母·鬱金·大黃·山梔子·黃芩·白芷·桔梗·栝樓根·山藥.

황백피·지모·패모·율금·대황·산치자·황금·백지·길경·과루근·산약.

右等分爲末, 每用藥一兩, 蜜四兩, 水一鍾, 生薑半兩擦細, 同和, 灌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씩 꿀 4냥, 물 1잔, 생강 반 냥(곱게 간 것)과 함께 섞어 먹인다.

茴香散 | 회향산

治馬腎黃病外腎腫硬, 水草進退, 抽拽後腎.

말의 신향으로 외신이 붓고 단단하며, 물과 풀을 먹는등 마는등하며, 뒷꽁무니를 질질 끄는 증상을 치료한다.

茴香·知母·苦練子·甘草·貝母·乾薑·秦艽·官桂·山梔子·青皮.

회향·지모·고련자·감초·패모·건강·진교·관계·산치자·청피.

右十味各等分爲末, 每用藥一兩, 煙葱二條, 酒半升, 同煎三五沸, 放溫, 噴之.

이상의 10가지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씩 구운 파 2줄기, 술반 되와 함께 달여 3~5번 끓어오르면 따뜻하게 하여 먹인다.

1.1.29. 諸黃門 | 제황문

不二丸 | 불이환

治馬肘黃.

말의 주황(肘黃)을 치료한다.

砒霜(一兩), 黃丹·麝香(各一兩).

비상 1냥, 황단·사향 각 1냥.

右件藥三味, 同熬研爲末, 湯浸¹餅, 爲丸如桐子大, 兩頭尖. 用微鍼, 破紝藥一丸在內, 半月已後取下.

이상의 세 가지 약미를 함께 볶고 갈아 가루로 만든 다음 찐 떡과 함께 벽오동 씨만한 환을 만들어 양쪽 끝을 뾰족하게 한다. 작은 침으로 약 1환을 꿰어 환부에 넣었다가 보름 뒤에 빼낸다.

千金湯 | 천금탕

治馬瘦內黃.

말이 야위는 내황(內黃)을 치료한다.

千金木葉皮中·貫衆·松葉·艾葉各三掬.

천금목(잎과 껍질 속을 쓴다)·관중·솔잎·쑥잎 각 3줌.

右用水三斗, 煎至一斗, 好醋一鍾, 徐徐嚥口.

이상의 약미들을 물 3말에 넣고 달여 1말이 되면 좋은 식초 1잔과 함께 천천히 입속에 넣어준다.

治內外黃方 | 내황과 외황을 치료하는 처방

細辛(三兩), 人參(一兩).

세신 3냥, 인삼 1냥.

右二味, 於法油三升浸, 待藥潤取出, 焙乾爲末. 痘重則二匙, 輕則一匙半, 調井花水
一鉢, 好酒一鍾半, 分三服, 徐徐灌之平繫. 半日不給水草.

이상의 두 가지 약미를 들기름{法油} 3되에 담갔다가 약재가 매끈해지면 꺼내
어 불기운에 말렸다가 가루낸다. 병이 위증하면 2술을, 병이 가벼우면 1술을
정화수(井花水) 1사발, 좋은 술 1잔 반과 함께 섞어 세 번에 나누어 복용시키되
천천히 먹이고 고삐를 평평하게 잡는다. 한나절동안 물과 풀을 주지 말아야 한
다.

又方

다른 처방

羊蹄根(一鉢細研), 松葉(一鉢細折).

양제근 1사발(곱게 간 것), 솔잎 1사발(잘게 자른 것).

右爲同杵, 水一斗半, 和合取汁, 噛口, 極妙. 羊蹄根三斗單擣, 噛之, 亦佳.

이상의 약미를 함께 찧어 물 1말 반과 섞어 즙을 낸 다음 먹이면 매우 신묘한
효과가 있다. 양제근 3말만 찧어 먹여도 좋다.

又方

다른 처방

羊蹄根(一斤), 艾葉(三斤).

양제근 1근, 솔잎 3근.

右水一盆, 煎至七分, 常飲之.

| 이상의 약미들을 물 1동이에 넣고 달여 10분의 7이 되면 늘 마시게 한다.

治外黃方 | 외황을 치료하는 처방

羊蹄根削如棗核, 以鍼周瘡刺之, 納孔中則其瘡自消. 如無羊蹄, 葛根亦佳.

| 양제근을 대추씨만하게 깎고 침으로 헌데 주위를 찌른 다음 구멍에 약을 넣으면 헌데가 저절로 사라진다. 양제근이 없으면 갈근을 써도 좋다.

又方

다른 처방

針刺舌端一寸血出, 令馬自啗. 無血則不利.

| 침으로 혀 끝부분을 1촌 깊이로 놓아 혈을 빼내어 말이 스스로 먹도록 한다. 혈이 없으면 좋지 못하다.

又方

다른 처방

婦人月經衣浸水(三升), 槩皮末(五錢), 和合, 噥之.

| 개침 씻은 물 3되, 황백껍질가루 5돈을 섞어 먹인다.

灸法 | 뜸 뜨는 법

馬面骨下端, 割十字, 灸十壯.

| 말의 얼굴뼈 아래쪽 끝부분을 십자모양으로 절개하여 뜸을 10장 뜯다.

治馬節黃(鄉云肢派) | 말의 절황을(우리말로 지파(肢派)를 말한다.) 치료함

黃有二種, 節上癰腫, 軟而如拳者, 名曰水黃. 以燒鐵條, 橫烙大節上三畫, 只燒毛而止, 勿破皮. 腫如粟者, 名曰鐵黃. 腫口針如粒長, 以艾灸三壯, 艾炷如棗大. 若經月不差, 則如前灸, 針曲池穴.

절황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마디 위의 옹종(癰腫)이 연하면서 주먹만한 것을 수황(水黃)이라 한다. 달군 쇠줄로 대절(大節) 윗부분을 가로로 3획을 지지되, 털만 태우고 끝내야지 살갗을 태워서는 안된다. 밤툴만하게 부은 것을 철황(鐵黃)이라 한다. 부은 곳 입구를 침으로 좁쌀크기만큼 찌르고 대추씨만한 뜸봉으로 쑥뜸을 3장 뜯다. 한 달이 되도록 낫지 않으면 앞의 방법으로 뜸을 뜨고, 곡지혈(曲池穴)에 침을 놓는다.

鐵粉散 | 철분산

治馬蹄黃(鄉云召伊). 蹄上堅腫者, 是以刀割去其核, 勿犯筋.

말의 제황을(우리말로 소이(召伊)이다.)치료한다. 발굽 윗부분에 단단한 종기가 있으면 칼로 그 핵을 째되, 힘줄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白鮮皮末·鐵粉末等分, 割處塗之, 以布帛裹之, 以艾煙熏之. 三日後, 去其裹帛.

백선피가루·철분가루를 같은 양으로 하여 짹 곳에 바르고 삼베나 비단으로 싸맨 다음 쑥을 태워 훈증한다. 3일 뒤에 싸맨 것을 제거한다.

田螺膏 | 전라고

治馬蹄黃.

말의 제황을 치료한다.

田螺(鄉云古乙方)·白鮮皮·黃檗·烏魚骨·蚤休.

전라(우리말로 고을방(古乙方))·백선피·황백·오징어뼈·조후.

右任意多少, 同擣, 貼傷處, 以巾裹.

이상의 약미들을 양에 상관 없이 함께 찢어 환부에 붙이고 수건으로 싸맨다.

豬脂膏 | 저지고

治馬膝黃. 用白鍼出血

말의 슬황(膝黃)을 치료한다. 백침(白鍼)으로 혈을 빼낸다.

何首烏·大黃.

하수오·대황

右等分爲末, 猪腦·猪脂中, 同研, 以油塗患處, 巾裹之.

이상의 두가지 약미를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돼지뇌·돼지기름과 함께 갈아 그 기름을 환부에 바른 다음 수건으로 싸맨다.

治馬地黃方 | 말의 지황을 치료하는 처방

松瀝(斫取生松枝, 擘破作炬, 埋側地, 炬上端納缸, 以粗糠厚覆之, 下端火燒取油)·

馬齒莧(生擣).

송력(살아 있는 솔가지를 베고 쪼개어 심지를 만든 다음 경사진 땅에 묻는다.
심지 윗부분에 항아리를 씌우고 거친 거로 두툼하게 덮은 다음 하단 끝부분에
불을 붙여 기름을 얻는다.)·마치현(생 것을 찢은 것).

右二味, 和均, 厚傳瘡上, 以帛裹²之. 經三日卽愈.

이상의 두 가지 약미를 고루 섞어 현데에 두껍게 붙이고 비단으로 싸맨다. 3일
이 지나면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郁李人根皮細研, 用蜜和, 白瘡兪內.

율리인 뿌리껍질을 곱게 갈아 꿀과 섞은 다음 흰 창에 넣는다.

又方

다른 처방

桃葉和漿, 爛擣, 傳瘡上, 以帛結之, 得效.

복숭아잎과 좁쌀죽 웃물을 섞어 질게 짖은 다음 헌데 붙이고 비단으로 싸매면
효과를 본다.

又方

다른 처방

明礬·松脂.

명반·송지.

右等分, 煉成膏作丸, 納孔中, 神驗.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정련하여 만든 고로 환약을 지어 구멍에 넣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¹. : ‘餅’과 같은 의미이다. ↵

². 裏 : ‘裏’의 오기이다. ↵

1.1.30. 諸脹門 | 제창문

牽牛散 | 견우산

治傷飽氣痛草慢, 及因飽起臥.

말이 배불리 먹어 생긴 기통(氣痛)으로 풀을 잘 먹지 못하는 증상 및 배불리 먹어서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牽牛子·續隨子·瞿麥·郁李仁·甘草·木通·陳皮·滑石.

견우자·속수자·구맥·욱리인·감초·목통·진피·활석.

右等分爲末, 每用一兩半, 煎葱生薑湯二大盞, 同調, 噴之. 如起臥, 油一杯和, 噴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 반씩 파와 생강을 넣고 달인 물 2잔 반에 타서 먹인다. 일어났다 누웠다 할 때는 기름 1사발에 타서 먹인다.

治六畜食米脹欲死方 | 가축(六畜)이 쌀을 먹고 부어올라 죽으려 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

麴汁噴之, 立消.

누룩즙을 먹이면 곧 사라진다.

治馬中穀方 | 말이 곡식을 먹고 상한 것을 치료하는 처방

生蘿蔔三五箇, 切作片字, 喫之, 立效.

생나복 3~5개를 조각조각 잘라 먹이면 곧 효과가 난다.

又方

다른 처방

麥蘖三升, 微炒爲末, 和草料餵之, 甚良.

맥蘖 3되를 살짝 볶아 가루낸 다음 풀과 사료와 섞어 먹이면 아주 좋다.

又方

다른 처방

手執胛上鬚向上, 令皮離肉, 如此數過, 以大鍼刺空中皮突過. 以手當刺孔, 則有如風吹, 是穀氣也. 令人溺其上, 又以鹽塗之, 立乘數十步, 卽愈.

손으로 견갑 윗부분의 갈기를 위로 향하게 하여 살갗이 살에서 떨어지게 하는
데, 이와 같이 몇 차례 한 다음 대침으로 빈 공간의 살갗을 찌른다. 손으로 찌른
구멍을 만져보아 사람이 새어나오는 듯한 것이 곡기(穀氣)이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오줌을 그 위에 누게 하고, 또 소금도 바른 다음 말에 올라타서 10보 정
도 걷게 하면 곧 낫는다.

治馬卒熱腹脹起臥欲死方 | 말이 갑작스런 열로 배가 부어오르고 일어났다 누웠다
하며 죽으려 하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藍汁一升, 和冷水二升, 灌之, 立效.

쪽즙 1되를 찬물에 타서 먹이면 곧 낫는다.

治馬卒腹脹眠臥欲死方 | 말이 갑자기 배가 부어올라 누워 자려만 하고 죽으려 하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鹽一升研, 和冷水二升, 灌之, 卽愈.

소금 1되를 갈아 찬물 2되에 타서 먹이면 곧 낫는다.

東人經驗治脹滿方 | 우리나라 사람이 경험한 배가 부어 오르는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

用一竹筒, 一端留節, 鑽小孔, 一端斜削, 納肛門中, 以艾灸鑽小孔十餘壯, 卽去竹筒, 糞隨筒而出得效.

죽통 1개를 준비하여 한쪽 끝부분은 마디를 남겨두어 작은 구멍을 뚫고, 한쪽 끝부분은 비스듬히 깎아 항문 속에 넣은 다음 작은 구멍을 뚫은 곳에 쑥뜸을 10여 장 뜨고나서 곧 죽통을 제거하면 똥이 죽통을 따라 나오면서 효과를 얻는다.

牽牛子散 | 견우자산

治馬低頭難, 腰背緊, 化滯氣, 消膨脹.

말이 머리를 숙이기 어려운 증상과 허리와 등이 뻣뻣해진 증상을 치료하여 체기를 소화시키고 팽창된 것을 가라앉힌다.

白牽牛子·大黃·葳靈仙·大腹子·甘遂·陳皮·蒿本·當歸·丁香皮·草薢.

백견우자·대황·위령선·대복자·감수·진피·고본·당귀·정향피·비해.

右等分爲末, 每用藥一兩, 水半升, 入葱白十莖細切, 生薑一分細擦, 煎沸, 草前溫囁.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씩 물 반 되, 총백 10줄기(잘게 썬 것), 생강 1푼(곱게 찧은 것)와 함께 달여 끓어오르면 풀을 먹이기 전에 따뜻하게 하여 먹인다.

治馬誤食亂髮·飛禽毛翎, 或木硬物, 使腹脹悶, 欲絕發作, 有時體瘦方 | 말이 잘못하여 털이나 새의 깃, 혹은 나무와 같은 단단한 것을 먹고 배가 부어 오르고 답답하며, 숨이 끊어지려 발작을 하거나, 몸이 야월 때를 치료하는 처방

綿一兩翦折細, 油調啗之, 腹中惡物, 卽隨綿出.

실 1냥을 잘게 잘라 기름에 섞어 먹이면 뱃속의 오물이 실을 따라 나온다.

消毒散 | 소독산

治馬誤食毒草, 口中吐沫, 憶絕欲死.

말이 독초를 잘못 먹어 입에서 거품을 토하며 숨이 끊어져 죽으려는 증상을 치료한다.

白礬(半兩), 鹽(一兩).

백반 반 냥, 소금 1냥.

右同拌令均, 於舌上塗之. 良久, 再用甘草末二兩, 水三升, 同煎二升, 放溫, 入芸臺汁半升, 鹽二兩, 伏龍肝一兩半, 同調, 噴. 更於尾本穴出血一升, 卽差.

이상의 약미들을 고루 섞어 혀 위에 발라준다. 한참있다가 다시 감초가루 2냥을 물 3되에 넣고 달여 2되를 만들어 따뜻해지면 운대즙 반 되, 소금 2냥, 복룡간 1냥 반을 섞어 먹인다. 다시 미본혈(尾本穴)에서 혈을 1되 정도 빼내면 곧낫는다.

大安散 | 대안산

治馬起臥, 大肚板腸糞不轉.

말이 일어났다 누웠다 하면서 대두의 판장에서 뜯을 옮기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青皮·陳皮·大戟·木通·牽牛子·大黃·瞿麥·郁李仁·晚瓜黃¹·滑石·鼠糞·續隨子.

청피·진피·대극·목통·견우자·대황·구맥·욱리인·만과황·활석·서분·속수자.

右等分爲細末, 每用一兩半, 葱一握, 水三鍾, 同煎三兩沸, 放溫, 入油二兩, 噴之, 後頻奉行.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내고, 1냥 반씩 파 1줌, 물 3잔과 함께 달여 2~3번 끓어오르면 따뜻하게 하여 기름 2냥을 넣고 먹인 다음 자주 끌고다닌다.

皂角散 | 조각산

治馬結糞.

말똥이 굳은 것을 치료한다.

皂角(燒灰存性)·大黃·枳殼·麻子仁·黃蓮(代黃檗皮)·厚朴.

조각(약성이 남도록 태운 것)·대황·지각·마자인·황련(황백피로 대신할 수 있다.)·후박.

右等分爲末, 清米泔, 調噴. 若腸突, 蔓荊子末, 同調, 噴之.

이상의 약미를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맑은 쌀뜨물에 섞어 먹인다. 장이 돌출되었을 때는 이 약에 만형자가루를 타서 먹인다.

又方

다른 처방

冬月馬結糞, 納竹筒穀道中, 氷碎納筒中, 以木筋²推入.

겨울철에 말똥이 굳었을 때는 죽통을 항문에 삽입한 다음 얼음조각을 죽통에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밀어넣는다.

治馬大小便不通 | 말의 똥과 오줌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眠起欲死, 須急治之, 若不急治斃. 以脂或油, 塗人手探穀道, 去結屎. 又以鹽納溺道中, 溺出便差.

자다가 일어나서 죽으려 할 때는 빨리 치료해야 하니, 만약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 (동물의) 지방이나 기름을 사람 손에 발라 항문을 떠듬어 굳은 똥을 제거한다. 또한 소금을 요도에 넣으면 오줌이 나오면서 낫는다.

滑石散 | 활석산

治馬小便不通.

말의 오줌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滑石(一兩研), 朴消(研)·木通·牽牛子(各二兩).

활석 1냥(간 것), 박초(간 것)·목통·견우자 각 2냥.

右爲末, 同溫水, 噴一兩. 未通再噴之.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어 따뜻한 물에 타서 1냥을 먹인다. 오줌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먹인다.

人參當歸散 | 인삼당귀산

治馬大勞小便赤濁或有血出.

말이 몹시 피로하여 오줌이 붉고 탁하거나 피가 나오는 증상을 치료한다.

大黃·人參(各一兩), 當歸(半兩).

대황·인삼 각 1냥, 당귀 반 냥.

右細切, 用水二鉢, 翦³至一鉢半, 待冷去滓, 加清醬一鍾調, 噴之.

이상의 약미들을 잘게 썰어 물 2사발에 넣고 1사발 반이 될 때까지 달여 식으면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 맑은 장 1잔을 타서 먹인다.

白芷散 | 백지산

治馬尿血.

말이 피오줌이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沒藥(代浦黃)·細辛·肉桂·自然銅·藁本·當歸·芍藥·白芷.

몰약(포황으로 대신할 수 있다.)·세신·육계·자연동·고본·당귀·작약·백지.

右等分爲末, 每服一兩, 鹽小許, 童子小便, 同調, 噴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씩 소금 약간, 동변과 함께 섞어 먹인다.

1. 黃 : 《조선우마의방》에는 ‘苗’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2. 筋 : 《조선우마의방》에는 ‘筋’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3. 煎 : 《조선우마의방》에는 ‘煎’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1.31. 骨眼門 | 골안문

青鹽散 | 청염산

治馬眼骨.

말의 골안을 치료한다.

白礬(四錢), 青鹽(彈子二塊, 如無代用鄉鹽).

백반 4돈, 청염(탄환만한 것 2덩이를 쓰되, 없으면 국내산 소금으로 대신 쓴다.)

右將鹽爲末, 銚子內中心, 用礬蓋. 用火飛之熬, 定後取出, 却入炭火, 燒絕黑煙爲度, 研如粉. 入少龍腦, 點之.

우선 소금을 가루내어 냄비 가운데에 넣고 백반으로 덮는다. 불에 놓고 볶아 정제한 뒤에 꺼내어 속에 놓고 검은 연기가 날 때까지 태운 다음 가루가 되도록 간다. 여기에 용뇌를 약간 넣어 점안한다.

明睛散 | 명정산

治馬點眼.

점안하여 치료한다.

白礬(飛乾者一分), 烏賊魚骨(一分), 蕙荑(七介).

백반(날려서 말린 것 1푼), 오징어뼈 1푼, 무이 1개.

○右件藥, 一處研, 頻點之.

이상의 약미들을 한꺼번에 갈아 자주 점안한다.

灸法 | 뜸 뜨는 법

凡馬眼骨後, 腹痛及諸腹痛, 灸神闕穴五十壯, 卽差神驗.

말이 골안 뒤의 복통 및 여러 가지 복통이 날 때는 신궐혈(神闕穴)에 뜸을 50장 뜨면 곧 낫게 되는 신묘한 효험이 있다.

又方

다른 처방

初發時, 釜底墨·鹽炒等分細末, 一錢納眼, 差.

처음 발생하였을 때 솔 밑의 검댕과 소금(볶은 것) 같은 양을 곱게 가루내어 1 돈을 눈에 넣으면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熊膽如小豆大細研, 酒一鍾半, 和均, 以小杯徐徐嚥之. 後腹痛, 則一日不給料, 卽差.

곰쓸개(콩만한 것)를 곱게 갈아 술 1잔 반과 고루 섞어 작은 잔에 담아 천천히 먹인다. 이후에 배가 아플 때 하루정도 사료를 주지 않으면 곧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初有氣, 以亂髮燒燻鼻流清涕, 至流濃涕, 則愈.

처음 기운이 돌 때 머리카락을 태운 연기를 쏘여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흐르게 하는데, 진한 콧물이 흐르게 되면 낫는다.

1.1.32. 諸熱門 | 제열문

二母散¹ | 이모산

治馬卒熱.

말이 갑작스런 열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貝母(如無用人蔘)·瓜樓根(各五兩), 山梔子(一兩), 知母(五兩).

패모(없을 때는 인삼을 쓴다.)·과루근 각 5냥, 산치자 1냥, 지모 5냥.

右細末, 每囊藥末二兩, 生薑二兩研細取自然汁, 同調, 飼草後囊之.

이상의 약미들을 곱게 가루내고 2냥씩 생강 2냥을 갈아 짜낸 즙과 섞어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蓼苓散 | 삼령산

治馬發熱, 貪水慢草, 或因起臥未看草, 虛熱飲水.

말이 열이 나서 물만 찾고 풀을 잘 먹지 못하거나, 기와(起臥)로 풀을 쳐다보지
도 않고, 허열(虛熱)로 물만 마시는 증상을 치료한다.

人參·茯苓·黃蓮²·乾葛·烏梅·甘草·石膏·蘆根.

인삼·복령·황련·건갈·오매·감초·석고·노근.

右等分細末, 每藥一兩半, 蜜一兩半, 水一大鍾半, 同煎三四沸, 放冷. 先以新汲水咽,
後囊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내고 1냥 반씩 꿀 1냥 반, 물 1큰잔 반과 함께 달여 3~4번 끓어오르면 식힌다. 우선 새로 길어온 물을 먹인 뒤에 이 약을 먹인다.

解毒飲 | 해독음

治馬熱發垂青.

말이 열이 나서 눈을 내리깔고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

鹽豉(一升研), 猪母糞·蜜(各兩³), 鷄子(三箇新者), 鹽(一兩).

두시(1되, 간 것), 암퇘지똥·꿀 각 4냥, 계란(3개, 신선한 것), 소금 1냥.

右藥同和草後, 咽之, 隔日再咽.

이상의 약미들을 풀과 섞은 뒤에 먹이고, 하루걸러 다시 먹인다.

又方

다른 처방

煮黑豆及熱飲噉, 三四度則愈.

삶은 콩과 뜨거운 물을 먹이는데, 3~4번 정도면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以麪鹽和作劑, 用水洗下汁, 飼草後嚥之.

밀가루와 소금을 섞어 만든 약제에 물을 뿌려 즙을 내고, 풀을 먹인 다음 먹인다.

1. 二母散 : 원문에는 ‘治馬卒熱’ 아래에 있으나 형식상 원래 있을 자리에 둔다. ↵
2. 黃蓮 : 《조선우마의방》에는 黃蓮에 ‘代括樓’라는 주석이 있다. ↵
3. 各兩 : 《조선우마의방》에는 ‘各四兩’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1.33. 溫疫門 | 온역문

治牛馬時疫 | 소와 말의 유행성 전염병을 치료하는 처방

白朮·藜蘆·芎藭·細辛·鬼臼·菖蒲.

백출·여로·궁궁·세신·귀구·창포.

右等分麞末, 燒熏, 兩鼻令煙入腹, 卽愈.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거칠게 가루내고 태운 연기를 양쪽 콧구멍에서부터 배로 들어가게 하면 곧 낫는다.

五木瀝 | 오목력

治馬疫氣, 已發未發.

말의 역기(疫氣)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지 않은 것을 치료한다.

梧桐木·白楊木·白榆木·紫柞木·梓木(鄉名牙木).

오동목·백양목·백유목·자작목·재목(우리나라에서는 아목(牙木)이라 한다.).

右爲刮取等分, 束如炬取油, 塗病馬牛, 滿身至蹄甲, 垂死卽活.

이상의 약미들을 긁어 횃대처럼 묶어 기름을 발라 병든 말과 소에게 바르는데, 온 몸뚱아리에서 발굽까지 바르면 죽으려 했던 것도 살아난다.

又方

다른 처방

獺肉肝肚, 以水煮汁, 噴之. 不用屎.

수달의 고기와 밥통을 물에 삶아낸 국물을 먹인다.(밥통 속에 있던) 뜰은 쓰지 않는다.

又方

다른 처방

始發, 羊蹄汁二三升, 嘴口. 未發者, 預嚙.

처음 발생하였을 때는 양제근 즙 2~3되를 먹인다.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미리 먹인다.

又方

다른 처방

有氣, 則千金木斫取擁廄, 又水煮木與葉, 待冷, 嘴口. 又葉剉和草, 飼之.

기운이 돌 때 천금목을 베어 마굿간에 두고, 또한 천금목과 잎을 물에 삶아 식힌 다음 먹인다. 또한 잎사귀를 썰어 풀에 섞어 먹인다.

灸法 | 뜸 뜨는법

牛馬疫通用.

소와 말의 역질에 두루 쓰인다.

初發時, 身體中有小腫, 字細審之. 腫則以燒鐵條烙之, 又冷水漫堅體寒爲度. 又以艾炷如小指大, 灸神闕穴(臍中)三十壯.

처음 발생하였을 때 몸 어딘가에 작은 종기가 있나 자세히 살펴본다. 종기가 있으면 철사를 달구어 지지고, 또 찬물을 말의 몸이 떨릴 때까지 왕창 뿐된다. 또한 새끼손가락만한 쑥심지로 신궐혈(神闕穴)(배꼽 가운데)에 뜸을 30장 뜯는다.

1.1.34. 鼻¹門 | 비상문

治馬，蕎麥磨粉，拌草連稈折，飼之。| 말의 콧병을 치료할 때는 메밀을 가루내어 줄 기채로 썬 풀에 섞어 먹인다.

又方

다른 처방

松脂(明者四分), 熊膽(三分)。

송지(밝은 것 4푼), 응담 3푼.

右爲細末，納兩耳中，以軟帛約耳根。鍼兩耳後項端有虛穴，灸七壯。三日後約帛解之。

이상의 약미들을 곱게 가루내어 양쪽 귓속에 넣고 부드러운 솜으로 귓뿌리를 묶는다. 양쪽 귀 뒤의 목 끝부분에 있는 허혈(虛穴)에 침을 놓고 뜸을 7장 뜯다. 3일 뒤에 묶었던 솜을 풀어준다.

又方

다른 처방

馬小台星毛旋中鑽，徹骨卽止，勿犯腦。老馬腦深，兒淺，細審鑽之。先以臭油塗之，灸三七壯，厚紙貼之生肌爲限。凡飼之，勿多水。

말의 소태성선모(小台星毛旋)의 가운데를 뚫되 뼈까지만 뚫고 뇌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늙은말의 뇌는 깊고, 망아지의 뇌는 얕으니 자세히 살펴 뚫어야 한다. 우선 취유(臭油)를 바른 다음 뜸을 21장 뜨고, 두꺼운 종이를 살갗이 돋을 때까지 붙여둔다. 먹이를 줄 때는 물을 많이 주면 안된다.

又方

다른 처방

原蠶蛾細末(一分), 好酢(一匙), 分盛兩耳中.

원잠아(곱게 간 것) 1푼과, 좋은 식초 1술을 두 귀에 나누어 채워넣는다.

石螵蛸散 | 석표초산

治馬鼻.

말의 비상을 치료한다.

石螵蛸·松脂·陳麴.

석표초·송지·묵은누룩.

右等分, 鹽小許半分, 裹紙, 慢火炮, 去熱細末, 眞油一鍾, 入亂髮煎, 待冷. 烏鷄卵四介, 同和, 分納鼻中, 卽差.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소금 반 푼과 함께 종이에 싸서 끓는 불에 굽고, 식으면 가루낸 다음 참기름 1잔, 머리카락과 함께 달여 식힌다. 이것을 오골계알 4개를 넣고 섞어 콧구멍에 나누어 넣으면 곧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藁皮(三分), 貫衆(一斗, 鄭云廻初音), 黑豆(一升).

황백피 3푼, 관중(1말, 우리말로 회초음(廻初音)이다.), 흑두 1되.

右水二斗半, 前²至一大鉢, 紅花末一錢, 煙墨五分, 好酢一鍾, 咳嗽則加製半夏三分, 和均, 嚥口.

이상의 약미들을 물 2말 반에 넣고 달여 1큰사발이 되면 흥화가루 1돈, 연묵 5푼, 좋은식초 1잔을 넣되, 기침이 나면 반하(법제한 것) 3푼을 더하여 고루 섞어 먹인다.

又方

다른 처방

眞油(一鍾), 白鐵³·黃鐵·甘草·人參(各三錢), 大黃(二錢), 有咳嗽加製半夏(一分同細末), 羊蹄根(鄉云斫串, 生則搗細研, 乾則五分細末).

참기름 1잔, 백랍·황랍·감초·인삼 각 3돈, 대황 2돈, 법제한 반하(기침이 있을 때)(1푼, 함께 곱게 가루낸 것), 양제근(우리말로 작관(斫串)이다. 생 것은 한 줌을 잘게 썰고, 마른 것은 5푼을 곱게 가루낸다.).

右味, 淡鼓湯一鉢, 好酒一鍾, 和均, 以竹筒分三囊口, 先以白鐵分三納口, 次以前藥囊之. 此藥性緊, 勿飼半日.

이상의 약미를 담두시탕 1사발, 좋은 술 1잔과 고루 섞고 죽통에 넣어 세 번에 나누어 먹이되, 우선 백랍을 세 번에 나누어 입에 넣은 다음 앞의 약을 먹인다. 이 약은 성질이 긴(緊)하므로 한나절 동안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

又方

다른 처방

如一年可治.

콧병이 1년된 것으면 치료할 수 있다.

芥子·鹽(各三分), 蒜(七分).

겨자·소금 각 3푼, 마늘 7푼.

右件一處, 擣成膏子. 若右鼻, 用藥滿塞右耳內, 尖上裏面皮, 用小刀直剗三道, 將耳尖望裏摺倒, 用氈子緊包裹耳根, 上細繩緊縛. 十日不騎, 卽愈.

이상의 약미들을 한데 모아 찧어 고(膏)를 만든다. 만약 오른쪽 코에 병이 있으 면 약을 오른쪽 귓속에 가득 채우고 끝부분 위 안쪽 살갗을 작은 칼로 곧게 세 갈래로 가른 다음 귀끝의 접히는 부분을 살펴 틸로 귀뿌리를 싸매고, 위쪽은 가는 실로 단단히 묶는다. 열흘동안 말을 타지 않으면 저절로 낫는다.

肘後方 | 《주후방》

治蟲十年者.

충(蟲)이 10년 동안 있는 것을 치료한다.

醬清如膽者(半合).

쓸개와 같이 맑은 장(醬) 반 흡.

右分兩度灌鼻, 隔一兩日, 再灌之. 將息令不得多, 多則損身.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 코에 붓고 하루나 이를 간격으로 다시 붓는다. 증세가 줄어들 때는 약을 많이 써서는 안되니, 많이 쓰면 몸에 손상이 간다.

追蟲散 | 추총산

治馬蟲病.

말의 충병(蟲病)을 치료한다.

躑躅花·穀精草·蘆薈(各一分), 瓜蒂(一介), 母丁香(二斤), 麝香(半分研), 皂莢(一分用酥炙).

척축화·곡정초·노회 각 1푼, 과체 1개, 모정향 2근, 사향 반 푼(간 것), 조협 1푼
(연유를 발라 구운 것).

右細末, 麝香拌勻, 每用半錢, 以竹筒盛, 吹納鼻中, 蟲出差. 鄉麝香, 亦可.

이상의 약미들을 곱게 가루내고 사향과 섞어 반 돈씩 죽통에 채워 콧속에 불어 넣으면 충이 빠져나오면서 낫는다. 우리나라 사향을 써도 좋다.

¹. : 音은 ‘상’이고 의미는 ‘말병’이다. ↵

². 前 : ‘煎’의 오기이다. ↵

³. 鐮 : ‘蠟’의 오기이다. ↵

1.1.35. 諸瘡門 | 제창문

蘭茹散 | 여여산

治馬附骨疽(鄉云骨瘡).

말의 부골저(附骨疽)(우리말로 골창(骨瘡)이다.)를 치료한다.

蘭茹·白鮮皮·黃蘢皮·細辛·松脂·石硫黃.

여여·백선피·황백피·세신·송지·석유황

右等分細末, 熊膽如大榛子許, 沈水和藥, 從瘡深淺作丁, 以筋納瘡口. 七日內差.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내고 응담(도토리만한 것)을 물에 담갔다가 약과 섞어 헌데의 깊이에 따라 정제를 만들어 것가락으로 터진자리에 넣는다. 7일 이내에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明松脂·葱白·醬·鹽.

명송지·총백·장·소금.

右等分爛擣, 納瘡口.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질게 찧은 다음 터진자리에 넣는다.

又方

다른 처방

產男兒胎燒存性, 以唐紙裹, 納瘡口.

사내아이가 태어난 태(胎)를 약성이 남도록 태워 당지(唐紙)¹에 싸서 창구(瘡口)에 넣는다.

巴豆散 | 파두산

治馬脚生附骨疽, 卽入膝節, 令馬跛.

말의 다리에 부골저가 생겨 곧 무릎관절로 들어가 절뚝거리는 것을 치료한다.

芥子(半兩), 巴豆(三介去皮, 如無用杏仁).

겨자 반 냥, 파두(3개, 껌질을 벗긴다. 없으면 행인을 쓴다.)

右先芥子研爛, 次入巴豆同研細, 用竹刀子, 以水和令相着. 每用先當附骨疽上, 拔去毛, 融小蠟, 周而圍之, 蠟罷以藥傅骨土². 取生布割兩頭, 作三道, 急裹之. 骨小者一宿便盡, 大者不過再宿. 審知骨盡, 卽便取冷水, 洗瘡淨, 再取車軸頭脂, 作餅子蓋瘡, 還以淨布急裹之. 三四次解去, 卽生毛而無瘢. 此法神良, 大勝灸者, 然初用藥時, 須以蠟圍, 恐藥燥瘡大. 用藥了須頻頻看, 恐骨盡便傷好肉. 若未差輒乘騎, 卽令瘡中血出, 便成大病, 切須慎之.

우선 겨자를 질게 간 다음 파두를 넣고 곱게 갈아 대나무칼로 물에 개어 잘 불도록 한다. 사용할 적에는 우선 부골저가 생긴 부위에 털을 제거하고 밀랍을 녹여 주위에 두르고, 밀랍이 굳으면 약을 뼈 위에 붙인다. 생베의 양 끝을 잘라 세 갈래를 만들어 빨리 싸맨다. 뼈가 작으면 하룻만에 다 사라지고, 뼈가 커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다. 뼈가 없어지는 것을 잘 살펴보아 찬물로 헌데를 깨끗이 씻고, 다시 수레 굽대머리의 기름을 떡처럼 만들어 헌데 덮은 다음 도로 깨끗한 베로 단단히 싸맨다. 3~4차례 제거하면 털이 생겨나면서 흉터가 없어진다. 이 방법은 신묘하고 좋은 것으로 뜸보다 좋으나, 처음 약을 쓸 때는 밀랍으로 주위를 둘러야 하는데, 약이 타서 헌데가 커지기 때문이다. 약을 다 사용하였

으면 자주 살펴야 하니 뼈가 사라지고 멀쩡한 살까지 상하기 때문이다. 만약 차도가 없는데 갑자기 말을 타면 곧 터진자리에서 피가 나와 더욱 큰 병이 되니 절대 삼가야 한다.

雄黃散 | 웅황산

治諸般腫毒筋骨大硬.

여러 가지 종독(腫毒)으로 근골이 크고 단단해진 것을 치료한다.

雄黃·川椒·白芨·白斂·官桂·草烏頭·芸臺子·白芥子·大黃·硫黃.

웅황·천초·백급·백렴·관계·초오두·운대자·백개자·대황·유황.

右等分爲末, 每藥一大匕, 麴一匕, 醋一盞, 同熬, 敷腫處.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큰술씩 밀가루 1술, 식초 1잔과 함께 졸여 부은 곳에 붙인다.

蓖麻子散 | 비마자산

治馬失節擦腫.

말이 관절을 뻔 것과 찰과상으로 부은 것을 치료한다.

白芥子(一兩), 木鼈子(十一斤), 蓖麻子(三十介去皮), 莖蕷子(半兩), 草烏頭(一分), 雄黃(半兩).

백개자 1냥, 목별자 11근, 피마자 30개(껍질을 벗긴 것), 정력자 반 냥, 초오두 1푼, 웅황 반 냥.

右藥末, 油調, 擦候一伏時. 如失節, 用水浸, 有瘡腫, 油調藥後, 亦一伏時, 用水澆潑, 或有腫痛, 再用附貼, 候乾, 再水走潑.

이상의 약미들을 기름과 섞어 바른 다음 하루{一伏時}를 기다린다. 빤 것이면 물에 담갔다 쓰고, 창종일 때는 기름과 약을 섞은 뒤에 역시 하루를 기다렸다가 물을 뿌린다. 붓고 아플 때는 다시 붙이고, 마르게 되면 다시 물을 뿌린다.

桃花散 | 도화산

治老鼠瘡(鄉云蝶癬)

노서창(老鼠瘡)(우리말로 접선(蝶癬)이다.)을 치료한다.

明松脂·白礬.

명송지·백반.

右等分細末, 每瘡以針橫刺, 去惡汁, 用唐紙裹, 納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내고 매번 헌데를 침을 가로로 찔러 더러운 즙을 제거한 다음 약을 당지(唐紙)에 싸서 넣는다.

又方

다른 처방

針瘡開口, 以皂莢細末, 納之, 大效.

침으로 헌데를 째고 조협을 곱게 가루내어 넣으면 매우 효과가 좋다.

又方

다른 처방

銅錢不以多少, 醋內蘸, 火燒九遍, 細末, 千年石灰, 同和作丁子, 納瘡口.

동전을 양에 상관 없이 식초에 담갔다가 불에 달구기를 아홉 차례 하고 가루낸 다음 천년석회와 함께 섞어 정제를 만들어 창구에 넣는다.

又方

다른 처방

黃狂(鄉云召西肥)皮肉并骨, 燒存性細末, 唐紙裹, 納孔中, 亦治骨瘡.

황광(黃狂)(우리말로 소서비(召西肥)이다.)의 살가죽과 뼈를 약성이 남게 태워 가루내고 당지에 싸서 속에 넣으면 또한 골창(骨瘡)을 치료할 수 있다.

又方

다른 처방

用射干(鄉云凡夫³ 扇)削如棗核大. 以鍼刺瘡作孔, 去惡汁, 納之. 其腫濃⁴ 出, 卽愈.

사간(우리말로 범부채{凡夫扇}이다.)을 대추씨만하게 깎는다. 침으로 헌데를 찔러 구멍을 내어 더러운 즙을 제거한 다음 넣는다. 부은 곳에서 고름이 나오면 곧 낫는다.

黃蘢錠 | 황벽정

黃蘢皮末·蘭茹末(各二⁵分), 細辛末·白鮮皮末(各一分).

황백피가루·여여가루 각 2푼, 세신가루·백선피가루 각 1푼.

右和水, 作錠子如串子大. 以鍼橫刺瘡作孔, 納錠子. 濃⁴ 出即愈.

이상의 약미들을 물에 타서 관자(串子)크기만한 정(錠)을 만든다. 침으로 헌데를 찔러 구멍을 낸 다음 약을 넣는다. 고름이 나오면 곧 낫는다.

灸法 | 뜸 뜨는법

熱病馬兩耳伏, 其馬眼後大血俞, 量去眼一寸端, 耳抵處, 淺針開皮不出血, 灸三七壯. 又兩脅自上, 第三肋一橫大血, 兩岐中, 以針暫刮其皮, 灸三七壯. 又針尾尖, 灸三七壯. 又馬脊末四岐中, 高骨陷中, 灸三七壯, 額上旋毛中, 以針開皮, 納銅錢愈.

말이 열병을 앓아 두 귀가 처졌을 때는 말의 눈 뒤쪽의 대혈수(大血俞)에서 1 촌 정도 떨어진 끝의 귀의 바닥부분에 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침으로 얕게 찌르고 뜰을 21장 뜯다. 양 옆구리 위에서부터 세 번째 늑골의 횡대혈(橫大血)의 양 갈래 가운데를 침으로 살갗을 잠깐 긁은 다음 뜰을 21장 뜯다. 꼬리 끝부분에 침을 놓고 뜰을 21장 뜯다. 말의 척추 끝 네 갈래의 가운데에 있는 고골(高骨)이 움푹 패인 곳에 뜰을 21장 뜯고, 이마 위의 가마 부분의 살갗을 바늘로 째서 구리동전을 넣으면 낫는다.

1. 당지(唐紙) : 예전에 중국에서 만든 종이의 하나. 닥나무 껍질과 어린 대나무의 섬유에 가성 소다를 섞어서 뜯 것으로 색이 누렇다. 찢어지기 쉬우나 먹물이 잘 흡수되어 묵객(墨客)들이 애용하였다.(《표준국어대사전》) ↪

2. 土 : 《조선우마의방》에는 ‘上’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3. 夫 : 글자판독이 확실하지 않음. ↪

4. 濃 : ‘膿’의 오기이다. ↪

5. 二 : 《조선우마의방》에는 ‘一’로 되어 있다. ↪

4. 濃 : ‘膿’의 오기이다. ↪

1.1.36. 喉腫門 付口舌瘡 | 제창문 - 부록 : 구설창

牙消散 | 아소산

治馬咽喉腫痛或口內瘡草慢.

말의 목구멍이 붓고 아픈 증상이나 입 속에 창이 생겨 풀을 잘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牛菜子(三兩炒過), 天門冬·五倍子(各一兩炒過), 鹽豉·白礬·牙消(各三兩生用).

우방자 3냥(볶은 것), 천문동·오배자 각 1냥(볶은 것), 염시·백반·아소 각 3냥(생것을 쓴다.).

右爲末, 每一兩半, 蜜一兩, 如口瘡, 小便浸鹽豉一兩, 飽啗之.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고 1냥 반씩 꿀 1냥과, 구창의 경우 소변에 담갔던 염시 1냥과 함께 배부를 때 먹인다.

薄荷散 | 박하산

治馬鼻濕, 鼻內蟲出, 咽喉腫痛作聲, 嘸水, 草稍難, 草慢病.

말의 비습(鼻濕), 코에서 충이 나오는 증상, 목구멍이 붓고 아파 소리를 내며, 물은 먹되 풀은 먹기 어려워 풀을 잘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龍腦·薄荷·川芎·紫何車·黃藥子·白殭蠶·甘草·栝樓根·川甜消·川黃蓮·牛菜.

용뇌·박하·천궁·자하거·황약자·백강잠·감초·과루근·천첨초·천황련·우방.

右等分爲末, 每用藥一兩半, 新汲水半升, 蜜一兩, 同前¹, 草後嚥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1냥 반씩 새로 길어온 물 반되,
꿀 1냥과 함께 달여 풀을 먹인 뒤에 먹인다.

治馬喉腫方 | 말의 목구멍이 부은 것을 치료하는 처방

以鍼連柄, 納竹管中, 露刃七分, 刺懸廬血出, 卽愈.

침에 자루를 연결하여 대나무관 속에 넣은 다음 침 끝을 7푼 정도 노출시켜 매
달려 있는 종기를 찔러 피를 내면 곧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取乾馬糞置瓶子中, 亂髮覆之, 火燒馬糞及髮煙出, 令熏馬鼻, 須臾卽愈.

마른 말똥을 병 속에 넣고 머리카락으로 덮은 다음 말똥과 머리카락을 태워 나
온 연기를 코에 쏘이면 잠깐있다가 낫는다.

赴筵散 | 부연산

治馬口舌瘡

말의 구설창을 치료한다.

黃蘖皮·細辛(各等分).

황백피·세신 각각 같은 양.

右細末, 破處塗之.

이상의 약미들을 곱게 가루내어 터진 곳에 바른다.

立效散 | 입효산

治馬木舌在外.

말의 혀가 굳어 밖으로 나온 증상을 치료한다.

款冬花·瞿麥·山梔子·地仙草(各兩²)

관동화·구맥·산치자·지선초 각 1냥.

右爲末, 塗在舌上, 立差.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어 혀에 바르면 곧 낫는다.

1. 前 : ‘煎’의 오기이다. ↵

2. 各兩 : 《조선우마의방》에는 ‘各一兩’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1.1.37. 打破瘡 | 타파창

丹礬散 | 단반산

治打破驢馬梁背, 幷諸處磨擦成瘡.

나귀나 말의 등이 맞아서 터진 것과 아울러 여러 부위의 찰과상으로 생긴 창을 치료한다.

訶子核(五箇不用皮肉), 白礬(半兩), 黃丹(半兩).

가자씨 5개(껍질과 과육은 쓰지 않는다.), 백반 반 냥, 황단 반 냥.

右藥先以白礬於銅銚子內, 鎔作汁, 入黃丹攪令熬之乾枯, 看黃丹色紫爲度. 先將訶子核搗爛, 便入熬礬黃丹, 同搗羅爲末. 先以溫漿水洗瘡, 更用冷漿水洗之, 不用苦乾. 貼藥, 末細摻蓋遍, 乾手按過. 不防乘騎, 瘡極者, 不過兩上.

우선 백반을 구리냄비에 넣고 녹인 다음 황단을 넣고 저어가며 졸여 마르게 하는데, 황단이 자주색이 될 때까지 한다. 가자씨를 질게 찧어 졸인 백반과 황단에 넣고 함께 찧은 다음 걸어서 가루낸다. 일단 따뜻한 장수(漿水)로 현데를 써고, 다시 찬 장수로 씻어내야 하니, 마른 것은 쓰지 못한다. 약을 불일 때는 곱게 가루낸 것을 골고루 뿌리고 마른 손으로 눌러준다. 말을 타도 무방하고, 창이 심하여도 불과 두 번만 쓰면 된다.

定粉散 | 정분산

治馬花瘡(鄉云菌瘡).

말의 화창(花瘡)(우리말로 균창(菌瘡)이다.)을 치료한다.

砒霜(一錢), 定粉(半錢), 膩粉(炒半錢), 菟荳(二百顆).

비상 1돈, 정분 반 돈, 이분(볶은 것) 반 돈, 녹두 200알.

右一處, 不得語. 杵爲末, 每用漿水洗過, 少使藥貼.

어떤 한 곳은 말할 수가 없다. 이상의 약미들을 절구에 넣고 찢어 가루내고 매번 장수로 씻은 다음 조금씩 약을 붙인다.

又方

다른 처방

生菰切作片子, 貼瘡上, 以艾灸, 貼菰上. 菰熟則改貼, 二十壯, 瘡痂落.

생오이를 납작하게 썰어 현데 위에 붙이고 쑥뜸을 오이 위에 놓는다. 오이가 익으면 갈아주는데, 20장 정도 뜨면 현데 딱지가 떨어진다.

薑礬散 | 강반산

治馬打破梁背瘡.

말이 등짝을 맞아 생긴 창을 치료한다.

白礬(二兩), 生薑(二兩燒成灰).

백반 2냥, 생강 2냥(태워 재를 낸 것).

右爲同研, 每貼油調, 相度瘡大小, 使藥. 如瘡濕卽乾摻, 立效.

이상의 약미들을 함께 갈아 기름에 섞어 붙이는데, 현데의 크기를 가늠하여 약을 쓴다. 현데가 습할 때는 마른 약을 뿌리면 곧 효과를 본다.

又方

다른 처방

治馬鬚瘡(鬚鄉云捫多會). 凡馬爲物所傷鬚, 肉腫滿濃¹出.

말갈기에 생긴 창을 치료한다.(기(鬱)는 우리말로 문다회(捫多會)이다.) 말이 란 놈은 갈기를 상하면 살이 붓고 고름이 가득 나온다.

薦茹·白芍藥.

여여·백작약.

右等分細末, 以紙裹納, 深則作錠納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종이에 싸서 넣는데, 헌데가 깊으면 알약으로 만들어 넣는다.

又方

다른 처방

治馬脊打破瘡.

말이 등을 맞아 생긴 창을 치료한다.

用馬脚下尿屎濕稀泥塗之, 乾卽易之. 或溝中青臭泥, 亦可. 已破成瘡者, 用黃丹·枯白礬及生薑三味, 燒灰存性. 等分爲末, 入麝香小許, 眞麻油調傅. 已成濃¹者, 先用漿水, 同葱白煎湯, 洗淨, 傳前藥.

말 다리 아래에 오줌과 똥으로 젖은 묽은 진흙을 바르고, 마르면 갈아준다. 혹은 도랑 속에 푸르고 냄새나는 진흙을 써도 좋다. 이미 터져서 창이 생겼을 때는 황단·고백반 및 생강 세 가지 약미를 약성이 남도록 태운다. 이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사향 약간을 넣고, 참기름과 함께 섞어 붙인다. 이미 고름이 합혔을 때는 우선 장수에 총백을 넣고 달인 것으로 깨끗이 씻긴 다음 앞의 약을 붙인다.

肘後方 | 《주후방》의 처방

六畜瘡焦痂, 麻膠封之, 卽落.

가축이 창으로 까맣게 탄 땁지가 앓았을 때는 밀가루반죽을 붙이면 곧 떨어진다.

1. 濃 : ‘膿’의 오기이다. ↪

1. 濃 : 위와 같음. ↪

1.1.38. 瘰蹄門 | 소제문

丹砂散 | 단사산

治馬瘻蹄.

말 발굽의 부스럼을 치료한다.

砂礪(一兩), 黃丹(二錢).

강사 1냥, 황단 2돈.

右件藥二味, 同研細, 先用羊脛骨髓, 調搭.

이상의 두 가지 약미를 함께 곱게 갈아 양의 정강이골수와 섞어 바른다.

紫礪膏 | 자광고

生馬蹄

발굽을 나게 한다.

紫礪·黃蠟(各四兩), 黃丹·白膠香·木鼈子(已上各半兩), 臭脂頭髮(三錢), 酥(半兩), 菜油(四兩).

자광·황랍 각 4냥, 황단·백교향·목별자 각각 반 냥, 떡진 머리카락 3돈, 연유 반 돈, 채유 4냥.

右件藥八味, 一處慢火熬, 頭髮盡爲度, 盛在磁器中. 蹄上侵毛, 搭一遭. 三日五日一上.

이상의 8가지 약미를 한데 모아 뭉근 불로 졸이는데 머리카락이 다 없어질 때 까지 졸인 다음, 자기르릇에 가득 담는다. 발굽 위의 털을 제거한 다음 약을 한번 바른다. 3일이나 5일에 한 번씩 바른다.

如聖膏 | 여성고

生馬蹄

발굽을 나게 한다.

好豬脂(四兩熬油去滓), 生薑(二兩擦), 胡桃仁(半兩燒灰), 爐甘石(一兩爲末).

좋은 돼지기름 4냥(기름을 졸여 찌꺼기를 제거한 것), 생강 2냥(찧은 것), 호도
인 반 냥(태워 재를 낸 것), 노감석 1냥(가루낸 것).

右件藥四味, 一處慢火熬成膏. 先洗過蹄拭乾, 用藥靠先搭一遭, 三兩日一次上.

이상의 4가지 약미를 한데 모아 뭉근 불로 졸여 고를 만든다. 우선 발굽을 씻고
말린 다음 약을 쓸 때는 한 번 쓰고나서 2~3일 뒤에 한 차례 쓴다.

木鼈子膏 | 목별자고

生蹄

발굽을 나게 한다.

豬脂(半斤), 黃蠟(半斤), 紫礦(三錢), 頭髮(三兩燒灰), 木鼈子(五箇爲末), 乾地
黃(半兩爲末), 枇杷葉(半兩爲末).

돼지기름 반 근, 황랍 반 근, 자광 3돈, 머리카락 3냥(태워 재를 낸 것), 목별자 5
개(가루낸 것), 건지황 반 냥(가루낸 것), 비파잎 반 냥(가루낸 것).

右件藥七味, 先將豬脂熬油去滓, 次入餘藥, 再熬成膏, 入瓷器內, 塗於紙上徐貼.

이상의 7가지 약미 중에 우선 돼지기름을 졸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나머지 약들을 넣고 다시 졸여 고를 만든 다음 자기그릇에 넣어두었다가 (쓸 때는) 종이 위에 발라서 천천히 붙인다.

定血黑藥子 | 정혈흑약자

治馬瘡口, 寒久不較, 或磨刺破瘡.

말의 창구가 오랜 추위로 낫지 않거나, 찰과상이나 자상으로 생긴 창을 치료한다.

草烏頭(不拘多少).

초오두(양에 상관 없다).

右用酵麪裹之, 候乾燒存性, 用椀合於地上. 良久, 去火毒, 候冷取出, 爲細末, 乾貼卽愈.

이것을 누룩에 싸서 말리고 약성이 남도록 태운 다음 땅에 놓고 사발로 덮는다. 시간이 지나 화독이 빠지고 식으면 꺼내어 곱게 가루내고 마른 것을 붙이면 낫는다.

乳香散 | 유향산

治乾濕瘻.

건조하고 습한 부스럼을 치료한다.

烏賊魚骨(三兩), 白礬(二兩), 乳香(半兩).

오징어뼈 3냥, 백반 2냥, 유향 반 냥.

右件藥三味, 細擣羅爲末, 濕瘻淨洗貼, 乾瘻用油調摻.

이상의 3가지 약미들을 곱게 짚고 비단에 걸러 가루낸 다음 습한 부스럼에는 깨끗이 씻고나서 붙이고, 마른 부스럼에는 기름에 개어 바른다.

治馬瘡蹄方 | 발굽의 부스럼을 치료하는 처방

以刀刺馬蹠叢毛中血出, 愈.

발굽의 구부러진 곳의 털 속을 째서 피를 내면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融羊脂, 塗瘡上, 以布裹之.

양기름을 녹여 현데 바르고 삼베로 싸맨다.

又方

다른 처방

紋魚濃煮, 塗之.

문어를 진하게 삶아 바른다.

又方

다른 처방

以湯淨洗燥拭之, 嚼麻子塗之, 以布帛裹. 三度愈.

끓인 물로 깨끗이 씻고 말린 다음 삼씨를 짚어 바르고 삼베로 싸맨다. 세 번 정도면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巴豆三十介, 用眞油煎, 削去毛, 塗之, 卽愈.

| 파두 30개를 참기름에 넣고 달인 다음 환부의 털을 깎고 바르면 곧 낫는다.

又方

| 다른 처방

翦去毛, 以鹽湯淨洗, 去痂燥拭之, 煮人尿令沸熱, 塗之, 卽愈.

| 털을 깎아내고 끓인 소금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딱지를 떼어내고 닦아낸다. 그리고 오줌을 끓여 뜨거울 때 바르면 곧 낫는다.

又方

| 다른 처방

先以酸泔清洗淨, 然後爛煮豬蹄, 取汁, 熱洗之, 差.

| 식초의 맑은 웃물로 깨끗이 씻은 연후에 돼지발굽을 흐물거릴 정도로 삶아 국물을 내어 뜨거울 때 씻으면 낫는다.

1.1.39. 疡瘡門 | 개창문

東人經驗 |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험

治馬疥.

개창을 치료한다.

薑茹·藜蘆·葳靈仙.

여여·여로·위령선.

右等分細末, 和如淡粥, 塗之.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곱게 가루내고 섞어 묽은 죽처럼 만들어 바른다.

又方

다른 처방

層層木油塗.

층층목의 기름을 바른다.

又方

다른 처방

猛灰二斗, 白朮爛擣一斗, 水二盆, 煎至一盆, 稍熱塗之. 不過三度, 永差, 更無復發.

매운 재 2말, 백출(질게 찢은 것) 1말을 물 2동이에 넣고 달여 1동이가 되면 약간 뜨거울 때 바른다. 불과 세 번이면 영원히 낫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又方

다른 처방

苦蓼·白頭翁(各三斤), 水五盆, 煎二盆, 紅椒·苦棟各皮末, 和溫洗之.

고삼·백두옹 각 3근을 물 5동이에 넣고 달여 2동이가 됨녀 홍초피와 고련피를 가루내어 앞의 약과 섞어 따뜻할 때 씻긴다.

又方

다른 처방

用好釀醋, 調石灰, 热搭, 大妙.

좋은 진한식초를 석회에 개어 뜨겁게 하여 바르면 매우 신묘한 효과가 있다.

又方

다른 처방

研芥子, 塗之.

겨자씨를 갈아 바른다.

又方

다른 처방

生漆木切作束如炬, 以火燒取油, 塗疥瘡. 一二度, 雖積年疥瘡, 見效.

생옻나무를 쪼개 심지같은 다발로 만들고 태워 기름을 받은 다음 개창에 바른다. 1~2번이면 오래된 개창이라도 효과를 본다.

1.1.40. 雜病門 | 잡병문

消黃散 | 소황산

暑月灌馬.

여름철에 말에게 먹인다.

大黃·黃芩·梔子·黃蓮(代地黃)黃藥·滑石·甘草·桔梗·栝樓根·薄荷葉.

대황·황금·치자·황련(지황으로 대신할 수 있다.)·황백·활석·감초·길경·과루근
·박하잎.

右等分爲末, 蜜水囉. 每服二兩, 隔一日一服.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고 꿀물과 함께 먹인다. 매번 2냥씩
하루걸러 한 번씩 먹인다.

治馬腿骨解(鄉云都或出) | 말의 다리뼈가 풀린 것을 치료하는 방법(퇴골해(腿骨
解)는 우리말로 도혹출(都或出)이다.)

以繩繫不病脚腿子上, 砧杵輕打傷處. 三下不入, 則騎急行四五步許, 還入.

밧줄로 멀쩡한 다리를 묶고 방망이로 환부를 가볍게 친다. 세 번 정도 하여 들
어가지 않으면 말을 타고 4~5걸음 빨리 걸으면 도로 들어간다.

治牛馬百病 | 소와 말의 온갖 병증을 치료하는 방법

柳葉·生牛乳, 同擣爛, 丸如彈子, 曬乾. 用時擣爲細末, 仍和生牛乳, 灌之, 神效.

버들잎과 생우유를 함께 질게 찢은 다음 탄환만한 환을 만들어 햇볕에 말린다.
쓸 때는 찢어 곱게 가루내고 생우유에 타서 먹이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

治馬急行遠路傷, 血入腹肚, 清醬和醋一升, 噴之. | 말이 급히 달리거나 먼길을 가다가
가 다크 피가 복부로 들어갔을 때의 치료법은 맑은 간장과 식초를 섞어 1되를 먹인
다.

又方

다른 처방

治馬百病.

말의 온갖 병증을 치료한다.

大黃(半茶盞), 蜜(一盞), 猪膽(大者一分, 小者一錢).

대황(반 찻잔), 꿀 1잔, 돼지쓸개(큰 놈은 1푼, 작은 놈은 반 돈).

右大黃碾極細, 用水一椀浸重. 次日先入猪膽, 多攪均, 入蜜再攪均, 噴之. 春一月,
兩服; 夏秋一月, 三服.

대황을 곱게 갈아 물에 담가 가라앉힌다. 다음날 돼지쓸개를 넣고 오랫동안 저었다가 꿀을 넣고 다시 저었다가 먹인다. 봄철 1개월은 두 번 먹이고, 여름과 가을 1개월은 세 번 먹인다.

又方

다른 처방

治馬急起臥病.

말이 갑자기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병증을 치료한다.

取壁上多年石灰細末二兩, 用油一大鍾, 酒一鍾半, 調噴之.

벽 위에 오래된 석회(곱게 간 것) 2냥, 기름 1큰잔, 술 1잔 반을 섞어 먹인다.

又方

다른 처방

治馬落兒後.

말이 낙태한 이후를 치료한다.

藿(三介), 生葱(十介去鬚), 麴麥(五合).

콩잎 3개, 생파 10개(뿌리를 제거한 것), 밀기울 5홉.

右水半盆, 同煎, 待冷, 徐徐嚥之.

이상의 약미들을 물 반 동이에 넣고 달여 식으면 천천히 먹인다.

新編集成馬醫方卷終

신편집성마의방 권 끝

2.1.1. 新編牛醫方序 | 신편우의방 서

嘗觀周禮，至牛人所掌有曰，供祭祀則享牛，軍旅則犒牛，以至饌饗射禮，皆用牛而農無及焉。且遂人之治野，則有千夫澮·萬夫川，而亦不及牛。是遺其重，而不之書以示天下與萬世，信周公未成書也。以今觀之，其蓄其畜，縱橫其畝，一牛之力，奚啻十夫之力哉。噫！一牛也，而何其用之博耶，以之祭天，則天神格，以之祀廟，則人鬼享，斯民朝夕之命，軍國經費之資，皆其力也。其有感於天地，有功於民社大矣。左政丞平壤伯趙公浚，右政丞上洛伯金公士衡，體上至懷，已於國初，痛禁私宰，不忍之心，著之甲令，可謂仁之至義之盡也。且念血氣之類，焉能常保陰陽。愆伏流爲疾疫，飢飽勞逸等，爲病源，苟失醫治，徒善何裨。乃與醴泉伯權公仲和，西原君韓公尙敬等，撰集醫方，於是採古摭今，鈞神摘驗，以成是篇，繡梓印頒，以惠中外。噫！我公一念之仁，橫被于時，登民春臺，措國泰華，旁及于牛馬無知之類，咸浴其好生之澤，如此之曲且盡也。吾知其仁聲仁聞，直與天地相終始云。

일찍이 《주례》(周禮)의 우인(牛人)이 관장하는 바에서 말하길 “제사에 바치는 것은 향우이고, 군대에서 쓰는 것은 고우이다.”라고 하였고 잔치와 활쏘기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를 썼으나 농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인(遂人)의 치야(治野)에서는 천부회(千夫澮)와 만부천(萬夫川)이 있으나 또한 소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 귀중함을 버리고 글로 써서 천하 만세에 보이지 않았으니, 진실로 주공이 쓰지 않았음이라. 지금 살펴보건대 묵정밭{蓄}과 개간한 밭{畲}은 그 이랑을 종횡하는데 한 마리의 소의 힘이 어찌 열 장부의 힘 뿐이겠는가. 아! 한 마리의 소여! 그 쓰임의 넓음을 어찌하겠는가. 하늘에 제사지내면 천신이 이르고, 종묘에 제사지내면 귀신이 흠향하니, 백성과 조석의 명과 군대 경비의 자원이 모두 소의 힘이다. 하늘과 땅에 감응함이 있고, 백성과 나라에 공이 있음이 크도다. 좌정승평양백 조준, 우정승상락백 김사형은 우리 전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아미 개국 초기에 민가에서의 도살(屠殺)을 엄히 금하였고, 마음을 참지 못하여 법으로 드러냈으니, 인(仁)의 지극함이요, 의

(義)의 극진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혈과 기의 종류들을 생각컨대 어찌 음양을
늘 보존할 수 있겠는가. 허물이 몰래 흘러들어 역질이 되고, 배고픔과 배부름,
피로와 게으름 등이 병의 근원이 되니, 진실로 치료를 하지 못한다면 한갓 선
(善)만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에 예천백 권중화, 서원군 한상경 등과 함
께 의가의 처방을 찬집하여, 이에 옛 것과 지금의 것을 따오고, 신비한 처방을
고르고, 경험을 가려 이 책을 완성하고 판목에 새겨 반포하여 나라 안팎으로
은혜를 베풀도다. 아! 우리들의 한결같은 인(仁)함이 이 때 널리 덮어 백성들이
춘대(春臺)에 오르고, 국가를 태화(泰華)에 두며, 널리 마소와 같이 무지한 것
들까지 미치어 모두 호생(好生)의 은택에 젖어듦이 이와 같이 곡진하도다. 우
리가 알고 있는 인성(仁聲)과 인문(仁聞)이야말로 곧 천지와 더불어 영원할 것
이니라.

建文元年, 蒼龍己卯, 仲呂既望, 奉列大夫典醫少監知濟生院事南陽, 房士良 序.

건문원년 창룡 기묘년 음력 4월 16일 봉렬대부전의소감지제생원사남양 방사
량이 서문을 짓다.

2.1.2. 相牛法 | 소를 살피는 법

相牛之法, 須頭小腦大, 項長身短. 角方眼圓, 脊高臀低. 犀毛不分, 起立齊足, 乃可爲耕力. 頭欲瘦小, 不用多肉. 面欲得長, 短則命促. 經云：“面高正長, 有齒無殃, 而若兩分, 益主損身.” 眼欲得大, 去角要近. 有白脉貫瞳吉, 眼赤者觸人. 眼下有旋毛, 名滴淚, 主喪服. 鼻欲軟而大易牽, 鼻上逆毛凶. 經云：“鼻如鏡鼻, 難牽無力.” 口欲方大, 易餵能食. 齒欲白者, 齒(語斤切齒也)有黑緣招官災. 經云：“齒牙雪色, 多招田宅.”

소를 보는 법은 머리는 작고 뇌는 크며, 목은 길고 몸체는 짧아야 한다. 뿐은 각지고 눈은 둥글며, 등은 높고 볼기는 낮아야 한다. 첨모(犀毛)가 나누어지지 않으면 일어섰을 때 다리가 가지러 놓아 밟을 가는 소라 할만하다. 머리는 마르고 작아야 하며 살이 많은 것은 못쓴다. 얼굴은 길어야지 짧으면 목숨을 재촉한다. 《경》에서는 “얼굴이 높고 가지런해야 오래살고 치아가 있어야 재앙이 없는데, 만약 양분되면 더욱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였다. 눈은 커야 하고, 뿐과 가까워야 한다. 흰 맥(脉)이 눈동자를 궤뚫어야 길하고, 눈이 붉으면 사람은 들이받는다. 눈 아래에 가마{旋毛}가 있는 것을 적루(滴淚)라 하는데 상복(喪服)을 주관한다. 코는 부드러우면서 커야 쉽게 끌고가고, 코 위에 역모(逆毛)가 있는 것은 흉하다. 《경》에서는 “코가 거울 같으면 끌기 어렵고 힘이 없다”고 하였다. 입은 네모지면서 커야 쉽게 먹이를 주고 잘 먹을 수 있다. 이빨은 흰 색이어야 하는데, 이빨{齦}(齦의 음은 어근절(語斤切)이고 이빨이란 뜻이다.)이 검은 것은 관아로부터의 재앙을 부른다. 《경》에서는 “이빨이 눈 색이어야 토지와 집을 많이 부른다”고 하였다.

角短方大, 紋浪粗, 形如仰弓吉. 角向前吉向後凶. 兩角間有亂毛起, 名花頭陀, 防主. 經云：“角圓紋細, 使卽遲滯.” 耳去角要近, 略可容指方好. 多長毛不耐寒, 耳後有旋毛, 名刺環, 招盜賊. 經云：“耳角近促, 不用營祿, 耳去角遠, 千里不轉.” 頸骨欲得長大, 肩聳欲得采. 若衆則爲雙肩, 主有力; 若不采者, 爲單肩, 少力. 毛短密硬, 面黑者

耐寒, 疏長如鼠毛者怕寒. 毛赤豎日害損主. 倚毛向前大吉, 向後凶. 肚下有橫毛, 使卽倒行. 前脚欲直而闊, 後脚要曲而開. 股瘦小, 則捷快. 經云：“前脚如筒, 後脚如弓.” 蹄欲得大, 青黑紫爲鐵蹄吉. 經云：“蹄色黃白, 行不滿百, 陰虹屬頸者, 千里牛也.”

뿔은 짧고 네모지며 커야 하고, 무늬가 물결지며 거칠고, 형태가 활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아야 길하다. 뿐이 앞을 향하면 길하고, 뒤를 향하면 흉하다. 양쪽 뿐 사이에 난모(亂毛)가 일어난 것을 화두타(花頭陀)라 하는데 주인을 방해한다. 《경》에서는 “뿔이 둑글고 문늬가 고우면 하인이 지체한다”고 하였다. 귀와 뿐은 가까워야 하는데, 대략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면 좋다. 긴 털이 많으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귀 뒤에 가마가 있는 것을 자환(刺環)이라 하는데 도적을 부른다. 《경》에서는 “귀와 뿐이 너무 가까우면 복록을 구하는데 쓰지 못하고, 귀와 뿐이 너무 멀면 천리길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목뼈는 길고 커야 하며, 어깨와 등뼈는 우뚝해야 한다. 만약 우뚝하면 쌍견(雙肩)이 되어 힘을 쓰게 하고, 우뚝하지 못하면 단견(單肩)이 되어 힘을 쓰지 못한다. 털은 짧고 빽빽하고 강해야 하고, 얼굴이 검은 놈이 추위를 잘 견디며, 털이 성겨 쥐털 같은 놈은 추위를 두려워한다. 털이 붉고 서는 것은 일해(日害)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다. 털이 한쪽으로 치우쳐 앞을 향하면 크게 길하고 뒤를 향하면 흉하다. 배 아래에 횡모(橫毛)가 있으면 하인이 도행(倒行)한다. 앞다리는 곧으면서 넓어야 하고, 뒷다리는 굽으면서 열려야 한다. 넓적다리가 야위고 작으면 날쌔다. 《경》에서는 “앞다리는 통과 같고, 뒷다리는 활과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굽은 코야 하고, 청색·흑색·자색인 것을 철제(鐵蹄)라 하여 길하다. 《경》에서는 “굽이 누렇고 흰 것은 백리를 가지 못하고 음홍(陰虹)이 목에 달린 것은 천리를 가는 소이다”라고 하였다.

前帶抱喉及臨耳者早死. 經云：“前後無帶, 至老無害, 後帶半長, 主橫傷.” 乳紅多吉, 乳疏黑無子牛. 袋深隱者乃吉, 橫出者凶. 尿射前膀者快, 直下者鈍. 屎欲蹲放. 經云：“屎如螺旋, 用力如雷.” 身欲得圓, 肋欲得密, 脊欲尖斂, 臀欲厚重. 尾骨麤少

毛者有力. 尾稍長大吉牛, 岐胡有壽(岐胡牽兩腋, 亦分爲三). 壁當欲得闊(脚曲間也). 莖欲得小, 膚庭欲得廣(膚牽胸也). 天關欲得成(天關脊接骨也). 健骨欲得垂(健骨脊骨中央欲得下也).

전대(前帶)가 목을 감싸고 귀 까지 간 것은 일찍 죽는다. 《경》에서는 “앞뒤로 대가 없으면 늙을 때까지 해가 없고, 후대(後帶)가 반 길이면 주인이 뜻밖에 다칠 수 있다”고 하였다. 젖이 많이 붉으면 길하고, 젖이 거칠고 검으면 새끼소가 없다. 대(袋)가 깊고 숨어 있는 것이 길하고, 옆으로 빠져나온 것은 흉하다. 오줌이 앞다리를 쏘면 빠르고, 곧장 내려오면 둔하다. 뚱은 쭈그려서 누어야 한다. 《경》에서는 “뚱이 나선 같으면 힘이 우레와 같다”고 하였다. 몸은 등글어야 하고, 옆구리는 빽빽해야 하며, 등은 날카로워야 하고, 둔부는 두툼하고 무거워야 한다. 꼬리뼈는 거칠고 텔이 적은 것이 힘이 있다. 꼬리 끝이 길고 큰 것 이 길한 소이고, 기호(기호(岐胡)는 양쪽 겨드랑이를 끌었을 때 또한 셋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는 오래산다. 벽당은 넓어야 한다.(벽당(壁當)은 다리가 굽어진 사이이다.) 음경은 작아야 하고, 응정은 넓어야 한다.(응정(膚庭)은 가슴팍이다.) 천관은 완벽해야 한다.(천관(天關)은 등과 불어있는 뼈이다.) 준골은 아래로 드리워져야 한다.(준골(雛骨)은 등뼈의 중앙으로 아래로 처져야 한다.)

洞湖無壽(洞湖從頭到臆也). 倚角不正, 有勞病. 角冷有病, 毛拳有病, 亂睫者衄人. 後脚曲及直好, 相直尤勝. 行欲得似羊行, 臀欲方. 尾不用至地, 至地劣力. 尾上毛少骨大者有力. 膝上縛肉欲得硬, 豐岳欲得大(膝柱骨也). 泉根不用多肉及多毛(泉根莖所出也). 常有似鳴者有黃, 初買牽來時口開者凶. 赤牛黃牛, 烏眼者妨主, 白頭牛, 白過耳王群.

동호는 오래살지 못한다.(동호(洞湖)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이다.) 뿔이 기울어 바르지 못하면 노병(勞病)이 생긴다. 뿔이 차면 병이 있고, 텔이 오그라들면 병이 있고, 눈썹이 흐트러지면 사람을 받는다. 뒷다리는 굽으면서 곧아야 좋은데 함께 곧으면 더욱 좋다. 걸음걸이가 양이 겉는 것과 유사해야 하고, 둔

부는 네모져야 한다. 꼬리가 땅에 닿는 것은 쓰지 못하는데, 땅에 닿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 꼬리가 위로 들리고 털이 적으며, 뼈가 커야 힘을 쓴다. 무릎 위의 넓적다리살은 단단해야 하고, 풍악은 커야 한다.(풍악(豐岳)은 무릎의 기둥뼈이다.) 천근은 살이 많고 털이 많은 것은 쓰지 못한다.(천근(泉根)은 음경이 나오는 곳이다.) 늘 우는 시늉을 하는 놈은 황(黃)이 있고, 처음 사서 끌고올 때 입을 여는 놈은 흉하다. 붉은 소와 누런 소 중에서 오안(烏眼)인 놈은 주인을 방해하고, 머리가 흰 소 중에서 흰 것이 귀를 지났으면 왕의 무리이다.

2.1.3. 選擇造牛廠吉地論 | 헛간을 만들 때 길한 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夫選擇造牛廠吉地者，宜在本莊坤地。其地宜高，其地若熱高，則其牛孳生十倍。其地水流出巽地，此最爲妙。牛舍宜在丑地，丑爲牛命，坤爲牛母。坤近未，未爲犧子。此三位養牛易成。造牛廠處有十凶地，不宜造。

헛간을 만드는데 길한 땅을 선택하려면 본장(本莊)이 곤지(坤地)여야 한다. 그 땅이 높고, 그 땅이 덮고 높으면 소는 열 배나 많이 새끼를 친다. 땅에 물이 흐르면 손지(巽地)로 이것이 가장 신묘하다. 우사(牛舍)는 축지(丑地)에 있어야 하고, 축은 우명(牛命)이고, 곤은 우모(牛母)이다. 곤은 미(未)에 가깝고, 미는 송아지가 된다. 이 세 가지 자리는 소를 기르면 쉽게 성공한다. 헛간을 만드는데 열 가지 흉한 땅이 있으니 짓지 말아야 한다.

一坎陷地。二種葱韭地。三窯窖地(燒瓦竈稼)。四壇社地。五古神廟地。六古戰陳地。七宮觀地。八窮阡斷陌地。九古獄地。十不發王人家莊田地。已上十凶地，雖有形勢水流便穩，亦不生牛犧，頻多損傷也。

1 구덩이가 있어 우뚝한 땅. 2 파와 부추를 심은 땅. 3 요고지(요고지(窯窖地))는 기와 굽는 가마자리이다.). 4 제단이나 신사기 있는 자리. 5 옛 신을 제사지내던 자리. 6 옛날에 전쟁이 났던 자리. 7 궁이 있던 자리. 8 길이 막히고 끊어진 곳. 9 옛 감옥이 있던 곳. 10 왕성하지 못한 민가의 장전지(莊田地). 이상의 열 가지 흉한 땅은 형세가 물이 흐르고 편안하더라도 송아지를 낳지 못하고 자주 손해를 끼친다.

2.1.4. 養牛雜忌論 | 소를 키울 때 꺼려야 하는 여러가지 사항에 관하여

或有牛生犢, 其衣不得與鳥獸及猪狗食. 若與食多損母, 自食無妨. 如母不食, 卽以牛廠戌亥地百步地, 埋之吉. 凡有牛死, 不得將皮及頭與他人食, 切忌之. 其廠內, 不得令人燒灰, 及男女同宿. 若不忌, 極損牛. 其牛舍下, 忌停亡人及人骨. 如蓋舊牛屋, 其上舊時茆草, 不得取却, 但從上鋪吉. 造屋不宜用苦棟·棗·朽木. 若用松木·栗木大吉.

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 태반{衣}을 날짐승이나 들짐승 및 돼지나 개에게 먹여서는 안된다. 만약 먹게 되면 대부분 어미소가 다치고, 스스로 먹는 것은 무방하다. 어미소가 먹지 않으면 헛간에서 술해(戌亥)방향으로 100보 되는 땅에 묻으면 길하다. 소가 죽었을 때 소의, 가죽 및 얼굴을 남에게 주어 먹여서는 안되니 절대 꺼려야 한다. 헛간 안에서는 남이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남녀가 함께 잠을 자서는 안된다. 만약 꺼리지 않으면 소에게 매우 손해를 끼친다. 우사 아래에 죽은 사람과 뼈가 있는 것을 꺼려야 한다. 만약 오래된 헛간 위에 있는 풀은 벗겨서는 안되고, 다만 그 위에 덮어야 길하다. 헛간을 만들 때는 고려나무·대추나무와 썩은 나무를 써서는 안된다. 소나무·밤나무를 쓰면 매우 길하다.

2.1.5. 蓋造牛廠利便年月日論 | 헛간을 개조할 때 이롭고 편한 시간에 대하여

2.1.5.1. 擇年法 | 좋은 해를 가리는 법

寅年百倍. 卯年亦然, 唯忌己卯年. 辰年大吉, 唯宮姓, 忌戊辰, 羽姓, 忌壬辰. 其丙戌·戊戌不宜用.

인년(寅年)은 백 배 좋다. 묘년 또한 좋은데 기묘년은 꺼린다. 진년은 매우 길한데, 오직 궁씨 성이면 무진년을 꺼리고, 우씨 성이면 임진년을 꺼린다. 병술과 무술년은 좋지 않다.

2.1.5.2. 擇月法 | 좋은 달을 가리는 법

正月吉. 二月凶. 三月吉. 其九月, 月建丙戌, 徵姓忌. 十月不用. 十一月吉, 亦徵家不宜用. 十二月小吉.

정월은 길하다. 2월은 흉하다. 3월은 길하다. 9월은 월건(月建)이 병술이면 징씨 성을 가진 자는 꺼려야 한다. 10월은 쓸 수 없다. 11월은 길하지만 징씨 성을 가진 집안에서는 쓰지 못한다. 12월은 조금 길하다.

2.1.5.3. 擇日法 | 좋은 날을 가리는 법

甲子吉, 春三月不宜用. 甲申·丙寅·甲午·庚午·己卯·己酉·己巳, 其餘不得用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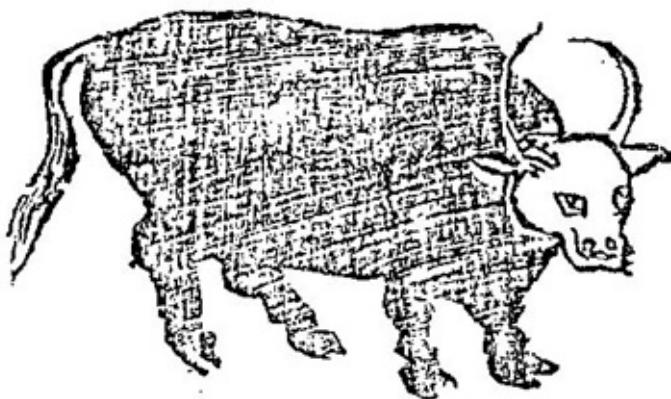
갑자일은 길하나 춘삼월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 갑신·병인·갑오·경오·기묘·기유·기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

2.1.6. 相牛形狀及毛色論 | 소의 형상 및 털색을 보는 법에 대하여



牛若有頭上白者，名爲不孝頭，若人養者，令主人多有凶禍，切須忌之。

소의 머리 위에 흰 것이 있으면 불효두(不孝頭)라 하는데, 만약 이 소를 기르는 자는 주인으로 하여금 흉한 재앙을 많게 하니 절대로 꺼려야 한다.



黑牛頭白尾白者, 名曰喪門, 有人養者, 令主多凶, 田蠶不利.

검은 소가 머리와 꼬리만 흰 것은 상문(喪門)이라 하는데, 그 소를 기르는 자는 주인으로 하여금 흉한 일이 많고 농사와 양잠에 이롭지 않다.

牛



白牛頭黃, 名曰牛王, 若養令主人富貴宜子孫, 六畜資生, 更多牛, 食相得二千石大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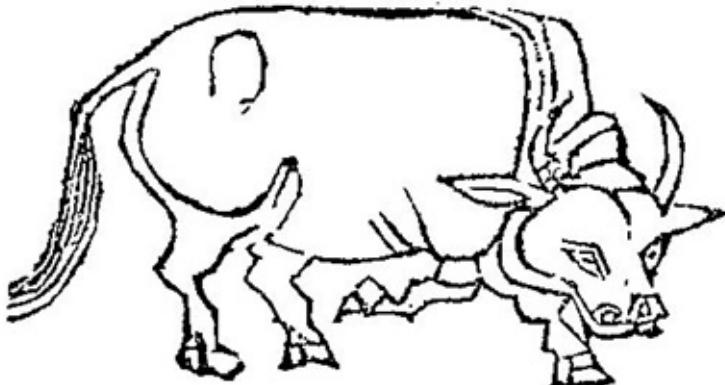
흰 소가 머리가 누런 것을 우왕(牛王)이라 하는데 이 소를 기르면 주인으로 하여금 부귀를 가져다주고 자손에게도 좋으며, 가축이 번성하고, 소가 많고, 2000석의 대두를 얻을 식상(食相)이다.

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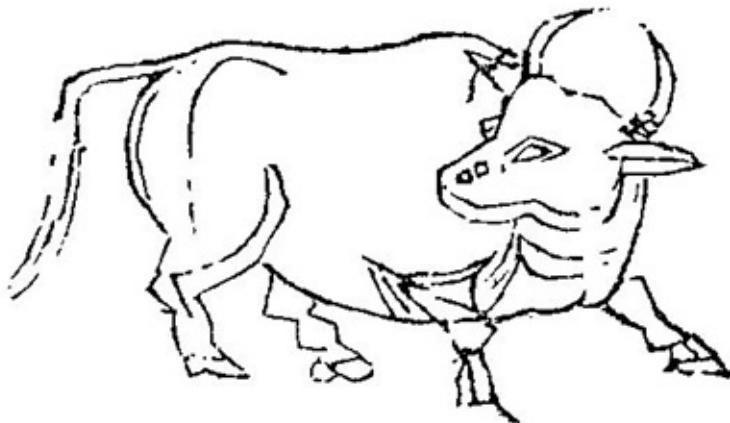
青牛頭黃·脚黃·角白者, 名曰黃幡, 若有養之, 令其家所作不遂不吉.

푸른 소의 머리가 누렇고, 다리가 누렇고, 뿔이 흰 것을 황반(黃幡)이라 하는데
이 소를 기르면 집안에서 되는 일이 없고 길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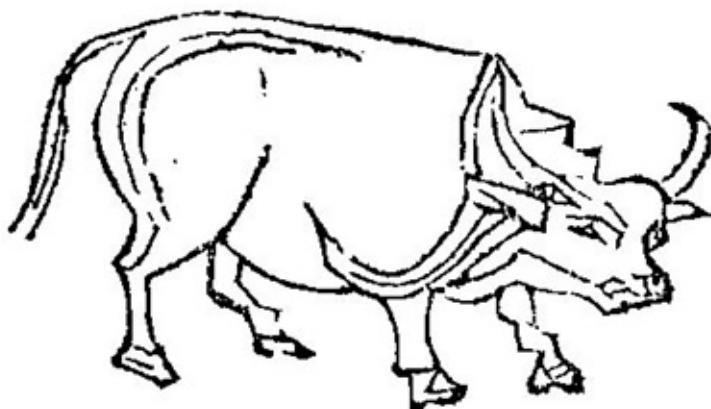
牛角間相去一尺者, 名曰龍門, 牛中王也. 若有此相者, 養之, 宜六畜益人口, 大吉利.

소 뿔의 간격이 1척(尺)정도 떨어진 것을 용문(龍門)이라 하는데 소 중에 왕이
다. 이런 모습의 소가 있어 기르게 되면 가축에게 좋고 사람에게도 좋으며, 크
게 길하고 이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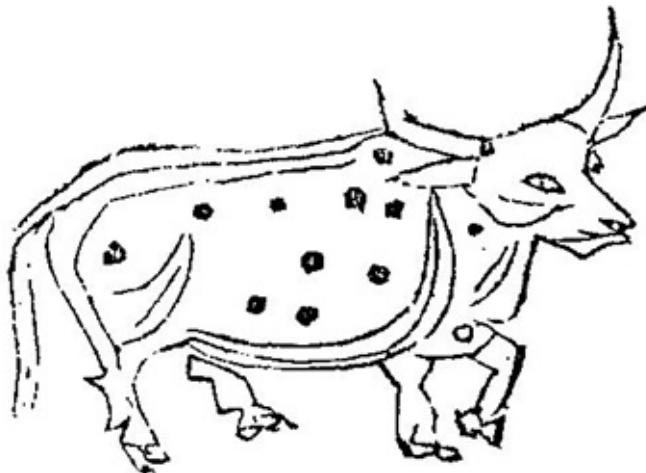
青牛·黑牛·离牛，總有額上一苔黃者，養之，主人多喜慶事，宜六畜，招錢財，大吉利也。

푸른소·검은소·검붉은소 모두 이마 위에 누런 태가 있는 것을 기르면 주인은 기쁨과 경사가 많고, 가축에게 좋으며, 재산을 불러오니 크게 길하고 이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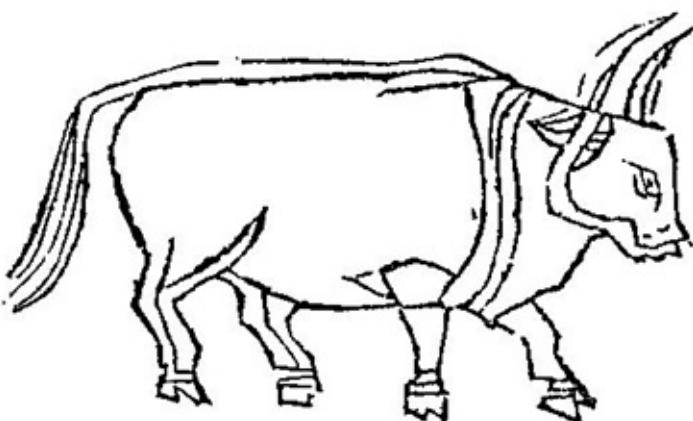
黃牛·黑牛，當脊背上一條白者，名曰蒿脊，主人出孝順男女，於家大吉。

누런소·검은소가 등마루 위에 한 줄기 흰 줄이 있는 것을 호척(蒿脊)이라 하는데, 주인은 효성스럽고 잘 따르는 자식을 낳게 되니 집안에 크게 길하다.



牛有鹿班者，養之，令主人家內所作不遂，田蠶不成，切不得養之。

소가 사슴과 같은 반점이 있는 것을 기르면 주인의 집안에 되는 일이 없고, 농사와 양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절대로 키워서는 안된다.



黃牛若當胸前一苔白，如手掌許大者，是相之牛養之，宜人口大吉利。

누런 소의 가슴팍에 흰 태가 손바닥만하게 하나 있는데, 이 소를 보아 기르면
식구들에게 크게 길하고 이롭다.

2.1.7. 溫疫門 | 온역문

治瘴疫方 | 장역(瘴疫)을 치료하는 처방

石菖蒲·淡竹葉·葛粉·鬱金·荳豆·蒼朮.

석창포·담죽엽·갈분·울금·녹두·창출.

右各等分, 碾爲細末, 每服一兩, 芭蕉自然汁三升, 入蜂密一兩, 幷黃蠟二錢, 重調灌之, 未解再服. 如熱極, 加大黃. 鼻頭無汗, 加麻黃. 鼻口出血, 加蒲黃. 此藥用蒼朮·石菖蒲之義, 恐他藥大冷欲, 此二藥以製衆藥, 而又通氣也

이상의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멧돌에 곱게 가루낸다. 1냥씩 파초(자연즙을 낸 것) 3되, 꿀 1냥과 황랍 2냥을 넣고 섞어서 먹이는데, 낫지 않으면 다시 먹인다. 열이 심하면 대황을 더한다. 코끝에서 땀이 나지 않으면 마황을 더한다. 코와 입에서 피가 나오면 포황을 더한다. 이 약에서 창출과 석창포를 쓰는 의미는 아마도 다른 약이 매우 차갑게 하는데, 이 약은 여러 약미들을 제어하면서 기를 통하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又方

다른 처방

用眞茶二兩末, 以水五升, 和調, 灌口, 飼水午後.

좋은 차 2냥을 가루내어 물 5되와 섞어 먹인 다음 물은 오후에 먹인다.

又方

다른 처방

人蔘細末二兩, 水五升, 煮候溫, 灌之.

인삼(곱게 가루낸 것) 2냥을 물 5되에 넣고 끓여 따뜻해지면 먹인다.

又方

다른 처방

於欄中燒安息香及蒼朮, 以病牛鼻吸其香, 立止.

울타리에서 안식향과 창출을 태워 병든 소가 그 향을 맡게 하면 곧 멎는다.

又方

다른 처방

十二月內收兔頭燒灰, 和水, 灌之.

12월에 잡은 토끼의 대가리를 태운 재를 물에 타서 먹인다.

又方

다른 처방

臘月糟(一大升), 茯苓(四兩末), 菖蒲(二兩末), 地黃汁(一升), 醋(半升), 大黃末(二兩).

납월조 1큰되, 복령 4냥(가루낸 것), 창포 2냥(가루낸 것), 지황즙 1되, 식초 반되, 대황가루 2냥.

右和小便一大升, 灌之, 脇日一灌, 五度卽止. 仍鍼鼻毛際深一分許, 血出差.

이상의 약미들을 소변 1큰되에 타서 먹이고, 하루걸러 한 번 먹이는데 다섯 번 이면 곧 멎는다. 곧 코와 텔 사이를 침으로 깊이 1푼 정도 놓아 피를 빼내면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牛有溫疫病, 先吐涎不止.

소가 온역병(溫疫病)이 있으면 우선 거품을 계속 토해낸다.

取香墨研汁及藍汁各三合, 石灰一合, 以酒半升相和, 灌之.

향묵(갈아 즙을 낸 것)과 남즙 각 3홉, 석회 1홉을 술 반 되에 타서 먹인다.

又方

다른 처방

療牛病後腸結.

소가 병을 앓은 뒤에 생긴 장결(腸結)을 치료한다.

白米二升, 浸一宿研汁, 入生油半升, 相和, 灌之差.

백미 2되를 하루동안 담갔다가 갈아서 즙을 내고 기름 반 되와 섞어 먹이면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治馬牛時疫薰法.

말이나 소의 계절성 전염병을 치료하는 방법

白朮·藜蘆·芎藭·細辛·鬼臼·菖蒲(各二兩).

백출·여로·궁궁·세신·귀구·창포 각 2냥.

右藥六味等分, 麻擣, 以火燒薰兩鼻, 令煙入, 卽差.

이상의 6가지 약미들을 같은 양으로 하여 거칠게 찔어 불에 태워 양쪽 코에 훈증하는데, 연기가 코로 들어가게 되면 곧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治牛有卒疫, 動頭打勒.

소가 갑작스런 역질로 머리를 흔들고 굴레를 치는 것을 치료한다.

巴豆兩介去皮(如無用大黃五錢), 撣爲末, 以生油一兩, 淡醬水半升, 灌立可.

파두 2개(껍질을 제거한 것)(만약 없으면 대황 5돈을 쓴다.)를 찧어 가루내고

기름 1냥, 묽은 간장 반 되와 섞어 먹이면 좋다.

又方

다른 처방

治鬼氣身戰出汗, 口鼻冷方.

귀기가 들어 온 몸이 떨리고 땀이 나며 입과 코가 찬 것을 치료하는 처방.

桃柳心皮各一握, 以水煎候冷, 灌之, 卽差.

복숭아와 버드나무의 속껍질 각 1줌을 물에 넣고 달여 식힌 다음 먹이면 곧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溫疫初發時

온역이 처음 발생했을 때.

兩角內陷中, 以針割皮, 灸三七壯.

양 뿔 안쪽의 함몰된 곳의 살갗을 침으로 째고 뜰을 21장 뜯다.

2.1.8. 眼病門 | 안병문

治牛忽有白膜方 | 소가 갑자기 눈에 백막(白膜)이 생긴 것을 치료하는 처방

用炒鹽及竹節燒灰各一錢, 和貼膜上, 盡膜爲度, 卽明快.

볶은 소금과 대나무마디 태운 재 각 1냥을 섞어 백막 위에 붙이는데, 막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면 곧 밝아진다.

療牛眼睛翻及熱膜方 | 소의 눈동자가 뒤집어지고 막이 뜨거워진 것을 치료하는 처방

先以生密點眼中, 經一宿後, 取烏賊魚骨, 點之差.

우선 생끌을 눈 속에 점안하고, 하룻밤 지나서 오징어뼈를 붙이면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皂莢少許細末, 吹鼻中眼正.

조협 약간을 곱게 가루내어 콧속에 불어넣어주면 눈이 바로 잡힌다.

又方

다른 처방

治牛眼中淚出自白膜.

눈 속에서 눈물이 나오고 백막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黃丹研, 盛於竹箇¹, 吹之.

황단을 갈아 죽통에 가득 채운 다음 불어넣는다.

1. 箇 :《조선우마의방》에는 ‘箇’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2.1.9. 鼻病門 | 비병문

療牛頻起臥, 鼻無津液方 | 소가 자주 일어났다 누웠다 하고, 코에 진액이 없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凡牛鼻上無津液者, 耳又到垂, 因食着也.

| 코에 진액이 없는 것은 귀 또한 늘어지는데, 이는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地膚草·茅根各一把, 水一斗, 煎五升, 灌口差.

| 지부초·모근 각 1줌씩을 물 1斗에 넣고 달여 5되가 되었을 때 먹으면 낫는다.

又方

| 다른 처방

鼻無津液者, 又耳不到垂, 雖起立不行者, 腎家病極.

| 코에 진액이 없고 귀는 늘어지지 않았지만 일어서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신(腎)에 극심한 병이 있는 것이다.

先灌鹽湯一升, 好酒一升, 細切葱白一把, 同煎三五沸, 灌之. 如不差, 更灌. 血轉胞者, 其病難治.

| 우선 끓인 소금물 1되를 먹이고, 좋은 술 1되, 총백(잘게 썰은 것) 1줌을 끓여 3~5번 끓어오르면 먹인다. 만약 낫지 않으면 다시 먹인다. 혈전포(血轉胞)의 경우 그 병은 치료하기 어렵다.

治鼻脹方 | 코가 부어오른 것을 치료하는 처방

釀醋一盞, 灌耳中, 立差.

진한 식초 1잔을 귀 속에 부어주면 곧 낫는다.

2.1.10. 口舌病門 | 구설병문

療牛口舌乾方 | 소의 입과 혀가 마른 것을 치료하는 처방

赤石脂(一兩), 荳蔻(兩介).

적석지 1냥, 두구 2개.

右燒灰, 酒一升, 和灌之.

이상의 약미들을 태워 재를 내고 술 1되에 타서 먹인다.

又方

다른 처방

牛若不食水草, 爲舌根病.

소가 물과 풀을 먹지 못하는 것은 혀뿌리에 병이 있기 때문이다.

先於舌根下, 三針後, 舌尖下一針, 暖水洗去血, 鹽揩過差.

우선 혀뿌리 아래에 침을 세 번 놓은 뒤에 혀 끝에 침을 한 번 놓고, 따뜻한 물로 씻어 피를 제거한 다음 소금을 바르면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或舌底有瘡錢許大, 向上欲透者.

혹 혀바닥에 동전만한 창이 생겨 위로 뚫고 나오려 할 경우.

狗糞燒灰, 滿填瘡內, 兩隻火飭, 替烙上差.

개똥을 태원 재를 창 속에 가득 넣고 부젓가락 두 짝으로 번갈아가며 지지면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療牛忽口中頻頻吐糞.

소가 갑자기 입 속에서 자주 똥을 토하는 것을 치료한다.

鬼木柘酒一升, 煎三沸, 候冷, 灌之差.

귀목자주 1되를 달여 3번 끓어오르면 식혔다가 먹이면 낫는다.

2.1.11. 咽喉病門 | 인후병문

療牛因¹喉病控嗽方 | 소가 목구멍에 병이 생겨 기침하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鹽(一兩), 鼓汁(一升), 葱(一握切), 小便(一升).

소금 1냥, 두릅 1되, 파 1줌(썬 것), 소변 1되.

右件竝和, 灌之差.

이상의 약미들을 모두 섞어 먹으면 낫는다.

治牛纏喉, 喉中時時抽鋸聲方 | 소가 전후(纏喉)로 목구멍 속에서 때때로 톱쓰는 소리가 나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寒水石(一兩), 生地黃(八箋), 滑石·朴消·鹽(各一兩), 米泔(二升).

한수석 1냥, 생지황 8돈, 활석·박초·소금 각 1냥, 쌀뜨물 2되.

右同, 煎三沸, 候冷, 灌之.

이상의 약미들을 함께 달여 3번 끓어오르면 식혔다가 먹인다.

治牛堅硬物着喉方 | 소의 목고멍에 단단한 것이 걸린 것을 치료하는 처방

皂莢末一合, 吹鼻中, 更於尾亭骨下, 着鞋底, 拍五六七下, 其硬物下.

조협가루 1홉을 콧속에 불어넣고, 다시 미정골(尾亭骨) 아래에 신바닥을 대고 5~7번 내려치면 딱딱한 것이 내려간다.

治牛喫草不快, 口內如欄隔方 | 소가 풀을 잘 먹지 못하고, 입 속이 난간과 같이 막힌 것을 치료하는 처방

蘿蔔子·麻子同研汁一升, 油三兩, 相和, 灌之.

| 나복자와 삼끼를 함께 간 즙 1되와 기름 3냥을 섞어 먹인다.

- |¹. 因 : 《조선우마의방》에는 ‘咽’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2.1.12. 心病門 | 심병문

療牛毛焦, 不食水草, 是心臟黃病. | 소의 털이 마르고 물과 풀을 먹지 못하는 심장에 생긴 황병(黃病)을 치료한다.

白芷·黃蓮(如無用生地黃)·大黃(各兩¹).

백지·황련(없으면 생지황을 쓴다.)·대황 각 1냥.

右擣爲末, 又鷄子二介, 酒一升, 蘿蔔子汁三合, 相和, 灌之差.

이상의 약미들을 짚어 가루내고 계란 2개, 술 1되, 나복자즙 3홉과 섞어 먹이면 낫는다.

療牛水黃方 | 소의 수황병을 치료하는 처방

卽須先針腫處破, 鹽·麪及大黃末, 相和, 塗針處取差.

우선 부은 곳을 침으로 터뜨리고, 소금·밀가루와 대황가루를 섞어 침을 놓은 곳에 바르면 낫는다.

療牛心間壅熱, 頻頻卷頭而轉風毒方 | 소의 심 사이에 열이 막혀 자주 머리를 들었다 돌리는 풍독을 치료하는 처방

先烙心脾骨, 後烙額上旋毛處. 十日前易理, 十日後難.

우선 심비골(心脾骨)을 지진 뒤에 머리 위의 가마가 있는 곳을 지진다. 열흘 전 이면 다스리기 쉬우나 열흘 이후에는 어렵다.

1. 各兩 : 《조선우마의방》에는 ‘各一兩’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조선우마의방》을 따랐다. ↵

2.1.13. 肺病門 | 폐병문

療牛多時膊冷方(牛肺病呼爲冷痰) | 소가 우랫동안 어깨가 차가운 것을 치료하는 처방(소의 폐병을 냉담(冷痰)이라 한다.)

蠶沙(二升), 柳艸糞(三升), 鹽(半升).

잠사 2되, 버드나무벌레의 똥 3되, 소금 반 되.

右三味竝和, 蒸二時, 布袋盛, 却看冷熱得所, 置在前後膊上. 一日三上, 二日後, 取排風散一兩, 鹽半兩, 葱白十莖, 水五升, 煎取二升, 灌之, 取差.

이상의 3가지 약미를 4시간 정도 찐 다음 포대자루에 넣고 온도가 알맞을 때 앞뒤의 어깨에 놓는다. 하루 세 번 놓고, 이를 뒤에는 배풍산(排風散) 1냥, 소금 반 냥, 총백 10줄기를 물 5되에 넣고 달여 2되가 되었을 때 먹이면 낫는다.

2.1.14. 咳嗽門 | 해수문

治牛叱嗽方 | 소의 큰 기침을 치료하는 처방

榆白皮三兩, 水煮極滑熟, 取三升灌.

| 유백피 3냥을 물에 달여 매우 매끄럽게 익으면 3되를 먹인다.

又法

| 다른 방법

豉汁調鹽灌.

| 두시즙을 소금과 섞어 먹인다.

又方

| 다른 처방

鹽(一兩), 豉汁(一升), 葱白(一握), 小便(一升).

| 소금 1냥, 두시즙 1되, 총백 1줌, 소변 1되.

右和灌之, 易效.

| 이상의 약미들을 섞어 먹이면 쉽게 효과를 본다.

治牛肚反及嗽方 | 소가 배를 뒤집으며 기침하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取榆白皮, 水煮極投冷甚滑二升, 灌之, 卽差.

| 유백피를 물에 삶아 식힌 다음 매우 매끄러운 것 2되를 먹이면 곧 낫는다.

東人經驗治卒喘嗽 | 우리나라 사람이 경험한 갑작로런 기침을 치료하는 처방

薄紙蘸油, 以木筋推入喉中, 令自啗愈.

얇은 종이를 기름에 담갔다가 나무젓가락으로 목구멍 속에 밀어넣으면 저절로 기침이 낫는다.

2.1.15. 脹病門 | 창병문

治牛氣脹方 | 소의 기창(氣脹)을 치료하는 처방

淨水洗汗襪取汁一升, 好醋半升, 和灌之愈.

깨끗한 물로 땀이 뱉 버선을 빨아 낸 즙 1되와 좋은 식초 반 되를 섞어 먹이면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燕屎一合, 水調, 灌之, 卽愈.

제비똥 1홉을 물에 타서 먹이면 곧 낫는다.

治牛眼骨後氣脹方 | 소가 안골(眼骨)을 앓은 뒤에 기창이 된 것을 치료하는 처방

季肋後三山骨前宛中虛處, 以針寬刺, 用竹筒插之氣出, 則愈.

맨 끝 갈비뼈 뒤의 삼산골(三山骨) 앞 빈 곳에 침을 찔러 넣고 죽통을 삽입하여 기를 빼내면 낫는다.

療牛身多汗出及起臥, 見人倒行作聲者, 是膽脹 | 소의 몸에서 땀이 자주 나며 일어 섰다 누워다 하고, 사람을 보면 쓰러져 소리를 내는 담창(膽脹)을 치료하는 처방

桑黃二兩, 入水三升, 煎取一升半, 灌之.

상황 2냥을 물 3되에 넣고 달여 1되 반이 되면 먹인다.

療牛顛走, 逢物卽觸方(牛若病顛風, 自於膽脹也) | 소가 미친 듯이 달리고 무언가 보면 들이받으려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소가 전풍(顛風)이 있는 것은 담창에서 온 것이다.)

大黃·黃蓮(各一兩).

대황·황련 각 1냥.

右爲末, 鷄子清一介, 酒一升, 相和, 灌差.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고 계란흰자 1개, 술 1되와 섞어 먹이면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治初發時走趁鷄群狗隊.

발생한 초기에 닭들이나 개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排風散(一兩), 阿膠(半兩), 槐白皮(半兩).

배풍산 1냥, 아교 반 냥, 괴백피 반 냥.

右件水三升, 煎至一升半, 分爲三服灌之.

이상의 약미들을 물 3되에 넣고 달여 1되 반이 되면 세 번에 나누어 먹인다.

治牛腹脹欲死方 | 소의 배가 부어올라 죽으려 하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以木幹開口, 針刺其喉, 令黑血出, 則愈.

나뭇가지로 입을 열고 목구멍에 침을 놓아 검은 피가 나오게 하면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取婦人陰毛, 草裹與食, 卽愈.

여성의 음모를 풀에 싸서 먹이면 곧 낫는다.

又方

다른 처방

研麻子和水取汁, 令溫擘口灌之, 五六升許. 此藥亦治食生豆, 腹脹垂死者, 大良.

삼씨를 갈아 물에 탄 즙을 따뜻하게 하여 입을 벌리고 5~6되 정도 먹인다. 이 약은 또한 생콩을 먹고 배가 부어올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용하면 매우 좋다.

治牛有喫着生豆鼓脹方 | 소가 생콩을 먹고 고창(鼓脹)이 된 것을 치료하는 처방

取舊巾子一介, 燒灰, 酒一升, 煎候冷, 相和, 灌之, 立差.

현 수건 1개를 태워 재를 내고, 술 1되 끓여 식었을 때 섞어서 먹이면 곧 낫는다.

2.1.16. 糞血門 附瀉痢 | 분혈문 - 부록 : 설사

療牛糞血方 | 소가 피똥을 누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石灰少許, 酒半升, 相和, 灌之差.

석회 약간과 술 반되를 섞어 먹이면 낫는다.

治牛有糞血不定者 | 소가 피똥을 일정하지 않게 누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伏龍肝(二兩竈下黃土), 酒一升.

복룡간 2냥(아궁이 아래에 있는 누런 흙이다.), 술 1되.

右同煎候冷, 灌之, 卽差.

이상의 약미들을 함께 달여 식었을 때 먹이면 곧 낫는다.

治牛瀉痢 | 소가 설사하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晚蠶沙(五升), 狼牙草(二斤).

만감사 5되, 낭아초 2근.

右水二斗, 煎取三升, 分三灌. 如人行五里, 再灌差.

이상의 약미들을 물 2말에 넣고 달여 3되가 되면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사람이 걷는 거리로 5리쯤 가는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먹이면 낫는다.

2.1.17. 尿血門 | 요혈문

治牛肚中生蛭方 | 소의 뱃속에 거머리가 있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以鹽苔脯啖之, 蟲出. 食苔牛倒草, 則噛死妙.

염태포(鹽苔脯)를 먹으면 충(蟲)이 나온다. 태를 먹은 소가 풀에 쓰러지면 깨 물어 죽이는 신묘한 효과가 있다.

治牛尿血方 | 소가 피오줌이 나오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當歸·紅花.

당귀·홍화.

右爲末, 酒煎待冷, 灌之.

이상의 약미들을 가루내어 술에 넣고 달여 식으면 먹인다.

2.1.18. 中惡門 附中暑 | 중약문 - 부록 : 중서

療牛着熱, 非時中惡方 | 소가 더위를 먹고 수시로 중악(中惡)을 일으키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漿水(一升), 鹽(一兩), 葱(一握細切), 酒(一升).

좁쌀죽 웃물 1되, 소금 1냥, 파 1줌(잘게 썬 것), 술 1되.

右相和灌之, 卽差. 如未差復灌.

이상의 약미들을 섞어 먹이면 곧 낫는다. 낫지 않으면 다시 먹인다.

新編牛醫方卷終¹

신편집성우의방 권 끝.

崇禎六年正月 日濟州開刊

승정 6년 정월 일 제주 개간.

¹. 新編牛醫方卷終 : 원문은 중약문의 나머지 처방과 목차에 있는 ‘疫病門·疥病門·產病門·蹄病門·雜病門’이 나오지 않고 끝나버린다. 《조선우마의방》의 경우 원문에 있지 않은 항목들의 내용 및 처방이 나온다. 한편, 《조선우마의방》의 끝부분은 다음과 같다. ‘萬曆八年庚辰三月日全州府開刊’ ↪

3.1. 해제

1. 저술, 간행 시기

방사량의 서문에서 “以成是編, 鑄梓周流, 樂與三韓, 廣開耳目”, “建文元年, 蒼龍己卯, 仲呂既望”이라 한 것을 보면, 서문을 지은 것은 1399년 음력 4월 16일, 초간 시기는 1399년 경으로 보이는데, 권근(權近)의 <향약제생집성방서(鄉藥濟生集成方序)>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예전에 《三和子鄉藥方》이 있었으나 너무 간요(簡要)하여서, 너무 소략한 것이 문제라고들 하였다. 지난번에 지금의 판문하(判門下)인 권중화(權仲和) 공이 서찬(徐贊)이라는 이에게 명하여 좀더 자료를 모아 《간이방(簡易方)》을 만들었으나, 그 책이 아직 세상에 널리 퍼지지는 못하였다. …… 좌정승(左政丞)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과 우정승(右政丞) 상락백(上洛伯) 김사형(金士衡)이 성상(聖上)의 뜻을 본받아, 서울에다 제생원(濟生院)을 설치하고 노비를 두어 향약(鄉藥)을 채취하도록 하고 약 조제가 널리 퍼지도록 하여,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를 청하였는데, 중추(中樞) 김희선(金希善) 공이 그 일을 모두 관장하였다. 각 도(道)들에도 모두 의학원(醫學院)을 설치하고 교수(教授)를 보내서 방서(方書)대로 약을 쓰게 하여 길이 그 혜택을 받게 하였다¹. 그리고, 그 방서에 미비한 곳이 있을까 염려하여, 권공(權公)에게 특명관(特命官)과 약국관(藥局官)²을 보내 주어, 여러 방서들을 고찰하고 우리 나라에서 경험한 것들도 뽑아 문류(門類)를 나누어 편찬하도록 하였으니, 이름하여 《향약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이며, 《우마의방(牛馬醫方)》도 덧붙였다. 김희선 공이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있으면서 인부를 모집해 판각하여 널리 전해지도록 하였다. 모두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들에, 이미 확인이 된 의술들이니, 여기에 능통하다면 병 하나에 약 하나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나지도 않고, 얻기도 어려운 약물들이 필요하겠는가³.”

이를 보면 이 책이 《향약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에 붙어서, 당시 강원도 관찰사였던 김희선(金希善)의 주도하에 간행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간 이후 전주·의주·제주 등 각지에서 중간되었으며, 1634년(인조 12)에는 훈련도감활자(訓鍊都監活字)의 소활자로 인출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江戶時代)에 전주판(1580년판)을 대본으로 하여 복간되었고, 1939년 만주 심양(瀋陽) 췌문재(萃文齋)에서는 제주판(1633년판)을 대본으로 하여 영인되기도 하였다. 전주판은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고, 갑진활자본(甲辰活字本)은 황의돈가(黃義敦家)에서 소장하고 있다⁵. 이후 중국에서는 郭光紀 등이 1939년 췌문재 판본을 가지고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교석(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校釋)》이라는 교감·번역본을 간행하였다. 农业出版社에서 출간된 이 판본에는 췌문재 판에 빠져 있는 일부 내용이 그대로 빠져 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감과 번역 및 안어(按語)를 보여 주고 있다.

2. 편찬 배경

과거 시대, 말과 소는 전투와 교통, 식량과 농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물이었기에, 당연히 이와 관련된 치료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말의 경우, 고구려 당시(AD 595년)에 승려 惠慈가 일본에 말 치료술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조선조 이전의 마의술에 대한 기록은 드물다. 고려 시대 말에 가면 중국의 마의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체적인 의학 경험의 누적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에 비하여 마의술을 행할 수 있는 의료 지식의 유통과 인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잘 달리는 말은 세상이 다 원하는 바이고, 전쟁 준비는 나라가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이 필요성은 ‘기갈(飢渴)’이란 말로도 비유하기에 부족하다. …… 병이 나면 결국 무식한 천것들의 손에 맡겨지니, 낫는 것은 여행일 뿐 의술 덕이 아니다. 편의로 ‘수의

(獸醫)'라고는 하지만, 경락도 모르는데 경혈과 약성을 잘 알아서 병에 적용하기를 바라겠는가. 아아! 엉터리 침과 멋대로 쓰는 약에 귀한 짐승을 자주 죽이니, 단순히 죽이는 것뿐이 아니라 재산의 손실이기도 하다⁶.”

소에는 과거에도 여러 용도가 있었지만, 특히 농경에서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중국에서는 이미 당률(唐律)에서부터 소의 도축을 금지하였고, 조선 역시 국초부터 삼금(三禁 : 牛禁, 酒禁, 松禁)의 하나로 소의 도축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 농업의 생산성에 소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도축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였으니, 치료를 위한 의술 또한 필요하였다. 《신편우의방(新編牛醫方)》의 저자 조준, 김사형은 조선 초기의 소 도축 금지 법령을 만드는 동시에 의학적 치료에도 관심을 둔 인물들로,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좌정승 평양백 조준과 우정승 상락백 김사형은 성상(聖上)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개국 초기에 이미 사적인 도살(屠殺)을 엄히 금하였는데,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不忍之心}이 법령{甲令}에까지 드러났으니, 인(仁)의 지극함이요 의(義)의 극진함이라 할 만하다. 의학적 치료가 없다면, 그냥 선함만 가지고서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래서 예천백 권중화, 서원군 한상경 등과 함께 (우)의방을 찬집하였다. 이에 고금의 것들 중에 효과가 뛰어난 경험방들을 골라 이 책을 완성하였다⁷.

여러 가지 현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수의서들과 그간 국내에서 사용되어 왔던 기술들(東人已試之術)을 모아 책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후, 세종실록에 “상정소(詳定所)에서 여러 학(學)의 취재(取才)에 있어 경서(經書)와 여러 기예(技藝)의 수목(數目)에 대하여 아뢰기를, 의학(醫學) : 《직지맥(直指脈)》、《찬도맥(纂圖脈)》 《백일선방(百一選方)》、《천금익방(千金翼方)》、《우마의방(牛馬醫方)》”이라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세종대에 의학 취재에도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3. 저자

이 책의 저자는 총 4명이다. 좌정승(左政丞) 평양백(平壤伯)⁹인 조준(趙浚), 우정승(右政丞) 상락백(上洛伯)인 김사형(金士衡), 예천백(醴泉伯) 권중화(權仲和), 서원군(西原君) 한상경(韓尙敬) 모두 당대의 쟁쟁한 정치가들이다. 이는 《향약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의 저자들 중에 김희선(金希善)이 빠지고 한상경이 들어간 형국인데, 권근의 〈향약제생집성방서(鄉藥濟生集成方序)〉에 따르면 원래 본서가 《향약제생집성방》에 붙어 있었고, 두 책 모두 간행은 김희선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을 참고할 수 있겠다.

이중 조준과 김사형은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함께 대간(大諫)을 지내었고, 조선 초에는 함께 재상의 지위에 올랐다. 권중화와 한상경도 모두 고려조에 벼슬에 올라 조준과 김사형 이후 재상의 지위까지 올랐던 이들로서, 조선 초기의 최고위급 관료들이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권중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 언급했던 권근(權近)의 〈향약제생집성방서(鄉藥濟生集成方序)〉를 보면, “지난번에 지금의 판문하(判門下)인 권중화(權仲和) 공이 서찬(徐贊)이라는 이에게 명하여 좀더 자료를 모아 《간이방(簡易方)》을 만들었으나 …… 권공(權公)에게 특명관(特命官)과 약국관(藥局官)을 보내 주어, 여러 방서들을 고찰하고 우리 나라에서 경험한 것들도 뽑아 문류(門類)를 나누어 편찬하도록 하였으니”라는 언급이 있어, 권중화는 다른 저자들과 달리 《간이방》과 《향약제생집성방》 등 의서 편찬에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경험자임을 알 수 있다.

4. 구성과 내용

번역시 저본으로 사용하였던 췌문재(萃文齋)본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¹⁰. 1) 목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점통론(點痛論)〉, 〈강아론(薑芽論)〉, 〈혼정충론(混睛蟲論)〉, 〈호골파과론(胡骨把膀論)〉, 〈찰구색론(察口色論)〉 등은 목록에 나오지 않는다. 2) 일부 편자는 타당성이 없다. 〈방혈법(放血法)〉이 〈상마첩법(相馬捷法)〉 앞에 나오고, 〈점통론(點痛論)〉과 〈강아론(薑芽論)〉이 책 머리에 나온다. 3) 《新編牛醫方》 痘病門·疥病門·產病門·蹄病門·雜病門은 목록에만 있고

내용이 없다. 이는 췌문재본이 1633년 제주 간행본을 영인한 것이기 때문인데, 1580년 전주 간행본을 복간한 일본의 『조선우마의방(朝鮮牛馬醫方)』에는 이 내용이 모두 있다. 아래의 분석은 이러한 전제하에, 췌문재본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책은 원래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과 『신편우의방(新編牛醫方)』이 묶여진 책이기에, 서문도 각기 따로 있다. 두 서적을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I. 『新編集成馬醫方』

『新編集成馬醫方』은 서문에서 “‘백락(伯樂)의 경(經)’을 날줄로, ‘원나라의 결(訣)’을 씨줄로 하였고, 여러 책에서 효험이 있을만한 처방들을 모았으며, 우리나라에서 해 보았던 기술들을 찾아 이 책을 엮었다¹¹”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백락의 경’이란 『백락침경(伯樂鍼經)』을 말한다. ‘원나라의 결(訣)’이란 원대(元代) 유일의 수의학 전문 서적¹²인 『전기통현론(瘡驥通玄論)』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뚜렷할 정도로 일치도가 높지 않아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듯하다. 王成 등은 「中兽医学东传(日本、韩国)初探¹³」에서 이 책의 내용이 『司牧安驥集』에서 유래한 것이 많다고 평하였다.

『新編集成馬醫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점통론(點痛論) : 일종의 망진법(望診法)에 대한 서술이다. 말은 사람과 달리 자신의 증상을 말하지 못하기에 말이 나타내는 행동의 이상을 토대로 어디가 아픈지를 짐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요령을 서술하였다.

강아론(薑芽論) : 강아(薑芽)라는 질환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新編集成馬醫方 牛醫方校釋』에서는 이 질환을 말의 경련성 산통으로 보고, 코에 돌아나는 것이나 병리 일부를 『發蒙纂要』에서 시작된 오류로 판단하였으니 참고할 일이다.

흔정충론(混睛蟲論) : 말의 눈에 생기는 기생충과 그에 대한 외과적 치료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호골파과론(胡骨把胯論) : 비대해진 말에 생기는 운동 마비 질환인 호골파과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찰구색론(察口色論) : 입 안의 색을 통해 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망진법에 대한 기술이다.

십팔대병(十八大病) : 18종의 병에 대하여 병기, 병인, 주증상 등을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다.

양마상도(良馬相圖) : 좋은 말의 특징적 모습을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양마선모지도(良馬旋毛之圖) : 말의 가마{旋毛} 위치와 종류를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상모선가(相毛旋歌) : 가마 형태로 길흉을 예측하는 내용인데, 의학적이라기보다는 점술적 성격이 강하다.

수요(壽夭) : 말의 수명을 예측하는 내용인데, 의학적이라기보다는 점술적 성격이 강하다.

변노마형상도(辨駑馬形狀圖) : 좋지 않은 말의 형태를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치상지도(齒相之圖) : 치아에 따른 말의 연령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였고, 치아 상태에 따른 말의 질을 서술하였다.

방혈법(放血法) : 진(秦)나라 목공(穆公)과 백락(伯樂)의 대화 형식을 통해, 봄에 침자출혈(鍼刺出血)하는 것의 이치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상마첩법(相馬捷法) : 말의 형태를 보는 상마법(相馬法)에 대한 정리이다.

양마법(養馬法) : 말을 기르는 법에 대한 서술이다.

사부마령불투지법(飼父馬令不鬪之法) : 종마{父馬}들을 함께 기를 때 싸우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서술이다.

사정마령경실지법(飼征馬令硬實之法) : 군용마를 튼튼하게 키우는 요령에 대한 서술이다.

동인경험목양법(東人經驗牧養法) : 우리나라에서 행해져왔던 말 기르는 법에 대한 기술이다.

오로(五勞) : 근로(筋勞)·골로(骨勞)·피로(皮勞)·기로(氣勞)·혈로(血勞)의 오로(五勞)에 대한 서술이다.

칠상(七傷) : 한상(寒傷)·열상(熱傷)·수상(水傷)·기상(飢傷)·포상(飽傷)·비상(肥傷)·주상(走傷)의 칠상(七傷)에 대한 서술이다.

삼십사마병상도병약(三十四馬病狀圖并藥) : 이 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당나라 때의 《사목안기집(司牧安驥集)》의 <三十六起臥圖歌>의 내용을 옮겼으나, 제주 간행본을 영인한 체문재본에서는 <三十五吃着生料起臥>와 <三十六邪病起臥>가 빠졌고, 전주본을 복간한 《조선우마의방》에는 이 내용이 모두 있다. 원서에는 제목이 빠져 있지만, 책 첫머리의 목록에서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병에 걸린 말의 그림을 싣고, 가결과 주석을 달아 놓았다. 병에 따른 말의 행동 양태와 그 원인, 치료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진후마병맥(診候馬病脈) : 말의 맥진(脈診)에 대한 내용이다.

골명지도(骨名之圖) : 말의 뼈 이름을 그림과 함께 기록하였다.

혈명지도(穴名之圖) : 말의 경혈명(經穴名)을 그림과 함께 기록하였다.

백락침경(伯樂鍼經) : 침을 놓는 방법, 경혈의 위치와 주치증, 자침 금기 등을 서술하였다. 원래 《사목안기집》에 처음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백락의 이름을 가탁한 것이다.

혈기일(血忌日), 혈지일(血支日), 마본명월(馬本命月) : 침을 놓을 때의 주의 사항과, 금기일 등에 대한 기술이다. 금기일과 관련하여서는 미신적인 면이 있다.

육음육양도(六陽圖六陰圖) : 각 경락의 대표적 혈위의 위치를 그림에 지적하고, 그 혈이 소속된 경락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여 경락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오장(五臟) 논(論).부(部) : 논(論)에서는 오장의 생리, 병리를 가결과 함께 정리하였고, 부(部)에서는 각 장부에 대한 여러 처방을 기록하였다.

풍문(風門)~잡병문(雜病門) : 대개 각 질환들에 대한 별다른 기술 없이 다양한 처방들을 나열하였으나, 오장한가(五臟汗歌)만은 가결 형식으로 병의 증상과 처방을 기술하였다.

II. 《新編牛醫方》

상우법(相牛法) : 중국의 상우법(相牛法) 서적인 《상우경(相牛經)》을 인용해가면서, 소의 외형을 감정하는 요령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일부 미신적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실용적인 부분이 많다.

선택조우창길지론(選擇造牛廠吉地論) : 외양간을 어떤 곳에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를 논하고 있다.

양우잡기론(養牛雜忌論) : 소를 키울 때의 잡다한 금기를 이야기하였다.

개조우창리편년월일론(蓋造牛廠利便年月日論) : 외양간을 만드는 시기의 길흉을 따지는 내용이다.

상우형상급모색론(相牛形狀及毛色論) : 소의 형상과 털의 색 등이 기르는 사람에게 미치는 길흉을 그림과 함께 언급하였으나, 미신적 내용에 가깝다.

온역문(溫疫門)~잡병문(雜病門) : 각 질환들에 따라 처방들을 모아 두었다.

1. 혜택을 받게 하였다 :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29일 을해 5번째 기사

1393년 명 홍무(洪武) 1393년 명 홍무(洪武) 26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 전라도 안렴사(按廉使) 김희선(金希善)이 도평의사사에 보고하였다. "외방(外方)에는 의약(醫藥)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원컨대, 각도에 의학 교수(醫學教授) 한 사람을 보내어 계수관(界首官) 마다 하나의 의원(醫院)을 설치하고, 양반의 자제(子弟)들을 뽑아 모아 생도(生徒)로 삼고, 그 글을 알며 조심성 있고 온후한 사람을 뽑아 교도(教導)로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향약혜민경험방(鄉藥惠民經驗方)》을 익히게 하고, 교수관(教授官)은 두루 다니면서 설명 권장하고, 약을 채취(採取)하는 정부(丁夫)를 정속(定屬)시켜 때때로 약재(藥材)를 채취하여 처방(處方)에 따라 제조하여,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즉시 구료(救療)하게 하소서."(全羅道按廉使金希善報都評議使司曰: "外方無通曉醫藥者, 乞於各道遣醫學教授一員。每於界首官, 置一醫院, 選聚兩班子弟, 以爲生徒, 擇其識字謹厚者, 定爲教導, 令習《鄉藥惠民經驗方》, 教授官周行講勸, 定屬採藥丁夫, 以時採取藥材, 依方劑造, 有得病者, 隨卽救療。") ←

2. 약국관(藥局官) : 약국관(藥局官) : 내의원(內醫院)의 관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약물들이 필요하겠는가 : 嘗有三和子鄉藥方。頗爲簡要。論者猶病其略。曩日今判門下權公仲和。命徐贊者。尤加蒐輯。著簡易方。其書尚未盛行于世。……左政丞平壤伯趙公浚, 右政丞上洛伯金公士衡。上體聖心。請於國中置濟生院。給之奴婢。採取鄉藥。劑和廣施。以便於民。中樞金公希善。悉掌其事。諸道亦置醫學院。分遣教授。施藥如方。俾其永賴。又患其方有所未備。迺與權公特命官藥局官。更考諸方。又採東人經驗者。分門類編。名之曰鄉藥濟生集成方。附以牛馬醫方。而金中樞觀察江原。募工鋟梓。以廣其傳。皆易得之物。已驗之術也。苟精於此。則可能一病用一物。何待夫不產而難得者哉。 ←

4. 간행 : 《향약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이라 이름하고, 《우마의방(牛馬醫方)》을 부록(附錄)하였는데, 김 중추(金中樞)가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있을 때 공장(工匠)을 모아 인쇄하여 널리 전파하니(名之曰鄉藥濟生集

成方。附以牛馬醫方。而金中樞觀察江原。募工鋟梓。以廣其傳。) ←

5. 소장하고 있다 : 이 부분은 『한국의학사』(김두종)의 기술을 따랐으며, 각 도서관 소장 상태를 일부 확인하였으나, 황의돈가의 소장 상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6. 손실이기도 하다 : 夫良駿之蹄, 世所同欲, 戎武之備, 國不可弛, 人之求之也, 飢渴不足喻也. 一有病萌, 遂委於無知賤隸之手, 其愈也, 幸耳非其巧也. 便稱之曰獸醫, 彼不知經孫絡, 敢望其明竈穴, 審藥性, 以適其病也耶. 嗚呼! 誣針妄藥, 幾喪奇毛, 非徒害命, 抑亦傷財. ←

7. 책을 완성하였다 : 左政丞平壤伯趙公浚, 右政丞上洛伯金公士衡, 體上至懷, 已於國初, 痛禁私宰, 不忍之心, 著之甲令, 可謂仁之至義之盡也. 苛失醫治, 徒善何裨. 乃與醴泉伯權公仲和, 西原君韓公尚敬等, 撰集醫方, 於是採古摭今, 鈞神摘驗, 以成是篇. ←

8. 확인할 수 있다 :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3월 18일 무오 2번째기사. “詳定所啓諸學取才經書諸藝數目 : 醫學:《直指脈》、《纂圖脈》.....《百一選方》、《千金翼方》、《牛馬醫方》” ←

9. 평양백(平壤伯) : 앞의 ‘평양’은 지명이고, ‘伯’은 작위를 말한다. 뒤의 3인도 모두 해당됨. ←

10. 다음과 같다 : 이 부분은 『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校釋』(郭光紀 등, 农业出版社, 1985년) p.2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11. 책을 엮었다 : 經以伯樂之經, 緯以元朝之訣, 摄諸書可效之方, 探東人已試之術, 以成是編. ←

13. 中兽医学东传(日本、韩国)初探 : 중국의 郭光紀 등이 교석한 『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校釋』에서는 『瘡驥通玄論』으로 보고 있으나, 명확치 않다. ←

12. 수의학 전문 서적 : 王成.李群.许剑琴.刘钟杰.徐跃松,<中兽医学东传(日

本、韩国)初探〉,《古今农业》2007年第3期, 108면. ↵

2.2. 일러두기

- 본서는 《신편집성마의방》과 《신편우의방》 두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 본문의 내용이 긴 경우 가독성을 위해 표시없이 임의로 개행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나 이체자는 가능한 정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濡 → 濡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기호가 사용되었다.
 - 《》 : 서적명
 - <> : 편명
 - ㊥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소주(小註)
 - {} : 음이 다른 한자어 병렬
 - 예시) 나쁘게 꼴을 먹이는 것 {惡芻}, 둘째 보통으로 꼴을 먹이는 것 {中芻},
셋째 좋게 꼴을 먹이는 것 {善芻}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 국역 신편집성마의방·신편우의방 新編集成馬醫方、新編牛醫方

원저자 : 김조준(趙浚)·김사형(金士衡)·권중화(權仲和)·한상경(韓尙敬)

국역 : 노성완·황재운

해제 : 이연희

편집 : 문진

발행인 : 권오민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8년 1월 31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들어 역자와 책의 방향을 논의한 이는 박상영이고, 판본을 조사·수집한 이는 오준호이며,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18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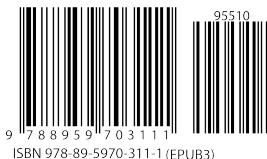
지원과제 : 《K18201》한의 고문헌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도구 개발

비매품/무료



ISBN 978-89-5970-312-8 (PDF)

비매품/무료



ISBN 978-89-5970-311-1 (EPUB3)

비매품/무료



ISBN 978-89-5970-313-5 (KCI)